

여성운동 길잡이를 위한 토론회

-민우회 회원 탐구를 중심으로

민우회원들은 누구일까?

지부와 본부에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민우회는 어떤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표 지부 및 본부 회원인터뷰 결과 발표

발제 박기남 (한국여성민우회 지역여성정책위원회 / 한림대 사회
조사연구소 연구교수)

민우회 회원들의 '구술'을 통해 짚어보는 민우회의 활동 방향

-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

일시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2시

장소 함께 일하는 재단 WT교육장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 목 차 □

발제

민우회 회원들의 ‘구술’을 통해 짚어보는 민우회의 활동 방향 -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 <박기남>	5
--	---

자료

2011 회원인터뷰 설문지	33
2011 한국여성민우회 지부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론 결과	37
2011 한국여성민우회 본부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론 결과	143
2011 한국여성민우회 지부간담회 자료 모음	187



민우회 회원들의 '구술'을 통해 짚어보는 민우회의 활동 방향

-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

박기남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교수/춘천여성민우회 운영위원)

<차례>

1. 머리말

2. 여성운동의 조건 변화 :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 1) 서구의 후기 근대적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특징
- 2) 자아 문화(Self- Culture)와 소비자 사회

3.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개인화 : 여성 현실과 법제도 간의 격차 심화

4.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개인화에 대한 여성의 불가피한 선택과 전략

- 1) 내 삶을 지지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 일관된 서사(narrative)의 절실함
- 2) 여성의 불완전한 또는 불가능한 개인화 : 세상의 중심으로서 '나'의 발견
 - (1) 여성의 자의식을 일깨우는 개인화
 - (2) 여성의 실질적 개인화와 여성운동 사이에서
- 3) 상담과 치유에 쫓히다 : 거대한 구조에 맞서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선택
- 4) 개인화를 넘어서 : 공적 이슈로서 젠더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민우회의 역할

5. 개인화 시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서의 민우회의 활동 방향

- 1) 여성들의 지혜 : 친밀성과 거리두기(성찰성), 다양성(개인성)의 인정
 - (1) 친밀성, 소통에 대한 욕구 : 여성문제의 개인화 경계
 - (2) 거리 두기, 성찰성의 회복 : 공부, 여행에 대한 강렬한 욕구
 - (3) 다양성은 개인화의 진정한 인정으로부터 출발
- 2) 여성민우회의 힘, 활동방향
 - (1)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욕구
 - ① 친밀한 소통, 일상의 연대가 있는 공동체
 - ② 활동방식의 변화 : 딱딱하고 무겁고 단일한 목표를 가진 민우회
--> 즐겁고 가볍고 포괄적 목표,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민우회 활동
 - ③ 여성들이 원하는 지역 공동체
 - (2) 민우회 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복원 :
전문가주의 뛰어넘기, 믿을 것은 우리들, 우리 내부의 힘!

6. 맺음말

1. 머리말

21세기 초 ‘지역’과 ‘여성’이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풀뿌리 지역여성운동의 대명사로서 찬사를 받고 기대를 모았던 민우회가 오늘은 정체기를 맞고 있는 지부들의 활동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탐색을 위해 모였다. 돌아보면, 민우회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늘 변화해 왔고 항상 열심히 활동해 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 변화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성차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고 유동적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사회가 법제도적으로는 성평등하게 바뀐 것 같은데, 여성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우회 지역 활동도 위기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역여성운동의 어려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활동 방식의 문제인가?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성들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사회 변화, 여성 현실의 변화가 여성운동, 좁게는 민우회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의 영향력 하에서 항상적인 경제적 불황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계층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젠더문제는 본격적인 공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한편 여성 관련법들의 제도화 속에서 법률상의 여성의 지위는 선진국 수준이나,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은 법제도의 보호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법제도와 현실간의 격차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기력감이 더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사회구조적 위험과 모순을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개인화(個人化)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율 상승, 만혼화(晩婚化), 출산기피 등 가족 구성 지표뿐만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요가와 같은 각종 요법(therapy)의 유행, 스펙 쌓기·사교육·자기계발서 읽기 등 ‘자아(self)’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사회 변화의 중요한 특성을 개인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화와 관련된 수많은 징후들처럼 개인화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개인화는 사회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서 탈정치화의 다른 얼굴로 비판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칭찬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개인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가? 개인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할 때, 지역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개인화가 지역여성운동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혹은 여성운동이 개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 수 있는가? 이 글의 초점¹⁾은 회원 인터뷰 자료 속에서 읽히는 여성들의 욕구와 지향, 현실에서 개인화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개인화가 민우회 활동과 어떠한 연관을 맺으며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

1) 본부와 지부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하면서 회원들의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회원 인터뷰의 일차적 목적은 달성된 것을 전제로, 이 글은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로 여성민우회의 활동방향을 가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지역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조건을 개인화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여성운동의 조건 변화 :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²⁾

1) 서구의 후기 근대적 개인화의 특징

엘리아스는 그의 마지막 저작 『개인의 사회(The Society of Individual)』에서 “현대 사회의 특징이 구성원을 '개인'으로 불러내는 것”이라는 통찰을 하고 있다(Beck, 2002). 후기근대 사회에서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근대 초기의 개인화와는 다른 것이다. 근대 초기의 개인화는 전통적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독립과 자율성의 증진이라고 하는 진보적 가치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개인화는 강제적이고 강박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identity)을 주어진 것(a given)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a task)으로 변환시키며 개인에게 이러한 과업의 결과까지 책임지게 한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특징이 되었고, 이에 대해 바우만은 "개인화는 운명이다(Bauman, 2002: 16)"라고 선언하였다. 가족이나 계급, 종교, 국가와 같은 제도들이 약화되고 역할들이 탈규범화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이제 스스로 규칙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규칙 준수(rule following)적 삶에서 규칙 발견(rule finding)적 삶으로 삶의 규칙들이 달라져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인화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을 가져다주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벡과 바우만이 그리는 그림은 우울한 풍경에 가깝다. 벡은 2차 근대 개념을 통해 현대인의 실존적 조건을 규명하면서 이 시대의 개인은 이전 세대는 갖지 못했던 선택(choices)이라는 특징을 갖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성찰적 거리(reflective distance)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들은 성찰을 위한 시간도 공간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우만 역시 후기근대사회에서 개인은 법률상의(de jure) 개인일 뿐, 사실상의(de facto) 개인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바우만, 2000). 개인은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도록 요구받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시대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의 특징은 사회 내 개인의 위치가 아니라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들이 자주 변한다는 점이다. 코헨(Daniel Cohen)은 움직이고 있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달리고 있는 트랙의 결승점과 트랙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정 끝의 ‘최종적인 재진입(re-embeddedness)’에 대한 전망이란 없으며, 여정 위의 존재는 끊임없이 표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Bauman, 2001:11장).

2) 제2절은 신경아(2011), “‘나’의 발견: 불안의 시대 (불)가능한 전략” (한국문화사회학회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발췌, 수정 보완한 내용임.

더욱이 증대되는 위험과 사회적 모순은 그것에 대처할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개인화의 다른 측면은 시민권(citizenship)의 부식(腐蝕)과 완만한 해체이다. 사람들이 자유로워질수록 공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후기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에 의해 식민화되는 것이다(바우만, 2000). 공적 관심은 공적 인물들의 사적인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축소되었고 공적 삶의 기술은 사적 사건의 공적 과시, 사적 감정의 공적 고백으로 축소되었다. 운명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된 개인에게는 그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모두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사적인 문제들이 공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언어로 새롭게 해석되고 공공의 해결책이 모색되는 공적인 장소가 비어가고 있다. 시민운동의 약화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바우만에 의하면, 오늘날 비판이론의 임무는 사라져가는 공공영역을 수호하는 것, 아니 그보다는 빠르게 비어가는 공적 공간을 정비하여 사람을 채워 넣는 일이다. 민우회가 왜 회원들을 늘리기를 고민하고 노력하는가? 공적 영역의 수호를 통해서 구조적인 여성문제의 개인화, 사사화(私事化)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관련지을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이유를 함께 찾아내고 공공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여성운동의 임무인 것이다.

2) 자아 문화(Self-Culture)와 소비자 사회

후기근대사회에서 예정조화설은 생애 프로젝트(life project)로 대체되었다(Bauman, 2001). 근면검소하게 열심히 노동해서 부를 축적하면 그것이 곧 구원의 표식이 될 것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논리는 서구사회 근대인의 윤리적 정초(定礎)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미래와 내세를 약속하는 종교나 이념, 공동체는 물론 가족과 친족의 관계망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삶은 개인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의 연속체로 구성된 어떤 것이며, 개인은 자신의 전기를 스스로 써야 하는 조건에 직면하게 되었다(Giddens, 1991).

바우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낯선 어떤 것(fully and truly foreign)이라고 주장한다. 개인들은 엄격한, 주어진 사회적 지위-성역할과 같은—로부터 해방되며, 그들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자신의 일대기에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Bauman, 2001: 47).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은 더 이상 검증된 처방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우연으로 가득 찬 세계에 벌거벗은 채로 내던져져 있다. 전통적으로 주어졌던 문화적 각본(cultural scripts)의 해체로 인해서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해가야 하고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해가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채택되는 것이며 개인의 환경이 탈전통적일수록 라이프스타일은 자아정체성의 창조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 자신의 전기적 삶을 구성해가려는 개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지식의 하나가 사회학적·심리학적 지식들이다. 보통 요법(therapy)라고 불리는 대중화된 자아구성의 지식들을 기든스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종교나 전통, 친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규범적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개인들로 하여금 외부적 사회세계로부터 후퇴하지 않고 대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찰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든스, 2001: 332).

백 역시 후기근대 사회에서 자아 문화(Self-Culture)가 지배하게 되었다고 이해한다(Beck, 2002: 43). 자기 자신만의 삶과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적 지향은 자아에 대한 인식(the recognition of the self)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개인이 지닌 자아의 비결정성, 갈등, 위기, 발전적 기회들의 제 측면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백은 자아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하는데, 자아지향을 가진 개인들은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서로간의 구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자아를 중심에 두고 그 욕구에 충실하려하기 때문에 역시 자아지향적인 타인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 문화 혹은 자아 몰입적 문화(a self-driven culture)는 1인 가구의 증가, 분리(separatedness)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높은 이혼율 등을 낳았다.

다른 한편 소비자 사회³⁾에서는 소비자 의존성을 공유하는 것-쇼핑에의 보편적 의존-은 모든 개인적 자유, 무엇보다도 자유로워질 자유, 정체성을 소유할 자유의 필수조건이다. 정체성-개성있는 개인-은 모두가 오직 쇼핑을 통해서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는 물건들 속에서만 아로새겨질 수 있다.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리는 불안감과 괴롭고도 숨막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힘겨운 투쟁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고뇌로부터 탈출구를 찾고, 단 한번이라도 확실함과 자신감, 자기 확신,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소비자의 선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었다. 선택하는 행위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선택권은 선택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수록, 선택 없는 삶이란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참기 힘든 것이 된다. 자기정체성을 찾는 과제는 첨예하게 분열적인 부작용을 촉발한다. 모두가 이러한 과제를 떠맡게 되지만, 문제해결은 각 개인들이 대단히 다른 환경에서 제각기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협력과 유대를 발생시키는 쪽보다는 인간의 처지들을 분할하고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이다(바우만, 2005).

3.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개인화 : 여성 현실과 법제도간 격차의 심화

우리나라는 여성관련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가 현실 속에서 여성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있으나,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하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로 인해 여성들은 취업도 어렵고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른 한편, 고소득 전문직 여성의 증가, 여성CEO, 여성 정당대표, 여성 시장후보의 등장, 각종 국가고시의 여성합격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그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은 그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루저(loser)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직장과 가족 안에서 직면하고 있

3) 모든 소비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달리고 있는 이 특별한 경주의 원형은 쇼핑행위이다. 쇼핑은 음식, 구두, 차량, 가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새롭고 개선된 인생의 본보기나 비결을 열심히, 끝없이 찾는 것도 쇼핑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원하는 친구를 사귀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친구는 쫓아내는 방안, 사랑에서 최대한 만족을 취어짜내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동반자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을 방안을 쇼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방안, 사랑이 퇴색되고 관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그 결함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끝내는 방안을 쇼핑한다. 군침이 도는 음식을 쇼핑하고 그것을 먹어서 생긴 결과들을 없앨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쇼핑한다. 쇼핑목록은 끝이 없다.

는 여성들의 문제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혹은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개인화는 실제로 인터뷰 사례들에서 개인의 문제로 서사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법이나 제도가 보호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늘 불안한 고용현실에 있는 여성들은 인간적인 대우도 바랄 수 없고 소통도 되지 않는 답답함을 호소할 데도 없이 자기가 싫으면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한다. 본부17의 사례는 불안한 삶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찢려본 적은 없고 설마 일이 없어서 굶어 죽기야 하겠는가, 죽더라도 애도 없는데 뭐가 불안하냐는 말은 오히려 뺏 속 깊이 체화된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과장으로 읽힌다.

몸을 움직이고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예의가 없고 싸가지 없는... 내가 알바생이라 말을 안 건다. 나한테 말을 안 건다. 이런 게 비정규직 위치 차별인가 싶다. 잘 지냈는지.. 이런 말이 일체 없다. 알바라는 게 그런 느낌이 든다. 언제든 그만 둘 수 있고, 찢릴 수도 있고. 회식을 해도 정규직끼리는 할 말들이 많고. 비중이 아무래도 다르니까. 하여튼 남성들의 작태들이 짜증이 난다(동북 3, 40대 기혼 비정규직).

무슨 얘기를 해도 소통이 되는 기분은 안들어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다보니까 영어는 늘겠지만 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회의가 일이 전달되는 거지. 내 의견을 묻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엔지오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어디에 정을 붙이고 내가 배울 걸 활용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 끝나고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본부1, 20대 비혼 취업)

계약직이지. 1년 계약직. 요즘 다 그렇게 하나봐. 계약직이지만 찢려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말이 그렇지, 자기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는 거지. / 고용불안? 삶이 늘 불안하지. 고용도 늘 불안한데... 안정적인 건 없어. 안정적인 건 없는데... 어떻게 또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여지껏 안 놀고 살았잖아. / 내가 더 젊을 때는 그런 불안이 없었어. 뭐든지 하면 되지... 정말 안되면 학습지 교사라도 한대라고 생각하면... 굶어야 죽겠어? 그럼 뭐가 불안해. 애도 없는데...(본부17, 40대 비혼 취업)

혼자 밥 먹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최대의 관심사인 20대 비혼의 여학생은 각종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으며,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자꾸 많아지는 나이를 걱정한다. 본부9 사례를 보면, 직장 내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생각해서 정규직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굳건한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고, 나의 문제는 큰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문제로 파묻힐 수 있는 현실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잘 사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 안정된 주거환경. 아유, 취직은 언제하나.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거든요. 서비스업, 빵집, 레스토랑, 편의점 정말 다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서비스업종은 정말 힘들기도 하고. 제 나이가 정말 취직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직까지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 그럴 거 같아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으으 너무 속상해요.(본부5, 20대 비혼 학생)

그러니까 꼭 여자가 결혼하진 않아도 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빨리 정규직을 시켜줘야 될 대상은 남자인 거죠. 애는 빨리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IMF 시대에 사실 지금처럼 용역이나 파견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게 IMF 격으면서 막 생겼을 때 그 연구소에 있던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은 다 용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막 운동을 시작했거나 이랬을 때가 아니라서 부당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 대응해야 된다가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성들은 아무도 안넘어간 거예요(본부9, 30대 비혼 취업).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주변에 이슈가 너무 많잖아. 강정마을이라던지. 나는 트윗은 안하지만 안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카페가도 되게 시끄러우니까 뭐워 희망버스도 그렇고 뭐. 아 진짜 너무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 희망버스도 한번 갔다 오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쪽 타고 올라갔을 수 도 있는데 사실은 좀 심란해. 그니까 지금은 좀 비관적인 상태인데 너무나 이슈들이 많고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랑 뭐가 그리고 왜 그.. 뭐라 그래야하지? 되게 정작 좀 감수성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인식이 전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슈들을 다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그니까 뉴스를 봐도 너무 우울 하고 신문이나 주위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그 몇 가지 많은 일들을 몇 사람만이 다 정말.. 지금은 그게 극복이 안되고 사실 요즘 좀 우울해(본부6, 20대 비혼 대학원)

하물며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부당한 문제들, 법적으로는 평등한 부부가 불평등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운 현실에서 개인적으로 이혼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자신의 참을성 없음으로 비춰지는 개인적 문제일 따름이다. 고양4 사례의 50대 주부는 10년 동안 여성학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쳤지만, 스스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통탄하고 있다. 이 여성이 용감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가족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지원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종갓집 장손이었기 때문에 명절 때 한 번도 친정에 먼저 가본 적이 없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명절 당일에 친정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얘기했다.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생전 처음 화를 내더라. 살면서 부딪히는 사소한 부분들 말고서 그런 부분들의 부딪히는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 많은 제사를 준비할 때에 힘이 많이 드는 일은 도와 주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전혀 서포트를 해주지 않더라. 어머니가 거의 집안일만 노예처럼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아파 했기 때문에 이해할거라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내 주변의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남성들이 같더라. 근데 모든 여성(지인)들이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나? 우리가 하등한 집단도 아닌데 왜 당연한 듯이 그래야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당신 남편은 양반인거다. 살살 구슬려서 타일러서, 가르쳐서, 살아야한다. 근데 난 그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왜 그래야 하나 싶었다. 난 그 사람의 선생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왜 일일이 가르쳐야하고 그래야하나? 너무 피곤하고 싫었다. 나보다 경험도 많고 힘도 센데 왜 그래야 하나? 문제의식을 가졌다. 정말 모든 여성들이 다 참고 살고 있나? 거짓말 같았다. 세상에 똑똑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본부13, 30대 이혼 취업).

살면서 생활 구석구석에 박혀있고, 여기서 내가 깨우친 건 있지.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치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별수 없구나 할 때가 있으면, 그동안 세뇌당한 거. 아직도 가족한테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속에서 절망을 느껴요(고양4, 50대 주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매일 직면해야 하는 밤길 안전의 문제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문제 역시 사회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시 여성이 조심해야 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는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밤에 돌아다니는 게 위축되거나 어두운 밤길에 남자가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택시를 밤늦게 타게 되면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느낄 때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는 내가 여자라서 불편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회사다 보니까 눈치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커피 타는 문제나 그런 것도 지금은 안하고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 순간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안하려고 하지만 안한다고 내가 맘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은 좀 힘든 거 같아요.(본부12, 30대 비혼 취업)

여자라서 혼자 사니까 늘 그런 공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포랑 뭔가 수리를 할 게 생기면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리를 해주는 기술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왜 기사에서 왜 우편물을 봐도 그렇고. (중략)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하거나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략) 모든 우편물을 사무실로 오게 하거나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있거든요. 받거나 이런 거 웬만하면 사무실로 오게 하고 여자라서 많이 느끼는 불편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상의 공포인 것 같고(본부9, 30대 비혼 취업)

4. 사회구조적 성차별의 개인화에 대한 여성의 불가피한 선택과 전략

1) 내 삶을 지지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 일관된 서사(narrative)의 절실함

가족이나 계급, 종교, 국가와 같은 전통적 제도들이 약화되고 역할들이 탈규범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과거 부모 세대의 역할규범은 시대착오적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나서야 한다. 과거와 같이 결혼한 여성들이 삶의 주된 모델로 ‘전업주부’를 상정했던 시절에 남성의 노동시장 일대기와 여성의 가사노동 일대기가 가족내 성별분업을 통해 조화를 이루던 삶으로부터, 여성도 교육을 받고 취업하게 됨에 따라 두 개의 노동시장 일대기를 양립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친밀성의 요구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도록 요구받지만, 여성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부터 양육, 교육, 생업, 노후부양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에 의지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여성들에게 규범적으로 강요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해 옴(장경섭, 2011)에 따라 여성의 선택의 폭과 자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때로는 자신의 선택을 과감히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물질적 또는 심리적 자원 부족으로 불만스러운 현실에 순응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잘 한 것인지,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일관된 서사로 얘기할 수 있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구

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민우회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사이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 나가야 하는 여성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연령과 취업여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민우회를 통해서 대부분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미친 건 아닌지, 나만 힘든 것인지, 그야말로 개인화의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삶의 규칙을 찾아가기 위해 공감을 구하고 힘을 받으며, 나는 정말 괜찮은 여자로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자양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보다 먼저 삶을 살아온 선배들과 또 같은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해 못하는 말도 많고, 무엇보다도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친 건 아닌지 들어보고 싶었다. 내 삶에서 너무나 절실해서 찾게 되었다....**나는 나를 비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깐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주류에 엘리트라는 걸 몰랐다. 부모님도 다 있는 가정에서, 그닥 가난하지 않은 집안끼리 결혼을 하고, 둘 다 직장도 평탄하고, 내가 계급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나를 그 안에서는 비판적으로 살고 왔다고 생각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예전처럼 내가 봐왔던 시각으로 살 수가 없었다. **뭔가 내 삶이 이상하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들음을 풀어낼 수 있는 언어가 내 안에 없었다.**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교사아카데미에서 정희진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예전에 어느 정도 여성학 책도 읽었고, 여대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여성주의 마인드가 많을 거라 생각했었다. 근데 막상 그 강의를 들으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진에게 추천도서를 물었고,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언젠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본부13, 30대 이혼 취업).

그 때 좀 내가 **힘든 시기여서 그런지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때 제가 뭔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나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게 민우회가 나를 더 확 잡아끄는 무언가 있었던 거 같아요.(본부5, 20대 비혼 학생)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 뭐.. 어.. 내가 몰랐었던,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를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뭔가 공통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구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잘 정돈 하고, 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민우회는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음 앞으로 고민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약간 언니 같은? 그런 역할을 민우회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대? (본부2, 20대 비혼)

교육, 강좌 같은 것도 많이 열어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듣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며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많이 듣고 얘기 많이 하면서 막연했던 게 구체화되는 느낌?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던 것들이 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구체화된 것 같아요...그 때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은 1년 가까이 혼자 점심을 먹게 됐거든요. 도시락 항상 싸 와서 먹을 때. 사건 대응하고 그럴 때요?...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한테 공감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때 처음으로 상상을 하고... 민우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게 된 것 같아요(본부12, 30대 비혼 취업).

그니까 남이 그닥 별로 전만큼 중요하진 않다.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하는 거 같

아, 분노감이 많이 좀 사라졌어. 근데 내가 분노도 왜 충분히 해야지 사라지는 거잖아. 그 역할을 민우회에서 해준 거예요(고양5, 40대 주부).

지금도 딸이 둘인데. 엄마가 민우회 안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로 살았을 거 같다. 지금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민우회를 만나갔으면 그냥 나의 존재는 별로 없이 누구 엄마로 그냥 살았을 거 같애. 남편한테 기대고 물론 지금도 기대고 의지하고 있지만 그런 게 좀 다르고. 민우회에서 배운 거 같아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민우회 활동하면서 괜찮은 여자구나. 지지를 받은 거(본부16, 50대 기혼 시간제).

2) 여성의 불완전한 또는 불가능한 개인화 : 세상의 중심으로서 ‘나’의 발견

위의 사례들에서 본 것처럼 성인기 여성들 역시 연령대와 상관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rikson이 청소년기 ‘정체성의 위기’는 자연적 현상이나 성인기의 정체성 위기는 병리적인 것으로 진단했던 것은 이미 낡은 생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동질성과 연속성을 추구하는 주관적인 의식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오늘날 동질성과 연속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정체성의 위기는 희귀한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문화분석가 Melosik & Szkudlarek은 ‘내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나는 자유를 잃었고, 내가 누군가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나 자신이 아니라’는 아이덴티티 구성의 저주에 대해 얘기했다. Lasch는 아이덴티티는 오늘날 마치 유행의 변화처럼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음을, 부르디외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남녀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 여성의 자의식을 일깨우는 개인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나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개인 문제, 개인 문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힘이 없으면은 조직적, 집단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더라고....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움이 된 거 같애요. 옛날에는 뭔지 모르고 그랬던 거하고.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하고는 아 그래서 그렇지 하는 이해와 더불어 똑같은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진 않는 거 같더라고. 금방 성격이 변한다거나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행동이. 그치만 그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가는 화가 하루면은 뭐 이렇게 금방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 거 같애. 그런 게(고양11, 40대 기혼 시간제).

민우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됐어요. 내 성격이나, 생활여건이나가 막 크게 변화를 했다고. 사고방식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나를 너무 죄고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심리공부를 하고 싶었어. 난 뭐 때때 화가 나고 애들하고도 부딪히고. 난 너무너무 바르게 살고 있는데 자꾸 부딪혀. 굉장히 그게 괴롭더라고(고양4, 50대 주부).

여자로서의 가사, 육아 다 억울해요. 그 부분이. 차별적으로 길들여진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더 계발하는 데, 나를 계발하는 것보단 늘 아이들 먼저(고양12, 40대 기혼 취업).

나 자신. 이제 무엇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키우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구요. 여기가 천자연적인 삶 정서적으로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고, 몸도 제가 10년 계획으로 몸짱이 될 정도로 ...ㅎㅎㅎ 근육질이 되어야지(군포1, 50대 주부).

아이 둘을 키우므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과 나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특히 나의 문제인 아이들을 조금 키우고 나서 나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준비에 여념이 없다. 어떤 일에 내가 관심이 쏠리는지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군포7, 30대 주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놓지 않기 위해 지금도 글을 쓴다(동북2, 40대 주부).

가정생활 자체가 억울하다. 정서노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타인(친정, 시댁)에게 맡기는 것이 미안해서 자기개발에 대한 끈을 놓아버렸다(동북2, 40대 주부).

나는 풍물하면서 자꾸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풍물이란 건 보여주는 것도 요소이긴 하지만 어울려 놓고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쓰는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태극권도 배우고 있고, 춤모임 시작됐잖아 탈춤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해 보면서 몸 쓰는 거 참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계속 써야해. 건강을 위해서도. 몸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이런 거죠(고양17, 40대 주부).

아이는 아이고 아빠는 아빠고 저는 다 서포트해주는 거니까. 저를 찾는 거 계속 생각하는데, 나를 발전시키는 거. 지금은 신랑도 그쪽을 자꾸 해보라고 커피숍 많이 하고 하니까 커피도 배워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했다가 중단되면 그럴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관심은 있어요. 또 일도 찾고 싶기도 하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싶기도 하고(고양9, 30대 주부).

아예 여성의식이란 게 자체가 없었는데. 여자들이 살면서 여자들끼리 사는 게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그게 여자의 운명이다. 여성이 태어나서 살면서 이게 최악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바로서야.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이런 걸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본부19, 40대 기혼 시간제).

직장생활 10년 했고, 나이 50이 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를 고민한다....신날 때는 나를 위한 시간, 운동이나 책읽기...(남서4, 40대 기혼 취업)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긴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가장 문제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내 자신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마흔 넷인데, 마흔 넷이라는 나이는 다 산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내 삶을 어

똥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원주3, 40대 기혼 취업).

사실상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빠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잖아요....내가 20대 때 그림을 처음시작하면서...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다 생각했죠....여자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내가 깰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여자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인부분을 피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이 늦어졌고...결혼을 해보니깐 뚜껑 열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구요....서서히 내 영역을 만들어 가다보니 남편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놓게 되고, 내 일에 집중하게 되고...누구나 겪고 사는구나. 그래서 크게 안받아들이려고 작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원주2, 40대 기혼 자영업).

(2) 여성의 실질적 개인화와 여성운동 사이에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관심은 늘 있지. 어떤 소모임들이 있든지. 관심들은 있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 성향도 변하는 것 일 수 있는데 예전에 민우회에 기대했던 것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애. 왜냐하면 활동적인 것 운동적인 측면. 나 플러스 알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안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다 보니, 민우회도 그런 것 아닌가. 나도 지금 개인 중심 적으로 하고 있지. 그게 뭐 어쨌든 민우회 활동 중 하나를 하고 있는 데 딱히 민우회 입장에서 봤을 때 딱히 운동 중심인가 하는 게 있네 하하(본부11, 30대 비혼 취업).

그래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그거(재정사업)라도 갔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도 직접 활동을 못하는 건 먹고 사느라 바빠서(본부7, 30대 기혼 취업).

요즘은 그럴잖아요. 모두들 이기적 개인주의 아네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고양3, 40대 주부).

저도 만약에 민우회가 내 생활비라도 됐다면 내 용돈이라도 됐다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안되니까... 그래 아직 이걸 내가 좀 여유있을 때 해야지~ 하고 약간 뒤로 밀쳐놓은 상황이 된 거고(고양15, 40대 기혼 시간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크다. 각 개인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취업에 대한 욕구, 상담에 대한 욕구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다. 성폭력 상담 외의 상담안내도 성실하게 연계해주면 좋겠다(고양20, 40대 주부).

3) 상담과 치유에 쫓히다 : 거대한 구조에 맞서기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선택

우리의 환경(의존성)은 너무나 글로벌한데,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이전처럼 로컬하다. 우리 문제가 직면한 조건을 규정짓는 힘들은 지난 3세기동안의 근대 민주주의에 의해 창출된 기관들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Castells가 얘기한 진정한 권력인 영토외적인 세계적 권력은 유동적이지만, 정치는 민족국가의 틀에 얽매여 있는 현실에서, 울리히 벡의 진단처럼 체계적인 모

순에 대한 개인의 전기적인 해법은 소용없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가대체물(substitute pastimes)로서 쇼핑탐험을 선호하게 된다. 쇼핑은 대안적이고 더 안전하고 인간적이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상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정에서 남겨진 공허함을 채워주는 대체물이 되는 것이다. 자기정체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활동도 'substitute pastimes'의 또 다른 대안이 된다(Bauman, 2001).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려는 여성의 노력들이 바로 거대한 구조에 맞서서, 또는 다른 자아와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나'를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사회적 위험 또는 모순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과 테라피 등을 통해 여성들이 정체성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징후는 나르시시즘의 확대이다. 자아 문화, 자아몰입적 문화는 후기근대사회를 나르시시즘의 사회로 만들어 왔다. 크리스토퍼 래쉬는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정신적 골격을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문화로 설명한다(Adams, 2007).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나르시시즘의 징후가 강하게 드러나는 배경은 개인화의 시대에 나에 대한 관심, 나의 욕구를 읽어내고 나의 정체성을 구성해가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가족내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등으로 '온전한' 또는 '실질적' 개인이 될 수 없는 한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상담, 테라피, 자기계발서 탐독 등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위로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 사람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뭘 이루고 하는 차원 보다는. 사실은 저 이제 막 어려웠을 때 여기저기 치유프로그램 이런 걸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그 때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마음고생을 좀 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좀 활용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춤이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되게 자기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것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는 걸로 좀 내 이 결과물들이,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좀 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고양11, 40대 기혼 시간제).

민우회를 통해서 미술치료를 배웠었고 한 일주일동안, 그리고 일 년 동안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서 어 또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과 나중에 또 그 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군포2, 40대 주부).

때로는 내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소모임 같은 상담원 공부모임 했을 때 내 안에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내재된 이야기들 있잖아. 어느 누구나 다 그치? 꼬집어 내지 못한 것 그런 게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래서 하는 거야(군포4, 40대 기혼 반일제 취업).

지금 막 하고 싶은 거는 미술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배우고 싶다.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연구소에서 미술팀을 꾸린다고 해서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다. 같이 해볼려고 하고 있다. 치유 쪽인가? 치유 쪽은 작년에 관심이 있어서 독서치유 2급 과정을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건 여전히 하고 싶기는 한데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잠깐 쉬고 있고(본부9, 30대 비혼 취업).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떠나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 내가 진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서 가끔 전에 춤 테라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밑바탕이 되가지고 저의 내면적인 것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고양15, 40대 기혼 시간제).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모임이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성단체이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오라는 것은 결국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친목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동북2, 40대 주부).

상담활동을 하고 싶다. 주부로 살든, 여자로 살든 직장맘으로 살든... 상담이란 게 대화로 주고 받는 것. 그런 활동과 성교육, 여러 가지 성평등에 대한 활동 하고 싶다(동북3, 40대 기혼 비정규직).

다시 풍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문화센터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아줌마들 갖고 노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업적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녀. 그 시스템이 난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고양17, 40대 주부).

다른 한편 래쉬는 나르시시즘적 문화를 낳는 기제들 중의 하나로서 가족에 대한 전문가들(helping professions)의 개입을 지적하고 있다. 자아정체성의 경계는 가족의 일상생활과 습관을 통해 형성되며 가족은 개인이 자아감, 자기 역할, 역할 행동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래쉬는 가족의 삶, 특히 부모 역할에 시장의 기관들이 침투함으로써 나르시시즘적 문화가 양산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양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관료제와 전문가 집단에 종속되고 있다.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부모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전문적 서비스 기관의 새로운 소비자가 되고 생활 법칙으로서 전문가들의 판에 박힌 절반의 진리를 수용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일관되지도 않다. 부모 역할에 관련된 ‘지식’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순환의 일부로 제공되며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만성적 불안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신경아, 2011).

허락을 맡고 애를 낳았으면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몰라서 해냈구, 가전제품을 조그마한 걸 사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애 사용설명서**는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야. 애도 너무 다르고. 책은 우리 애한테 안 맞고. 둘이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한 명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고양9, 30대 주부).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를 아무리 상담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부모를 상담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 쪽 공부를 해보니까 왜 부모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알겠는 거야. 애만 상담하면 애가 고쳐진다고 생각했는데 왜 부모를 상담해야하는지 알겠는 거야(본부17, 40대 비혼 취업).

엄마로 사는 게 힘들고, 여자로 살기도 힘들고...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결국은 엄마들이 끼어들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대학교에서 학점이 맘에 안들었을 때 이의신청을 할 때도 학생이 안하고 엄마들이 한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남편 회사에 신입직원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냐 전화를 한

대. 도대체 어디까지 부모가 간섭을 해야 하고..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난 거기까지 해 줄 용의가 전혀 없어요....요즘엔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모한테 독립 못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본부19, 40대 기혼 시간제).

굳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까지는 글썄 / 내 아이가 말이 늦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어발달 치료 등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니깐 심란하지. 선생님이 힘내라고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비용을 들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야.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근데 이게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지. 소득도 낮고 이런데(본부18, 40대 기혼 취업).

전문가의 개입 하에서 가족은 더 이상 다른 제도들과 상호 관계를 즐기지도 않는다. 하나의 단위로서 그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단절되어 있다. 그 결과 가족은 아이에게 극도로 집중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과열된 연계(nexus)가 강화된다. 이처럼 가족은 한편으로는 부모 역할을 외부 권위자들에게 빼앗겨 왔고,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권위는 점점 더 고립되고 압력을 받고 검사받고 불확실해진다. 이러한 가족의 사회화는 완벽한 부모의 이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부모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상태를 겪는다. 그 결과 외면적으로는 열성적이지만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돌봄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부모들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의 덧에 가두어놓으며 부모들의 변덕스러운 자존감은 이렇게 지속된다.

자기계발서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은 자아, 곧 '나'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기계발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들은 '나'를 성찰하고 '나'의 욕구를 읽어내며 '나'의 영향력의 범위를 파악하여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비폭력대화'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자기계발서들이 제시하는 핵심적 의사소통 방법은 '나'에 초점을 두고 나의 반응을 조절해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경우 나의 감정을 보살피고 반응을 조절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조절하여 자신의 상처를 줄이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신경아, 2011).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라. 안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나에게 문제가 뭐니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 번 보라. 내가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존댓말 상대가 하품을 하게 하는지를 알아봐라.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하죠. 제가 요새 연애학 좀 해요 사람들에게(원주2, 40대 기혼 자영업).

제가 제 자체로 행복바이러스에 빠져 있으면 애들은 애들대로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고 행복할거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 많아요. 인터넷 카페나 책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워킹맘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하나고, 그렇다면 제 의식구조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원주1, 30대 육아휴직).

그러나 다른 한편 제인폰다의 트레인 북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기 몸을 자기만의 소유물, 자기만의 상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만의 책임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내가 일해서 만든 결과물은 그것을 만드는데 내가 쏟아부은 기술과 주의력, 정성만큼 좋은 것이다.

만일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죄의식과 수치감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몸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죄요 당신의 수치임을 강조하므로, 결국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자아는 우울증을 더 경험하고 사회심리적 파편화가 심화된다.

4) 전문가 상담의 한계 극복 : 공적 이슈로서 젠더 문제를 설정해야 하는 민우회의 역할

상담자는 사적인 폐쇄영역 밖으로 혹시라도 발을 내딛게 될까봐 늘 주의를 기울인다. 질병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치료 역시 그러하다. 근심은 사적이며 그 근심을 싸워 물리치는 수단 역시 그러하다. 상담자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이 그들 혼자서 혹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론하며, 그들 혹은 그녀들 각각에게 이야기한다. 그들 모두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서로를 위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은 거론하지 않는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상담받은 사람들은 그 상담이 시작될 때나 마찬가지로 혼자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혼자임이 한층 더 배가된다는 것이다. 어떤 충고를 들었던지간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담 받은 사람 혼자만의 몫이다. 즉 그 충고를 알맞게 실천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안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는 오직 자신의 잘못과 태만 때문이므로 남을 탓해서는 안된다.

가장 성공적인 상담가는 상담을 받으려는 자가 얻길 바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실제적 예들...

현재는 지도자가 없는 사회이다. 오로지 상담자만 존재한다. 지도자는 좋은 사회 혹은 어떤 식으로든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목표로 삼고 부적절하거나 나쁜 대안들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 지도자는 개인적 이익과 우리 모두의 이익 혹은 사적인 근심과 공적인 이슈 사이의 쌍방 통역노릇을 한다(바우만, 2005).

민우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이다. 비록 여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상담과 대중 요법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성문제를 사적 영역의 개인의 문제로 놓고 해결하려는 전문가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개인화 시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서의 민우회의 활동 방향

1) 여성들의 지혜 : 친밀성과 거리두기(성찰성), 다양성(개인성)의 인정

친밀감과 거리는 일종의 특혜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테리다는 독자로 하여금 여행으로서의 사색을 제안한다. 이는 멀리 미지의 것들이 잔뜩 쌓아놓은 위기와 쾌락과 위험을 감수하며 미지의 것들을 향해 가는 것, 그 독특한 출발 행위, 내 집에서 떠나기를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안에 있으되 그 곳에 속하지 않는 식의 망명(바우만, 2005;332)

거리를 두고 시간을 내는 것-숙명과 타고난 처지를 구분하기 위해 숙명을 타고난 처지로부터 해방하여, 숙명이 우리의 타고난 처지와 자유롭게 대면하고 이에 도전할 자유를 주기 위하여-이야말로 **여성운동, 민우회**의 맡은 바 임무다.

(1) 친밀성, 소통에 대한 욕구 : 여성문제의 개인화 경계

리처드 세넷이 지적하듯이, 친밀함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 가장 선호되고, 아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안인 것 같다.

민우회 활동을 하는 것은 사람과의 인적교류가 필요해서, 그게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거, 결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사는 것 생각해.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와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군포4, 40대 기혼 반일제 취업).

민우회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위안 같은 게 있었다(동북1, 40대 주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음. 결과나 성과보다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정신적 성장이 더 가치있고 좋았음(동북6, 50대 비혼 프리랜서).

큰 울타리 같은 개인적으로, 오래 된 동무 같은, 내가 든든함에. 애정이 있고, 맨 나중에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으면, 자원봉사 해야지(고양12, 40대 기혼 취업).

따뜻하다 편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찬하고 무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활동해도 되겠구나.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단체가 아닌가(고양8, 30대 주부).

민우회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한테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부끄럽고 심지어 욕을 해도 안부끄럽고, 특히 남편도 못마땅할 때 욕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 안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을 해도 되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나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거라는 걸 알게 해준 데가 민우회예요. 그래서 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 지금보다 워낙 이렇게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 조금 유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우회덕분이라는 생각을 해요(고양5, 40대 주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뭔지 몰랐거든요. 공감으로는 좋은 하나 뭔가 부족하다, 와서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건 없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고양1, 40대 기혼 시간제).

강좌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 후속으로 무언가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강의도 뭔가 회원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그런 것은 불편하다(고양20, 40대 주부).

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나 변하지 않는 활동들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현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데 단체에서는 그

빠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여성주의라는 틀에 갇혀 모든 상황을 의식화에 비교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소모임이 그런 잣대에 비추어, 아니면 그대로 평가하여 정죄를 하므로 많이 상처를 입게 된다. 회원들은 처음에는 흥미, 취미, 유익성을 생각하고 모여 활동을 하다가 신뢰성이 생기고 또한 결집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목적이 뚜렷한 소모임들을 개발하여 불러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이 가족단위이므로 소모임의 구성이 가족단위였으면 한다. 남편이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군포7, 30대 주부).

가면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거 할 수 있을지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두드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늘 왔던 분 말고 새로 왔던 분은 키워갈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식사하고 가세요 말씀하시는데 친하지 않은 나 같은 입장에서는 생동맞게 밥 먹기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게 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너무나도 그들이 친해서 내가 그들 집단에 못 들어가겠다. 저 같은 경우 공감도 같이 하니까 이걸 내가 깨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했지만 그때 어떤 선생님들은 한번 오고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불편해서(고양1, 40대 기혼 시간제).

내 얘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 우울할 때가 있다(군포8, 30대 취업 한부모).

군포에는 안타까운 점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슈화하고 그런 편안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군포4, 40대 기혼 반일제 취업).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고, 돌싱 엄마들 모임, 폭력피해자 자조모임... 그런데 민우회 회원들은 여유 있고.. 있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벽을 치는 게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나도 민우회에 대한 정을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위축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동북3, 40대 기혼 비정규직).

(2) 거리 두기, 성찰성의 회복

- 공부, 여행에 대한 강렬한 욕구, 전문가에의 의존을 탈피하여 함께 해결방안 찾기

인문학 공부에 꽂혀있다. 고전공부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문학공부)이 민우회에 있으면 좋겠다...이런 거 배우러 다닐 때 즐겁다(고양20, 40대 주부).

신날 때요? 책 공부 할 때 신나죠...제가 취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할 게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 시간이 저한테 취업이 아직 안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계속 시험 있고 공부 계속 해야 되는 고시기거든요...애들 양육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군포3, 40대 한부모).

저는 관련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상담하는 거?) 여성주의도 마찬가지고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너무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원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선생님들끼리 후속모임하고 별도로 또 하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일단은 여기서 올인 하자 해서 흐지부지됐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잘 모르니까(고양1, 40대 기혼

시간제).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보며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그럴 때 신난다. 공부할 때(동북 3, 40대 기혼 비정규직).

원래 관심사는 3년 동안 올 초까지 철학공부를 해 옴. 인간이 자기를 지배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재적인 욕망, 외부적인 욕망의 정체를 알고 싶어 철학 공부를 하게 됨. 그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인지 외부의 욕망인지 알기 위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지만 지금은 못하는. 평생 공부를 하고 싶은. 인문학 공부를 하는 바느질 공방을 만들고 싶다. 단지 돈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필요. 아메리칸 쿼트.. 같은 희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일개 노동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산업,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며 회의가 온다. 공동 노동, 공동 생산... 지역사회 환원을 할 수 있다면 100% 만족할 수 있다.... 돌아보면 지금의 내 삶이 가장 만족스럽다. 이전엔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 남자가 여자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 거 같다(동북4, 40대 취업 한부모).

심리 상담학 공부하고 싶다. 내 마음 보고 싶고, 타인의 반응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동북7, 30대 취업 비혼)

저는 여성학 대학원을 진짜 가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사회학이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이게 약간 나이 때문에 시작하기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본부9, 30대 비혼 취업).

저의 최근 관심사는, 음...웰다잉 사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어떻게 잘 죽을지를 걱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관심사는 웰다잉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잘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잘 즐기고 경험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그런 거죠. 저는 요즘은..... 정토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정토회에 가는 건 아니고 정토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본부15, 40대 비혼)

걱정이 되는 것은 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재생산의 문제인데요. 제가 활동가로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떨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소진도 되지만 채워줄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 활동 자체가 재생산이 될 거 같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영감이 생기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내가 못보았던 지점을 보게 된다고나 그런 것들도 재생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끔씩은 운동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활동이나 취미들을 벗어나서 음...정말 아예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 같고. 영화를 본다거나 연극을 본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러 맘껏 다닌다거나 좋아하는 악기를 배운다거나 혹은 그게 쇼핑이 될지라도 전혀 운동이랑 상관이 없는 쇼핑이 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에 그걸 충족시키고 싶을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까가 일단 고민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는 혹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가 걱정이 되요(본부4, 20대 비혼 학생).

뜻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함께하고 싶다. 여성만이 참가하는 여행(동북2, 40대 주부).

책을 읽으려고 한다(도서관 독서모임에 나간다) 요즘 한 달 가까이 읽은 책 ‘치유하는 글쓰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 외롭구나’ 등 좋은 책을 읽어 좋다. 신이 날 때는 혼자 산책 할 때-마음이

정리가 된다(남서7, 40대 기혼 프리랜서).

(3) 다양성은 개인화의 진정한 인정으로부터 출발

스스로 편견이 많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있고(고양8, 40대 주부).

민우회가 진보적인 여성단체이지만 여성 개인사에 대해 어떤 보수성이 있다. 살아갈 방법/선택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함. 구체적인 안이나 실천은 없는 거 같다. 개인사로 치부하는 것 같다. 여성들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 같다. 자기가 먼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공공연하게 민우회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삶에 가장이 되는 여성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민우회)가) 쓸리는 현상이 있다. 다양한 계층의 회원을 감싸안지 못하는 것이 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비혼 모임... 참여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한 거 같다(동북4, 40대 취업 한부모).

대중성에 더 신경을 써서 폭 넓게 끌어안았음 좋겠다.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강좌가 좀 더 고급스러워졌으면 함.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곳에도 신경 썼으면 함. 민우회 주제가 편협함. 너무 육아 위주로 감. 빈민여성, 이주여성 등 폭넓은 계층의 고민을 끌어안지 못함(동북6, 50대 비혼 프리랜서).

야학 활동을 할 때 학생으로 만난 이혼한 여성들이 있었다. 똑같은 아픈 상황을 겪고 있고 똑같이 어루만져야 하는데 나름 나는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여성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성학 책을 읽기도 했기 때문에 내 아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 여성들은 그 여성들은 너무 헐벗은 상태이다.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가진 자원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여성주의 단체에 들어간다면 나보다 자원이 적은 사람도 들어 올수 있는 단체를 들어가고 싶었다. 나처럼 자원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단체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계급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원이 적은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더 직관적이고, 그런 면도 많기 때문에.....여러 사이트를 기웃기웃거렸는데 댓글에서 끼리끼리의 문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멤버끼리에서만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본부13, 30대 이혼 취업)

정말 상상인데 많이 섞여 살았으면 좋겠다(본부14, 50대 비혼).

2) 여성민우회의 힘, 활동방향

(1) 공동체 형성에 대한 욕구

-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만성 피로, 신뢰회복 필요. 위험사회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

식.... 여성문제의 공적 이슈화

---> 운동(조직)방식의 변화 :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 장기적인 활동, 작은 소모임에 대한 욕구들

홉스봄의 지적처럼, 사회학적 의미의 커뮤니티가 실생활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된 최근 10년보다도 그렇게 많이 무차별적이고도 공허하게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이 속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영원한 집단을 찾고 있다(Bauman, 2001). 오늘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평생 일하는 시간을, 혹은 적어도 그중 많은 부분을 한 회사에서 보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신뢰의 붕괴와 정치참여와 집단행동을 하려는 의지의 쇠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바우만, 2005; 263).

리차드 세넷이 주장한대로, 오늘날 ‘우리’는 ‘자기방어적 행위이다. 공동체에 대한 욕망은 자기방어적인 것이다. 확실히 우리라는 것은 혼돈과 해체를 막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보편법칙이 되었다(바우만, 2005; 283-284). ‘비슷함을 나누는 공동체’에 대한 꿈은 근본적으로 **자기애**가 투사된 것이다.

① 친밀한 소통, 일상의 연대가 있는 공동체

주민들의 소통을 좀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옛날에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시골에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저 사람이 잘 알아, 그거는 저 사람을 찾아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그만큼 동네주민들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가 잘 알고. 그런 **주민들 간의 어떤 연대? 일상의 연대? 그런 것들을 꿈꿔요.** 그래서 음.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 같지만 **뭔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상의해서 대처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단한 마을?**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웃들을 많이 만나고 해결 할 수 있게 돕고 싶어. 실제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본부20, 30대 남성 비혼 취업)

도봉구가 시골에 귀농해 사는 도시형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민우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형성한 인맥을 동원하면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민우회 역할은 도시형 생활 공동체의 마을 이장 역할 (동북4, 40대 취업 한부모).

나는 성미산마을을 보면서 롤모델이라고 할까? 공동체마을, 봉산동이라는 마을을 물질문명 그런 거 말고 **자연에 가까운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인데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원주5, 50대 기혼 취업).

여자들이 가진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공유해서 서로 더 풍성해지는 결국에 여성들의 힘이 강해지는 걸 원한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돈도 벌면서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 참 기쁠 거 같다(본부13, 30대 이혼 취업).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 그런 거 같아요. 좀,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편협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면 되는데. 빨리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본부22, 40대 남성 기혼 취업).

꿈꾸는 건 경쟁 없는 사회. 경쟁 없이 사는 사회. 경쟁 안해도 사는 사회.(MN)

② 활동방식의 변화

- 딱딱하고 무겁고 단일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 또는 민우회

--> 즐겁고 가볍고 포괄적인 목표,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민우회 활동

여기 지역에는 그런 지부가 생기는 것보다 작은 동아리들이 많이 재능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서로 다 많이 생겨서 그런 이슈가 전체에 해당될 때에는 내 작은 모임들 성격과 상관없이 지역 전체에 큰 이슈에 할 때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하고 평소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즐겁게... 즐거운 운동으로 가는 것이 목표예요. 거기에는 물론 나의 즐거움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나의 즐거움 너의 즐거움 같이 가는 더불어 가는 삶이 항상 전체 된 거죠.....그 결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옛날에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어떤 타도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들어가는 삶이니까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군포1, 50대 주부).

느낌이 막 가라앉아 있다거나 좀 너무 딱딱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민우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진지함은 있는데 무겁지 않게 하는 거. 그 발걸음이 되게 가벼울려고 하는 건가. 왠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보이는 걸 봤달까(본부21, 30대 남성 비혼 대학원).

예전에는 여성으로 갔다면 이제는 여성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 어린이, 환경 포괄적인 문제로 갔으면....앞으로 민우회는 남성, 여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제로 갔으면(남서7, 40대 기혼 프리랜서).

직장여성들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 주었으면 한다. 무거운 주제 말고도 다가가기 편한 것들, 즐거운 것들, 생활 속의 것들로.. 예를 들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어서 “영화보기” 좋아한다. “시장모임”도 좋다. 생활 속엔 내용을 즐기고 그 속에서 내용을 찾는 활동. 굳이 의식이 있는 것 아니더라도 좋다. “맛있는 것 만들어 먹는 모임”도 추천하고 싶다(남서4, 40대 기혼 취업).

무엇보다도 민우회가 시대나 현대에 사는 여성들의 진정한 욕구와 성격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우선 모여서 민우회가 요구하는 이슈나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나 철학은 빈약할 수 있으나 활동성과 일에 성취도가 높은 여성들의 요구와 성취를 담아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한다. 모임들이 별로 변화가 없는 비슷한 활동으로 조금 식상하기도 하여 활동이 뜸해졌다. 아무튼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군포7, 30대 주부).

요즘은 정말 참 예전에는 사람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희망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저는요,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게 당장은 아니어도 뭔가 같이 하고 옆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지 다른 소위 말해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본부9, 30대 비혼 취업).

아까 말했던 대중화. 아파트부녀회를 굉장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지하철에서 전단지라도 나눠주고 뭔가 좀 알려줘야 하는데 앉아서 오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이젠 좀 액션을 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론무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걸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건 뭐...어쨌든 민우회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만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근데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관계만 돼 버리는 거, 활동가라고 한다면 책임까진 아니라도 관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고양1, 40대 기혼 시간제).

민우회 회원들은 그냥 아줌마들보다 정치의식이나 사회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만나면 즐겁고 좋은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민우회 오는 여자들은 일반적인 아줌마들 정서랑 다르잖아요. 나는 오면 굉장히 즐겁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만족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굉장히 일반적인 아줌마들이랑도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아. 사람들 보면 논리가 아닌 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하려면 그 부분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춤모임 태극권모임 시작하고 사무실에서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 게 그거거든. 민우회 활동 중에 **문화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고 하잖아 잘 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하는 건 함께누리에서 많이 충족이 되지만 나는 풍물을 뛰어넘어서 노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속에서 풍물은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놀아야지,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 아줌마들이 잘 노는 어떤 걸 만들고 싶어(고양17, 40대 주부).

또금은 더 많이 문화적으로 지금은 코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감성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많이 정서적인, 문화적인 측면의 활동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고양12, 40대 기혼 취업).

③ 여성들이 원하는 지역 공동체

- 안전 : 여성의 밤길, 여행, 아동 안전
- 동네 환경 : 북카페 등 여성을 위한 공적 공간, 보육시설, 동네 네트워크
안정적인 전세, 청소년 놀이 공간
- 취업,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불안 : 사회적 기업, 재취업 교육기관

밤길.. 다니고 싶을 때 무서움이랄까,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밤길이나 여행 다닐 때 나 혼자 다니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신경써버리게 되니까(고양2, 30대 주부).

일단 어디 밤길 나가면 난 그게 두렵고. 난 지금도 밤에 가다가 남자가 갑자기 훑 돌아서면 깜짝 놀래요. 너무 놀래(고양5, 40대 주부).

밤거리 안전하게 다니는 거 이런 거(고양9, 30대 주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치안 문제(고양12, 40대 기혼 취업)

지역에 공적인 공간-여성들이 차 마시면서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북카페 이자 놀이터, 상설아나바다장터 같은 참여하고 즐기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동북1, 40대 주부).

숨어있는 회원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건 늘 고민거리잖아요. 회원들이 사랑방마냥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데, 내가 처음에 커피, 바리스타를 배웠던 이유가, 그 때는 사실 이렇게 커피숍을 차리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커피숍을 차려서, 다 오는...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으니까(고양5, 40대 주부).

음... 여성복지나 안전?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할 해주고 정책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훨씬 줄어줄 것 같아요. 오히려. / 예를 들어 출산장려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말로만 애 많이 낳으면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와 그리고 법적으로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한데. 좀 더 여성 복지나 안전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경제적으로도 생산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밤길이 안전하다면 여성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을텐데. 계속 카메라만 늘어내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짧은 치마 입지마라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구요.(본부10, 30대 비혼 취업)

여자 혼자 살기에..이거는 좀 바뀌기 힘든데, 집세가 너무 비싸요.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어서.. 그리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만 싸잖아요. 여자가 살기에는 치안도 그렇고, (고려할 것도 많은 데) 집 자체에 뭔가 공기나 채광이나 안좋고 이웃도 신뢰하기 힘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는 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비싸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여자들끼리 살면서 네트워크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혼자 사는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음식도 같이 해먹고. (중략) 동네에서 네트워크 생기면 좋지 않나.. 아무래도 나이를 더 먹으면, 결혼하는 친구도 생기고, 동네에 친한 여자들끼리 살면 갑자기 누구랑 만나고 싶을 때라던지 술 한 잔 마시기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고 싶을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본부3, 20대 비혼 학생)

제가 아이들이 커가니까 청소년들이 설만한 데가 없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우리 애들하고 형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저것들은 애들 노는데서 저렇게 논다고 불량배 보듯이 보는 거예요(고양16, 40대 주부).

청소년 문제, 아동문제 등 친절처럼 와서 해소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지역, 정치 이슈보다 여성들의 소소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양20, 40대 주부).

미래에 대한 두려움 : 정보화 사회에서 혼자 뒤처진다는 느낌. 정보에 어두워지는 것. 복지가 미흡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노후생활. 건강 대책 및 주거 대책 등(동북6, 50대 비혼 프리랜서).

미래의 불안은? 노후 경제생활이다. 지금 비혼이라..(본부 , 30대 비혼 취업)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어서 간섭 없이 쓰고 싶다. 앞으로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과 같은 소비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이라도 용돈규모를 유지하고 싶다. 물론 얌매이지 않으면서 나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일(남서1, 40대 주부)

많이 쓰고 싶다. 여가활동을 위해 내 용돈이 풍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남편퇴직 후 지금과 같은 소비가 가능할까 불안감 때문에 경제적 관심이 크다(남서2, 40대 주부).

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재취업교육 기관이 별로 없어서 여자들이 애를 키우고 나와서 교육 받을 곳도, 취업할 곳도 없어서...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원주는 보육시설이 잘 안되 있어서 엄마들이 보육에 매여 있으니까 저녁때 회식을 빠져도 한두 번이고, 저녁에 회의를 해도 애를 맡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일하기 편한 사회, 그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원주1, 30대 육아휴직).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세금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가면.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각 동마다 마을기업, 여성 경력단절 주부들이 사장되고 직원 되고 해서 우리 동이 지켜주는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각 동별로 만들고 싶고요(고양19, 40대 기혼 취업).

(2) 민우회 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복원 : 전문가주의 뛰어넘기, 믿을 것은 우리들, 우리 내부의 힘!

올리히 벡의 질문(226) : 전문가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 가능한지, 우리가 과연 우리한테 부여된 그 조건들 아래에서 살길 바라는지에 관한 공개적 논쟁과 의사결정이 가능한지?...우리에게 시급한 민주주의가 진정 시작되기 위해서는 토의하고 결정을 통과시키는 형식적 자유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 우리가 논의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결정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알 의무가 있다. 오직 전문가들⁴⁾만이 현실과 환상의 차이를 발언할 권리, 가능한 것들과 불가능한 것들을 구분할 권리를 독차지하고 있고, 그들만이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버린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성문제가 개인의 능력, 선택,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 사사화되는 현실에서, 회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민우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여성들이 맨날 남성들이 보기에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요즘 여자애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 참을성이 적다가 아니라 그동안 말 안하던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나 부처에서도 홍보성으로만 ‘모두의 맘이 되어주세요.’ 광고에서 나오는데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만 저 광고할 돈으로 현실적으로 도와주던가 좀 뭣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는 눈치나 주고 그런 거를 좀 분위기 자체로 현실적으로 좀 바꿔주고 못해줄 경우나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차 없이 응징을 좀 해줬으면(본부7, 30대 기혼 취업).

민우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관련 문제제기들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것을 어필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지나가는 부분들을 유쾌하고 밝게 풀어 나가주었으면 한다....여자를 위로해줄 수 있는건 여자밖에 없잖아요. 여자들 서로 많이 힘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본부5, 20대 비혼 학생).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는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긴 문제인데 문제인건 많은 사람들이

4) 전문가들은 그 정의상 ‘사실들을 조리있게 바로잡는’ 사람들,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장 위험이 적은 방식에 대해 사유하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아는데 저는 좀 좋은 쪽으로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성이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걸 포커스를 두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이런 것도 되게 즐겁고 포커스 자체를 하는 게 좋고 물론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장기로 가다보면 어느 순간 힘든 게 오더라구요. 물론 이렇게 가도 힘든 건 있어요. /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본부12, 30대 비혼 취업)

지금 문제는 **이십십대들이 공감할 이슈가 부재하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성학회 타 이틀이 복지 여성 미래 이랬던 거 같은데 내용은 돌봄에 대한 거였어요.... 복지, 돌봄 중요한 하죠. 결혼이주. 중요한데 이십십대가 느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돌봄 노동도 중요하고 알겠어. 그런데 딱 관심이 가는 주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션 하나만 들고 나왔거든요. 세대별로 세션별로 다양해야 한데. 없는 거죠.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돌봄 노동을 새롭게 전망하거나 아나키즘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러니 재미가 없죠. 돌봄도 다양한 돌봄이 있을텐데(본부1, 20대 비혼 취업).

약간 중산층 중심의 운동이라는 느낌. 여성운동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맞는데 이러면서 놓친 부분들. 여성노동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큰 덩어리로 가져가는 부분은 좀 놓친 거 아닌가. 약간 지식인 중심 운동인 거 같고. 정확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 안에서도 공감의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지는 않을까. / 민우회 안에서 비정규직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 노동판 안에서 비정규직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민우회도 하겠지만 독자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예요. 민우회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여성운동이 모든 의제를 다 가지고 있고 다 개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여성 안에 갇혀있는. 비정규직이나 여성노동자 관련 안되는 거는 그 쪽은 노동문제고 여기는 여성문제고 분리하면서 부분화되는 느낌....**좀 개인적인 차원의 운동? 이런 느낌을 받아요. 민우회가 올 해에 하는 일은 뭐다. 집중. 그런 부분들을 더. 흠어진 느낌. 생활 차원의 운동. 전체 사회 운동하고 연관되기는 한데. 목소리가 작은 거 같은 느낌**(본부14, 50대 비혼).

민우회에 기대하는 거는 지금 잘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어. 자기 욕구를 알고 자기의 경험을 인지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하나의 액션이나 운동으로 펼쳐내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이 점점 더 확고해져서 그게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우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무슨 단체이던지간에 어.. 개인의 시각으로 개인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지역에서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본부4, 20대 비혼 학생).

<참고문헌>

- 리차드 세넷. 유병선 역. 2009. 『뉴캐피털리즘(The Culture of New Capitalism)』. 위즈덤하우스.
- 리차드 세넷. 조용역. 2001.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The Corrosion of Character)』. 문예출판사.
- 바우만, 지그문트. 2005. 『액체근대』, 이일수 역, 강(Bauman, Zigmunt,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Cambridge, 2000).
- 박기남. 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 배은경·박기남. 2009.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20-30대 여성 심층조사』, 여성부.
- 벡, 울리히· 벡-게른샤임, 엘리자베스(1997), 『사랑은 지독한(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외 역, 새물결(Beck, Ulrich. · Beck-Gernsheim, Elisabeth,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Suhrkamp*. Frankfurt a/M, 1990).
- 신경아. 2011. “‘나’의 발견: 불안의 시대 (불)가능한 전략”. 한국문화사회학회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권기돈 역.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 Mathew Adams. 2007. *Self and Social Change*. Sage.
- Zygmunt Bauman.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Polity Press

2011 회원 인터뷰 설문지

설문조사 하는 사람 이름

조사하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사항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걸 우선으로 하고 다 마친 후에도 부족하면 질문)

회원 성별		자녀 유무 및 연령	
회원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가입 연차	

질문

각각의 질문을 별도 카드로 작성, 각 질문의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합니다.

1.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친밀감 형성하기 :

1) 민우회에 대한 기대-

언제 회원으로 가입하였나요?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가입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 민우회에 대한 만족도-

민우회 회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가족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눈,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가치관 등)

달라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3) 참여정도-

민우회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또는 가슴 뛰는 경험)

현재 민우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의듣기부터 어떤 것이든)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이 만족/불만족스러운가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 이유나 민우회의 문제나)

민우회 활동 소식은 주로 어떻게 알게 되나요?

2. 개인 삶 이해하기 :

1) 주요 관심사-

최근에 꽃혀 있는 일(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일에 꽃힌 이유가 있나요?

(요즘 가장 신이 날 때는 무엇을 할 때인가요? 혹은 계속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혹시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2) 경제활동욕구 파악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며 조건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기)

직업이 있는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 최근 주변여성을 보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아 보입니다. 회원님도 그러십니까?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하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의 직업 혹은 일을 원하십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만 잘 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 과거경험-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기 : 여성이슈 파악하기

1)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내가 여자구나.....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여자라서 억울할 때~)

여성으로서 사는 것은 언제나 도전인데 특히 최근에 특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게 되는 고민이나 어려
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족, 직장, 학교, 사회 등)?

돈 버는 일이나 자녀양육 등 다른 일들에 밀려 접어두고 있는 꿈이나 잠재능력에 대한 자기 계발 욕구나
계획이 있는지?(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여행 등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시대에 뒤쳐질 것 같은 두려움, 노후 경제생활 등)이 있으신지...

2) 고민을 해소하는 통로

이런 고민을 어디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혹은 모임이 있나요?

그 속에서 어떻게 고민이나 어려움이 해소되나요?

민우회 활동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민우회를 통한 해결 경험이 없는 경우) 민우회는 고민을 나누는 역할을 함께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한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 지역 이해하기 : 지역 이슈 파악하기

1) 지역육구-

현 지역에 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지역 소식을 접하나요?

여성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꿈꾸거나 상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2) 해결책-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여기십니까?

민우회와 관련된 모임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른 소모임이나 친목 모임, 동네 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나요?

같이 꿈을 이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민우회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할 수 있다면 민우회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같이 할 수 없다면 민우회의 어떤 점 때문일까요?

5. 마무리 :

민우회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민우회의 문턱이 높다고들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지....)

민우회 회원이어서 좋은 점은? 민우회에 대해 칭찬할 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마치 성평등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희화화되고 있는 현실.... 과연 여성으로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체감 정도)....여전히 지역 여성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민우회에 바라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민우회에서 함께 하면 의미있는 사업이나 집중해야할 활동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외국 사례나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민우회 활동 방식에서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탄없이 한 말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박주경, 안선희, 김진희, 안인숙, 이숙희, 이정아, 임재련, 이소희, 김문정, 박선주, 전순애, 이여로, 왕희애
분석토의 참가	김문정, 이정아, 임재련, 이숙희, 주정희, 왕희애, 이여로, 박선주, 안인숙

1. 경과

1) 회원 인터뷰 및 녹취록 정리

- 연령, 지역, 참여분야 및 정도, 가입연차 등을 고려하여 35명의 회원을 선별함.
- 이사들을 2인 1조로 7개조를 구성하여 5명씩을 분담하게 한 후 그 중 3명의 회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합의함.
-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인터뷰를 불편해 하거나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회원 있어 인터뷰 대상 일부 변경함.
-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회원 뿐 아니라 이사 상호인터뷰 및 상근활동가에 대한 인터뷰 제안되었으나 일부만 진행됨.
- 2011년 6월 20일~7월 중순, 23명에 대한 인터뷰 완료.
- 2011년 7월 중 20명에 대한 녹취록만 작성되었음.(녹취가 되지 않았거나 거부한 2명 포함), 3명의 인터뷰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

2) 녹취록 공유 및 분석 토론

- 9월 21일 이사 및 상근활동가에게 녹취록 전문을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하고 가급적 읽을 수 있도록 독려.
- 9월 24일 전체 워크숍(이사, 상근활동가 전원)을 통해 회원인터뷰 결과를 공유하고 분석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직문화워크숍을 1회 더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문화워크숍으로 대체함.
- 전체 성원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고 단위에서는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부치기로 함.
- 10월 4일 인터뷰 분석표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
- 10월 6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까지 임시이사회(8명 참석)에서 논의 진행함.

2. 회원인터뷰 결과 통계

번호	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1	김XX	40대	강사	2년	권유	소모임, 자원활동	결혼	없음	영어

2	류OO	30대	주부	2년	생협	마을모임지기	결혼	있음	
3	진XX	40대	주부	8년	교육	소모임	결혼	있음	홍보대사
4	전**	50대	주부	6년	교육	상담	결혼	있음	
5	추**	40대	주부	10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상근 경험
6	전OO	40대	주부	10년	소모임	위원회, 이사	비혼	있음	
7	김**	40대	주부/강사	10년	생협	회원강좌 강사	결혼	있음	애니어
8	최**	30대	주부	2년	교육	성교육	결혼	있음	홍보대사
9	황**	30대	주부	4년	꿈틀이	자원봉사	결혼	있음	
10	이OO	40대	시간강사	3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입시 컨설턴트
11	이**	40대	강사	1년	권유	소모임	결혼	있음	춤
12	한**	40대	사무직	15년	창립	회비 납부	결혼	있음	상근 경험
13	안**	40대	강사	8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14	이@@	40대	사무직	7년	교육	상근	결혼	있음	
15	송**	40대	강사	7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다문화
16	민**	40대	주부	7년	소모임	소모임, 자원활동	결혼	있음	
17	배**	40대	주부	11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상쇠
18	이&&	40대	주부	6년	교육	소모임, 생협	결혼	있음	홍보대사
19	김**	40대	정치인	14년	위원회	위원회	결혼	있음	위원
20	최&&	40대	주부	2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홍보대사
21	정**	40대	주부	8년	교육	생협, 성교육	결혼	있음	홍보대사
22	김&&	40대	주부	8년	교육	이사	결혼	있음	
23	안&&	40대	상근	12년	생협	생협, 이사	결혼	있음	

*21~23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3. 결과 공유 및 분석 토의 방법

- 분석결과를 민우회 활동 및 민우회에 바라는 점, 개인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지역 이해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함.
- 논의주제로 주어진 ‘민우회 회원들의 기본적 특성과 욕구, 회원들의 민우회에 대한 기대, 회원들의 활동참여 열성도, 회원참여를 위한 조직적 활동내용, 회원들이 생각하는 지역적 특징, 운동이슈 찾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함.
-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구분과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고 세 차례 진행된 조직워크숍 논의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무엇을 활동에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했음.

4. 분석 결과

1) 민우회 회원의 특성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회원은 주로 40대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함.
- 인터뷰 대상자들의 연령 또한 대다수가 23명 중 19명이 40대였고 40대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음. 30대는 3명, 50대는 1명이었음.
- 민우회 창립 시 30대였던 회원들이 이제는 40대가 되었고 현재 시작하는 회원들도 주로 40대를 이루고 있다. 주 연령층이 40대가 많다.

2) 회원들의 욕구 및 민우회에 대한 기대

- 기대와 관련해서 일관된 것은 결혼과 함께 느끼는 가부장성, 육아의 어려움 등이 민우회를 오게 했다
- 기대하는 것에서 보면 뭔가 나와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 집단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

대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 민우회 회원들의 욕구를 크게 분류하면 3가지 정도인 것 같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 운동성, 민우회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욕구들이다.
- 민우회가 좀 더 나서서 일을 해 주길 바라는 욕구 등등 굉장히 다양하다.
- 회비를 내면서 회원이라고 밝힐 수 있는 근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다 본인들이 자발적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단체가 움직이는 운동성은 부각되어야 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 민우회에 들어와 달라진 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느끼고 있다. 민우회의 진보성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 후원회원으로 있어도 좋다. 들어와서 막상 보고는 저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 회원들의 문화적 욕구도 다양한 인터뷰에서 드러난다.

3) 주요 논의 내용

(1) 회원의 연령 특성은 40대가 주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우리의 주 대상층은 40대다 이를 기점으로 이후를 고민할 수 있는 활동들이 나와야 한다.
- 주 대상층을 특정 연령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 다양한 연령층에 접근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민우회원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사업계획을 만들 때 조직적 고민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여 할 필요가 있다.
- 처음 시작했던 회원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생협은 주로 시작하는 지점이 30대이고 나를 찾는 시점이 40대라는데 특이점이 있다.
-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신에 대한 고민 여력이 부족하며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생협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 현재 회원들은 처음 시작할 땐 생협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그때는 넘나드는 것이 가능했으나 공간 분리가 되면서 넘나들이 어렵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 과거 생협은 민우회원이 되는 중요한 통로였다. 생협과 민우회가 하나의 조직처럼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는 활동내용도 개별화되어 있고 일단 담당 활동가들조차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넘나들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생협활동과 넘나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협은 2-30대를 커버하고 우리는 40대 이후를 커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고민해 보면 좋겠다.
- 이때까지 연령대를 정해놓고 간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활동 내용이 특정 연령대로 정해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큰 틀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여 협력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 시점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협과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 40대 아래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 생협에서 조합원 활동을 하다가 넘어오는 시기가 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
- 교육의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회원들이 관심 갖는 몸 여성이슈 자아 및 사회적 실현, 노인 문제 등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요구는 전

반적이다. 환경, 노인의 문제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자. 소수가 오히려 의미를 찾아 기획하자.(교육의 방식만이 아님)

- 우리가 일산구 중심으로 너무 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야 한다.
- 주 대상층을 정해서 사업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각 영역에서 담당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2) 친밀함, 소속감,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민우회가 조직 활동을 못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민우회를 제발로 걸어온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조직활동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온 사람들에게 들이는 정성이 필요하다.
- 초기 회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친밀함의 욕구가 실현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욕구를 채우기가 어려워졌다.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룹들이 필요할 것 같다
- 2009년 민우회 자체의 소모임이 하나도 없었다(함께누리 제외). 그나마 공감. 등 몇 개의 소모임이 생겼으나 이를 운동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 친밀감에 관해 신입회원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 회원가입을 했을 때 민우회 참여 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한 집단의 동료의식을 갖게끔 해야 한다
- 찾아오는 회원, 여성들에게 적극적인 대면활동이 필요하다.
- 소모임의 경우 과거에는 회원들의 역할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확장하는 의미로 비회원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회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특성을 갖고 가면서 소모임원들이 주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렵다. 지금의 소모임들의 성격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할 건가 되짚을 필요가 있다
- 소모임 참여하고 있는 비회원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원칙적 틀을 가지고 가야 한다.
- 소모임 등의 이끔이들의 역할로 민우회 활동을 전달자가 되게 하자.
- 고양민우회의 중심 활동가들이라는 정체성을 소모임원들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재능기부. 토론회참여. 캠페인 참여 등 활동에 참여여부를 묻는 체크리스트를 일반 프로그램 진행 시 평가설문에 넣자
- 회원이 갖고 있는 재능(품물)을 회원들과 결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보자. 내년에는 함께 누리가 대보름, 지신밟기 가을 놀이 외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자
- 연합 소모임의 날을 만들어보자
-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원, 신입회원들의 모임을 잡자 (퀵트, 정회원의날 행주산성 나들이 등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내년 상반기재정, 중간 여성주간 하반기 송년회 등을 세팅해 놓은 것 외 회원들의 참여 가능한 세팅을 해야 한다.
- 생협같은 경우 마을모임 위원회가 있다. 마을모임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마을모임신문을 만들어 내부 공유를 하고 있다. 우리도 각 소모임별 소모임에서 꼭 공유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자 그러기 위해

서는 소모임 장이나 지기들의 모임을 하자.

-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 소모임 이끔이모임을 한다고 소모임별 제안을 하고 이에. 상담분과, 성교육 분과, 파주 공감 , 공감, 파주1기. 여적. 책내들, 등 소모임의 장들 모임구성을 하자
- 상근, 이사, 위원회, 소모임들이 유기적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필요하다.
- 홍보할 때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다. 우리 세대가 컴퓨터에 접근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외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홍보를 해야 하는데 ... 이것을 회원들에게 부탁하자. 오시는 모든 회원에게 무조건 전단지를 들려 보내자.
- 상근활동가들은 회원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을 부담을 갖지 말자. 강의오는 사람들도 적극성을 발휘하여 접근하자.

(3) 운동성과 관련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운동을 해 왔는가 지난 몇 년간 못 찾아낸 건 아닌가

지역 내 변화 욕구를 우리들이 운동으로 드러내는 활동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 촛불문화제 4대강 문제 고양 연대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실무진에서 끌고 나가기가 벅차다. 그것 자체가 실무진들에게 일로 한정되면서 내부 실무진에서도 소진되어 버린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 등을 어떻게 합의하고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운동성이 없으면 사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의미 없다고 본다. 본부도 사업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나타날 때 회원, 실무진이 적극 결합한다.
- 운동성과 관련하여 여성정책, 지역이슈 등을 회원들은 얘기하고 있다.
- 위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 운동성에서 굉장히 쉼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미지가 그렇게 있었지만 고양지역에서도 이런 쉼 것이 필요한 건지 이슈 관련해서는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의 활동을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교육 조직 이슈,,, 등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
- 사회적 요구들을 갖게 된 것은 연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큰 틀에서는 지역이슈에 실무진 몇 사람이 가는데 이를 민우회적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오히려 여성적 이슈들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찾아내면서 갈 건지 지역적 이슈를 포괄할 건지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
- 이슈를 발굴하지는 못해도 민우회는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생각을 드러내는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단체의 성격, 정체성이 안 보인다는 것은 회원, 조합원들에 대해 굉장히 불친절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랄 수 있다
- 사안마다 성명을 낸다거나 할 수도 없다 지역 내 이슈들을 민우회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 소극적 반응도 필요하다.
- 회원들이 댓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으로 활성화 될 여지도 있다. 꼭지는 있어야 가능한 일

이다. 지역 내 결합하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민우활동으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대외적인 우리 활동의 영역은 모두 민우뉴스로 올려서 공유하자 (주민참여조례 등 도). 민우홍보대사 역할을 강화하자.
- 전단지작업도 길거리 등 과감하게 대중 조직 운동도 필요하다. 사무실에서 거리로. 홍보나 홍보전단지를 무작위로 뿌리는 것도 필요하자 이때 회원들을 참여하게 하자.
-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주력하자

(4) 여성으로서의 삶 및 지역과 관련한 욕구를 어떻게 활동에 반영할 것인가?

- 회원들 대부분이 결혼 후 성역할 분리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참여공간들을 찾는 과정에서 민우회를 만난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런 욕구로 민우회로 오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욕구를 충족할 무엇이 있는가 이들에게 민우회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요구는 현재에도 유효한 욕구라고 본다.
- 일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 이미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성들의 일과 관련하여 정서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내가 참여 가능한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들이 고민해야 한다.
- 회원들이 관심 갖는 몸 여성이슈 자아 및 사회적 실현, 노인 문제 등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요구 자체는 전반적인 것에 담겨있다 이것을 어떻게 민우회가 다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생협과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 **지역 화폐 운동**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 상 가능하다고 본다. 재능 기부 시간 기부 등등 서로 품앗이 활동이 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선례가 있고 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묶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의 인력 시스템 조직력에 바탕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 여성에게 집약된 가사노동, 노인문제 등 이들을 어떻게 지역 안에서 사회화 시키고 우리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찾아보자
- **경력단절 여성들이 쉽게 접근하는 일자리** 등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들이고 이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어떤 나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고... 논의 지점을 찾고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운동을 엮어 나가본다면 지역 내 여성의 일자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해지도록 지원하고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보자
- **행복한 학교와 학부모 관계 맺기 운동**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역할,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무임 노동 등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
- 지역안전 욕구를 수용하는 **안전한 밤길 걷기 캠페인** 진행하면 좋겠다. 게릴라식으로 진행해보자. 지금 보름달에 걷는 것과 연대하여 해보자.

(5) 생협과 관련한 욕구를 어떻게 풀 것인가?

- 생협운동의 본래적 목적을 변질 됐다고 보는 조합원들도 존재한다. 조합원과 회원으로 있는 경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 민우회 사업 관련 생협에서 예전에는 식생활 관련 생협 본래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생협은 현재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센터 같은 교육 내용들로 채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 단위생협을 하려고 했던 것은 각자의 전문성 분권화 지역밀착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2006년 이사장 대표 겸임을 했었다 그 두 개의 조직이 1인에 의해 운영이 됐다. 그때 생협이사회가 선출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이런 역사도 있다. 그런데 생협법의 혜택을 보고자 생협의 형식을 만든 측면도 있는데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는 격이 되면서 오히려 내용이 후퇴한 것이라고 본다.
- 생협 집행부가 장기적으로 가면서 그 규모가 짜여져 있다. 이분들의 성향이나 친밀이나 어라운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 조합원들이 동의했다고는 하나 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본다는 것 역시 무리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 생협이 최근 몇 년간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10개의 지역에서 마을모임을 조직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조합원들에게는 지역회의를 열어 소통하려 애쓰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생협 조합원들의 구성비가 동수일 때는 충돌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3000명의 조합원 대 정회원 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안에서 생기는 현장에서의 부딪힘은 생각보다 크다. 이 차이가 발생시키는 요구를 생협이 모르쇠로 가기도 가진 어려운 것이 생협의 정서적, 현실적 고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 이전의 하나됨이 중요한 역사이긴 하나 현재의 변화된 환경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전체를 갖고 만나면 안 만나지는 지점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현재 활동가들이 경험한 본회와 부설기구의 관계. 이전 활동가들이 경험한 부분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분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재론하고 기득권 주장이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생협과의 관계가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공간 분리 사업분리가 갖는 특징들이 현재의 실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본다. 생협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 생협이사와 본회 이사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공통의 고민의 장이 되게 하자
- 서로가 원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지점. 그런 생각의 변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용적, 시스템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서로 따뜻하게 보고 있는 않다는 느낌이 있다. 생협과의 시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자
- 2006년 체제와 현 체제를 놓고 볼 때 민우회와 생협이 따로 또 같이 성장했는가 이에 대해 점검하고 놓친 부분이 뭔지 찾아내고 풀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표와 이사장은 의지를 갖고 가야 한다.
- 본회가 주축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내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활동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본다.

5. 결과 반영 계획

- 상근활동가 단위에서 부서기구별로 회원인터뷰 녹취록과 결과분석 자료, 1차 이사회 논의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이후 사업 평가 및 2012년 계획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고양파주 회원인터뷰 결과표

<회원 인터뷰 결과 통계>

번호	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1	김XX	40대	강사	2년	권유	소모임, 자원활동	결혼	없음	영어
2	류OO	30대	주부	2년	생협	마을모임지기	결혼	있음	
3	진XX	40대	주부	8년	교육	소모임	결혼	있음	홍보대사
4	전**	50대	주부	6년	교육	상담	결혼	있음	
5	추**	40대	주부	10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상근 경험
6	전OO	40대	주부	10년	소모임	위원회, 이사	비혼	있음	
7	김**	40대	주부/강사	10년	생협	회원강좌 강사	결혼	있음	애니어
8	최**	30대	주부	2년	교육	성교육	결혼	있음	홍보대사
9	황**	30대	주부	4년	꿈틀이	자원봉사	결혼	있음	
10	이OO	40대	시간강사	3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입시 컨설턴트
11	이**	40대	강사	1년	권유	소모임	결혼	있음	춤
12	한**	40대	사무직	15년	창립	회비 납부	결혼	있음	상근 경험
13	안**	40대	강사	8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14	이@@	40대	사무직	7년	교육	상근	결혼	있음	
15	송**	40대	강사	7년	교육	회비 납부	결혼	있음	다문화
16	민**	40대	주부	7년	소모임	소모임, 자원활동	결혼	있음	
17	배**	40대	주부	11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상쇠
18	이&&	40대	주부	6년	교육	소모임, 생협	결혼	있음	홍보대사
19	김**	40대	정치인	14년	위원회	위원회	결혼	있음	위원
20	최&&	40대	주부	2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홍보대사
21	정**	40대	주부	8년	교육	생협	결혼	있음	

질문내용		응답내용
민 우 회 활 동		김선*: 꼭 무슨 단체활동을 하고 삶을 사는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돈 버는게 무의미한것같고 이렇게 살고싶지 않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배워가야겠다 싶어서 가입하게 된 거죠. 저 같은 부분은 일 좀 하겠다, 활동가는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게 되게, 인적자원이 부족할거라는 생각 했거든요 단체니까. 가면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거 할 수 있을지 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두드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늘 왔던 분 말고 새로 왔던 분은 키워갈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식사하고 가세요 말씀하시는데 친하지 않은 나 같은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밥 먹기도 그렇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게 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너무나도 그들이 친해서 내가 그들 집단에 못 들어가겠다. 저 같은 경우 공감도 같이 하니깐 이걸 내가 깨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했지만 그때 어떤 선생님들은 한번 오고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불편해서.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힘도 좋으니. 힘 좋잖아요? 하여튼 힘도 좋고, 뭔가 에너지 있고 열정도 있고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니깐, 뭐래도, 청소 필요하면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아직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았으니깐 활동가는 어렵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안 해도 내가 해도 괜찮은 것들. 뭐든지 상관 없었죠. 잘 몰랐죠. 뭘 하겠다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고, 같이 할 수 있는거면 되겠다. 류: 나도 어느 단체에 일정하게 기부.. 기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회비를 내고 나를 참여하고
	기 대	

	최수:네, 제 2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강사가 되는데 제 2의 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양성 평등. 했다가. 거기서 수료하고 나서. 단체의 성격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강사 때문에. 황금:성격이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주업동에 살 때, 지나갈 때 옆으로 간판이 좀 보여요. 여성 민우회라구. 애들이 어리니까,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교육이나 딱 필요한 그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배: 처음에는 생협때때, 애들 어릴 적에 먹는것 때때 생협을 먼저 가입..풍물패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함께누리 생겼단 얘기 듣고 갔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민우회보다는 먹거리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듣고 하면서 우리가 풍물패 자격을 민우회 회원이어야 된다 정하면서 사람들이 민우회 가입을 권유하게 됐고. 민 : 소모임 하면서... 근데 민우회, 사실 그전에 민우회... 책 보면서랑 어렵פות이 좋은 단체다 막 이렇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당을 이렇게 접촉을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함께누리가... 함께누리 먼저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교육도 받고, 그런 뭐 지금 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작은 활동들. 그런 거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더~ 이소:애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상담을 했고. 전화가지고는 좀 만족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또 래성교육을 받고, 또래성교육 받았는데도 뭐가 좀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충족이 안되는 거지. 그래서 상담원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송:우리아이가 크면서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줘야 할지를 몰라서... 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여자로서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것이...여성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버거우면서도 나에게 혼동도 오면서도 새로운 맛도 느끼고 많은 관심도 느끼고 그랬어요. 한:아주 젊은 시절부터 여성단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관계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민우회하고 관계된, 제가 하는 일 속에서 관계 맺고 있었고, 그리고 고양시에 정착하면서 그 때 막 고양여성민우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 고양여성민우회랑 같이, 뜻에 동의하고 같이 지역에서 여성운동 여성활동 생협 이런 것들 하는데, 힘을 조금으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도움이 됐음 좋겠다 하고 전애: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만두고 1년동안은 갈등을 했고, 후회도 했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히 앉아 있고, 잘한 건가? 근데 민우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됐어요. 내 성격이나, 생활여건이나가 막 크게 변화를 했다고. 사고방식도, 이래야된다 저래야된다 막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나를 너무 죄고 가족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심리공부를 하고 싶었어. 난 뭘때때 화가 나고 애들하고도 부딪히고. 난 너무너무 바르게 살고 있는데 자꾸 부딪혀. 굉장히 그게 괴롭더라고. 이도:여성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리고 운동을 기대 김유:결혼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특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들쭉 막 낳고 했죠. 그래서 우리 딸이 막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분노. 그랬는데 여성운동 할 기회가 생긴 거였어. 운동으로서, 나 때 이걸 끝내야 되는구나. 이연:이질적인 거 같지는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회원을 가입을 하고 좀 더 알아갔으면 하는.. 추:민우회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한테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곳이야. 그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부끄럽고 심지어 욕을 해도 안부끄럽고, 특히 남편도 못마땅할 때 욕할 수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 안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을 해도 되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나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거라는 걸 알게 해준 데가 민우회예요. 그래서 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 지금보다 워낙 이렇게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 조금 유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우회덕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진: 아이 그런 일 생기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가 집에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 했는데, 정말 1단지에서 마을모임이 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	---

	최:아이가 한명인데 육아로 좀 힘들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해서 만:하면서 이해는 확실히 되진 않지만 막연히 그런 세계들을 접하면서 아 참 다르구나, 이 정도였지 어떤 기대를 처음에 갖기에는 좀 그랬죠. 김원:월 하고 살아야될지, 내가 정말 딱 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민우회 그 때 만난 거고. 애도 재밌게 길렀고 연결되는 그런게 되게 많이 있어서. 안: 예전 고양시청인가 성교육 강사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이력서하고 수업계획안을 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민우회 성폭력 상담원 교육이 있다고 하며 가보라 하기에 왔지요.
달라진 점	김선*: 성교육 상담원 교육을 듣고 나서 그 쪽에, 성매매, 성과 관련된 이슈나 이런 거에 민감해졌다고 해야하나? TV볼때도 옛날에 세바퀴같은거 아무 생각없이 봤는데 여성의 몸이 맨날 비하되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그런거에대해 민감해졌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에이 남자가 이런 게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하나, 류: 그냥 소속감! 제가 나름 이 사회에서 숨을 쉬는구나. 라는 생각은 해요. 달라진 점이 그런 부분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하는데 그래도 단체에서 뭔가 일을 해서 일조는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회비를 내니까.. 그런 느낌은 가져요 최수:사실은 단체에 와서 이런 말을 할 때는 부끄럽단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사회 전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거에선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여성단체라는 거 사실은 인력개발센터로 주변에서 알고 있으니깐. 여성의 취업을 돕는다 라는 건데. 여성집단으로서만이 뭔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하는 단체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가입하고 나서 잘 알게 되고, 처음에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으쌔으쌔 하는 분위기 아닌가 정치적으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단체 성격과는 맞지않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어쨌거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위에도 이런 얘기 알리면서, 알리기도 하고. 다양한 면에서 모여가지고 하면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편견이 많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관참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알고보니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깐 자존감도 높아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재능이 있어서 재능기부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황금:그 때, 자녀의 대화법 이런 거 들어서. 전 아들 둘이니까 막 키울 때 대화법을 딱 실생활에 적용되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이 바뀌니까 아들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배: 풍물 나오기 전에는 애 키울 때는 누구엄마누구엄마 하고 나 그런게 사실 잘 안맞더라고. 그냥 내가 활동을 안했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 민:사회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구요. 내가 활동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회비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그런 거...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건 없으니깐. 그래도 아직 저항감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창 상담원 교육 받을 때 아 제가 완전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또 역시나 공부 안하게 된 계기도 그런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는 약-간 아니다. 여성학은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하구나~’ 그래서 더 맞을 수 있겠다.. 이소:문제의식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게..그게 또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송:그 전에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좀.. 교류가 되었죠. 몸으로 교류가 되고 말로 교류가 되고, 생각의 교류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활동을 하든지 여기에서 성교육을 해왔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서 되게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밀거름이 되가지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자신감이었어요. 한:큰 울타리같은 개인적으로, 오래 된 동무같은, 내가 든든함에.애정이 있고, 맨 나중에 나를 받

	아주는 데가 없으면, 자원봉사 해야지. 전애:내가 정말 직장을 잘 그만뒀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정년퇴임했으면 여직도 그 틀에서 고정을 시켰겠지.전화상담 하면서 너무 많은 고민 갖고 있는 사람 접하면서 처음에는 진실이 아니지 가면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괴리를 내가 자꾸 공부하고 관련책들을 보면서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분야에 책 읽기가 즐거워요. MVC(?)같은거, 이거 읽으면서 너무 너무 절절히 느끼게 되고. 민우회가 나의 은인이야. 이도:스터디를 통해 가치관이 달라졌다.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여성의 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녀가 같은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도 임금과 추후 승진등 너무도 많은 차별이 있음을 겪으면서 '생존'한 내가 스터디를 통해 마음이 많이 정리되고 그리고 힘을 받았다. 추:여성으로서의 나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계기가 됐고,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전에 같으면 '아, 집에서 노는구나 나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집에서 놀아요" 똑같은 대답을 해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지나치게 또 '집에서 노는게 어딴어,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니까 그거 거부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놀아요' 이렇게 말해도 집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니까 남이 그닥 별로 전만큼 중요하진 않다.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하는 거 같아.분노감이 많이 좀 사라졌어. 근데 내가 분노도 왜 충분히 해야지 사라지는 거잖아. 그 역할을 민우회에서 해준 거예요. 진:지금은 내가 불편하면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가 할 것 하고 그래요. 그런 게 달라졌어요. 최:'여성주의'가 낯선 단어였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만:10년동안 쌓였던 게 조금 풀리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부드럽게 되고, 남편이 뭐라 할 때는 조리 있게 조근조근, 이제 좀 평상심을 찾아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옛날 같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니까 남편이 민우회하더니 말 많이 늘었다. 안: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재 된 불합리함, 불평등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아주 아주 힘들 때 여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는 든든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참 여 정 도 및 만 족 도	김선*: 공감, 가인, 파주상담원 1기, 하담 학습자자원봉사.. 처음에는 공감모임이 굉장히 저한테 컸어요. 차지하고있는 제 마음의 의미가. 거기서 같이 나누는 것들이 치유해갈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는 교육을 받으면서 공감 보다는 후속모임이 저한테 파이가 커져서 후속모임에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아무래도 처음 들었던 내용이니까 재밌었어요. 교육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같이 토론도 하면 참 좋았을건데 그런부분이 없어서, 류: 가인, 식당설문지, 마을모임지기, 식생활강사.. 서빙보는 분이신것 같은데, 거기 사장이 안오셔서 되게 긍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분도 봤어요. 그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보잖아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여유롭게 .. 보기에는 우리가 봤던 식당 노동자중에 가장 근사한 분이었어요. 편안하게.. 근데 조건은 나중에 설문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급여나 보험,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 이런것들이 없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그런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항상 불만 있는 거에 약간씩은 얻는 면이 조금씩은 있어서.. 도움을 받죠. 저번에 했던 그런 강좌듣는거..이런건 전 굉장히 좋다고.. 또 프로젝트 따셨다고 하지만 우선 일단 받는 사람들은 무료잖아요. 그래서 전 열심히 안듣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왜 열심히 안듣는거야? 끝까지 들어- 이러면서 얘기를.. 저는 그런게 민우회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도 민우회 회원이 아니라도 여자로서 민우회에서 혜택을 받는게 민우회에 대한 자부심도 들고.. 이런단체가 필요하구나. 인간의 강한 사상이 페미니즘이라 얘기할정도로. 얼마나 현실이 그지같으면 독하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야하지 않나.

	최수: 일단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은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한 여성이 아니라, 이런 단체인 걸 알고부터는 주눅이 좀 들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주눅이 들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좋은 얘기도 잘난 얘기도 아닌데 다들 박수쳐주시고,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직장 생활이 상하관계인데, 평등한 관계라는 느낌. 원지 모르고 생활한 게 몇 달이 지나버리고, 따뜻하다 편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잔하고 무시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활동해도 되겠구나.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단체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나에게도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소속 안 된 사람들을 따갑게 보지 않은 않나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편하니까 우려도 했었는데.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100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후속모임을 정말 후속모임을 탄탄하게 잘하는구나 하는게 그 전에 받았던 교육하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니까. 시연회를 하면서 반응을 좋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습을 참관하신 선생님도 용기를 북돋워주시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송년회를 맡겨 주시니까. 진행했는데 못했든 잘했든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 성격과는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여기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니까. 또 열심히 한 만큼 댓가? 경제적인 것 아니라 해도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일반 직장이나 기업, 사리사욕 말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 뒤의 배경 뭐 이런 걸 보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사람 자체를 놓고 보는 게 저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력에 붙어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내가 현재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 다녔느냐보다. 그런 게 고맙다. 황금: 하담이라든지, 꿈틀이. 이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랑 같이 크고 다 같이 사회에 나가는데 우리 애만 잘 키워가지고는... 요즘 묻지마 그런 사건도 많잖아요. 우리애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만나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보듬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크게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시골에 자리서. 시골 다 동네 어른들이 다 선생님이고 아빠고 그렇잖아요. 여긴 선블리... 아파트는 다 문닫고 살고 그러니까. 좀 같이 애들을 키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 : 민우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작은 재주가 필요하다 하면 내 재주를 갖고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항상 민우회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정초에 지신밟기 하러 갈 그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모여서 일년의 시작을 풍물로 하는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을 때가 행주산성에 우리 정회원의 날, 그때 아무튼 오랜만에 함께누리 사람들도 다 가서 놀았잖아요. 민: 함께누리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항상 이제 되게 저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 때는 이걸 접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문제였고 그랬는데.. 뭐 그게 크고... 상담(원) 교육 받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꿈틀이 급식 자원봉사. 초기보다는 좀 덜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또 계시잖아요. 저기 그 선생님 계세요 계속 상주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지원받아서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냥 도와주는 저긴데.... 그래서 그런지.. 더 제가 더 의지가 되고 일은 더 쉬워졌는데. 대신에 더 이렇게 자발적인 건...충만감은 좀 더 떨어지죠. 이소: 자원활동하면서 성교육 했던 거. 스터디했던 거도 되게 좋았어요. 송: 아, 제 머리 속에 '민우회' 그러면 굉장히 여성성 강조하고 자주성이 강한 친구들이면서도 아..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떠나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 내가 진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여기서 가끔 전에 춤 테라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밑바탕이 되가지고 저의 내면적인 것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어요...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드려지기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굉장히 심적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교육청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게되었어요. 한: 편집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도 그럴겠지만 사람들
--	---

	을 묶어주는 힘은 소모임이 아닐까 생각해요. 관계, 친밀함 그런 것들이 그런 모임에서. 일 관계서 만나는 것에도 쌓일 수 있지만,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사로움, 어쨌든 민우회 활동에서 굉장히 얻고 도움이 됐죠. 생협활동도, 참 재밌게 일했던. 전애:처음에는 모든 소그룹에 참여했어요.자기성장. 참여를 했지. 보조로 하면서 얻은게 무지 많지. 세 번인가. 상담은 꾸준히 하고 있고 가끔 영화보고 이도:-스터디가 가장 인상적인 활동이다. 아쉬운 점은 1. 생협의 조직이 비대해졌다. 조직적으로 철저해야 하며 회원을 대면할 때는 친근함이 요구된다. 2. 민우여성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여성사를 들을 때 큰 흐름이 없다고 여겨졌다. 현재 여성의 의식수준에 비해 일방적으로 던지는 계몽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쉽다. 강좌 후 후속모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조직의 생각을 전할 것이 아니라 ‘여성’개인을 만나려 하면 좋겠다.- 소식은 소식지(역할이 없다고 여겨진다, 관점이 살아있지 않다. 기획기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사무실오가면서 , 공감소모임을 통해 듣는다. 김유:해외연수는 민우회가 제기를 했던거고 나는 동의했던 거고 가장 인상깊었던 게 러브호텔 반대운동하고 그 다음에 인제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여성관련 예산들.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조례 만들고 기금 당시 30억 조성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지 98년도면. 전국에 사례가 없고저는 시의원활동이 그냥 민우회활동이라고 생각했었고, 생협 할 때 공동구매하고 그럴 땐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럴 땐 사람들 좀 보고. 최:언젠가 민우데이 때 행주산성을 갔는데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놀았던 것이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고 울 뻔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공동작업 했던 것도 좋았다.(퀼트 만들기) 민우회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식화시키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무척 예민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상담원 교육을 안 받으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상담원 교육을 받아도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데로 가는 것 같다.시간, 열정을 투자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별로 없다. 만:아이들하고 계속 체험 이런거. 산지견학가서 풍물팀을 만나게 돼서, 생협홍보위원장도 하고, 민우회 홍보대사.주엽동 마을모임. 주엽 매장 담당이사. 요즘 일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얹혀 있어서, 기존에 이사 하기 전에 풍물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네 번 다섯번을 갔거든요. 오로지 수업반 세 번을 가야 되니까. 너무 분산돼 있는 거죠. 정신이 없게 분산돼 있어서.. 민우회가 특이한게 쪼끄만 뭔가를 재능이다, 이거 자신이 없어요 이런것도 너무 많기다 보니까 책임을 주어진다면 사람이 노력해서 하게 되잖아요. 대충 못하니까.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는게 좋아. 김원:저는 마을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생협을 설명하고 그사람들이 막 가입하고. 이랬을 때 제가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결국은~ 그것도 역시 사람 모아서... 안:성교육강사 잠깐..성교육 강사, 상담 전화를 하면서 여기서 몇 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돈을 받는 다는 것이 별로였어요 이에 대해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하셨는데 그때 당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여성으로써 돈을 버는, 자기 힘으로 처음으로 버는 것을 얼마 안되긴 하지만 그 돈을 기부하라고 하는 것 또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내 마인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성교육 나가는 페이는 학원 강사 조금 페이하고 맞먹었었으니까,,근데 다른 곳에서 버는 것 하고 다르게 여기는 시민단체데..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성교육 강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거예요 여성단체로서의 그나마 투명하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구요
--	---

민 우 회 에 바라는 점	김선: 제가 민우회 공감에서 얘기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대중화사업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인적자원도 없고 시간적인, 할일들이 많은데 안되니까 너무나 소극적이다. 일단은 사
------------------	---

람들이 민우회를 모르니까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파트 부녀회를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 들고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거든요. 에어로빅 학원도 갈 수 있고 활동가들이 영업사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빠서, 할일이 많아서겠지만 공격적인 그런 게 있어야하지 않을까. 저는 하게 된다면 같이할 열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교육 있으면 참여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가면 회원배가운동이 될 수 있는건데 계속 아는 사람들한테만 구멍가게 데려오는 것처럼 다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이걸 원하는 사람 정말 많을건데 모르니까, 있는지 모르니까, 지하철에서 전단지라도 나눠주고 뭔가 좀 알려줘야하는데 앉아서 오기를 바의식적으로, 같이 새로 자원을 키울 수 있는 역량있는 사람들이 있을건데 놓치는 건 아까운 것 같고, 그런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제 좀 액션을 취할때가 된 것 같아요.

류: 근데 제가 행신모임 보면 기존멤버가 4~5명 정도인데, 다들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걸 하고.. 안되는건 접고 . 저희가 고민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그때 김인숙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건 참 좋았어요. 마을모임 진행하면서 참 바빴는데, 아 내가 같이 가는거구나 라든지 민우회에서 이런걸 하는거라든지 .. 그런 시간이 좀 더 자주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위에서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랑, 직접 오셔서 같이 하는 거랑, 요새는 마을모임 진행자가 뭔가 많은 걸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누가 진행자고 회원인지 모를정도로, 같이 얘기하는 분위기가 좋은것 같아요. 아마 시민학교 나온다고 다 참여하지는 않을것 같지만 그 존재를 안다는 것. 그게 필요하구나라는 인식, ..

저는 항상 놀래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최근에 접했던 것들은 민우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걸 민우회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상황성교육이나 이런거가 굉장히 건강하게 돼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갈 수 있고.. 대신 이제 많이 못온다는거. 의외로. 그니까 제가 아동지킴도우미 그걸 하거든요? 어머니폴리스인가? 근데 담임선생님이 어머니폴리스 담당교사예요. 근데 이제 느낀건 어머니폴리스가 어떤 교육 없이 해요. 근데 민우회에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학기초가 아니라서 그런지 전에 계획된게 아니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더라구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무원중학교 이런데 하신대니까...

나는 애 몇몇을 따로 끄집어내서 듣게 하는게 좀 그래요. 몇 명만 듣게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들어주면 ..

그런식으로 제안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한번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별 반응이... 학교는 쉽지 않더라구요. 한번해봤는데..

저는 민우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수: 방학같은 때에 학교와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도서관이나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학부모들 참여하시고 싶은 분 신청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단체를 알리고 홍보하고, 여성,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찾아 오는 사람을 위한단체가 아닌 찾아가는 단체가 되면 어떨까.

A.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게 제 자격지심일수도 있어요... 으쌰으쌰하는 단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건 사실인것 같아요. 이런걸 성교육, 생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뒤로 가면서 아니네? 할 수 있으니까.

황: 네 알려져야죠. TV에 광고를 대기업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민우회)가)너무 좋은데, 대중매체 같은 것도 해서, 좀 많이. 몰라서, 엄마들도 좋은데 몰라가지고 진짜. 가장 쉬운게 티비 뭐 라디오, 대중매체가 크잖아요. 광고비가 비싸서 그렇지. 대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대중성 있게.

배 : 나는 민우회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매개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를 잘, 사람들을 모아 댈으면 좋겠어. 생똥맞은게 아니라 옛날부터 여자들이 즐겨오던 걸 생각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민우회 회원들은 그냥 아줌마들보다 정치의식이나 사회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만나면 즐겁고 좋은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민우회 오는 여자들은 일반적인 아줌마들 정서랑 다르잖아요. 나는 오면 굉장히 즐겁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만족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굉장히 일반적인 아줌마들이랑도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아. 사람들 보면 논리가 아닌 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뭘 하려면 그 부분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그래서 내가 그 제안 한거잖아요. 춤모임 태극권모임 시작하고 사무실에서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부탁한게 그건거든 민우회 활동 중에 문화적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정회원의날 때 풍물로 놓고 그런거 한번 해 봐요. 송:환경을 준비하는, 그.. 갱년기를 겪고있는 그 모임 이래가지고.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공부파들도 많으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하하.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어, 바자회 같은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바자회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제 경험으로 보면 네일아트 있다. 이 기술 가진 사람이 한 번 전화를 해서 한 번하는 데 오천원이다. 그거 해주고 나서, 이렇게 좀 배웠으면 연결될 부분하고 연결될 장이 열린다면 이 사람들도 자립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여기 천연 수세미 쓰잖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것 일해볼까.. 답례품 주문..애네들한테 만들어오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수 적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먹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겠다. 복지관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해가지고 프로그램하잖아요. 강의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이 배운 사람들을 잡아서 강사활동 하면서, 학교폭력 폭력예방/방지 교육을 이렇게 권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교육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점점 알짜들이 남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계속 하지, 안 그러면 안 해요. 한:공부하기가 싫구요. 그냥 놀고 싶은데..노래 강좌 이런거. 굉장히 운동성있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거. 아무리 조직이 커두 그런 운동성이 없으면...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저는 하거든요? 민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그런 걸 공론화 시켜야죠. 시민단체가. 그게 정답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하는 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부터 하고 몸이 안 가져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만나달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게 참 달라요. 알아도 시간은 열추 되지만, 피곤하고 일도 많고 안 가도 크게 지장 없고 이런 건 빠지게 되요. 바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전화 한통화 하면서 전화를 하고 보고 싶다,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 가지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억지로라도 가게 되더라구요. 거기서 또 즐겁고. 안 그러면 또 안 가게 돼요. 나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번씩 해줘서 관심을 표명하고 그러면 배는 뭘걸요 ? 참석률이? 쪼금은 더 많이 문화적으로 지금은 코드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감성도 그렇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많이 정서적인, 문화적인 측면의 활동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가령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옛날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원들 중에서 발굴해보면 아마추어 사진작가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림작가도. 근데 그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돼. 전시회같은 걸 할 수도 있구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애. 또 여기는 주부조직이긴 하지만 청소년, 그러니까 민우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 대상의 문화동아리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회원대상이 주부, 여성이긴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애. 있나? 전애:노인들 쉼터가 있으면 좋죠. 그런거 안 말아. 나도 노인네가 부담스러운데 우리 애들은 더하겠지. 그러니까 노인네끼리 모여서, 그런거 있음 참 좋죠. 일년에 한번씩 국수 팔고. 그거 갖고는 어려워. 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커피집도 내고 그런대매. 이도:그룹인터뷰를 제안한다. 혼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우회가 성폭력에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길 바란다. 민우여성학교 진행후 후속모임을 하길 바라고 다양한 방식을 교육을
--	---

	진행하길 바란다. 토론식 등. 김유: 그런 측면은 있죠. 민우회가 조직적으로 담보를 안 하니깐. 지역자치위원회든 그런 사업을 조직적으로 담보를 안 하고 대신 정책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인거고 저는 그걸 주로 시의원 채널을 통해 더 열심히 해서 시의원 중에서 그런 리더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도나 예산이나 법률이나 평등을 위한 이런건 많이 개발되고 진행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반적 여성들이 못 따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산층일지도 모르겠어요 평균이니깐. 지금 우리가 약자를 지원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강력한 의식을 갖고있는 성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은 일반여성들이 그걸 못따라오고 있고, 언발란스가 생기고 있어서, 그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면 여자들이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떨어진다,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늘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는 거, 그런 부분. 저는 그 책임감이 떨어지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쉽게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일을 하더라도 아이와 남편 사정에 맞춰서 교육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여자들이 좀 사회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기 훈련과 그걸 해줄 수 있는 단체? 그런게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내가 더 하고싶어요 민우회 회원이기 때문에 뭐 정보도 많이 얻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긴밀한 관계들이 옛날보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사업 많이 하고 실무자들은 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고 사업의 카테고리를 조금, 너무 많아.. 집중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소속감을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활동해나가는 이런 구조면 좋겠어.정치인을 배출하고 지금 정당정치이긴 하지만 그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채널들을 만들어서 한 명을 또, 한 명이 일을 잘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민우회가 정책적 사업을 할 때 좀 외부 초청인사들 불렀음 좋겠어요. 추: 회원들과의 관계나 소통이나.. 원가, 어찌 자칫 잘못 보면 상근자와 자주 나오는 회원들만의 민우회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사실 그 밖에 그 숨어있는 회원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건 늘 고민거리잖아요.회원들이 사랑방마냥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데,내가 처음에 커피, 바리스타를 배웠던 이유가, 그 때는 사실 이렇게 커피숍을 차리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커피숍을 차려서, 다 오는...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으니깐. 내가 민우회 생협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 거거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 민우회를, 한살림도 가보고 그랬지만, 선택했던 이유가 기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갔던 거지. 그게 좀 잘 안되어가는 것 같아요. 진: 사진이 별로 없어요. 나는 회원들이, 그거 10일 단위잖아요. 많이 찍어서 좀 자랑하고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그래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기가 그 장이 돼야죠. 의식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욕구가 뭔지 그걸 제대로 읽어야겠죠. 조직이 성장하다보면 양적으로 좀 추구하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늘려가시지 마시구요. 어느 시기에는 딱 멈추시고 좀 안을 들여다봐서 한 1, 2년간만이라도 확장을 좀 멈추시고 안에 내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뭔지 해서 좀 안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시기를 좀 가지셨음 좋겠어요. 최: 회원 가입을 하였을 때도 인사문자 하나 없었다. 전화는 물론이고 신입회원 가입 시 밀착해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민우데이, 새내기 날 등을 왜 없었는지 모르겠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좌를 듣지 않거나 소모임을 하지 않는 회원은 소외감을 느낀다. 강좌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 후속으로 무언가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조직 사업 하는 사람이 전담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 소모임 진행 중 민우회에 대한 공지를 하면 좋겠다공감여행을 하면서 민우회의 활동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입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공감여행에 신임 대표도 인사하지 않아 대부분은 대표 얼굴도 모른다. 대표가 바뀌면 각 소모임을 방문해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민우
--	--

		회 활동도 잘 안보이고 회원들의 활동은 더욱 안보인다. 활동 스케치같은 걸 해서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겠다. 민우회 정체성이 명료하지 않다. 민우회가 뭐하는 데지? 라는 질문에 딱히 할 말이 없다. 내일신문같은데 민우회 이름으로 정기적인 칼럼을 쓰면 좋을 것 같다. 2단 3단 광고로 나가는게 아니라 지면을 고정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프로그램도 일회성으로 끝나서 아쉽다. 고정되게 지속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 성폭력상담 이외에 여성단체이니가 여성들이 필요한 상담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이라도 상담소에서 하면 좋겠다. 청소년 문제, 아동문제 등 친절처럼 와서 해소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지역, 정치 이슈보다 여성들의 소소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활동가들이 하려고 애는 쓰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잇는 단체로 여겨진다. 애만 쓰고 그냥 끝난다.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길거리로 나와야 한다. 이번에 인터뷰한다는 소리를 듣고 '해야 할 것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회원이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 민우회에 바라는 것은 여성들한테 힘을 주는 허브 역할을 하면 좋겠다. 만: 예를들면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씨나 사회적으로 다 알고는 있죠. 우리가 주체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힘을 보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체만 되려고 하지 힘을 보태려고 하지 않는 그런게 보여서. 내가 내 목소리를 안 내고 우리단체가 약간은 손해보나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참하고 그런게 안타까워요. 자기를 발견해주는 그런 걸 민우회에서 좀 열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고, 회원관리 차원에서 새로 조합 하신 분들한테 강좌나 이런게 있으면 전화해서 이리이러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라는 그런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심어 주면 약간은 귀찮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데에, 열에 한두명은 교육받으러 오지 않을까. 회원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김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분들은 또 저 젊은 세대잖아요. 조금은 더 어린 사람들 들어와야 되거든요...항상 소통하려고 하고 항상 열려있는 자세. 그리고 좀 더 젊어져야 되고. 생각이. 민우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공간이 '사람 사는 덴가봐' 이런 게 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민우회를 얘기할 수 있다는거지요..여성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건 동의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나가고 있지 않는가, 제대로 한 가지를 잘 깊이 있게 하는 것과 문어발로 확장하는 것에 있어 약간 불편하다.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먼저 활용하는 게 순서다.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확장을 목표로 제주도에서 감귤 초콜렛이 와서 팔고 어찌고. 공정무역이라며 커피까지 판다, 그럼 나중에는 술 담배도 팔겠다는건가 매장 확장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 자본의 논리를 너무 쫓아가는 것이 생존의 바탕이라고 하지만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후곡매장까지 생기면서 더 그렇게 느꼈다. 지역 내 사거리에 경쟁식으로...경쟁이 아니라 공생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딱 기업 경영마인드처럼 확장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직업 여성들이 소외되면서 느끼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주부 탕으로 돌리는 상황에 있는 주부들이 올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중 고등학생 아이들 둔 엄마들 중심으로.. 다만 과격했다가는 다 나가요 저도 여적에 두 번 나갔다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뒀던 거고 개는 쯤 무섭다고 ...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김선*: 저는 관련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여성주의도 마찬가지로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너무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서, 궁극적으로 청소년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청소년학교를 만들자. 그게 어떤 식의 모델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것저것 얘기하게 되잖아요 민우회할거냐, 나는 나중에 돈을벌어서 뭐 할거다 얘기를 하면,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인적자원으로 결합하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주는 게 낫다 이

	런 얘기까지도 하고 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후에 그냥 청소년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주에 기반한. 그런 거 하려면 어쨌든, 학습적인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모델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는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지식전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더불어 같이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류: 그래서 역사쪽에 꽃혀있으나, 진짜 주로 꽃혀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건 애들 물놀이에 제가... 어떻게 하면 물놀이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해볼까라든지... 아무래도 관심은 거의 성과 관련된 소식,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런 부분에 초점이 가고. 최수:영화소모임도 좀 참여하고 싶구요. 먹거리 관련해서 생협에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먹거리에 지식이 약한 거 같아요. 엄마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 황금:자녀교육이구요. 남자애가 10살 됐거든요. 그게 9살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9살 까지밖에 애를 키운 노하우가 없는데, 애가 열 살이 된 거예요. 10살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덜 된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나 이런거. 남편도 마흔 살이 되서 성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마흔 두 살인데, 30대에 알던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거 좀 잘 맞춰서 가정을 화목하게 좀 우선은. 다 남자들이니까 셋 다, 집에. 남자들 세 명하고 맞춰가는 게 좀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자니까. 그런거를 좀 융화하는거. 배 : 풍물하면서 자꾸 몸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풍물을 뛰어넘어서 노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거야. 아줌마들이 잘 노는 어떤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요번에 우리 박옥희선생님이랑 달밤에 보름달 보며 걷는게 내가 어떤생각했냐면 우린 여자들이잖아요. 여자고 나는 문화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잊혀져 있던 옛날부터 내려온 문화들을 생활속에서 다시 마주하면 어떨까 싶어서 민: 바느질에.. 하하. 전통 자수, 전통 바느질, 보자기 뭐 이런 거... 요즘 그거 하느라고. 사실 함께누리도 그것 때문에 ‘하야, 이거 접을까?’ 막 이러구..인사동에 갔는데 보자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시작이 돼서. 송: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하. 그리고 또, 저기한 거는... 다문화를 하고 있다보니까 여기서도 여성인권이라든지, 이혼하신 분들 혼자사시는 한부모.. 그것도 있는데. 어.. 이... 다문화 여성들이 되게 돈을 벌고 싶어해요. 돈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여기 나라로 시집온 이유도 돈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벌어서 줘야해요. 근데 벌지를 못하는 상황... 뭐 남편이 안내보낸다거나 시댁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그렇게 있다보니까, 돈을 벌어야겠고. 남편한테서 돈을 타서 쓰거든요. 필요할 때 얼마 하루에 몇천원 이런식으로. 한: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학. 한 권만 더 쓰고 싶어요 전애:주식 재테크. 친구한테 들었는데 호기심에 해봤는데 이문을 남겨 줬어요. 그래서 확 땡겨줬지. 그래서 관심있게 주식전문 채널도 보고. 좀 안전하고 이윤이 높은 건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정도까지 발전했어.딸들이 못 사는 애들한테 시집을 가 가지고 궁상스러워. 남편한테 도와주자 그랬더니 안된대. 큰애가 크게 아파갔고. 3년 됐잖아.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안 되서 왔는데 자궁경부에 혹이 있어서 수술하고. 지금도 진행중이에요. 이도:-다른 가치를 창출하자.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찾자.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 치유교육학이 관심.이유는 시간강사로서 지내는 동안 입시위주의 현 교육에서 인간답지 못한 교육환경 등 한계를 많이 느꼈고 입시 컨설턴트로서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김유:학교용지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진보적인 교육감이고 도는 김문수도지사에게 한나라당의원 90%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또 막 무상급식도 하고 하니까 도에서 너무 막 싫어하면서 아예 돈을 제대로 안 낸 거예요. 학교 100개를 딜레이시켜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연:올해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본 살풀이는 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	--

	승무를 순서를 좀 한 번 익혀 보려고 올해 인재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차원에서 춤을 이거를 어떤 식의 뭐 어떤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내고 싶어 가지고. 여기저기 치유프로그램 이런 걸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그 때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마음 고생을 좀 하고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좀 활용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춤이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만, 되게 자기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것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는 걸로 좀 내 이 결과물들이, 내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좀 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추:지금 현재로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고 싶은 거야. 굳이 하느님을 막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게..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최:인문학 공부에 꽂혀있다. 고전공부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만:홈페이지 제작에 꽂혀 있다가 무산됐어요. 김원:작년 한 해, 올해까지. 일단 애 엄청데~ 애 키우는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선*:저랑 남편이랑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경력이 18년이에요. 졸업하자마자 했거든요. 학원강사 하다 보니 거의 개인시간은 없어요.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개인시간은, 또 어쨌든 간에 사교육 현장에 깊숙이 박혀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 살다보니까 마흔썸 돼서 보니 남편이랑 저랑 삶에 대한 재미라든가, 그때 남편이랑 저랑 어떤 말 했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한다. 꼭 무슨 단체활동을 하고 삶을 사는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돈 버는게 무의미한것같고 이렇게 살고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버는 삶으로 돌아가자, 작년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학원생활 다 정리하고 조금 벌 수 있는 정도로 돼서 저도 고민하다보니까 이렇게 사는건 아닌것같다 생각은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적인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류:돈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아직 없어요. 저는 이 활동들이 재미있거든요. 민우회 활동들. 이런 활동들 시간내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경제활동은, 돈을 벌게 되면. ... 가끔 이런생각도 해요. 민우회 매장에서 돈을 벌게되면 어떨까? 근데 그분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돈은 어려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되게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황금:저를 찾는 거 계속 생각 하는데, 나를 발전시키는 거. ..또 일도 찾고 싶기도 하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싶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잘. 배:돈 벌지 말고 아껴쓰고. 민:취미를 일로 옮기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너무.. 어려운 길이라서. 바느질? 뭘래나? 모르겠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사실은. 송:여기에서는 70%는 봉사잖아요. 30%는 페이가 좀 있는... 이런 건데. 그 정도 있어요. 계속 유지하기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넉넉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경제적인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맞벌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도했어요. 민우회가 내 생활비라도 됐다면 내 용돈이라도 됐다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안되니까... 그래 아직 이걸 내가 좀 여유있을 때 해야지~ 하고 약간 뒤로 밀쳐놓은 상황이 된 거고. 전애:나는 커피. 여건이 주어진다면 바리스타나 그런거 익혀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요. 이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한다. 시간강사 입시컨설팅. 추:그래서 늘 하고는 싶어하는데, 막상 결정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거는 그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 근데 솔직히 내가 자유를 준다고 한들 사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면서도 늘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거든.. 진:저는 그 하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구요?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거예요. 집에서 반찬을 만들면서 좀 해서 갖다드리고...
--	--

과 거 의 활 동 경 험		최: 없다. 내면을 성찰하는데 욕구가 있다.
		김전*: 학교때도 학생운동을 맞보았고
		류: 예전에는 구몬학습지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학습지는 안할.... 음 그리고 그냥 노동쪽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지 않을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는데,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대면 안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생각이 들어서 그걸 못하게..
		황금: 그전에 연구소에서 사무직.
		배 : 풍물은 결혼하기 전에 했어요. 하다가 결혼하면서 일도 다 접고 그냥 집에 있다가 애 키우고 하다가 내가 다시 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게 공동육아에 애들을 보내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풍물을 시작한거예요.
		민: 큰애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닌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떡엄떡엄. 결혼 전에 땡기고요. 결혼 후 임신하고 나서 좀 쉬다가 또 나가고 그랬는데... 역시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소: 18개월하고 그만뒀는데.그냥 결혼하면 그만뒀야되는 줄 알았어요.
		한: 학원강사도 했었구요. 아이들 책도 한 두어권 썼고. 수학관련한 출판물 했구요. 그 다음에, 여성 참여정부 초대 지은희 장관 임명 되었을 때 수임비서관을 1년 10개월 했구요. 중앙지원센터라고 지금은 인제 성매매 그 때 막 만들어졌을 때, 그거 만드는 걸 한 5개월 했구요. 그것도 만들었구요. 덕성여대에서 5년차. 지금은 비전은 아니고 정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째 하고 있어요.
		이도: 전산을 전공하고 대전 연구단지에 슈퍼컴퓨터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쉬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일을 지속하려면 독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내면의 힘겨움 때문에 직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역할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강사를 하게 되었다.
		김유: 결혼전에 단체에서 근무했어 실무자로. YMCA 시민**에도 있었고 소비자보호단체에도 있었고. 그 전에는 **학생협의회,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하고 둘째 낳고 쉬었죠. 일은 안하고 회원 활동만.

여 성 으 로 서 의 삶 이 해	여 성 으 로 서 의 어 려 움	김전*: 안 좋았던 기억이 성추행, 그런 것.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있겠쥬. 다른 부분들은 저는 여자니까 더 뭐, 어렸을 때도 오빠랑 있긴 했지만 시댁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의도한건 아니겠지만 성향자체가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때부터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류: 항상 어려워요. 남편들이 항상 바빠요. 항상 열시 열한시 이쯤에 들어오는데 그니까 애들하고 좀 치어요 제가. 그전에 여덟시까지 들어올 땐 애들하고 떨어져서 숨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오전의 활동은 너무 재밌는거야. 근데 오후에 만나면... 그래서 웬만하면 더 벌이지 않게 되는게, 오전에 쉬어야지 오후에 애들을 봐요. 올해 들어서 한일이. 맨날 애랑 책

	읽다가 '엄마 뭐야?' 계속 판애기를 하는거야. 좋아서.. 동화책 읽어주는데. 그런게 제가 요즘 힘들어요. 동화책 읽다가 꿈속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아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할머니 우리 엄마는 책읽을때 판애기 한다거나 잔다거나.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육아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엄마에 대한 ..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키워야된다.. 이런거. 저는 엄마가 집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엄마가돼서 집에 있는거구요. 암튼 육아는 나한테 또다른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딸이라서 아버지한테 달받을것 같을때. 재산분배라는 그..섭섭한데.. 그마음을 보이면 안되니까 나는 더 짜증이 나는거죠. 그니까 충성하는 딸이 되어야 하는게.... 밤길.. 다니고싶을때 무서움이랄까, 드럽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잖아요. 밤길이나 여행다닐때 나 혼자 다니고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신경써버리게 되니까. 최수:제가 얼마전에 백화점 H모 백화점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카드를 만들려고 갔거든요.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된대요. 헐. 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는 카드 하나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강사라는 거는 이 안에서만 알지, 그렇다고 제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카드 하나 못 만드는 사람이구나. 솔직히 너무 슬펐어요. 부부면 싸움을 안 할 수 없는데, 내가 연애할 때는 제법 내 목소리를 냈는데 결혼을 하고 더군다나 애가 있다보니까, 남편은 애가 옆에 있어도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이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닌 경우에도 맞받아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는, 내가 엄마구나.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이 화나면 달래고 수그러야 된다는 사회 통념이 결국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자. 황:애 교육은 엄마가 시켜야 되고, 애가 잘못되면 다 엄마 책임이고, 애가 아프면 엄마가 잘 못 키워서, 케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애가 마르면, 남편이 애가 너무 마른 거 아냐? 이렇게. 애가 배고프다 그러면 왜 애를 배고프게 하나고,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밥도 안 줬나 그러고. 너무 이제 애를 나면 부부 위주가 아니고 자녀가 먼저니까 신랑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항상. 배 : 애들 교육비 때문에 여자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풍물판도 보면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딱 위에는 남자가. 어디 가든 조무래기들은 여자들인데 어느 동네 가든 대장은 남자들이 딱 잡고 있는게 너무 웃기는거야. 잡고있는 남자들 사이에 관계들이 있어. 내가 여자로서 하는게 뭐라그럴까, 힘들어. 내가 남자라면 자기네끼리 술 먹고 하면서 그게 되는데 여자이다보니까 나 스스로 그런 데 끼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있어.국악판도 보면 인맥이 게 다 말아먹고 있어. 나는 비켜 있는 입장인데 내가 만약 주류에 진입하려면 그걸 타야 되는거야. 어떤 선생님 만나서 여기에 모든걸 다 헌신해야 돈도 갖다 바쳐야 민: 근데~ 그게 계속 해결 안 되는 게~ 양쪽을 다 한다는 게... 직장이 아주 만족스러웠으면 회생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막 이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는 게 제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안 된 (힘든)사람들이 맞벌이하는 엄마들.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뭐, 초기에는 애아빠한테 미안한 거. 혼자한테 부담 지운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주위에서 '너 노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다 얘기는 해줬는데도. 그런데도.. 항상 그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애아빠에 대해서 입장이 당당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문제도 있고.. 어릴 때 교육이 자존심은... 그래서 할 말 다 못하고 항상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화날까 싶어서 안하고 이랬던 게.. 이소:머느리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한. 싫기는 싫은데,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아무것도 할 수없는 그 무력감과 좌절감. 송:요즘 들어서 갱년기 오고 완경이 되가니까 내 생활 패턴이, 몸에 대한 패턴이 바뀌면서, 남자들이 하고 다른 그 패턴이 바뀌는 기복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슬픔이 오면서 여자가 꼭 이렇게 크게 겪어야 하는 건가.. 이런 건있어요. 크게 뭐 어려움이라는 건 없지만, 약간 느낌적으로... 요즘에 그런걸 자꾸 많이 생각하게 되어요. 한:여자로써의 가사, 육아 다 억울해요. 그 부분이. 차별적으로 길들여진 여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	--

		더 계발하는 데, 나를 계발하는 것보다 늘 아이들 먼저. 물론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데 못했다 이런 건 없지만. 더 진취적이고 세속적인 성공 할 수도 있었고, 하지 못했더라도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늘 주저주저하면서 선택을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지 못했다. 매 순간. 이런 것들에서 나는 돌이켜보면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제약을 조금 덜 받았겠다. 전애:살면서 생활 구석구석에 박혀있고, 여기서 내가 깨우친건 있지. 그동안 10년동안 공부하면서. 그치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별수 없구나 할 때가 있으면, 그동안 채워당한 거. 아직도 가족한테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거. 이런거 속에서 절망을 느껴요. 이도:아이가 입학할 즈음 아이 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전업주부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못할 때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 그리고 사회의 무시 때문에. 김유:여성정책을 할 때 힘들어요. 남성이 70%를 넘잖아요.여성들이 삶이 괴롭고 이런걸 전혀 몰라요. 여자들이 권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거 이외에 일하면서 다른 여성들이 받는 그런 가사노동 해야하고 육아도 해야하고 그러면서 직장도 병행해야 하는건 똑같은 부분. 추:일단 어디 밤길 나가면 난 그게 두렵고. 난 지금도 밤에 가다가 남자가 갑자기 휙 돌아서면 깜짝 놀래요. 너무 놀래. 그런 것들... 나는 그게 사회적인 학습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학습이 제일 큰 것 같아. 시골에서. 몸버리면 안되고... 그리고 왜~ 자고 일어나면 누가 발에 들어가서 당했다더라 막 이런 소리 엄청.. 진:결혼제도인데. 결혼이라는게 하고 애도 낳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소모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제가 직장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몸이 안좋은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를 봐주려고 시어머님이 올라오셨지만, 물도 안끓이셨거든요. 나로서 자아실현을 하려면 이기적이 되어야 하고. 정말 착하다 착하다 소리 들으려면 나는 망가져야 되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지, 최:결혼 후에는 직장생활을 했었다. 남편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가부장적이다.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았다. 아이 키우면서 직장다녔는데 내가 첫월급타서 식기세척기 샀다. 만:친정아버지가. 오빠들 둘은.. 그건 내 생각인거지. 그 당시에 딱히 뭐 여성으로서 직업 갖기에 일할 수 있는게 비서 역할밖에 없잖아요. 세대가 제 주위에는 그게 보편화된거라서, 그게 그냥. 어렸을때 아빠한테 오빠들하고 차별받는건 차별이다 그랬는데 사회 나가보니 다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았죠. 동등한 배려가 아니라 해 주는. 김원:저는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워낙 아들 위주의 저기고. 그래서 제가 여성스럽게, 여자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우리 남편의 모습에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니까 가족 문화가 여자가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집이에요.
	고민해소통로	류:저는 떠들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상담하고. 너무 물어봐서 이렇게 안타까운, 담아줌 뒀으면 좋겠는데..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또 나름.. 저 발일을 해요 주말농장을 하는데, 그런게 나는 좋아요.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걸. 특별히 제가 고민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민:제일 깊은 고민은 동생요. 여동생하고 많이 해요. 이소:사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송:몸에 대한 소통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금요일마다 멘토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끝나고, 잠깐 이야기할 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잠깐잠깐... 전애: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있고. 이도:남편(감정을 빼고 이야기한다.) 공감모임. 공부를 통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한면씩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많은 "나"를 만나면서 의식이 달라졌다. 민우회는 사랑방역할을 한다.

지역이해	지역삶의질	김선*: 청소년의 문화적 공간이든 교육이든간에, 청소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류: 네 저는 여기 고양시에 애착을 갖게 됐어요. 서울 갔더니 오빠가 경기도는 교육감도 이렇게 뽑았고, 좋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때, 뿌듯해요. 그런게 좋은거 같아요. 교육감을 뽑을 때 아
------	-------	---

재뽕아야돼 이려고 뽕고.. 왜냐면 우리 되게 무기력한게 많잖아요 선생님. 선거를, 투표를 해도 맨날 지거나 그런 패권주의나 패배감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

그리고 또 민우회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정책적인것도 공유하시는.. 그래서 김인숙 선생님께 정말 많은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아 이렇게 침 흘리면서 민우회 역사도 듣고.. 그래서 나름 경기도에 느끼는 자부심이.... 나름 시작부터 가능성이 있는 곳이구나., 바꿀 수도 있고, 벽은 아니구나..자기집에 애착을 갖기는 내생에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거..

저는 이제 애 엄마니까.. 혁신학교가 좀 더 퍼져서, 아이들 교육에서 .. 저는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 교육감의 정책?

최수: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사실은 내 아이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가정 형편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걸 떠나서 엄마가 다른 엄마들은 학교에 와서 이것저것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맞벌이 여성도, 전업주부 여성도 언제 그 위치가 바뀔지 모르고. 알고보면 다 같은 여성인데, 서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 입학하는 학생들은 부러워하고 그럴텐데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 상호 차원에서 그런거 못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지역이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다. 주업은 밥은 먹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너무 내 가정만 생각. 옆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도 작은 노력인데, 따뜻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물론 전체 조직, 지역으로 크게 볼 수 있지만 같은 여성에게 도움을 주자는 단체일텐데 지금 여성들이 너무 모르지 않나. 처음부터 여성주의 이런 것보다, 간단히 아이와 요리하는게 있을 수도 있겠고. 여성에게 우리 단체에 대해서 조금 알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황:밤거리 안전하게 다니는 거 이런거. 오늘 아침에도 15살 가출 여자애를 집단 성폭행 해가지고, 성매매, 그런 거 안타깝더라고요.

배 :요즘에 문화센터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아줌마들 갖고 노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업적으로. 주차난 너무 심해.

민:자꾸 개발한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짓고 그런 거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대로...

이소: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애들 키울 때도, 진짜 애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거 되게 아쉬웠거든요.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치안 문제

전애:환경, 주유소 가면 뒤에 파이프로 뭐가 연결된게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요사람들이 뭔가 나쁜걸 흘리나보다 해가지고 그런걸 나같은사람들로 조직을 해서 감시하고 그런거 짜면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을것같아.학생들 지방에서 와서 비싸게 밥 먹고 그런거 신경쓰이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좀 더 많이, 러브호텔같은거 나라에서 시에서 어떻게 해 갖고 그런건 방법이 안 될까? 노숙자들한테 임대주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생각을 했다고. 노인네가 외로운데 혼자 살게하지 말고 여럿이 그룹으로 살고 밥도 같이 해먹을수 있게 하고 그러면 비용도 덜 들것 같고

김유: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것들이 통용되고 사람들도 예의나 매너를 더 많이 갖추는 퀄리티있는, 품격 높은 사회? 정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사람들이 불법도 안 하게 되잖아요. 애써서 불법을 안 저질러도 금전적으로 뭘 안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들,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런 사회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개 고리들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짙어지는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세금혜택이 골고루 잘 들어가면.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각 동마다 마을기업, 여성 경력단절 주부들이 사장되고 직원되고 해서 우리 동이 지켜주는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각 동별로 만들고 싶고요.

진:지금 뭐 임시로 뽕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하세요. 특히 이제네요. 갈수록 여자들이 안 한대요. 문제야. 사실 여자가 목소리를 내야되는데. 남자분들이..

	만:제가 아이들이 커가니까 청소년들이 설만한 데가 없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우리 애들하고 형들이 와서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저것들은 애들 노는데서 저렇게 논다고 불량배 보듯이 보는 거예요. 김원:조용한 곳이길 원하는데, 더이상 이제 조용하지 않고. .지역적인, 균형적인 문화와 여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볼 때, 그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된(?) 듯한 느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건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안타까워. 주엽동에서 지금 멈춰진 그 10년된 건물 있잖아. 덩치 큰 애들이 돈 붙잡고 막 줄서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수가 많으니까, 그 학교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러더라구요. 주엽도 그렇고.인원 수가 많으니까. 그니까 일산에 항상 어린 엄마들이 살기에 천국이다.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위가 되면 별로라는 얘기잖아. 뒤집어 엮고 나면. 근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그러면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살다가 뜨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가정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공부할 시기에 놓치게 생긴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기에 저도 동참해요 근데 여학생은 없는 거예요 왜 여자 아이는 안 들어가고 남자고등학교만 지원하냐 했더니 남자아이들은 공부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7단지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처음에는 봉사하는데 독거노인 대상, 가보면 자기가 반찬 갖다 드리는 할아버지 얼굴이 생각나서 힘들어도 한다는 거예요. 문촌 7단지는 혼자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대요. 여성독거노인들도 많을 거예요
해 결 방 법	류: 그럼 우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나랑 같이하는 마을사람들..?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니까 나부터겠조.. 이소:차라리 관심있는 사람을 더 많이 조직하고, 관심있는 사람을 더 많이 구성을 하는 게. 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만:아파트에 들어가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좀.초창기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민우회 자체 내에서 안 하고. 우리가 비비고 들어갈 길이 주위에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일하다가 젊은사람 일하게 하고우리가. 마을에서 반사회나 모임이나, 주관은 안한다할지라도 같이 하고. 그런게 있지 않으면. 그거를 하기 전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나, 어느정도 바탕으로 위아래층이나. 어떤 문제점들 보이잖아요.

광주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허정순, 박영희, 박다현, 이미선, 유희정
분석토의 참가	조영임, 백희정, 허정순, 박다현, 김효경, 이미선, 박도야, 유희정, 박영희

회원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4	2	1	
직업유/무	가정주부	사무직	유관기관 (상담 및 시민단체)	기타	
	1	1	3	2	
회원가입 연차	1년미만	1년~2년	3년~4년	5년~10년	10년이상
	2	3		1	1
회원가입 경로	주위권유	본회 교육과정		본인	
	활동가권유(4명)	성교육양성과정 (1명)	성폭력자원상담 원양성과정(1명)	과거 상근활동하면 서(1명)	
활동 참여도	회비만 내고 있다	행사등에 참여한적이 있다.	소모임 활동하고 있다.	총회참석정도	
	1	3	2	1	
결혼유무	○	×	자녀유무	○	×
	3	4		3	4

1.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친밀감 형성하기

1) 민우회에 대한 기대-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 민우회 활동에 대한 공감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대하는 바는 사회문제에 대해 현실속에서 선도와 혁신을 위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잘 모르겠음
여성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리라는 기대
상담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상담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 젊은사람들이 많은 민우회에서 하고 싶었다.
잘 모르겠다.
정치,사회이슈등 여성계의 발빠른 최신정보 얻고 싶어서,

2) 민우회를 통해 달라진 점(인식, 태도 등)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맞벌이를 하면서, 여성이 육아, 집안일등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사회문제를 바라볼때 현실과 타협하거나 방관자로 살아온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나 자신이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수있는 일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가족내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서 좀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예, 아들에게 “너는 왜 남자답지 못해?!", 딸에게 “너 왜이렇게 여자답지 못해?!”

등의 말을 자제하고 줄이려고 노력함).
직장내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하기 시작
청소년 상담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의식 변화
양성평등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들.
성폭력, 여자들에 대한 편견들(여자들이 문제가 있었을것이다)이 잘못된 생각들이었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의 부조리들에 대한 인식을 하게됨.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변화 없음

3) 참여정도와 만족도

민우회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영산강사업반대 집회참석, 함께짓는 밥 캠페인
	민우회 교육활동(여성주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성폭력보호시설에서 하고 있는 활동)
	아동지킴이집 순회캠페인
	전화상담 자원봉사(성폭력)
	캠페인, 집회(그 순간에 몸은 힘들지만, 나의 작은소리들이 모여서 이슈도 될수 있고,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
	활동하지 않음
현재 민우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서 참여 못하고 있어요. (2명)
	소모임에 참여(성교육강사 양성과정, 자원상담원)
	회비만 납부하고 있다.
	총회참석정도
	직장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이 만족/불만족스러운가요?	밤에 하는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친교모임또는 스터디모임....
	만족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상담)에 질적인 향상과 함께 개인적 성장에 도움된다.
	자원상담스터디모임을 통해 실제 사례를 접하고 나눌 수 있어 만족스럽기도 하고, 상담의 실재경험이 많지 않아 아쉽기도 하다.
	기존회원과 신입회원들의 교류가 부족하여, 서먹하기도 하고, 특별히 불만 이다기보다, 서로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심이 없다
	행사관련 문자가 오면 이런활동들을 하는구나 정도.
	물리적 거리(지역에 살아서)
	직장 때문에. 주로 주간에 행사나, 프로그램진행이 되다보니... 시간대가 문제인것 같아요.
민우회 활동 소식은 주로 어떻게 알게 되나요?	민우소식지와 가끔 민우회홈페이지 통해~~(7명)
	대중매체, 문자메세지(2명)
	민우회 사무실에 나왔을 때 알게 된다.
	활동가 전화

2. 개인 삶 이해하기 :

1) 주요 관심사-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드라마(신기생던)에 꽂혀있어요
	하지만 너무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생각.
	정치. 사회적 이슈 사진작업.

	커피, 논문, 운동, 일상 상담과 논문쓰기 결혼과 건강
요즘 가장 신이 날 때는 무엇을 할 때인가요?	친구들모임 내가 하는일(상담을 하고 내담자가 조금이나마 행복감을 느낄때) 사진작업할 때 하고 싶었던 주제와 작품이 잘 나왔을때 희열을 느낀다. 사무실회의를 할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수 있고 일이 잘되는것. 논문쓰기 내가 하고 있는 일(사진)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 을까요?	시부모님 부양문제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 아이들 문제 인간관계, 초심, 배신 나이(이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했을까?) 미래가 불투명한것. 종교신념문제(종교의 신념대로 살아야 하는데, 삶에 적용이 안될때~) 별로없다.
혹시 관심이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촛불시위같은 곳에 참석하고 싶지만, 혼자가기 쑥스럽기도 하고, 자녀 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 이사를 위한 집정리

2) 사회 활동 욕구 파악

최근에는 무슨 일을 하시 나요?	보험회사 설계사. 6~7개월.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원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기획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건강가정지원센터장,카운슬러아카데미이사, 청예단감사, 법원이혼상담, 대 학상담소 법원 내 상담교사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 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직장이 나 가정에서)	자녀가 어려, 자녀양육이 우선이다보니, 시간이 자유스러운 직업을 선택하 게 되고, 그만큼 보수가 적다. 또한, 직장에 전념하기 어렵다. 그리고 직장 에서 늦으면, 불안하고, 남편에게 아이들 돌봐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 직장다니면서, 아이들챙기고 집안일 하는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는 일이 기획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이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때 민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점.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대우가 매우 다르다.(법원 공무원과 법원내 상담교사)
직업이 있으면서도 민우 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은(직업) 작은부분이지만 민우회를 통해 사회변화의 촉진자가 되고 싶다.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시 다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 편집/임신과 출산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계약만료로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다. 논술강사/함께 일하던 파트너의 부재로 인해 사회복지공무원/ 승진후보 11명중 9명이 여자, 2명이 남자였는데 후배인 남자가 승진하여 비전이 안보여 그만둬. 남성중심의 인사문제, 술문화(회식) 민우회 상근활동가였는데,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일. 또 하는 일에 비해 급여 가 적어서

직장을 그만둔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몸이 힘들니까 후회되거나 그런생각은 안들었어. 그냥 집에 있으니까 넘 좋았어.
	많은 미련이 남는다. 지금까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지금은 아주 안정된 삶을 생활할수 있었을것인데...
	후회는 없는데, 여성들끼리 자매애와 인간적인 냄새 등이 미련이 남는다.

3.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기 : 여성이슈 파악하기

1)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월경
맞벌이 하는데 내가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것. 아이가 아팠을때, 무조건 남편이 내 직장 그만두라고 한것. 내 직업을 인정해주지 않는것. 보수도 적고.
직장에서의 성역할고정관념. 경리업무, 커피심부름등은 여자가 하는일. 남자는 관리자, 무거운물건은 남자가등... 역할을 바꾸어도 되고 더 잘하는것을 할수도 있는데..
힘들일이 많았지만, 특히 여성의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여성이라고 느낄때 무기력감을 느낀다.
직장생활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것 같다. 한가지 예로 똑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통해 구조조정에 서멀려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성별을 고민해본적이 없다. 당당하게 살아온것 같다.
여자라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누구네 딸이 그랬다라고 하는 꼬리표(좁은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서 여행갔을때 남자들은 설거지 하지 않고, 여자들이 스스로 노예근성으로 설거지, 뒤처리등을 하고 있을때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것.
시부모님 부양.
어린시절: 1남4녀로써, 딸에 대한 차별.
직장생활: 남직원들에 주어지는 특권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초등동창모임에서 똑같이 비혼인데 남자한테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에게는 모두들 큰일 것처럼 부담스런 호기심의 표현들... 그런 불편한 시선들...

2) 고민을 해소하는 통로

이런 고민을 어디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혹은 모임이 있나요?	언니나 가까운 친구(2)
	자아성찰, 언니와 대화
	없음(고민을 타인과 나누지 않음)
	동서들
	과거에는 친구들과 얘기를 했는데, 결혼유무에 따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 지금은 직장동료들과 얘기를 한다.
그 속에서 어떻게 고민이나 어려움이 해소되나요?	얘기하는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다.(2)
	음악듣기
	전혀 해소 안된다.
	해소가 되진 않지만 조언과 위안을 받을수 있다.
민우회 활동을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요?	민우회 활동가에게 상담받 받은적이 있다.
	없다.(2)
	민우회에 상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없었음(2)
	청소년 상담시 연계(적극적인 도움 받음)
	모임중에 고민을 이야기 해본적 있다. 이야기하는것만으로 도움이 되었다.

민우회가 고민을 나누는 역할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해결가능하고 어떤부분이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어려울것 같다. 이야기를 나눌만큼 편하지가 않다. 상근자들은 일에 치여 힘들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지않은 이상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신경을 써주진 못할것 같다.
--	---

4. 지역 이해하기 : 지역 이슈 파악하기

1) 지역육구-

현 지역에 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시부모님 있는곳으로(남편이 원해서)
	학교친학을 위해(2명)
	친정하고 가까워서
	태어난곳.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소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은 없다.(2명)
	관심이 없어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다.
	관심있다. 노후에 일을 하기위한 준비
	중간정도. 아주 많지는 않다.
주로 어떻게 지역 소식을 접하나요?	지역신문(구보)
	동네 주민
	뉴스, 소문, SNS(2명)
	아파트 앞에 붙어져 있는 소식지
여성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꿈꾸거나 상상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역 건물, 편의시설, 공공시설등이 남성위주로 만들어져있어 불편한 점이 있는것 같다.
	안전에 대한 위험성(특히, 주택가는)
	유모차 끌고 다닐때, 도로의 불편한점, 위험성등.
	도둑이 없는 사회
민우회와 관련된 모임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른 소모임이나 친목 모임, 동네 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나요?	집근처 도서관, 공연문화시설...구예술회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했으면. 유치원발표회같은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것 같다
	민우회 상담소.쉼터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이 지역에 많았으면 좋겠다.
	직장을 다녀서 모임에 참여할수 없다.
	자원봉사활동. 한달에 2번 내가하고 있는 일을 나누는 일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한 많은 모임을 하고 있다.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아 특별히 없다.

2) 해결책-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여기십니까?	필요로 하는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듯.
	(지역자치위원회, 동네주민등)
	사람들의 인식변화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민우회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의견서 제출정도를 하면
	시에 요구를 대신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것들은 할수 없을것 같다.
	여성운동에 관심은 많았지만 민우회의 활동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같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개인보단 단체가 나서면 설득력이 있을것 같다.
	활동적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할 수 있다면 민우회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회원에게 좀더 많이 깊이있는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동행과 지지. 민우회라는 단체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여도, 힘을 받을것 같다.
같이 할 수 없다면 민우회의 어떤 점 때문일까요?	민우회가 여성단체이지만 어느 지역을 국한시켜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민우회는 광주시 전반에 걸친 활동들을 해야 하기 때문. 그렇지 않으면 민우회 일이 너무 많아질것 같다.

5. 마무리

여성으로서 불편한 점들을 민우회에서 많이 얘기해 가지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여성권익신장과 여성관련 사회이슈에 민감하게 민우회가 솔선수범하여, 실제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
활동을 위한 활동.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성을 담고 초심을 잃지 말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민우회가 되길.
활동가 구성이 남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성운동의 방향에 있어 정책제언등도 좋지만 테마여행을 떠난다든지 등의 재미난 기획을 해주었으면 한다.
민우회가 지역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강해보인다. 약간은 타협적인 모습이면 좋겠다.
회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민우회를 알았으면 좋겠다.
회원참여프로그램은 단1회에 그치지 말고, 여러번 횟수를 늘려서 회원끼리 서로 교감하고, 친해질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광주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분석 및 토론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특성과 욕구

- 민우회에 가입동기가 활동가가 주위권유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우회 회원으로 활동하신분이 많다. 프로그램을 경험하신회원은 본인에 고정관념, 여성주의 등에 대해 접하게 됨으로써,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가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그냥 흘러버렸던 것들을 민감성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대상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 하지만, 단순히, 활동가의 지인에게 회원가입권유하여 회원이 되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소식자나 문자 등 민우소식 등이 오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다.
- 우리지역의 민우회 회원들은 중산층의 여성들로써,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여 여성으로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 생활이 넉넉하여 여성으로서 불편함, 차별 더 못 느끼는 것 같다.
- 저소득층여성에 대한 관심필요. 저소득층여성은 2중노동으로 더 힘들어졌다. 영유아의 자녀양육시간부족으로 인하여, 맞벌이 직장여성의 경우, 자녀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 육체적 피로 등.
- 또한 학부모는 학습 준비물 등 엄마의 스트레스 증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서 시간 줄이는 것과 엄마들의 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종일반 가능. 초등.저학년은 더 일찍 오고 학교 대책 없어 문제인데 육아휴직은 유치부로 한정, 초등에서 못쓰게 되어있어, 문제. 자녀들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많아 부모는 항상 불안, 지원시스템 필요.

회원들의 참여 이끌 점검과 성찰내용

- 지역이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있다고 해도 시민단체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청등 관공서에 직접 요구하는것이 많다.
- 지역에서의 민우회의 존재가 없다.
- 말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는 시민단체.
- 지역이슈에 대한 질문 등 회원탐구활동 질문지가 추상적이다. 막막하다. 질문이 구체적이었으면 ...
- 구체적 예시가 있었으면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듯 하다.
- 또한 나 혼자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강한 듯.
- 그리고 민우회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많지 않다.
- 민우회를 통해 도움 받고자 하나 내가 참여하겠다는 마음은 적다.
-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음.
- 민우회의 일원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민우회 활동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

- 상근자들은 민우회의 존립의 강한 요구가 있으나 광주여성민우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
- 직장개념? 나의 직장으로서, 민우회가 필요하다.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 처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해짐.

민우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지는 않은지 ? 라는 생각

- 하나의 사업체 같은 생각이 듦.
- 상담소에 있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봄.
- 이슈 , 정체성?
- 민우회 부설기구끼리 같이 협력하거나, 활동범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 쉽거나 상담소 국가가 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아니다. 민우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생각.

- 민우회 상담소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음.
- 우리의 사업, 운영방법이 지역이슈와 무관하게 프로젝트화 하는 것 아니냐?
- 우리지역 의제 특화해서 이야기 하기 어려움이 많았음.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회원들에게 이야기 해도 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음.

왜) 지역이해 못한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듯 .

지역사안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는 점.

민우회는 이슈 중심으로 가나 생활 밀착이 안된다.

그러니 지역이슈 만들어 가지 못함. 아니면 지역이슈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함.

수위 낮추더라도 대중성 띄고 사업 진행해야 한다.

대중가요 같은 민우회가 필요하다. 민중가요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일 한다 하지만 같이하기는 부담스러워 함.

민우회가 왜 있어야 할까?

민우회 회원과 활동가 비전은 무엇인가?

활동가 또한 비전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 잡다한 것 같다.

민우회는 다른 곳하고 다르다. 나 스스로 이야기 하고 고민한다,

한가지 이슈를 가지더라도

민우회 활동에 대한 점검.

현재의 민우회 구조는 어렵다.

- 나부터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 일단 젊은 층은 지역소식에도 관심이 없고, 그 이상은 관심은 있어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 그런 원인에는 개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
-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 너무 강하게 보인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회원들의 욕구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운동 이슈를 발굴할 수 있을까?

-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다른 기관에서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민우회가 하면 항상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하는 활동가들도 전부 여자이고, 뭔가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군포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김인자, 김영숙, 박지희, 송연자, 송순자, 김혜정, 이명숙, 박선인, 권명애 녹취도움 : 이현정
분석토의 참가	김인자, 김영숙, 박지희, 송연자, 송순자, 김혜정, 이명숙, 박선인, 권명애

인터뷰 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 연차	가입 경로	활동 참여도	결혼 여부	자녀	기타
조○○	30	비취업	8	자발	활동중단	결혼	유	
김○○	40	취업	3	성교육	소모임 활동지속	결혼	유	
최○○	50	비취업	7	자발	간헐적이나 지속적참여	결혼	유	
이○○	40	비취업	5	권유	지속참여	결혼	유	
김○○	30	취업	2	자발	지속참여	비혼	유	
한○○	30	취업	2	성교육	1년 3~4회 회의 참석	비혼	무	
임○○	50	비취업	10	권유	지속참여	결혼	유	
신○○	40	취업	11	권유	활동중단	결혼	유	
지○○	40	비취업	10	권유	간헐적 참여	결혼	유	
이○○	20	비취업	3	성교육	지속참여	비혼	무	
오○○	50	취업	8	권유	간헐적	결혼	유	
한○○	40	취업	8	자발	최근지속참여	결혼	유	
현○○	50	비취업	2	성교육	지속참여	비혼	무	
신○○	40	비취업	6	교육	활동중단	결혼	유	

군포민우회는 총 1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민우회 회원가입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40대 6명, 50대 4명, 30대 3명 20대 1명을 진행했고, 취업과 비취업을 4:6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욕구를 듣기위해 활동하는 사람뿐만아니라 활동이 중단된 사람들도 함께 구성하였다. 가입 경로와 경제활동인구 배분도 비슷한 비율로 구성하였다.

민우회 회원들은 40대 연령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민우회 활동에 있어서도 중심 세력을 이룬다. 그 외 30대 젊은 회원들이 소모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정회원중 30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0대의 경우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본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우회가 커뮤니티공간으로 역할 부족과 회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역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아 지역욕구를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에서 매일 생활하는 많은 여성들이 지역정체성을 갖고 공동체마인드를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회원참여가 안되고 있는 수리산 문제 등 지역이슈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질문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유형	응답 및 응답에 따른 정책시사점
가입동기 및 만족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상담원양성교육을 통해 활동하게 된 경우와 활동가 지인의 권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인터뷰대상에서는 비슷하게 구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권유와 상담원교육이 대부분이다. -> 회원가입창구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가장많은 회원확보창구인 상담원양성과정을 내년에는 실시하지않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회원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사무국차원의 상시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만족도는 참여정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과 불만족이 반반이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을 한 회원의 대부분이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 본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지점이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관계 갈등과 회원이 편하게 들르지 못하는 공간문제, 활동가들의 업무를 방해될까봐 편치않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회원공간마련과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만남과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해보기로 함
개인의 삶이해	기혼 및 비혼, 연령대별로 살펴볼 때 회원들의 주된 관심영역은 주로 비혼여성의 경우 직장을 비롯한 진로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30~40대는 자녀양육문제, 50대이후에서는 개인의 삶을 유익하게 사회적 활동으로 접목해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 비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50대 회원층을 민우회 활동영역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회활동욕구	대체적으로 보수와 관계없이 자아실현과 성취감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자하는 욕구가 있었으며 50대이후에는 경제활동보다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많음. -> 지역단체의 자원봉사연결과 민우회내 편하게 자원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할 듯.
과거활동경험	직장경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나 조직내 인간관계스트레스로 그만둔 2~3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양육문제로 경력이 단절됨 -> 양육이 가장 중요한 기혼여성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양육의 사회화문제를 향후 꾸준히 이슈화해나가고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녀양육이나 교육관련 여성주의교육이 많아져야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이해하기(지역욕구)	공보육시설 확장 등 보육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체육시설, 자전거공원 등)과 어두운 밤길 가로등 설치 등의 생활현안과 수리산 보전, 주민참여제 도입등의 지역이슈해결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또 지역내 소동아리들이 많이 꾸려져 다양하게 참여하는 공간이 늘어났으면 하는 커뮤니티단위의 욕구도 있었다. -> 그동안 말로만 있었던 회원중심의 다양한 아파트마을모임 조직화를 하나씩 시도해 보도록 하자.
군포민우회에 바라는 점	-군포민우회가 지역인재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었으면 한다. -가족단위나 전문화된 소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운영해보자 -회원관리 제대로~, -민우회를 좀 더 많이 알려내 군포시민모두가 다 알도록, -회원이 관심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무실내 편안한 공간과 분위기 조성

	-욕구수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재정문제 해결 ->내년 사무실 이전을 통해 회원공간창출과 교육프로그램의 일상화로 본회 홍보와 회원확대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회원관리와 소통에 방점을 두고 편하고 자유로운 소모임들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회 두고 사업을 진행키로 하자.
--	--

-회원유형(총 13명)

20대 비취업 비혼여성 1명

30대 비취업 기혼여성 1명/ 30대 취업 비혼여성 2명

40대 취업 기혼여성 3명 / 40대 비취업 기혼여성 2명/

50대 비취업 기혼여성 2명 / 50대 취업 기혼여성 1명 / 비취업 비혼여성 1명

회원 A: 조OO 30대 비취업 기혼여성/가입연차 8년 활동하다 뜸함

회원 B: 김OO 40대 취업(시간제근로)기혼여성/ 가입연차 3년 꾸준한 소모임활동

회원 C: 최OO 50대 비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6~7년 간헐적이나 지속적 활동(한부모위원회)

회원 D: 이OO 40대 비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5년 (상담위원장 역임)

회원 E: 김OO 30대 취업(자영)비혼여성/ 가입연차 2년/ 지속적 활동(소모임 참여)

회원 F: 한OO 30대 취업 비혼여성/ 가입연차 2년/ 간헐적 활동(소식지 편집위원 참여)

회원 G: 임OO 50대 비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10년/ 지속적 활동(인형극 참여경험있음, 한부모위원)

회원 H: 신OO 40대 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11년/ 비활동

회원 I: 지OO 40대 비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10년/ 지속적 활동(프로그램 있을시)

회원 K: 이OO 20대 비취업(대학원생) 비혼여성/ 가입연차 3년/ 지속적 활동(소모임 참여)

회원 L: 오OO 50대 취업 기혼여성/가입연차 8년/ 간헐적 활동

회원 M: 한OO 40대 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8년/ 간헐적 활동

회원N: 현ㅇㅇ50대: 비취업 비혼여성/ 가입연차 2년/ 지속활동

회원o: 신oo 50대: 비취업 기혼여성 /가입연차 6년/지속활동후 최근 활동 뜸함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민우회 활동	가입 동기 및 가입시기대	회원A : 2002년도에 결혼후 산본에 안착. 자진참여. 여성운동에 참여하려고 회원 가입. 상담공부로 활동 시작. 민우회가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어 누구나 기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기를 바랬음. 회원B : TV광고 보고 성폭력 상담원교육을 받으려 옴....가장 중요한것은 사람.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활동하는 것. 회원C : 민우회에 영향을 많이 주셨던 이효재 선생님을 학교 때부터 존경. 산본이사로서 99년 당시 민우회 있는 줄 모르고 탁틴내일을 먼저 알아서 활동함. 이후 대표 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민우회 정회원으로 들어오고 바로 권

	명애선생님이 이전 경험으로 운영위원을 바로 하라고 하셔서 운영위원하면서 들어왔다. 민우회 전체 비전과 철학들을 흡모하고 지역내 역량을 기대했는데 역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웠다. 회원d: 95년 다른 회원의 권유로 가입. 상담공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관심이 저하되면서 별로 못했다 회원e: 20대때부터 한국여성민우회 오래전에 회원이었다. 외국나가 있으면서 끊었다가 다시 돌아와 군포에서 일하면서 군포지부에 가입하게 되었다. 회원f: 2010년도, 군포시장 선거 있었던 해, 상담 전반에 관심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안내 전단을 보고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가입하게 됨. 회원 g: 김영숙대표의 권유로 당시엔 상담파트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잘되지않았다. 회원h: 지인을 통해서. 지인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돕는차원에서 가입하게 됨. 회원i: 2001년 권명애 회원의 소개로 가입했고, NGO라서 가입을 했는데 경실련과 너무나 달랐다. 내가 보수적이라 많이 어려웠다. 회원K: 2009년에 상담원교육 할 때, 회원l: 지역에 군포여성포럼만들 때 나와보라고 권유해서(당시 여성포럼을 만든 주축이 민우회였으므로 민우회에 자연스럽게 가입해 활동도 하게됨. 회원m: 결혼전 서울에서 일할 때 지인이 민우회 창립에 참여한 인사들과 친분있고해서 민우회는 알고 있었으나 웬지 두려워 회원가입은 못하다가 안양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직장인 법무법인이 의식있는 분들이 있는곳이라 시민단체후원을 결정했을 때 민우회로 후원하자고 했고 동시에 나도 회원가입을 하게되었다. 6년정도 됨. 총회 나와보고 대단하다는 생각도하고 배울게 있을 것 같아 야간 독서모임도 3년전 시작했는데 얼마전 해체되었다. 회원N; 2010년도 성폭력상담원교육을 하면서 가입함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기대하였음 회원O: 민우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그즈음에 여성학이 생기고 여성학공부 할까하다가 대우 공채에 응시하고 그냥 회사 생활시작했다 이곳 산본에 이사하고 지역신문에서 군포여성민우회 상담교육 관심있는분 찾는 광고 보고 민우회 회원 가입했다 그때가 7년전 그때 기대는 산본에서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기대와 장소를 생각했음그런 구심점이 되면 좋겠구나 하고...
달라진 점	회원A : 시댁과 갈등있었으나 민우회원들과 소모임을 통한 공부모임을 통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원인을 찾게 되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왜 내가 화가 나는지도 살펴봄으로 나 자신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다. 회원B: 세상을 보는 눈은 내가 내 바운드 안에만 보는 편이었다 나이가 들면 다 귀찮거든, 여기 나오니까 내 바운드 보다 더 조금 옆을 돌아보게 되더라구 그게 달라진 것 같애. 회원C: 민우회를 통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회원d: 가부장제를 당연시했지만 비판적 시각을 갖게되고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게되었다. 회원e: 예전 학교 친구들과 페미니즘 동아리했었다. 기부만 하는 편이다. 회원f: 엄마와 살고 있는데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유아교육전공이라 특별히

	남녀차별에 대한 생각은 안 받고 살았는데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의 차이가 있다던가, 체계적으로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되고, 이렇게 차별이었구나하는 인식이 생겼다. 회원g: -여성문제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있게되었고 생각이 많아졌다. 회원h: 내가 원래 미술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미술치료라든지 이런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그걸 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년동안 해봤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성폭력, 성교육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곳에 와서 활동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그런걸 느끼게 되고 배웠던거 같아요. 회원I: 너무 여성 여성만 얘기하는 것이, 여자~를 강조하는 것이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 것이라라고 생각되었다. . 자존감이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기도,,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그냥 흐름을 받아 들인다. 회원K: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옛날에는 그냥 다~ 지나쳐서 가고 그럴수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어..저게 저러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실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뀐것 같다. 회원l: 회원m: 남편이 가사노동을 할 때 도와줬다고 표현하지않고 같이하자고 말하는 등 언어사용 등에서 성평등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었음. 회원N: -성폭력범죄나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변화가 생김-성교육을 나가면서 지역 아동센터, 아동지킴이 집의 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됨 회원O: 민우회에서 추구하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에 달라진 것은 없다.
참 여 정 도 및 만족도	회원A: 아이들 양육으로 민우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우회가 시대나 현대에 사는 여성들의 진정한 욕구와 성격을 잘 파악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모여서 민우회가 요구하는 이슈나 활동을 우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나 철학은 빈약할 수 있으나 활동성과 일에 성취도가 높은 여성들의 요구와 성취를 담아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한다. 모임들이 별로 변화가 없는 비슷한 활동으로 조금 식상하여 활동이 뜸해졌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회원B: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자선바자회 할 때... 사실은 자선바자회 할 때 지나치는 손님의 입장이었는데, 내가 직접 해서 물건 팔고 하는 게 재밌는 것을 떠나서 내가 물건을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참여했다는 것에 쾌감이 느껴졌었다. 회원c: 민우회 활동하면서 의제 사회환경위원장이 돼서 그래도 의제와 함께 교육 관련이라던가 몇가지 주제로 같이 했었다. 그 때 해낸 것이 좋은 점이었다. 그룹 홈을 권명애 선생님이 시초가 돼서 민우회 군포지부역량으로는 너무나 버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하고 계셔 만족한다~ 회의나 행사때 참여하는 정도로만 지금은 하고 있다 회원d: 성폭력상담소 폐쇄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 겪었다. 운영위원들도 다 사퇴하는 등 너무 상처가 컸다. 난타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전환된다. 회원e: 작년교육때 생각보다 나이트 여성들이 순수하게 자기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음이 흐뭇했다. 민우회활동은 한발 정도는 담그고 있는 느낌. 간간히 필요하다고 요청할때는 나가고 있다. 자주 못가는

	건 생업 때문에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이전에 소모임활동때 사적인 질문이 많아 불편했다. 민우회는 좀 다를꺼라 생각했는데... 호기심의 대상이 되게 불편했다. 그래서 소모임에 대해 회의적. 회원f: 전체적으로 연령대 있는 여성들이 활동하는 모습에 인상적이었다.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현재 소식지 편집위원, 아직은 시작단계라 민폐가 아닌지. 도움을 크게 드리고 있지 못해 민망함.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소식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사무실에 와서 소식을 접하게 됨. 회원g: 바자회활동이 가장 인상적, 인형극활동 참여함. 즐겁게 나눌 수 있어 만족함. 회원h: 활동 거의 못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일단은 가장 큰거는 지금 하는 다른 활동이 더 많아졌고, 개인적으로 작업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작업을 해야되는 ,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뭐 그런거 때문에 민우회 활동을 좀 더 안하게 된 이유가 된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라든지 좀 그런것들이 있었고, 일단 내가 아는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그 안에 계셨고,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와도 상관없는 되게 편안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좀 어색하고 오는 것 자체도 뜸하게 되고, 와서도 뭐 할 말도 없고, 여태까지 활동을 별로 안했었으니까.... 또 내가 할수 있는 분야와 더 그것들이 좀 더 벗어난 것 같다고 느꼈다. 내가 할 관심분야와 떨어진 것도 이유다. 회원 i: 바자회, 회원과 같이 하는 활동이 많아서 좋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 몇몇이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면 좋겠다. 회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회원스스로 참여하고 다른 회원에게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요즘은 몸이 아파 자주 못오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 한번 들리면 다시 와야지 하는 분위기여야 한다. 자꾸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마트에 왔다가도 들리고 싶은 곳이어야 한다. 회원K: 바자회..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하는 큰 바자회는 처음이었거든. 그게 참 재미있었구, 그리고 가슴 뛰는 경험은 난타 공연할 때 내가 하는 건 떨리지 않는데 같이 하는 사람 들 보는게 떨린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와~이렇게 잘 할 수도 있구나~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가슴 뛰는 것 같다/ 일단 소모임 참여하고 있도 소식지회의도 조금 참여하고 있구. /소모임은 만족하고 있다. 소식지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시간이 안 나서 그게 좀 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 점이다..좀 잘하고 싶는데..그게 안 돼서.. 회원I: 처음 여성포럼만들 때 가장 기억에 남음. 민우회 회원원소식은 지나가는 회원들에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회원m:활동을 별로 안해서... 스타일소모임하면서 처음계기는 좋았는데 이후에는 민우회정체성을 담은게 아니라 그냥 독서모임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현재 민우회에 참여하고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오늘부터 거북이산행팀장을 맡게됨) 회원N: 처음 아동지킴이 집으로 교육을 나가면서 가슴이 뛰었다. 민우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 강사들과 함께 교육 관련 준비하며 공부하는 부분이 만족스러웠다. 불만족스러운 점은 민우회가 원하는 것과 회원이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불만족스럽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회원O: 거리캠페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전혀 없다. 상근자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과정중 새로운 활동가들의 분위기도 예전 민우회 활동의 순수함이 많이 없어져 보이고 경제적인 면 보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헌신하던 모습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나 애착이 점점 없어졌다.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바뀌면서 가는 횟수도 줄고 활동을 안하게 되었다. 민우회 활동도 최근 몇 달동안 오는 문자로 아는 정도고 잘 모르고 있는 셈이다. 강연이나 거북이 산행정도 ? 문자받음 이전에는 전화도 자주오고 그냥 놔두지 않았는데 내가 소속된 상담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안오고 해서.
--	--	--

질문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회원A : 아이 둘을 키우므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것과 나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특히 나의 문제인 아이들을 조금 키우고 나서 나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준비에 여념이 없다. 어떤 일에 내가 관심이 쏠리는지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소모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독서로 모였으나 서로를 깊이 알게 됨으로 각자의 특기를 취미로 발전시켜 재미있게 꾸리고 있다. 지금은 한 지공예로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어 예쁜 생필품을 만들어 만족하고 있다. 이 소모임을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고, 이 모임으로 여러 가지 자질들을 발휘하여 나의 성취감으로 자아실현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 회원B : 한창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과 아들을 뒤서 내가 요즘 애들 양육에 머리를 썩고 있다. 진짜 부모교육이란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진짜 부모교육은 꼭해야해~ 회원C: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친자연적인 삶, 동네동아리모임 등에 관심있다. 그래서 동아리나 산악회나 운동 그룹이나 봉사 이런 건 큰 그림으로는 마을운동이고 또그런 활동의 연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마을운동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 회원d: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문제점(자유분방한 성격으로 학교 적응이 어렵다), 학교개혁이 필요한데 교사들의 의식개선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 모르겠다. 회원e: 그냥 쉬고싶다는 생각만 있다. 복잡한 개인일이 있지만 얘기하긴 그렇다. 아이랑 이야기할 때 가장 신난다. 심리나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있다. 마흔넘어 공부에 대한 생각도 약간 있다. 회원 f: 딱히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생각이 없다. 돈이라도 벌어야하는데 그 고민이 99%이다. 20대 때는 전문직이나 경력적으로 그러려니 했는데 30대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 같다. 지금 뭘 해 놔야 할 것 같은데, 내 업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해 놓은 것 없어 고민이 크다. 회사도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다. 다 접고, 확 시집을 가야 하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내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야 하는데 내가 유목민도 아닌데 제대로 살 틀을 잡지 못한 성인이 안된 느낌이다. 스스로 복잡함이

		많아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안 된다. 회원G: 웃음치료를 지역.개인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회원h: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다. 작업하는걸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구. 내가 하는 재능이 미술쪽이라다 보니까 미술로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단체에서 소속이 되어서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야되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회원i: 좀 여자들만 갈 수 있는 여행모임을 하고 있다 회원K: 논문 .4학기차가 돼서 최대 고민거리이자 당면과제..논문 주제가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특이하다고하는데 성교육프로그램을 예술 치료적으로 접근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일단 논문이라는 건 힘든 작업이지만 민우회 들어오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꼭 하고 싶었던 거였다 회원N: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생각하고 있고 가족치료 연구소에서 공부하고있고 상담심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 재미있다. -신경쓰이는 일은 없고 평정심을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구가 아프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원O: 별로 없다.
	사 회 활 동 욕 구	회원A: 많은 보수보다는 성취감을 갖는 것과 자아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 때문에 시간도 중요 요소로 재택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 지역아동교육에 종사할 수 있으면 한다. 또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특기는 없어도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 그 모든 자질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면 더욱 좋겠다. 회원B: 일하고 있다. 유치원 아르바이트 AM 8~9:30/ PM2~3 (하루 2시간 30분 소요) 직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은 없으며 민우회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좋아서 참여하고 있음 회원c: 경제활동 안하는 것이 좋더라구. 밥 먹을수 없으면 해야지만.. 밥만 먹고 살면 그 시간에 앞서 애기한 그런일 하는 것이 좋다. 회원d: 상담대학원 공부중. 대학원 졸업후 직업,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소를 갖고싶다. 회원e: -가게운영-/ 어려운점-> 순수하게 자기만족이지 이윤을 추구하는게 아닌 것 같다. 가게운영으로는 덜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운영 고민은 운영상의 문제. 회사다닐 땐 받다가 급여주는 입장이 되니 힘들다. 개인생활도 없고 주말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다. 지금은 매니저랑 직원이 일을 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민우회 참여하는 것은 가게운영으로는 덜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f: 학원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장이다. 사교육시장이 파이는 커졌으나 끼어든 사람이 많아서 내 밥그릇은 작아졌다. 실제 나의 임금은 수준이 예전에 비해 적어졌다. 현재 중고 사회과목을 가르친다. 회원G: 교회 청소년 사역, 아트코리아 상담센터 등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상담,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역할에 대한 주변의 기대도 있어 경제활동 원함. 사회복지사, 웃

		음치료사, 노인지도사 등. 대학원 졸업후 직업,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소를 갖고싶다. 회원h: 학교를 나가서 도예를 가르치고 있음. 회원I: 의료봉사 활동한다. 지난주에도 안산에 봉사활동 다녀왔다./ 경제활동 보다는 나누 것을 하고 싶다 회원K: 대학원 다니고 예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졸업하면 병원으로 취업하고 싶고. 정신과가 있는 전문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서 일을 하고 싶다..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만나고 나면 저희 교생중에 한분이 민우회인가 어디서 이렇게 같이 치료도 하더라 피해자들을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뭔가 학대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하고 싶다.. 회원N: -50이 넘은 나이라 새롭게 일을 하거나 취직하는 건 어려울것 같고 민우회나 다른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음. 자유롭게 편하게 일하고 싶다. 어디에 메이고 싶지 않다. 회원O: 아파트에 살면서 재궁동 통장일을 하고 있다. 떠밀려서 하게 되었지만 통장회에 열심히 가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살고있는 동네 일이나 시정일을 듣고 알게 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랄까 아무튼 통장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굉장히 성실하고 순박한 분들이 많다. 나이는 내가 가장 어린편이지만 잘 어울리고 있고 그래도 임기가 얼마 안남아 그만 둘까 하고는 있다.(아이고 이왕한 것 그쪽에서도 더 일하면서 함께 해 보는 것 도 좋겠는데 필요)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더 하라고 하면 할까 생각중이다.
	과거 활동 경험	회원A: 일한 경험 없음 회원B: 오래 다니던 첫 직장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만두었고, 그 다음에 은세공 일을 했는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회원c: 결혼하고 연구소에 다녔는데,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과외를 했었죠. 수입을 올리려고 과외를 몇 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 일을 했었는데 돈은 별로 안 받았죠. 그 다음에는 비 영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직책비 받고 했지만 그건 임기가 끝나니깐 그만둔거고 회원d: 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후회가 된다. 회원e: 직장생활, 아이 때문에 중단 그러나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아이문제로 담임선생님에게 자주 불려갔다. 안좋은 얘기 들을 때마다 죄책감 든다.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잘못 돌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회원f: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직장은 없었고, 20살 때 휴학하면서 우연히 교습학원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면서 학비 벌었다. 학교 다니면서도 강사일을 계속했다. 학자금대출 5회분을 받았다. 대출금 25만원 등 씹씹이가 커졌는데 한달 100만원 정도였다. 그 때 유치원교사 월급이 97만원 이었다. 어린이집은 60만원 이었다. 학원의 업무강도와 근무시간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 3~4시간 일해서 70만원,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90여 만원 이었다. 처우가 말이 아니다. 어린이집교사는 더 열악했다. 4년 유아교육과 나와서 그런 대우 받는다. 지금은 유아교육과 들어간다고 하면 뜯어말리고 싶다. 회원g: 경제의 필요가 호전되면서 자녀양육전력, 취미생활, 여가생활 원함. 당시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 후회는 없음. 회원h: 같은 일~ 회원I: 노동조합 간부(총무부장) 심상정도 그때 알았다. 열심히 앞에서 일을 하니까 자꾸 일을 주고 활동적이 되었다. 가르치려고 하면 싫고 내가 끌고 따라와 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다. 회원K: 무용단생활 했다..1년 하고 그만뒀다.. 선후배 그런게 되게 심하구...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울타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 까지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니까.. 근데 직장인데..생각하는 곳에서까지 물론 막내니까 나이가 어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너무 강압적인 게 싫었다, 그래서 나는 안맞는구나(조직생활이)생각하고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그만둔건 만족한다. 부담감 없고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무대에 오른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관리도 필요하고 선후배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맘에 든다 회원l: 회원m: 회원N: 처음 다니던 회사에 17년 근무하였고 나올때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두었다 나오고나서 좀 심사숙고해야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후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꼈다. 회원O: 대우공채 들어갔다가 외국은행으로 옮겨서 근무를 한 20년 했고 대우도 좋고 직장근무환경도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 가정 경제냐? 교육이냐를 고민하다 자녀교육이 먼저다 결정했고 결정은 잘한 것 같다. 근무여건이 너무 좋았기에 한달에 16일 일하고 월급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도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아이교육 챙긴 것 생각하면 그게 더 우선이다.
--	--	---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여 성 으 로 서 의 삶 이해	여 성 으 로 서 의 어려 움	회원A: 항상 노력하여 자신이 해소하여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의 반장건 외에는. 결혼후 남편이 워낙 여성주의를 실천하여 주어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 회원B: 신랑이 좀 마초적인데가 있다. 그 마초적인게,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돌만 되도 줄이 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회원C: 이전에 결혼하고 호적이 서류를 딱 봤을 때 충격이었다. 또 결혼하고 6개월 있다가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 집이 거기인데, 우리남편 어머니 돌아가신지 십 몇년 되신 거기에 내가 제사지내느라고 있고, 이제 돌아가셔서 얼마안되는 슬픈 아버지 곁에 안 있고 거기 있어야 하는 내가 싫더라구. 회원d: 명절 때 시집에서 일할 때 회원e: 사회생활에서, 예를 들어 남성이 이혼시에는 도와주는 분위기인데. 여성이 이혼할 경우엔 관둬야지하는 분위기. 남성중심 시각이다. 또 카페운영하니까 쉼여자로 본다. 기계손보는것도 거의 다하는데 as불렀을 때 우습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회원f: 운전할 때, 주차나 이런 것 웬만한 남자보다 잘하는데 도로 내에서 욕먹을 일

	이 없는데 주차에 예민하다. 가끔 대 놓고 전화번호 적어두면 가끔 열에 한 두명은 아이~, 쌍욕~한다. 그래서 낯선 곳 먼 곳에 가면 아예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다. 최근들어서는 직장에서 월급제인 경우 남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남자 선생님들은 몸 쓰는 일을 시킬 수 있고, 밤에 시험기간에 새벽까지 수업할 때 남자선생님들이 돌아간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 결혼이나 출산을 염두에 두면 직장도 결혼 선택한다면, 부모님들은 결혼해서 일하면 남자들이 다른 일한다며 말한다. 윗세대와 다르다. 저와 동갑이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런데 30대만 되면 아저씨가 된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국제 결혼한 친구도 외국에 살때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남자와 같아지더라고 하더라. 회원g: 개인적인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지 특히 더 불리한 적은 없었다. 회원h: 사람들 대할 때 약간 감성적으로 대할 때 남자들은 보면 일적으로 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떤 대화를 풀어 나가거나 어떤 사람관계를 만나거나 뭔가를 할 때 좀 감성적인 면이 더 많이 자우워서 그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 그럴 때. 여성의 경제활동을 취미생활 정도로 치부할 때. 회원I: 밖에서 군포여성민우회를 정치적 색이 있다고 볼 때, 회원K: 아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지하철 같은 데서 타거나 대중교통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 날 더워서 나시나 많이 파인아웃 같은 거 입을 때 아저씨나 이상하게 쳐다본다든지 그런 시선들도 그렇고... 그런 시선이 좀 불편하다/ 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일하고 여성들이 더 대접을 받는 곳이긴 해도 남자가 한두명 들어왔는데 그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회원I: 예를 들면 가장큰 어려움이 뭐냐하면 바깥 활동이든 안에든간에 집안 활동은 다 여자의 책임이라는거. 조금 나아졌어도 그 상태에서도 난위도가 있는셈. 회원m: 남자들은 마치 그거 하나 도와줘놓고 대단한 일을 한거처럼 생색내고 이럴 때 어쩔수 없는 아직까지는 여자구나 하는 생각 든다. 그걸 달라져 가야되는데 진짜 안되더라. 회원N: 딸 다섯있는 집에서 자라서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였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회사에 공채로 들어 갔는데도 커피심부름하는데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는 여자라서 편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50대 넘으면서 남녀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편함을 느낀다. 회원O: 성장기때와 고등학교 대학교때 너무 억울했었다. 오빠가 5명이었는데 늘 내가 여자라고 오빠들 밥을 차려주었는데 진짜억울 급진적 여성학 강의도 들었고 계속 할까 하다 안했지만 정치외교학과였는데 논문도 여성학과 관련한 것으로 결정했다. 지금은 여성이라는 것이 편하고 내 자신은 여성이어서 불평등하다는 생각은 안든다.
고 민 해 소 통로	회원A: 여러 가지 어려움은 소모임과 친구들과 대화함으로 해소하곤 한다. 특히 민우회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의식이 많이 고조되었고, 시택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하였다. 이런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여자들이 겪는 것으로 원인을 알게 됨으로 나 자신이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훨씬 가벼워져 생활하기가 쉬웠다.

		회원B: 고민은 잘 아는 언니같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많이 해소한다. 민우회 활동 중 상담원공부모임을 할 때 다 같이 감정 소통하고 해소 되는 경험을 했었다. 상담 소모임 할 때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우리 살아온 이야기도 나눴었고,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게 자기 치유가 되는 거. 회원c: 남편하고 다른 대화 다 같이 나뉘어도 어떤 선에서 남편은 그 정도까지 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친한 여자들하고 이야기한다. 저번에 탁틴내일도 청소년 단체이지만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니까 거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민우회에 들어와서는 민우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라 내 것을 풀어놓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다. 회원d: 친구, 민우회내에서는 운영위원간의 대화나 소통을 통해 , 회원e: 친한 친구와 얘기하거나, 혼자뿐다. 민우회는 소모임할 때 학부모역할에 대해 흔들릴 때 사람들에게 조언받았다. 민우회에 마음이 열릴 때 내 얘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 우울할 때가 있다 회원f: 친구/ 민우회는 여성집단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 한부모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미리 알았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회원g: 신앙으로 해결, 친밀한 사람과 얘기, 해결은 안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이 있어 감사하다. 민우회와는? 개인적인 사고와 삶이 다르므로 서로를 알게되는 교제시간이 충분치 않다. 서로의 이해 폭이 좁고 피상적일 수 밖에 없다. 회원 h: 주로 친구들하고 얘기하죠 . 제 교회 친구들하고 회원I: 믿는 사람이라 종교 모임을 통해서 푼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만들어 간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관계회복도 되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릇을 만들자고 생각한다./ 민우회에서 사실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독서모임에서 리더도 했지만 잘 안 되었다. 회원K: 일단 난타 시간에도 소모임 중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구... 요즘 풀고 있는 방법이 있다. 일기장 같은 건데..그냥 그림 그리면 서 혼자 다잡는다고 하죠? 그거하고 있다/ 민우회에서는 오면 매시간 매순간 잘한다...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매순간 도움받고 있다...그런 생각을 한다.... 민우회와 함께 못하는부분은 결혼하지 않아서 고민을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 회원N: 친구들과 개인적인 문제를 민우회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상담한다. 회원O: 여성단체라고 생각하고 ㅋ 민우회에 그 역할이 맞다. 여성들의 고민과 바람을 모아서 정책제안 통로 역할 충분히 해내기를 바란다. 그동안도 힘든 부분 잘 해결했지만..
--	--	--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지 역 이 해하기	지역육구	회원A: 현 지역에 살게 된 이유는 시택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도부터 거주하고 있다. 지역소식은 프랑카드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잘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보육문제가 잘 경영되기를 바란다.

	다. 그리고 특히 김연아를 다시 군포에 소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외부적으로 군포가 알려졌으면 한다. 36억만 있으면 아이스 링크를 만들어 주면 그곳에서 선수들을 키우고 싶다하니 그 소원을 군포시가 들어주었으면 한다. 기업체를 끼고 하면 그 현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TV오락프로에 나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민우회에서 생협소속 독서 소모임을 갖고 있었으나 군포민우회에서 작은가게가 문을 닫아 모임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어떤 회원이 그 모임은 자조모임같다는 평을 들으므로 민우회에서 나와 개인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회원B: 결혼하면서 남편이 산본에 살고 있어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음. 지역에 관심이 많다. 군포시청사이트에 자주 들어가고 의견도 낸다. 산사모사이트에도 자주 간다. 청소년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놀고 교류할수 있는 공간이 산본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야외 수영장,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공원, 혹은 대공원 같은 시설이 산본에 생기는 것이 소원이다. 민우회외의 모임으로는 아이들 자모모임, 동창회 등 참여. 회원c: 남편직장 때문에 이사. 용인에서 3년째. / 바뀌었으면 하는건 우리 아파트 안에 더 많은 동아리들... 나눔.. 재능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나누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게 생겼으면. 지역에 옆에 골프장 88골프장이 전망 제일 좋은 곳에 있거든. 그런 좋은 산길 이런 것은 오픈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쪽 또 교육 어디나 관심이 있는데, 재능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작은동아리 생기고 사회 이슈가 전체에 해당될 때에는 내 작은 모임들 성격과 상관없이 지역 전체에 큰 이슈에 할 때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하고 평소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 즐겁게... 즐거운 운동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회원d: 시집이 근처여서 14년째 거주, 시청에서 오는 문자로 지역사정을 약간 암. 주민참여제도 도입됐으면 한다 다른 모임은 없음. 회원e: 중학교때부터 부모님과 거주했기 때문에 , 지역에는 만족하는 편. 다른 모임은 없음. 회원f: 지역소식은 현수막, 동사무소 앞 시정소식을 지나가면서 대충 본다. 예전에 살던 곳이 안양이어서 별 차이는 없다.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확실히 강남이랑 가로등 차이가 많이 있다. 지금 사는 곳이 금정동 인테 집근처가 유흥가이다. 가로등 없는 가구거리 큰 길 보다 모텔거리가 차라리 직원들도 있고 해서 더 낫다. 회원g: 자연친화적 신도시를 찾아~ 14년째 생활, 아파트공고문, 민우회 통해 지역소식접한다.의 주민끼리리 소통공간이 부족하다. 반상회 참여도 적고.. 지역모임으로는 교회모임, 산행, 영화모임. 회원h: 결혼후 쪽 15년 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로 오게됨. 생태계 이런것들 다 잘 보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걸 좀 더 부각 시키는 지역 사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한다 회원I: 89년 두산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이사 왔고 그 뒤 한양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다. 지역소식은 컴퓨터에서 주로 소식을 듣는다. 산사모 등. 인터넷에서는 나를 밝히지 않고 활동한다. 회원K: 엄마랑살다 단독주택이 힘들어 여기 아파트로 이사왔다. 5년전. 동네 소식은 잘 못듣는다. 민우회에 와서 산본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듣는다..사는 그 동네에 관한 거는 잘 못 듣는 것 같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회원N: 안산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회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옮겨 10년 넘게 살고 있
--	---

		다.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민우회에 다니면서 시청이나 도서관에 관심이 생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본은 대체적으로 좋으나 환경조성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걱정되고 친환경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회원O: 분양받아서 산본에 오게 되었다. 19년 거주. 분양받고 와서 지금까지 한집에서만. 지역소식에 관심이 있고 지역언론지 통해서 소식듣는다. 꿈꾸고 있거나 하는 거 갑자기 생각안나고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민우회 모임외에 아이들 학교 자모회활동하고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엄마들하고 아이들 학습이나 방과후 활동등을 함께 의논하고 정보교환하고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아이들 간식도 챙기고 그런다.
	해결책	회원A: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회원증대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서로 나누면 결집되리라 본다. 나도 처음에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나 변하지 않는 활동들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현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데 단체에서는 그 빠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여성주의라는 틀에 갇혀 모든 상황을 의식화에 비교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소모임이 그런 잣대에 비추어, 아니면 그대로 평가하여 정죄를 하므로 많이 상처를 입게 된다. 회원들은 처음에는 흥미, 취미, 유익성을 생각하고 모여 활동을 하다가 신뢰성이 생기고 또한 결집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활동할 때에는 소규모로 아기자기하여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소모임자체가 완전 프로가 되어 뻥세게 진행되지 않으면 삶에 유익성이 없어 회원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영어모임 같으면 이곳 여성회관이나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더 강하게 진행되어 커다란 발전상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려나 다른 기관으로 사람들을 뺏기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민우회원 중에는 그런 큰 자질을 갖고 있는 보물들이 많은데 잘 활용하면 회원증대나 소모임 꾸림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목적이 뚜렷한 소모임들을 개발하여 불러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이 가족단위이므로 소모임의 구성이 가족단위였으면 한다. 남편이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회원B: 회원c: 민우회란 조직은 탄탄하니까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군포민우회에서 사회적 기업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해 가면서 정치하면서 정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당이 아닌 생활정치를 꿈꾸는 NGO 있을 수 있고 작은 작은 모임 경제활동이건 봉사활동이건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 ㅎㅎㅎㅎ 그런 산실이 되는 것 그런 것이야 말로 민우회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회원d: 함께 힘모으면 해낼 수 있다고 본다. 회원e: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변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 회원f: 현재는 상근자만 일 하는 구조이다. 가입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해야 한다. 같이 꿈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군포민우회가 유치원 정도라 생각된다. 어느 정도 커야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회원g: 함께 힘을 모아서 활동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회원h: 민우회는 원래부터 자연주의적이고 하니까 지역변화를 만들어내는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회원I: 생일축하 메시지라도 띄우자. 작은 모임 축하 등 회비를 냈더니 뭔가가 돌아온다는 느낌. 생일 때 축하카드라도 회원 관리차원에서라 있어야한다. 지역마다 리포터를 한다고 한 것이 아주 좋다.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리포터가 홍보도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나누다가 나중에는 아파트에 한 명씩 두면 행사나 모든 것이 홍보도 할 수 있다. 회원K: 실제로 밤에 늦은 시각에 와서 돌아보고 좀 무섭더라 낮 과 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좀 정말 실제적인 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우회가 큰 걸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막 굴러가기 보다 우리가 조금씩 일상에서 느끼는 것을 변화해서 그게 나중에 봤을 때 아 이게 커졌구나 하는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 같이하기 어려운 지점은 ..전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일단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돌을 할때 뭔가 이렇게 딱 조율한다는 느낌보다 아, 그건 안 돼...이런 반응을 몇 번 본적이 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조율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다. 회원N: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우회가 많이 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고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회원O: 우리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건의하고 피드백도 하면서 계속 관심갖고 필요한 것들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요. 소각장 할때는 정말 많이 모였었는데..이제는 그렇게 까지 하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때 너무 지치고 해보아야 힘만 들고 그런 생각 들어서 오히려 이제는 더 시청일에도 지역일에도 무관심해진 것 같다. 나부터 그렇고 이제 이사온 사람들은 아직 관심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전세로 왔다 아이들 크기전에 금방 이사가버리고.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단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서 더 큰힘이 되면 뭔가 이루어낼것이라고 본다. 민우회 활동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더 욕구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야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우회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같이하기 힘든 것은 다 같이 즐겁게 활동하기가 힘들어서인 것 같다.
--	--	--

5. 마무리 :

회원 A: 민우회가 좀 더 전문적이고 목적이 뚜렷할 뿐 아니라 회원 각자의 삶에 유익성을 끼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민우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여 잘 사는 군포가 되었으면 한다.

회원 B: 회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슈화하고-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원 C: 조직이 정비되기도 하고 지금 보면 12년차 되면서 일단 실무자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잇점이라면 반대로 실무와 회원과의 괴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 품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 세 번째로 크게 뿌리 내릴 수 있지 않나 희망적으로 본다.

어차피 조직은 실무자들이 자꾸 바뀌고 열심히 활동했던 회원도 자꾸 바뀐다. 그럴지라도 맨 처음부터 단 한차례라도 열심히 했던 회원들은 애정이 다 있거든. 실무자건 회원이건 자꾸 바뀌어도 민우회와의 연결되는 거리는 계속 탄탄해야지 민우회가 붕 뜨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거든. 그것이 거저 되고 오래되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그 조직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녀간 사람이 제일 만만한 사람이잖아. 그것을 못 품는다면 여기 속하지 않은 앞으로 속하게 될 사람이 많은데 그게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그냥 세월이 오래 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상근, 상근 활동가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져야지 한번을 다니러 와도 또 오게 되는거고,.. 근데 민우회 활동하는 시기가 또 하다가 한참 쉬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런 것이 있거든. 항상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멀리 있어도 항상 여기가 터가 될수 있는 그것은 현재 늘 활동하고 있는 상근, 비상근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것 같다. 그런데 벽차서 ... 프로젝트가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하다보면 쫓겨서 시간 없는 것 아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급한 일 아니어도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조직의 앞날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은 염두에 뒀야 한다.

회원d: 회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장이 열리길 바란다.

회원f: 예산의 문제이다. 기부를 많이 받아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회원g: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회원I: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만한다. 회원들이 왔을 때 커피 한잔이라도 함께 하면 좋겠다. 쇼핑을 하러 왔다가도 궁금해서 자꾸 들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참여하고 ...

회원K: .지금 유지하는 게...항상 현상유지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계속 현상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화해서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내가 민우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아~ 민우회~ 그 정도로 다 알 수 있는 는 그런 단체 됐음 좋겠다.

회원N: 민우회 들어와서 내가 많은 성장을 했고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회원들이 회원가입만 되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회원O: 예전에는 오고 가면서 들리고 생협가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엄마들하고 지나가다도 편하게 들려서 회원 가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오가는 길에 특별히 볼일이 없어도 자주 들렸는데 이제는 서먹하고 들어가 지질 않는다.

회원 누구라도 오가는 길에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다.

생협가게 없어진거 많이 아쉽다는 생각들고 민우회생협매장이 군포에 없는 것도 많이 허전하고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조성화, 이미숙, 빈미숙, 이정란
분석토의 참가	이정란, 이미숙, 주영, 부윤숙, 조성화, 고나경, 양정순

회원	연령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박은○	45	채택프리랜서	6	활동가권유	생산지견학, 여행모임 정도	결혼	고2여	독서논술지도교사
빈미○	40	컴퓨터그래픽 관련 프리랜서	6	회원권유	운영위원 2년활동했음	결혼	초6남	생협활동관심있음
윤경○	49	컴퓨터관련 중소기업사무직	9	자진	연1회 회원 만남날 정도	결혼	고1여 중2남 초5여	대학시절 민우회 관심
이명○	47	병원매점관리	8	생협활동가로서	회원의날 정도	결혼	대1여 고2남	생협매장 7년근무
이은○	46	전업주부	5	활동가권유	녹색가게 자원봉사	결혼	고2여 초6남	
남은○	47	전업주부	2 개월	회원권유	녹색가게 자원봉사	결혼	고2여자 쌍둥이	
안정○	44	전업주부	8	활동가권유	참가안함	결혼	대1남 고1여	

회원유형 : 40대 비취업기혼여성(A남은○, B이은○, C안정○)

질문내용		응답내용	활동방향 및 정책 시사점
민우회 활동	기대	회원A : 세달 전 가입했어요. 지역에서 봉사를 원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봉사하게 되었어요 우리집 근처에 녹색가게가 있어 편하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입하면서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기대라 하면...무보수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일 것 같네요 회원B : 2006년도 3월 가입, 가입동기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싶었고 기대했던 것은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활동을 하고 싶은 맘이 있다 회원C : 2002, 2003년도 정도 가입, 가입동기는 동네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당시 이현주 구의원을 만나서 그가 제시하는 활동(놀토 동네어린이학교, 녹색가게 봉사, 동네 독서모임 등)을 같이 하면서 가입 권유를 받게 되었다. ...기대했던 것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냥 봉사활동을 한다 생각했다.	봉사활동으로서 지역 사회와의 연결로서 민우회에 대한 일정정도 기대와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나 민우회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관점을 주기 위한 교육과 활동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민우회적 활동내용을 풍부히 하고, 활동내용을 잘 전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끌어낸다
	달라진 점	회원A : 아직 없어요 회원B : 달라진 점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 줌 더 발전하려는 마음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나 자신	

		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다. 아이를 어느정도 키우고 나면 활동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긴. 회원C : 사회를 보는 관점이 생겼다는 것, 예를 들면 각기 다양한 단체나 조직들이 지역에 다양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할까...	
	참 여 정 도 및 만족도	회원A : 녹색가게 월 2회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만족한다 회원B : 녹색가게 주 2회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가게를 지키고 있다....취미모임인 영화모임 하고 있다. 회원C :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같이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그만 두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	
개 인 의 삶 이해	주요 관 심사	회원A : 무엇보다도 고2 쌍둥이가 있으니 진로문제 학교문제지요. ...또 경제적인 활동으로 부업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크고 나면 시간활용도 하고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맘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신난다 ...신경쓰이는 것은 아이 진로문제. ...혼자하기 어려운 일은 부업이겠지요,, 회원B : 아이들 진로문제가 가장 쏠려있는 관심사고, 남편이 퇴직 후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 부업을 생각중에 있다. .친구를 만나 수다하는 일이 신나지 않은가. ...신경쓰이는 것은 아이 진로문제. ...취미활동 할 때 맘에 맞는 지인들과 함께했으면 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회원C : 머리를 식히는 노는 일에 관심 있다. 여행이나 수다떨기, 운동 등. 그동안 머리가 너무 복잡했나 보다.(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임)여행하는 것이 가장 신난다. 아이들은 싫어하지만 난 그냥 떠난다. ...신경쓰이는 것은 아이 진로문제. 재수하는 아들과 예고 다니는 딸아이 문제이다. ...혼자하기 어려운 일이 없다.	진업주부 회원들은 주요관심사가 아이들 학교나 진로문제에 전폭적인 관심이 몰려있다. 각각 지인들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어 대화의 통로나 문제해결의 방법을 나름 가지고 있다. 다만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활동 욕구가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도 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경제활동에 관심 많음. -->소모임과 교육 등에서 회원 간 정서적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우회의 정체성과 활동지향 내면화돼야 적극적 참여 가능할 듯.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모색
	사 회 활 동 욕구	회원A : 내가 쓸 용돈은 내가 벌어 간섭없이 쓰고 싶다. 앞으로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과 같은 소비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이라도 용돈규모를 유지하고 싶다. ...물론 엽매이지 않으면서 나의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일..... 회원B : 많이 쓰고 싶다. 여가활동을 위해 내 용돈이 풍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남편퇴직 후 지금과 같은 소비가 가능할까 불안감 때문에 경제적 관심이 크다 회원C :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있다 한때 편의점을 내고 싶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월세 내지 않	

		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주요지점은 본사가 다 점령하고 있어서 투자할 만한 매리트가 없어서 포기했다. 남편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과거의 활동 경험	회원A : 일반 회사에 근무했었다. 결혼과 동시에 가족의 요구도 있었고 나도 그만두는데 동의해서 그만두었다. 가끔은 계속했더라면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은 경제적 부분이 아쉽기 때문이다. 회원B : 수확학원 강사를 했었다. 결혼하면서 자진해서 그만 두었다. ...별로 아쉬움 없다. 회원C :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회원A : 시댁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가 낮다고 생각들 때, 나의 의지와 다르게 의무가 많은 것 같을 때. .최근에 시댁부모를 모셔야 하는 문제가 내게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된다. 회원B : 매달 생리할 때, 시댁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아들보다도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앞으로 같이 살자고 할까 걱정되고 연로하여 내가 모셔야 할 때가 올 것 같아 암담하다. 회원C : 없다, 난 단순하게 사고하면서 산다.	전업주부의 여성으로서 어려움은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가 으뜸, 수다모임이나 가족과 대화에서 해소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전통적 방법으로 귀결 -->민우회 소모임이나 기획모임에서 시댁과의 문제, 여성차별, 자아개발에 대한 인식을 객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고민 해소 통로	회원A : 동네 지인이나 친구에게, 혹은 남편과 이야기한다. 대체로 해소가 된다. 아직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맘이 통하는 모임에서 풀어볼 수 있겠다. 회원B : 친구나 동네 지인들과 수다한다. 시댁문제는 시댁 형제들과 의논한다. 대체로 해소가 된다. 민우회에서 고부갈등강좌나 토론회를 열어 해결해볼 수 있겠다. ...취미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고민들을 풀어 놓을 수 있겠다. 회원C : 남편과 의논하고 어느정도 해소된다. 동창모임이나 학부모모임 네다섯개 있어 자주 만난다.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회원A : 여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교육여건도 좋고,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갖춰있다. 여성으로서 살기 별 불만이 없다. 회원B : 별 불만이 없다. 아이들 키우기 좋다. 회원C : 아이들 초등학교 때 주민자치센터 일을 했을때 이후로는 그렇게 지역소식에 관심은 없지만 그동안 통장이나 구의원(민우회 출신 김경자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 관계자들을 동네에서 만날 수 있어 소식을 접하고 있는 편이다.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들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만족하고 있는 듯, 지역일은 누군가가 할 일이라는 정도 -->회원들 삶과 관련된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안 개발해야
	해결 방법	회원A : 잘 모르겠다. 활동회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회원B :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회원C : 앞장 선 주체(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동네주민 모임 등)들에게 꾸준히 요구하면 된다. 앞장 선 자들이 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가 변할 것 같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회원A : 잘 모르겠다 회원B : 잘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회원C : 힘있는 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요즘은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단체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지역자치관련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해야... 홍보활동에 주력

회원유형 : 40대 취업기혼여성(A : 윤경○, B : 이명○)

질문내용		응답내용	활동방향 및 정책 시사점
민 우 회 활 동	기대	회원A : 대학다니면서 민우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었고 졸업 후 관심가짐. 87년 민우회 처음 생길 때부터 - 민우회는 처음 생길 때 이화여대 중심으로 여성, 학생 중심 운동으로 알고 있었고 -> 여성노동운동이 활발했던 것 알고 있고 -> 이후 환경, 성폭력으로 주된 관심사가 이동하는 것 같다. - 직장여성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는 부족한 듯함. -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회비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입하였음 -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다. 직장 그만 두면 활동하고 싶다 회원B : ...2004년도 정도 ...생협매장 상근하면서 당연히 가입하게 되었다. ...기대는 없었다. 단체에 대해 잘 몰랐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한 회원은 예전부터 민우회를 알고있고 여성단체에 대한 이해가 있는경우가 많음 -->민우회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사업을 유지하고 개별적 관리를 섬세히 하도록..
	달라진 점	회원A : 참여를 못해서... 소식지 통해 소모임활동, 중심 이슈 등 민우회 정황을 파악하는 정도 알고 있고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회원B : NGO 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우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게 많아요. 달라진 점은 많다. 말로 표현하는 가법과 자신감이 많이 늘었어요. 가족관계에서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좋아했고 민우회에서 한 자기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관계가 좋아졌다.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점 또한 민우회 활동의 결과다. ...변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부모교육을 받고 난 다음 생활의 변화가 많았다. 자신감도 생기고(난 소심한 성격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나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매장 근무한 실무 능력은 새 직장 얻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 정도 및 만족도	회원A :인상적인 것: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접근을 깊이 있게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 기억에 남는 활동: 가족과 함께한 농촌 체험활동(생협운동 차원 활동) 회원B : 여성생산자와 함께하는 생협활동에서 생산자들의 고충을 들으며 친해진 일이 기억난다. 난 매장 활동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활동을 참석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참석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며 좋았다. 아이들과 사이가 좋았을때 부모교육에서 많은 도움 받아서 많이 개선 되었어요. 웃어라 명절 캠페인에서 속 시원	

		한 감정 느꼈고 남편과의 관계도 도움 받았어요 당시에는 시간부족으로 근무 시간에 일만 하고 싶기도 했고 활동이나 교육이 부담스럽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 활동이 특히 의미가 있었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회원A : 직장생활 10년 했고, 나이 50이 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한다. - 직장생활로 가족 안에서 역할이 미흡함을 느낀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신날 때는 나를 위한 시간 (운동이나 책읽기..) - 혼자하기 어려운 일은 아이들 교육현장에 대한 개선 회원B : 운동관련한 취미를 만드는 일에 쫓혀있다. 예를 들어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놀이를 겸한 운동을 하고 싶다. 인간관계를 새로이 맺는 일이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는 스포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 일상이 무료하다 친구들과 수다할 때 신난다. ..신경쓰이는 일은 아들이 고2라서 진학문제가 있는데 아 이들이 잘 하고 있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직장내 승진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욕구는 이미 체념한 듯 보임.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을 낼 여가가 없음.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고민이 큼
	사회 활동 욕구	회원A : 산업현장용 컴퓨터(H/W) 생산업체의 사무실 관리팀. 정규직-대학졸업 후 첫 직장이었고 15년 정도 근무했다. 출산 후 5년 정도 휴직했었고 다른 회사 지원했지만 못하고 복직해서 10년 정도 되었다. 역할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한계가 보일 때가 힘들다. - 아이들에게 기본적 의식주 외에 생각, 공부 등 커가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을 놓친 것 같아 고민. 이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돌릴까 생각 중이다. 회원B : 병원 매점관리를 하고 있다. 주 5일 근무 1일 7시간을 하는데 일 주일 간격으로 오전 오후가 바뀐다. 초과근무가 없고 책임을 그리 지지 않아도 되고 일의 성과에 대한 압박도 크지 않고 보수도 괜찮아 만족하고 있다. 가정일과 병행할 수 있어 좋다. .직장에선 일에 대해선 어려운 점이 없지만 인간관계가 없어 심심하다. 오후 근무할 때 가족들 뒷바라지가 안돼 맘이 쓰인다.	
	과거의 활동 경험	회원A : 임신후 건강 이상(하혈)으로 5년 정도 휴직하였다. 건강회복 후 재취직하려고 친구와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 먼저 다녔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 - 남편, 친정엄마가 가정 일을 많이 도와 줌. - 그만 둔 이유가 분명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대해 다른 생각이 없다 회원B : 결혼전 직장은 결혼과 함께 퇴직하게 되는 상황	

		이라 그만두었고 당연하다고 느꼈다. 그때는 남편이 혼자 벌어도 4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그 당시엔 결혼하면 다 그만 두는 상황이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근무조건이어서 모두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다 최근 근무한 민우회 생협매장은 일이 너무 많아 그만둬(일을 집에 싸들고 가게됨)	
여 성 으 로 서 의 삶 이 해	여 성 으 로 서 의 어려움	회원A : 여성에 대한 고정인식이 싫어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 직장 내에서 여자가 오를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되어 있다. 회원B : 너무 많다(완력으로 핸드백을 빼앗겼을 때, 시어머니는 당당히 용돈을 요구하고 친정부모임에게는 용돈드리지 못할 때, 결혼 전 주택청약 저축 든 것을 남편 명의로 바꿔야 할 때, 명절 때 언제나 시댁 우선으로 해야 할 때...) 밤 늦게 택시 탈 때 불안할 때, 맞벌이를 해도 집안 일을 다해야 함,	취업여성은 자녀교육 병행에 고민이 많음. 민우회 프로그램 기획상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민우회에서 참여할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음 -->저녁에 할 수 있는 문화모임(영화, 다큐보기)이나 요리를 겸한 수다모임 등으로 고민을 털어놓은 수 있는 자리 마련.
	고민 해소 통로	회원A :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100%만족할 수 없으면 대안을 찾는다. 아이들에게도 “000해서 엄마도 힘들 수 있으니 너희들도 00해라” 라고 말하면 이해해 주는 편이다. 먼저 내가 노력한다. 물론 그전에 서로에 대한 신뢰기반이 우선이다) 사회문제이니 같이 고민할 문제. 소모임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데 해결모임 만들 수도 있겠다. 회원B : 친구나 가족, 애들한테 한다. ..해소가 되긴 하나 아는 사람이 아닌 상담자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웃어라 명절 캠페인을 알고 집에서 명절 문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다소 개선한 적이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다.	-30-40대 초반(초등 부모):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말 참여 프로그램 모색. 생협 농촌체험 류의 함께하는 생태, 문화 체험학습 활동 . -40대중반-50대초반(중고등부모):야간 소모임 모색.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을 원할게 하는 심리 야간 강좌 등 -50대 중반 이후: 주말 걷기 모임, 주말 독서 토론 등
지 역 이 해	지역 삶의 질 욕구	회원A : 태어난 곳이다. 양천구에서 살다가 강서구에 3년 거주 중이다. 친정과 가깝고 익숙한 곳이다. 결혼하면서 신혼 초 노원구에 5년 살다가 일 때문에 2000년부터 목동2단지 거주. 지역신문, 관보, 인터넷 소식지, 웹진. 관심은 있으나 알고있는 정도에 그침. 지역에서 펼쳐볼 수 있는 구체적 바램은 없음. 회원B :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사, 12년 정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있다. 양천구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통하거나 양천문화회관 문자를 받는다. 양천구에는 각종체육 활동. 문화프로그램 좋다.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바꾸는 것을 안하는 성격이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협에서 만난 친구와 만남이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나 욕구는 사실상 없어 보임. 개인적 직장생활로도 바쁨 -->

	해결 방법	회원A : 아직은 조직력이 약하다. 사람이 좀 더 모였으면.. 사람이 일단 모여야 말을 모으고 말이 모여야 힘이 생긴다. 사람이 모여 하는 일은 무슨 일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은 친목. 그 친목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찾고 의견을 조직화해 갈 수 있을 듯. 회원B : 모르겠다. 있다. 하지만 민우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회의적이다.	
민우회에 바라 는 점		회원A : 직장여성들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더 주었으면 한다. 무거운 주제 말고도 다가가기 편한 것들, 즐거운 것들, 생활 속의 것들로.. 예를 들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어서 “영화보기” 좋아한다. “시장모임”도 좋다. 생활 속엿 내용을 즐기고 그 속에서 내용을 찾는 활동. 굳이 의식이 있는 것 아니더라도 좋다. “맛있는 것 만들어 먹는 모임”도 추천하고 싶다. 회원B : 민우회라 하면 나에게서는 어려운 단체다. 존속해주길 바란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활동을 지속해주길 바란다.	직장인을 위한 편안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회원유형 : 40대 프리랜서 기혼여성(A:박은○, B:빈미○)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활동방향 및 정책 시사점 (지부에서 논의하며 채우는 칸)
민우회 활동	기대	회원A : 2005년, 생협물건소비(지리적으로 가까움) 중 정회원 권해서 가입. 특별히 기대하진 않았다. 가입 이후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됨. 초기에는 성당 내 생협과 병행하여 민우회생협 이용. 그러나 후반으로 오면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오랫동안 쌓인 신뢰가 있어 민우생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됨. 회원B : 기억이 잘 안나요 생협회원이었고 독서모임이 소식지에 공지되어서 책을 좋아하므로 같은 관심사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네친구인 염하용씨와 같이 옴. 염하용씨의 네트워크가 좋아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게 됨 (저는 혼자 있는 편이라)	민우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어 소속감을 다소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워 단발성 프로그램 개발 -->4대강 걷기 등 환경, 인권 등과 연계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행사 개발
	달라진 점	회원A : 민우회생협을 주변에 권하는 입장이 됨. 회원B : 여론(미디어)에 휩쓸리지 않는 관점을 가지게 됨, 주관을 가지게 됨 식재료에 대한 새로운 지식(식생활지기 교육)을 얻고 변화 됨	
	참여 정도 및 만족도	회원A :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때 광화문 서울광장에 도착했더니 민우회텐트가 보였을 때의 반가움(내가 이용하는 곳, 소속된 곳이란 생각) - 생산지 찾아갔을 때, 생산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지리산 둘레길 걷기 등 일시적인 활동 - 만족 - 지부소식지: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반갑고, 활동공지 등 정보지 역할을 해준다. 흥미가 있다	

		- 본부소식지: 과격하지는 않으나 여성에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 반복되어서인지 내용이 식상한 느낌. 좀더 소재가 다양해졌으면 한다. 소일거리로 잡지 읽듯 본다. 회원B : 밥집은 즐거웠다. 굶은일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새로운 경험으로써 여럿이 하니까 즐거워서 스스로 놀랐다. 생협의 식생활강사 교육. 마을모임 한달에 한번 정도이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서 부담도 없고 수다떠는 기분으로 참석. 잠깐 출근하는 일 있어서 민우회와 인연이 끊어졌고 다시 시간이 있을 때 생협과 연이 닿았다. 멤버는 민우회원이 좋지만 활동주제가 조금 무겁다. 생협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평소 관심있는 분야이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회원A : 연로한 양친이 있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짐. - 남편퇴직 후, 궁궐지키미나 문화해설사를 하고 싶다. 전 공과 연결되고 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이웃과 함께 안양천을 걸을 때 (주 2~3회) 즐겁다 - 시어머니건강이 가장 신경쓰인다. - 자녀의 학업 특히 수학공부가 신경쓰임. 회원B : 책을 읽으려고 한다(도서관 독서모임에 나간다) 요즘 한달 가까이 읽은 책 ‘치유하는 글쓰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 외롭구나’ 등 좋은 책을 읽어 좋다 신이 날 때는 혼자 산책 할 때-마음이 정리가 된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인데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신경쓰게 하는 것 - 예전엔 아이 교육문제였는데 지금은 본인이 할 일이라고 간섭과 통제를 안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게 자녀인건 사실. 요즈음 별로 신경쓰는 것 없다	가정과 병행하여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교육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일이 생겨 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새롭게 예상되는 노인부양문제에 관심이 있다.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민우회 내의 노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고령화사회에 맞는 어젠다 및 프로그램 개발해야.
	사회 활동 욕구	회원A : 논술지도교사(9~10년), 3년 전에는 수업이 많아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일도 줄이고 많이 좋아짐. 집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 가족의 눈치를 본다. 수업이 늦게 끝날 때 가족이 집에 편히 있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일과 병행하려니 가정일이 어렵다. 민우회 일회성 활동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단체에 참여한다는 점이 좋다. 회원B : 가사. 일 들어오면 사진편집이나 달력 디자인 그라픽 출판 알바, 결과물이 바로 평가 받는게 스트레스, 사람이 좋아. 다른 데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덜하다. 사회 활동 욕구 생겨요 남편이 언제까지 일 할 것도 아니고 아이도 컸고 자아실현도 하고,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가정과 병행할 수 있는 출퇴근이 확실한 곳,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야근을 할 경우 욕아가 걸리는 문제더라-아이가 피시방에 가더라고요. 아직도 욕아와 사회활동 딜레마에 시달린다 사회생활에 전력을 다해본 경험이 없다. 아이키우는데 10년 열정을 불태웠다 디자인 관련 여	

		러분야 섭렵했는데 별로다.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미술치료,심리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과거의 활동 경험	회원A : 결혼전 학원에서 일했는데 결혼하면서 그만 둬, 갈등이 없어. 결혼 후 곧 임신과 출산으로 연결돼 현실적으로도 병행하기 힘들었을 듯하다. 회원B : 대학때 학교 방송국, 졸업후 한국 주택신문 기자-지역총국, 국비 편집디자인 훈련, 계속 부정기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육아가 힘들어 일로 도망을 간 것 같다, 육아 도우미, 어린이집 활용도 했다 회사가 파산하여 쉬기도 하고 육아와 병행 알바,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아쉽다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고민 해소 통로	회원A : 취업불평등. 원가정에서의 차별(집안 일에 대한 결정 등에 있어서 남동생과도 차별됨). - 며느리로 하게 되는 고민. 시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신데 아들인 남편은 주말에 골프치러 가고 나는 병원에 시어머니 돌보러 가야 할 때.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좀 세상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 여성으로서 삶이 그렇게 괴롭지 않다고 생각된다. 회원B : 별로 없다. 친정에서 딸이니까 자주 안와도 된다고 할 때. 친정에서 위치가 소중하지 않은듯함, 유산상속 때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서운함 -엄마라는 이유고민. 보육에 아빠 참여는 높아졌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여자가 부담하는 게 늘어남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고 교육에 관심 가져주기 바람. 인성 대화, 육아에 협력하는 태도 바람 회원A : 남편, 이웃이나 친구, 말로만 해소. 민우회에서 아이 어렸을 때 생협식품 먹으며 아이의 아토피증세가 많이 해소되었다. 회원B : 진정한 고민은 일기장에(자신과 대화) 일기장이 박스로 한 개. 타인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 못함 아직 그런 관계를 못 맺어서 친정언니한테도 다 이야기 못 함(친정 식구에 소문이 남) 글쓰기는 해소기능 온라인 일기도 있음, 민우회엔 인생 선배가 있어서 경험을 물려받는다. 지역 정보도 얻을 수 있고(육아부터 국수집 까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좌절을 경험한 후 일을 선택한 경우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식, 가정내에서 양육의 전담 등의 불평등 의식이 많음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욕구	회원A : 결혼 전 목동10단지거주. 결혼하면서 신혼 초 노원구에 5년 살다가 일 때문에 2000년부터 목동2단지거주. 학부모회. 이웃, 민우회소식지, 지역신문, 아파트안내문, 구청홈피. 여성으로서 살기 좋은 동네지만 치안 등에 좀더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바람. 학부모회의, 안양천걷기모임(오래된 학부모 모임이 연장되어 유지되고 있다) 회원B : 세가 싸서 살기시작, 13년. 지역에 관심이 다수	

		있다. 양천구 소식 민우회, 온라인 카페 베스트맘 참고, 도서관도 많고 놀이터도 좋고 그러나 공기가 깨끗해 졌으면-비염이 있어서, 먹거리 문제 앞으로 키워드는 환경일 것.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도서관 모임. 아이학교 녹색어머니. 동네 모임 없고 옆집 아줌마 얼굴 모름	
	해 결 방 법	회원A :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이뤄지리라 여겨짐. 내 아이가 여자라서 사회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음. 연상연하커플, 여아선호현상 등을 보면 가정에서 리더는 여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 생협 초기에는 품목도 다양하지 못했고 이용하는 사람도 소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내 주변 이웃은 대부분 생협을 알고 쓴다. 예. 생활협동조합이니까. 걷기, 탄주머니, 텃밭가꾸기 등 소모임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지찾아가기(모내기, 벼베기행사는 같이해서 체험이 편했고 생산지라는 점 때문에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좋았다.), 여행, 걷기모임 등을 하고 싶다. 회원B : 생각을 모으는것 각 생각이 바뀌면 정책은 따라올 것. 그럼요, 시민단체이니까 그런 힘이 있다고 봄. 생협 활동도 있으니까. 민우회가 교육 체험 기회 제공하면 좋겠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회원A : 노인여가문제(신정,목동): 노인여가, 보건. 예를들면, 2개월에 1번 정도 지역병원과 연계해 건강종합검진 받으면서 1박2일 그 지역 구경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 교육문제(신월동): 신정, 목동지역에 비해 양천구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학습을 메워줄 수 있다면 좋겠다. 회원B : 예전에는 여성으로 갔다면 이제는 여성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 어린이 환경 포괄적인 문제로 갔으면.. 앞으로 민우회는 남성,여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과제로 갔으면..	성평등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고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임. 공격적 여성 운동보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복지 및 환경 문제 등 다뤄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분석토의 결과

전반적 인식의 특징과 시사점	1.자아실현, 자녀교육 등의 기존 개인관심사 외에 고령화사회의 어려움을 개인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 민우회 내의 노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령화사회에 맞는 어젠다 및 프로그램 개발해야. 2.직장 내, 가족 내 성차별은 있으나 양성평등이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보이며 자녀 세대의 성평등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민우회가 다루는 주제가 무겁다는 인식이 있음. 노인, 어린이, 환경 등 보편적 공감폭을 넓힐 수 있는 운동방향 요구. -->성평등 활동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고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임. 공격적 여성 운동보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복지 및 환경 문제 등 다뤄야. 3.걷기, 여행 등 자연친화적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취미에 관심이 많으며 참여했던 행사 중 생협 농촌체험, 생산자와의 만남 등을 인상 깊게 꼽음 -->공정여행 등 친환경 및 존중하는 여행문화 캠페인 등 레저문화에 민우회가 기여할 방향 찾을 수 있을 듯. 5.양천구 주민들은 의외로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설문에선 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감이 있다. 자신의 욕구와 관계있는 사안 즉 마을 도서관이나 청소년 독서실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될 듯.	
직업유무별 특징과 시사점	40대 비취업 기혼여성	소속감과 사회활동 욕구가 강함.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경제활동에 관심 많음. 인간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사회문제 인식엔 다소 부족하다. -->소모임과 교육 등에서 회원 간 정서적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우회의 정체성과 활동지향 내면화돼야 적극적 참여 가능할 듯.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모색.
	40대 취업 기혼여성	취업여성은 자녀교육 병행에 고민이 많음. 지역민우회에서 참여할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음 --> -30-40대 초반(초등 부모):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말 참여 프로그램 모색. 생협 농촌체험 류의 함께하는 생태, 문화 체험학습 활동 . -40대중반-50대초반(중고등부모):야간 소모임 모색.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을 원활케 하는 심리 야간 강좌 등 -50대 중반 이후: 주말 걷기 모임, 주말 독서 토론 등
	40대 프리랜서 기혼여성	지속 참여가 쉽지 않아 단발성 프로그램에 관심 많음. 둘레길 걷기, 생산지 견학 등이 좋았다고 함. --> 4대강 걷기 등 환경, 인권 등과 연계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는 행사 개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오경훈, 이윤경, 권주희, 이중희, 김성희, 홍문정, 황선아, 옥은희
분석토의 참가	오경훈, 이윤경, 이중희, 김성희, 홍문정, 황선아, 임현희, 권주희

회원들의 욕구 및 민우회에 대한 기대

1) 민우회가 편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여행 모임, 도서관/카페 같은 열려 있는 분위기, 쉴 수 있는 공간)

- 실제 민우회가 카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안 오던 회원들이 올까? 공간이 불편한 게 아니라 괜히 왔다가 쫓아내일까(?) 안 오는 것이 아닐까.
- 민우회 전체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없이 개인적인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욕구를 반영해 활동 방향을 정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더 힘든 것. 그동안 부드러운 소모임 많이 했지만 막상 민우여성학교 같은 맞는 강좌를 했을 때 오는 사람이 없었다.
- 회원들이 민우회에 원하는 기대가 너무 높다. 말랑말랑한 활동부터 정책/운동적인 부분까지... 그것이 지금 민우회 현실 같다.
- 기획팀의 활동은 약한데 소모임은 모임만으로 끝나고.. 이런 문제들이 오래되고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다.

2) 민우회 문턱 높음(똑똑한 여자들, 중산층 여성들의 모임?)

-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사람이 낫설어 하는 한계는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문턱이 높다는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처음 강좌를 들으러 왔을 때 챙겨주거나 하는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멘토)을 연계해 주는 모임이 필요하다.
- 멘토의 자격도 중요함. 기존 회원 중에서도 여러 모로 공감이 가는 검증된 사람이 멘토가 되어야 한다.
- 신입활동가를 위한 신입전담팀(신입 회원 관리, 유치)이 필요하다.

3) 젊은 활동가 재생산이 안 됨.

- 요즘 사람들은 자격증/수료증에 대한 욕구가 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 젊은 층에 맞는 시간대(저녁)의 모임, 행사 등이 부재하다.
- 여성 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가 원인일 수도 있다.(시대적 흐름)
- 현재 민우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관심사가 육아, 가정의 문제이므로 그것들에 대해 젊은 층이 공감을 못한다.

- 지금 40~50대가 주류면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데 젊은 층이 오겠나.
- 40대가 바라보는 여성운동과 20대가 바라보는 여성운동이 다르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 덕성여대, 정당들 있는데 만나는 시도가 필요하다.
- 20대 뿐 아니라 30대층도 없다. 매장엔 오지만 민우회는 오지 않음. 당장 공감할 수 있는 여성들을 만나자.

4) 활동(저소득층, 한부모, 정치적 이슈 등)의 확대

- 민우회가 모든 운동을 다 품을 수는 없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민우회에서 운동을 풀어낼 수는 없다. 민우회에 맞는 활동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바람직.
- 여성단체라서 모든 여성(이주여성, 저소득층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 지역 내에서 민우회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역량에 맞게(타 단체와 연계...) 해야 하지 않을까.
- 지금 민우회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을 위한 활동은 없다.
- 치유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크게 보면 소모임(오카리나, 합창 등)이 치유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우회만의 차별성이 없는 건 아쉽다.
- 현재 소속된 곳 중 민우회가 가장 나를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단체. 그런 파이를 늘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뿐 아니라 여성들이 공감 받을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민우회인 것 같다. 사안마다 소모임을 조직하고, 센터를 만들고 그럴 수는 없고, 꼭 할 수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내 상황에 대해 공감받고 위로 받는 공간이길 기대한다. 민우회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 민우회가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조직문화를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는 걸까.
- 우리가 패쇄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다. 필요성이 얘기되면 민우회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활동을 할 수는 없다.
- 민우여성학교에서 비혼 여성의 삶의 어려움 같은 것을 소식지에 실으면서 이런 문제를 상기시켜주고 고민을 언급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
- 회원들의 욕구를 알 수 있는 조사를 회원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 민우회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해야 한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분석

답변자 : 9명

질문자 : 7명 (사무국 3명, 운영위원 4명)

인터뷰 방식 : 답변자 1명 당 2~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질문 및 기록

인터뷰 현황

구분	인터뷰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년도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A	남O진	40대	주부	2001년	권유	소모임, 기획팀	결혼	있음	오카리나, 교육기획팀
B	김O경	40대	주부	2008년	권유	소모임	결혼	있음	아티스트웨이
C	이O자	40대	주부	2004년	권유	소모임	결혼	있음	노래패
D	김O향	40대	비정규직	2008년	권유	기획팀	결혼	있음	오야(성평등)
E	이O숙	40대	사회적기업	2011년	권유	기획팀	비혼	있음	교육기획팀
F	이O숙	50대	주부	2006년	권유	소모임, 기획팀	결혼	있음	오카리나 문화팀
G	김O순	50대	프리랜서	1999년	지역운동		비혼	없음	
H	김O환	30대	학원강사	2006년	권유	소모임	비혼	없음	아티스트 웨이
I	이O춘	40대	민노당	2010년	후원사업	소모임	결혼	있음	오카리나

1. 회원유형 : 40대 비취업 기혼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
민우회 활동	기대	A : 인상적인 민우회활동은 처음 여성학모임, 성인지적도봉구예산, 복지위원 회활동-일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다. 초기엔 집에서 일도 했었을 시기 민우회 활동 병행, 오랫동안 경제활동 안하던 시기엔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위안 같은 게 있었다. B : 가입동기는 흥미용 회원의 권유로 가입. ‘쭈마네’에서 책 쓰는 작업을 함께 했었음.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별 고민없이 선택 오게 됨. 가입시 기대한 점-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왔는데 정치 색을 띤 것도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다. 별 관심 없고 모르던 분야였음 C : 2004년 생협에 먼저 가입. 어느 날 매장에 갔다가 이벽주 선생님이 민우회 가입하라고 해서 하게 됨. 여성시민단체라고 해서...
	달라진 점	A : 답변없음 B : 나이가 드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무관심한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 느껴졌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도 민우회가 하는 활동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보태고 머리 하나라도 보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문제, 생명, 의식적인 부분, 생활밀착형 활동들이 많이 와 닿고

		설득력 있고 각성이 된다. 보수적인 성향의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도 운동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어서 민우회를 ‘아줌마들과 사는 얘기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다닌다. C : 다푸리 활동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았는데 갈등상황이 되니 그냥 어느 곳이나 사람들 있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참여정도 및 만족도	A : 답변없음 B :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종로구) 많이 참여하지 못함. ‘아티스트 웨이’ 모임의 이끔이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즐겁다. 활동 만족도-많이 참여하진 못하지만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 지역적인 핸디캡을 극복할 만큼 끌리는 모임이나 강의가 없어 참여를 잘 안하게 된다. 활동 소식은 소식지(본부, 지부)를 통해 안다. C : 민우여성학교에 참여하며 좋았고, 노래패 활동하고 있음. 노래패하면서 크게 노래할 수 있어 좋음.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A : 최근활동은 도서관 생글 운영위원, 스키마책읽기모임, 민우회 오카리나소모임, 도서관에서 다문화책읽기모임, 민우회교육기획팀, 생협비대위, 도도협 운영위원 B :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는 여행, 놀기 필요성을 느끼나 혼자라서 못하는 일은 뜻 맞는 사람들과 여행을 함께하는 것, 여성만이 참가하는 여행. C : 켈트. 최근 배우기 시작했음. 또 몸을 쓰면서 운동할 때 신난.
	사회활동 욕구	A : 현재도 경제활동욕구는 있는데, 과거와는 좀 다르다. 과거는 압박감 현재는 활동은 하고 있다. 단지 돈이 안될 뿐. 나중에 아이들이 더 컸을 때 내 용돈정도 벌 수 있기를 바란다. B : 돈때문이라기 보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놓지 않기 위해 지금도 글을 쓴다. ‘줌마네’ 글쓰기 활동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 C : 없음
	과거의 활동 경험	A : 너무 힘들게 열심히 일했다.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 계속했는데, 둘째 임신 계기로 그만두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어서 다른 세상, 세계를 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다. 요근래 이대로그 만족스럽다. B : 결혼 전과 아이들이 자란 후 자유기고가로 일했는데 결국 만족할만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일과 남편의 반대로 일을 포기했다. C : 없음
여성으 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 의 어려움	A : 시대과의 어려움 있을 때, 사회생활 차별은 거의 없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늘 있었으니 현재는 내가 걱정한다고 나아지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 염려를 덜 하게 되었다. B : 가정생활 자체가 억울하다. 정서노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내가 타고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들과 스스로 제 풀에 꺾인 형태가 되어 버렸다.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에 타인(친정, 시댁)에게 맡기는 것이 미안해서 자기개발에 대한 끈을 놓아버렸다. 억울함.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여행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냈다. 노후에 대한 불안-남편사업과 아이들의 자립 등이 걱정이다. 노후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다.

		C : 결혼 전 만딸이라 힘들었음.
	고민 해소 통로	A : 아직 둘째 어려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 있다, 저녁강좌 수강, 하고 싶은 공부 주로 남편하고 고민상담, 고민과 관련된 누군가와 솔직히 토로하는 편이지 누르면서 삭히는 타입은 아니고 솔직하게 항상 얘기하는 편이다. 그다지 정치적이지 않았다. 해소, 해결보다는 내 고민을 알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 여성학소모임 할 때도 자주 얘기했다. 흥미용샘 가까이 있을 때 함께 나누었고, 좋았다. 공감해준 사람 이사가서 허전하다. 공동육아 엄마들하고도 자주 얘기나누었다. B : 주로 친한 친구와 수다떨면서 해소한다. 민우회를 통해 고민을 나누는 것 : 개인의 고민을 해소하는 것이 단체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역할일 수는 있다.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모임이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성단체이면서 여성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오라는 것은 결국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의 친목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 치유 프로그램과 도구가 필요함. C : 남편과 얘기하면서 얘기. 아직 민우회에서는 고민을 얘기한 적 없음.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A : 친정이 여기, 우이동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큰아이 돌전에 아이부탁하면서, 1996년 그때부터 재정착. 지역소식은 민우회, 동네학부모, 공동육아했던 지인들 지역에 공적인 공간-여성들이 차 마시면서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북카페이자 놀이터, 상설아나바다장터 같은 참여하고 즐기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가 주차장화 되고 있다. 안타깝다.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도 필요 B :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성당에 다니는 것 외엔 지역 활동을 하는 것도 없음. C : 없음
	해결방법	A : 꿈꾸면 되지 않을까? 방학3동 주민센터1층 놀리고 있는데, 이 공간 이용할 수 있을까(녹음에서는 빼주세요) 현재는 민우회가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민우회랑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데 민우회? 지역의 이슈가 될만한 일에 목소리를 냈었다. 직접 활동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B : 타지역 거주자라 질문안함 C : 없음
민우회에 바라는 점		A : 아쉬운점-복지위원회활동하면서, 도서관 만들 때 민우회가 너무 깃발에 연연한다 생각있었다. 그냥 크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현재, 큰틀에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민우회칭찬-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다. 다양한 색깔들의 사람들 수용,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 바람- 40대 여성회원이 많다 학부모 이외로서의 역할에 대해 일깨워주는 모임들이 많았으면.... 학운위모임 같은 거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 집중할 사업-예산의 성인지예산분석, 도봉구예산전체를 고민하는 단위가 있나? 과천은 3개정당의 의원이 한명의 보좌관을 두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단위가 있다.<지역의 예산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스키마 책모임은 독후활동의 특징이 자기의 감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책 내

	용을 그대로 기술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현재 도서관활동의 계기. 여성학소모임 하다 지역자치위원회활동이 힘들고 안맞는다는 생각. 의회 방청 등 힘들고 재미없었다. 그러다 복지위원회 활동은 재밌게 했다. 지역복지, 여성과 아동문제에 대해 고민, 도서관 학교라는 강좌듣고 매력적으로 느꼈다. B : 민우회에 바라는 점-여성들만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본부 소식지(함여) 건의사항-지부 페이지를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 지부별 행사나 특이 사항 등을 타 지부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C : 시간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음. 상황을 들으면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힘이 빠짐.
--	---

2. 회원유형 : 40대 취업 비혼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
민우회 활동	기대	D : 가입동기 : 여성단체라서.. 민우회 이름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조합원이라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힘들 때.. 여성의 전화 교육받으며 혼란스러울 때 민우회에 와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다. E : 상근이에게 민우회 취업을 권유하고 따라서 2월에 가입. 민우회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잘 몰랐다. 간접적으로 보면 내용 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강남에 사회를 위해 뭐 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민우회더라. 거부감. 생색내는 거 싫어하고, 진정성이 없는. 이거까지 하면 좀 나아보이는 거 아니겠어 그런...그런데 회원 가입하고 여기를 보니깐 지역 내 터를 잡은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는 거,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밀착형으로 가는 거 같다. 여성들의 불만에 접근하려고 애쓰는 게 좋아 보인다. 교육기획팀에 들어갔다.
	달라진 점	D : 오야모임에서 여성학 책을 계속 보면서 같이 얘기하며 시각을 많이 바꿨다. 여자의 눈으로 보는 거..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변화를 조금씩 불러일으키고 재해석하고.. 그런 과정을 만든 거 같다. 그런 시각이 나에게 필요하고 와닿았던 거 같다. E :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라고 보는 한계. 초기 한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 같다. 여유를 잃고 각박해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보니 여유를 잃어버린...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억압 당사자인 남자들도 가부장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피해의식처럼 전개되는 것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기대치-직장 생활 짧게 하고 주부 생활 해오며 여성들이 당하는 억압, 차별을 보게 된 케이스다. 생활이 달라지고. 전업주부를 깨고 독립하고,, (이혼 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됨. 여성이나 남성이 똑같이 나섰을 때 남성이 우선시 되는... 대출을 받으려해도 남편이 왜 보증을 안서나 이런 질문을 받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나에게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자각이 되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하며 자유를 선언하고 나니 친정아버지에게 알릴 수 없어 한참 동안 비밀로 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됨. 아버지에게 큰 기대 사랑을 받으며 자람.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 이혼을 당한 것으로 보고. 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오히려 지지해 줌. 결혼을 유지하고, 깰 수 있었던 힘

		이 되었다. 엄마가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형성된 사상은 정말 생활 곳곳에서 있다. 민우회가 도움?-구체적인 도움을 못 받았다. 민우회가 진보적인 여성단체이지만 여성 개인사에 대해 어떤 보수성이 있다. 살아갈 방법/선택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함. 구체적인 안이나 실전은 없는 거 같다. 개인사로 치부하는 거 같다. 여성들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거 같다. 자기가 먼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공공연하게 민우회에서 현실적으로 자기 삶에 가장이 되는 여성들에게 대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본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D : 활동 만족/참여 : 오야 모임 인원이 적지만..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우리가 계획해서 성평등, 성교육, 폭력에 대한 활동을 했으면 한다. 우리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 민우회에 관심있는 모임/기억에 남는 활동 : 다른 건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일일호프, 장터 참 잘한다. 엄마들.. 모임 이런 거 조직 참 잘하는 거 같다. 민우회가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 : 비중이 크진 않고, 동네에서 할 수 있으니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걸 동네에서 해보고 싶다. E : 인상적인 활동-민우여성학교. 열띤결에 꽤널로 하게 된 것. 당혹스럽지만 인상적인 경험. 모성, 부모 역할에 대해 내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고민과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와 닿은 것이 있고 생각이 바뀐 것도 있다. 우리가 허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혼란스러웠는데 그 시간이 그것을 짚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시도. 참여함으로써 얻은 것. -장점이자 단점인데 편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 그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 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액티브하게 하는 것도 없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지역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거.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D :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 진로문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갈 건지.. 해결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 이런 활동이 중요하니깐 어떻게든 연결되는 일을 하고 싶다. 상담하는 일이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제일 신나는 일 :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보며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그럴 때 신난다. 공부할 때. 하고 싶은 일/ 같이 하고 싶은 일 :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임, 활동을 하고 싶다. 지금 외부에서 받고 있는 교육에서 유대감이 다른 것 같다. E : 겉으로 보기엔 바느질에 꽂힌 거지만 내가 생각한 것이 결과물로 나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창작에 대한 욕망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어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 나의 취향, 관심을 녹여 뭔가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내가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공동작업 만족도? 공동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 위커즈, 프리마켓 여성들끼리하는 연대같은 의미도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시간과 의미

		가 필요한 거. 열심히 하면 생계를 완전히 책임지진 못하지만 내가 노동의 수단이 되지 않고... 그렇게 전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깐. 내가 선택해서 조금씩 늘려가며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근거지 버리고 시골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저한테는 희망적인 시도. 워커즈 공동체...할 만한 시도.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으로 남으니깐.
	사회활동 욕구	D :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루 6시간 일하는 거. 주방 보조. 경제활동과 하고 싶은 일이 달라서..오전엔 하고 싶은 일하고, 오후엔 돈 버는 일을 단순 노동을 그래서 한다.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아 단순한 일을 해야 한다. 어려운 일-저녁에 엄마한테 떠맡기고 있는 일. 육아 때문에...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면 애아빠한테 또 확 난다. 얼마 전엔 씻기도 채우는 거 다 해보라고 했다. 강제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한다. 아이를 거저 키우는 줄 안다. 몸을 움직이고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예의가 없고 싸가지 없는...내가 알바생이라 말을 안 건다. 나한테 말을 안 건다. 이런 게 비정규직 위치 차별인가 싶다. 잘 지냈는지..이런 말이 일체 없다. 알바라는 게 그런 느낌이 든다. 언제든 그만 둘 수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회식을 해도 정규직끼리는 할 말들이 많고. 비중이 아무래도 다르니깐.하여튼 남자들의 작태들이 짜증이 난다. 하고 싶은 일-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방과 후 활동.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공부, 단체 활동을 못하니깐... E : 원래 관심사는 3년 동안 올 초까지 철학공부를 해 옴. 인간이 자기를 지배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내재적인 욕망, 외부적인 욕망의 정체를 알고 싶어 철학 공부를 하게 됨. 그 욕망이 진짜 나의 욕망인지 외부의 욕망인지 알기 위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지만 지금은 못하는. 평생 공부를 하고 싶은. 인문학 공부를 하는 바느질 공방을 만들고 싶다. 단지 돈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필요. 아메리칸 쉼트..같은 희망을 갖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본주의 일개 노동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산업,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을 보며 회의가 온다. 공동 노동, 공동 생산...지역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다면 100% 만족할 수 있다. 돌아보면 지금의 내 삶이 가장 만족스럽다. 이전엔 이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 남자가 여자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책날다'에 참여하며 얻는 것이 많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언행들에게 대해 반성도 하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것에 '책날다' 참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활동 경험	D : 답변없음 E : 졸업하고 바로 신문사에 취직했다. 취재부 기자로. 유일한 여기자였다. 4년 정도 했다. 화장품회사 출입하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 회사 말단 직원이 나를 보고 뒷조사를 하고 작업이 들어와 6개월 연애하고 결혼. 기자 생활 4년 정도하다보니 한계도 있고 지친 부분이 있었다. 그 시점에서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됨. 임신 5개월 되어 그만둬.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아이를 충실하게 완벽하게 봐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시부모, 시누

		이와 함께 살게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 3중고에 시달리게 되어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성인으로 주부, 엄마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가정과 병행하기 힘들었다.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D : 너무 많다. 모든 삶이 다 억울한데..여자로서 살아온 것이. 몇 년 동안 분노와 우울을 계속 왔다갔다...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도 있고, 애 아빠나, 아버지...여자로서 살아온 것에 대한 억울함, 분함, 서글픔...지금은 좀 편해졌다. 분노는 참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억울함을 충분히 느끼고 혼자 울던 화내며 빠져나갔고.. 여유있는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에서는 엄마랑 계속 싸운다. 지금도. 아빠한테 차별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엄마는 지금도 밥 차리고, 치우고,..이런 살림하는 걸 여자의 최고라고 본다. 나머지 인생에 대해 후회없이 살아야 하는데.. 경제적인 게 제일 크다. 자녀 문제는 힘들었던 시간이 많았고,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라고 생각. 좋은 모델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E : 그래도 여자라서 행복하다. 충분히 여자여도 잘 살 수 있을 거 같다.
	고민 해소 통로	D : 친구나 동생이나.. 모임에서나...아무래도 여전에 더 여러번 가고.. 민우회 모임에서도 얘기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있다. 숨어있던 감정들이 말과 함께 나오니깐. 그런 걸 나누는 친구가 있다. 상황이 비슷한... 이혼을 고민한다던지... 고민이 비슷해야 공감대가 생기는 거 같다. 든든하다. E : 개인적인 고민은 개인적인 친분있는 사람, 가족과 나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을 못 가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D : 아이 학교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됨. 재미난 학교로 보내려고. 이 지역이 제일 싸고.. 전세값도, 학비도... 그래서 애아빠가 반대했는데 이사온 거. 학교 보내는 거가 너무 싫어서... 두고두고 그거 때문에 갈등. -상담활동을 하고 싶다. 주부로 살든, 여자로 살든 직장맘으로 살든... 상담이란 게 대화로 주고 받는 것. 그런 활동과 성교육, 여러 가지 성평등에 대한 활동 하고 싶다. E : 여기가 고향. 태어난 건 마포지만 여기서 어릴 때부터 살았다. 지역 소식 접하는 통로는 민우회 와서 많이 듣는다. 민우회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한다. 다른 데 보다 민우회가 충분한 역할을 한다. 꿈꾸는 지역-도봉구가 시골에 귀농해 사는 도시형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민우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형성한 인맥을 동원하면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같이 꿈을 이룰 사람-모든 사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인 맺어졌다 헤어지는 것이라 현재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해결방법	D : 답변없음 E : 민우회역할-도시형 생활 공동체의 마을 이장 역할. 완벽하다고 보진 않지만 상하좌우의 점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도시형 모델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 도시 모델을 한국,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 민우회가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 부족한 거 같다. 한계일 수도 있고. 폐쇄적이라고 볼 수 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민우회에 바라는 점	D :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고, 돌싱 엄마들 모임, 폭력피해자 자조모임...그런데 민우회 회원들은 여유있고..있어 보이는..그래서 내가 벽을 치는 게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나도 민우회에 대한 정을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위축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E : 쏠리는 현상이 있다. 다양한 계층의 회원을 감싸안지 못하는 것이 있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비혼 모임... 참여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끌어가는 동력이 부족한 거 같다. 생각도 있고, 의식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부족.
---------------	--

3. 회원유형 : 50대 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
민우회 활동	기대	F : 동생의 권유로 후원만 하는 회원으로 가입했음. 직장을 다니는 중이라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크게 기대한 점은 없었음. G : 초안산 지키기 운동을 하다 민우회가 나를 찾아와 줌. 지역에 민우회가 있는 것도 몰랐었음. 민우회는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었으나 낮가림과 조직활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함. 기존의 분위기에 동화되기 어렵고 겹이 느껴졌음
	달라진 점	F :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개인의 가치관 등이 정리가 되는 부분은 있었음 G : 여성주의 운동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 여성주의 운동은 모든 운동이 삶 그 자체에 녹아듦. 민우회가 선택한 운동은 무조건 신뢰함.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도 확고해짐. 그러나, 민우회가 빈민 여성이나 소외 여성에 대한 운동이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움. 동북민우회가 교육, 예산, 의정 감시 등 지역 운동에 활동해 왔는데 그것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참여정도 및 만족도	F : 소모임은 가끔 참여하고 강좌는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음. 소모임(오키리나, 플룻, 바느질..), 문화팀, 강의 참관 등 활동 만족도-크게 불만은 없으나 회원 확대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가장 인상적인 활동-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작은음악회, 생태 체험 등. 활동 소식은 소식지, 사무국 방문해서 알게 됨. G : 소모임은 가끔 참여하고 강좌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음. 활동 만족도-만족스럽지 못함. 가장 인상적인 활동-사업보다는 사람이 남는 것에 가슴이 뗌다. 사람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 활동을 끌어내는 원동력. 무슨 사업이나 보다는 단체가 깊이 고민하고 진심으로 하는 사업에 마음이 움직여짐. 소모임에 대한 관심-일단 꽃히면 열심히 하는 편이다. 도봉구는 빈민, 소외, 환경 등이 시급한 과제인데 민우회가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활동 소식은 소식지, 사무국 방문해서, 회원들에게 듣고 알게 됨. 사무국에 자주 들러도 기획팀 사업 등은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움.
	개인의 삶 이해	F : 환경에 관한 것(숲을 좋아해서), 국악(한국 음악) 가장 신나는 일 : 숲 산책,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필요성을 느끼나 혼자라서 못하는 일-육아에 관련된 정책 마련(마을 탁아방,

		직장 탁아방 등) G : 생협 프리마켓 바느질 사업에 꽂혀 있음. 지금은 책임감이 강하나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음. 프리마켓이 생협에 도움이 되는가도 큰 고민. 생협운동에 대한 애정이 무척 많다. 스스로의 기대치를 검열하는 단계임. 일단,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신이 난다. 마음이 쓰이는 일-사람과의 오해. 남의 입장 되어보기를 노력중. 왜 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하며 일회일비 하지 않도록 애씀. 사람이 좋아서 나왔다가 사람이 싫어서 나가지 말자고 마음먹음. 필요성을 느끼나 혼자라서 못하는 일-인도에 나무를 심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고 우리 구에서 만큼은 보이콧하고 싶었음. 북한산 고급 빌라 건설 반대 운동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모니터단이 있었으면 함. 좋은 공연 유치 등도 혼자선 못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활동 욕구	F : 없음 G : 현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획득하여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 직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싶으나 스스로 존재감을 못 느끼고 민우회 활동과 연계되지 않아 괴리감 느낌. 일하는 즐거움도 미흡해 전업을 생각하고 있음.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음.
	과거의 활동 경험	F : 고교 교사였으나 현재는 퇴직 후 아무 일도 안함. 연금 수령 중. 컴퓨터 사용 등 새로운 교육방법이 계속 도입되면서 변화에 그만둠. 직장생활에서 육아 부분이 가장 어려웠음. 육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함. G : 10년간 일반회사를 다니다 호봉제에 대한 불합리함에 맞서다 그만두고 나옴. 그 후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람을 별로 못 느끼고, 3년간 문화재 관련 일을 하고 있음.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F :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차별이 별로 없어 불편함 못 느꼈음. 단,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는 있다고 느낌. G : 성차별 없는 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 직장에서 동기들과 호봉이 차이 나고 여자가 반드시 커피를 타는 것, “여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흡연문화 등에서 차별을 느낌. 문화재 분야는 여자들을 전문가로 키워주지 않는 분야임. 개인적으로는 여자인 것이 깊이 있고 너무 좋음. 경제력 등에 의해 접어두는 꿈-욕심내지 않고 능력껏 살자는 주의라서 경제력에 좌우되지는 않음. 그러나 노후, 건강 등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길 바람. 미래에 대한 두려움-정보화 사회에서 혼자 뒤처진다는 느낌. 정보에 어두워지는 것. 복지가 미흡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노후생활. 건강 대책 및 주거 대책 등.
	고민 해소 통로	F : 혼자서 해결함 G : 혼자서 시간을 갖고 해결함. 고민이 생기면 제목을 메모해 두고 수시로 들여다 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자연히 없어짐. 타인과는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인데다가 얘기를 하면 정리는 되나 해소는 안됨. 민우회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민은 해소 안되지만 외부적인 요인은 민우회와의 연대로 해소됨.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F : 자연을 좋아해서 시골같은 분위기의 지역을 찾다가 오게 됨 1988년부터 23년간 살고 있음. 지역에 대한 관심 많음. 주로 도봉뉴스나 민우회를 통해 지역 소식을 접함. G : '98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100% 초안산이 좋아서 살고 있음. 지역 소식은 사람을 접하면서 알게 되거나 지면을 통해 알게 됨. 도봉구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음.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쓸 데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해결방법	F : 민우회 외에 궁궐 길라잡이, 정가, 생명의 전화, 숲 해설, 동창회 등 활동함. 지역의 변화에 민우회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민우회에 기대하는 동반자로서의 조건은 보통 여자들이 즐겁게 함께하는 곳, 누구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대중적이어야 함. 문턱을 낮춰야 함. G : 민우회가 좀 더 파워풀해져서 우리가 먼저 지역을 바꿔나가길 바란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F :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본부도 덩달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 : 민우회에 기대하는 동반자로서의 조건-가치관이 비슷하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 형식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닌 정말 필요한 운동을 찾아내는 것을 기대함. 후원만 하는 회원들을 활동가로 끌어내는 힘이 약함. 회원과 긴밀해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 대중성에 더 신경을 써서 폭 넓게 끌어안았음 좋겠다.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강좌가 좀 더 고급스러워졌으면 함.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곳에도 신경썼으면 함

4. 회원유형 : 기타 (30대 취업 비혼여성, 40대 취업 기혼남성)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민우회 활동	기대	H : 5년 전 홍성희(전 실무자)때, 소모임(게으른 산행) 이라기에 하는 거 좋아 보여 가입. 여성단체 지지한다. I : 후원의밤 행사 참여계기로 회원가입. 기대라기보다는 활동자체에 관심 많았다. 학생운동하면서부터 여성운동, 여성문제 해결이 부문운동으로 큰 역할을 할텐데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고민, 민우회운동도 그 연장선이다. 계급적 억압과 성적인 억압을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게 사회모순, 진보적 사회되려면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달라진 점	H : 여성단체 얘기 듣는 거, 인권에 대해(삶) 생각하게 됨 I : 도봉구지역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관계맺기 시작했다. 생활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아내도 자연스레 참여, 지역과 어울리게 됨. 내가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 민주노동당원으로서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 부정적 요소 있으면 토론도 하고, 잘못된 것 반성도 하고 대중적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민우회 지역의 영향력 생각, 고려 주변반응은 동북여성민우회원? 의아해했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H : 강좌 듣기, 아티스트웨이, 청소년 상담활동 계획 중 인상적인 것은 최근 강좌(전에는 직장생활 때문에 못 들음), 여성학, 여성주의 개념 없었는데 도움이 되었음. 소모임 활동이 맑고 밝게 활동 하는 거 같다. I : 인상적활동-끊임없이 정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안에서 정치적, 변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꾸준히 애쓰고 노력, 그 전에는 솔직히 그전에는 전혀 안한다고 들었다. 동북의 예전, 지금 비교하

		긴...모르지만 편견, 선입견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H : 심리 상담학 공부하고 싶다. 내 마음 보고 싶고, 타인의 반응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I : 가정에서는 딸(아내도 포함 ㅎㅎ), 조기축구에서 공차는 거, 가장 큰 것은 내년 총선준비를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에서 실무 맡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입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사회활동 욕구	H : 있다. 생활비 스스로 벌고 싶다. 직장 작년 그만 뒤 다시 힘들다.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 소외, 답답했다. 자영업 생각중이다. I : 오세훈나쁜투표거부운동전개, 지역 정당, 단체와 함께....민우회 소모임 오카리나 이끔이.한번도 음악을 배워 본적이 없는데, 처음 음악 접한 게 교회, 시골에서는 그게 유일, 오카리나 소모임이 유년시절 교회 마루에 앉아서 음악을 배우는 그런 꿈틀거림, 인간의 본성이 묻혀있는 뭔가를 살려내는~ 경제활동으로는 홍삼판매, 비정규직으로 법무법인 장평 사무장일로 최저임금 정도의 생활 100만원정도, 어린이집은 100%보조, 아이 키우는데는 돈 안들고, 기본생활 유지,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아내 도망갈까봐. 불편하긴 하다. 아내 대학 때부터 같이 활동하던 후배, 생활에 불만 별로 없다. 경제적인 것 갈등 거의 없는데, 가장으로서 고민은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부모, 형제들은 한심하다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다. 부인하고는 3년째 거의 싸운적 없다. 내가 선배고 아주 오래된 관계라 폭발적인 순간엔 한숨 돌린다. 아내가 고맙고, 훌륭하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주변을 보면,,,마주 앉아 얘기 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내가 오히려 재물을 부리는 편, 막내라. 아내는 과묵한 편.
	과거의 활동 경험	H : 나이, 대리급 남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남자만 키워주고 싶은 회사였다. 후회한 적 없다. 진작에 그만둘걸 그랬다. I : 도봉지역 외서는 민주노동당활동, 지역 오기 전에는 2년 정도 통일운동 단체에서 일함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H : 직장에서였다. 상담 받고 싶다. 미래의 불안은? 노후 경제생활이다. 지금 비혼이라.. 남자 가장은 임금 더 주는 거 (비혼보다, 여자보다) 문제 있다. I : 질문안함
	고민 해소 통로	H : 주위 결혼 안한 친구들(시댁, 아이문제 관심 없다), 기혼 여성들 답답하다. 민우회의 도움 받은 적 있는지-비혼 모임 통해서(안도감) I : 현재는 이명승위원장이랑 가장 많이 함. 아내랑 안하는 얘기까지도. 그리고는 아내. 비슷한 처지의 민노당 이명승과는 아내와 못하는 얘기 나누기도 한다. 민우회에는 생활적 얘기, 고민까지 털어놓는 밀접한 관계는 없다. 워낙 잘 안한다. 너는 왜 고민이 없냐? 질문 받을 정도. 어려움을 얘기해서 푸는 경우 거의 없다.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성장과정에서도..
지역 삶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H : 도봉구에 20년 정도 거주. 지역 소식은 도봉 N(지역신문)을 통해서 접함. 다른 모임은 없다. 얼굴만 알고 지내는 관계 좋다. 적당한 친밀감.. I : 연애편 북아현동 거주, 재개발. 결혼하면서 전세를 면목동, 도봉, 미아 알아보다가 기준 1.방값최저 2.아는 사람 많은 곳..그래서 도봉구로 결정, 정말 오길 잘 했다. 살기 좋은 곳이다. 지역 소식은 주로 민주노동당사람들, 민우회모임, 마을신문 도봉N, 조기축구, 배드민턴 모임에서 접함.
	해결방법	H : 지역 환경 문제면 같이 할 수 있겠다. 환경 쪽으로 살림 할 수 있는 방

		법 알려주면 좋겠다(환경+ 살림) I : 변화를 꿈꾸는 사람-진보정당, 진보적인 대중단체 두날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두축, 진보적인 대중단체 주요한 단체가 민우회라 생각한다. 특히 지역운동에서 한쪽 날개의 골간을 이루는 단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H : 강좌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문점이나 질문할 수 있게 한다. 칭찬 거리는 활발한 거. 문턱 높지 않은 거. 솔직해 깜짝 놀란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 여자이기 때문에 더 발 디딜 수 있게 해 달라. 사회변화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민우회 이름도 부담이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소모임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여성강좌 없어 아쉽다. 신입모임 해 달라. 아니면 권장도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환경문제 제시해 달라. I : 아쉬운 점-아직까지는 감동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 재생산이 안되고 있는 고리를 풀어야..... 칭찬-이미 말한 모든 부분들, 후원행사조직하는 거 보면서 대단히 통크면서도 치밀하게 준비하더라, 사업들이 포부있으면서도 세심하게 준비 하는 게 놀랍다. 대중사업의 정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집중해야할 사업-질문을 받으면서 고민해보면, 20-30대 여성들이 민우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민우회 스스로 40대 중심축을 두고있음. 더 확대시키는 게 돌파구- 96년 연대 옥상, 한총련 조직사건 경험이 내 인생의 전환, 운동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다짐함.

원주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김정민, 김용희, 정유선
분석토의 참가	김정민, 김용희, 정유선, 김상훈, 김순자, 최정애, 심재희, 이연이

인터뷰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서연○	30대	육아휴직	5년	소모임	회비납부	결혼	있음	
김계○	40대	자영업	2년	권유	회비납부	결혼	없음	
최정○	40대	영업직	9년	권유	운영위원	결혼	있음	
주명○	40대	주부	8년	소모임	소모임	결혼	있음	
정미○	50대	사무직	5년	권유	회비납부	결혼	있음	
최효○	50대	사무직	6년	권유	회계감사	결혼	있음	

회원유형 :

30대 기혼·육아휴직중(서연○)

40대 기혼·취업(김계○, 최정○)미취업(주명○)

50대 기혼·취업(정미○, 최효○)

질문내용		응답내용 (회원인터뷰 담당자가 채우는 칸)	활동방향 및 정책 시사점 (지부에서 논의하며 채우는 칸)
민우회 활동	기대	김계○ : 기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운동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바꾸고 싶고 잘못된 것을 바꾸자 라는 취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원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최정○ :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모임이다라고 딱 규정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일을 했으면 합니다. 서연○ : 그때는 여성관련 단체는 YWCA밖에 없었거든요. 독보적이어서 누군가가 어느단체 하나가 발을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생각했어요. 그때 기자생활 할때 여서 여성문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여성인권에 대해서 조금.. 여성이 우대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도 자기권리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그런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자발적 보다는 소모임이나 회원 모임으로 이루어짐. 기대를 안하고 오는 분이 더 많음-민우회 정체성 자발적으로 오신분들은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심 기대 부분에 대해 두 분류로 나눠짐(사회 참여는 부담스럽다/ 사회참여해야한다 - 여권신장) 민우회가 이런건 해주었으면 좋겠다란 막연한 기대여도 민우회의 역할과 중요성 부여 대학생들은 회원가입이 안되며 더 보수적 - 20대 회원들을 늘리는게 중요한가? 아님 집중 참

	특히 주부들. 정미○ : 회지를 보면서 느낌이...사회참여형...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받은 느낌은 회지를 꼼꼼히 안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회원간의 친목? 단합?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저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어떤 방향을 설정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기존에 알고있었던 민우회,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참여하는 목소리를 원해. 최효○ : 그런건 전혀 없었어요. 춘천에서 있을 때 춘천지부 지회장이 색깔이 뚜렷하다고 해야되나?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장생활다시 시작하는데 그런사람들이 신선해보이더라고. 민우회는 다 그런가보다..나도 한번 그래볼까... 주명○ : 기대는 뭘 알고 들어갔어야지 기대를 하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갔었지.	여할 수 있는 회원이 중요한가를 고민 여성학 -20대 회원들(주말이나 오후) 모임 예정 원주는 특성상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 주로 대상임 20대 여성들의 성교육 ■피임 -20대 여성들을 위한 4강정도 프로그램 모임 예정 성교육-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성교육 -> 후속모임(또래모임, 부모모임) 가사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비정규직은 남의 이야기임.
달라진 점	김계○ : 나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단체들이 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을 그 전에는 눈여겨 안보다가 외부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구나 보게 됐죠. 최정○ : 민우회를 통해서 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소모임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내 자신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성장이 된 것 같아요. 민우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좀 다른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연○ : 민우회 회원, 대표님을 만나면서 일단 저보다 연령대가 다 윗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여자의 삶인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민우회 알고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미○ : 개인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주명○ :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이 조금....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되는지...그런거 조금 알게된거? 민우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한거야. 말도 다 잘하고.. 근데 내가 뭘 알아? 그래서 처음엔 좀 세보이더라고. 좀 정치적?으로 보이고 뭐 지금도 그렇다고 내가 의썬의썬 할 정도로 뭐 그런건 아	직접적으로 민우회 사회■정책 참여는 안해도 개인 삶에 변화를 줌 전업주부로서 사회적(큰)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줌

		니지만 암튼... 여성에 대해서도 차별받고 있다..이런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자꾸 그런게 보이는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자꾸 불만도 생기고...의식이 변했다? 뭐 이런게 달라진 점이.	
	참여정도 및 만족도	김계○ :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게 영어였고 또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할 수가 없었죠. 최정○ : 민우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요, 민우회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연○ : 여성학모임 했을 때가 가장...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고민을 가장 깊게했던 때가 그때, 책도 읽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성학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아, 여자라서 행복하다,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정미○ :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 건 있는데요. 제도화된 여성정책이 있어도 문화는, 사람들의 머릿속은 안 바뀌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나 차별은 여전...) 그러니까 법이나 현실의, 삶 속에서 괴리나... 그런 부분을 민우회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명○ : 음옴 소모임에 관심있어 들어왔다가 사람이 좋아서 계속 나오다가 보니까 운영위도 하게 되고 소모임 열심히 나오다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게 찾아진 거지. 민우회에서 그렇게 바뀐거. 내가 하고 싶은 춤을 만나게 된거.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김계○ : 사실상 어느 한 곳에 꽂혀있었다기보다 지금은 내가 카페를 하니가 카페에 꽂혀있죠. 서연○ :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육아인 것 같고. 복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정○ :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난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긴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고. 가장 문제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자기 얼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내 자신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회원들의 관심사는 각기 다르다. 개인의 일에 대해서 각자 관심 민우회 참여도는 낮다 (나는 못하지만 민우회가 알아서 열심히 하길 바란다) 주부대상 - 자녀교육 및 육아문제 아이들과의 소통, 가족관의 소통 취업

		살아야 할지. 제가 마흔 넷인데, 마흔 넷이라는 나이는 다 산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미○ : 의료생협에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하기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의료생협에 참여를 유도하는 거. 나 그거에 쫓혀있어요. 뭐 없나? 어떻게 해야되나? 요즘은 업무와 관련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합원의 참여를 만들어낼까? 욕구를 만들어 봤으면 어떻게 나오게 하나..그런거 어디가서 물어봐야하나... 최효○ :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장기요양기관 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험난해서..대상자가 아픈 사람 수발하는 건데 목적이 이게 아닌데...이렇게 돌아가는데..이것보다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사는 방법.. 또 요즘은 치매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명○ : 춤이지. 전통무용? 내가 뭐 이나이에 전문가로 배워서 뭘 하자는건 아니고 그냥 좋아. 그래서 원주에서 어디서 배워야 되나 찾아보니까 정말 잘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런거 배워서 노인분들 계신데 가서 봉사도 하고.	여성들의 관심사를 포커스 사업은 어떤것인가? 여성민우회의 정체성을 담아낼것인가? 여성들은 자기에게 중심을 못잡는듯(남편과 자녀에게 집중됨)
	사회활동 욕구	서연○ : 시사잡지와 신문을 꼭 보려고 해요. 일터로 돌아갔을 때,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그 일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으니까 .사회돌아가는 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야 겠다..	
	과거의 활동 경험	김계○ : 20대 때 그림을 시작 최정○ : 자영업이나 오너 역할의 일 서여○ : 원주투데이 정미○ : 의료생협협동조합 최효○ : 은행원, 춘천여성유권자연맹 총무, 사회복지 관련업 주명○ : 우체국 근무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김계○ : 여자이기 때문에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부딪쳐서 깨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남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 있다면 저는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남자라는 종족은 부딪쳐선 안되는구나 하게 됐죠. 부딪쳐보니까 배로 와요. 상대와 대화를 하려고 하니 내가 대화가 안되요. 내가 이론으로 알	남녀평등이 되었다고 생각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왔고 생각 여러부분에서 불평등을 못느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

	고 있던 거랑 실제랑은 차이가 많고 일단 내가 대화가 안돼요. 열이 받아서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구나. 혼자 있을 때는 누가 나를 건드리진 않잖아요. 결혼을 해보니까 뚜껑 열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생이구나. 내가 몰랐던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최정○ :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돈 벌기가 어려워요. 여자들이 서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때, 저랑 큰 언니랑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했는데 괜히 신랑눈치가, 시댁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시어른도 뭐라한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 스스로가 내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부모 내엄마 떳떳하게 용돈 드리고 만나고 했을텐데..그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미○ : 남녀차별은 아니지만 이런 차별은 있어.그런데 우리사회는 선입견. 간호사는 의사의 시다바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시다바리..바깥에서 통용되는 통념이 왜 여기서도 통용되는 거냐는 말이야. 원칙이 없고 잣대가 없다고 봐. 최효○ : 10년전엔 어려웠지만 요즘은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라서 대접못받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최효○ :은행 다닐 때 연수받으면서 계약서 썼어요. 결혼하면 그만둔다. 여직원은 5급 직원이 못됐어요.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남직원은 그냥 올라갔었어요. 내가 6년이건 7년이건 근무해도 남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개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월급의 차이가 팽창히 났었어요. 그래서 여직원은 아무리 오래해도 주임이 안 되었어요. 내가 나올 때 쯤 결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2%도 안됐어요. 그만두고 나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때도 내가 나온 다음에 결혼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직원도 같이 시험보고... 주명○ : 남편하고. 내가 배우는 게 춤이고 그렇잖아. 근데 남편은 풍물이고 춤이고 정말 옛날 생각. 각설이들이 하는거, 뭐 그런걸로 생각해. 옷도 그지같은거. 우리옷들이 치렁치렁하고. 연극하니까 그렇잖아..그런거 입고 하	각함.
--	--	------------

		니까 그지깽깽이들이 하는거 한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만 전통무용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지깽깽이들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니까..공연연습한다고 늦고 주말에도 나가고 하니까 너무 맘에 안드는 거지. 계속 하지말라고 하고 .. 그런데 내가 남자였으면 부인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모두 잘 지내고 평화롭지만 거꾸로 내가 남자였으면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	
	고민 해소 통로	최정○ :민우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서연○ : 큰언니가 저보다 20살이나 많으니까 이미 다 거쳐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얘기하면 명쾌했어요.언니지만 내가 계속 얘기하면 얘기하면 언니들이 속상해하고 그런게 보여서 얘기를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정미○ : 이은숙회원 최효○ : 스트레스 받으면 자요.그런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그러다보면 시간이 해결해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다가 자고 이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이 나고 그러기도 하니까.	민우회의 고민(회원들의 고민의 해결을 잘 못찾음. 민우회와 생활과의 연결고리가 없음)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최정○ : 공원도 많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서연○ : 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자들이 재취업교육 기관이 별로 없어서 여자들이 애를 키우고 나와서 교육 받을 곳도, 취업할 곳도 없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원주는 보육시설이 잘 안되어있어서 엄마들이 보육에 매여있으니까 저녁때 회식을 빠져도 한두번이고, 저녁에 회의를 해도 애를 맡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일하기 편한사회, 그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미○ : 나는 성미산마을을 보면서 롤모델이라고할까? 공동체마을, 봉산동이라는 마을을 물질문명 그런거 말고 자연에 가까운 마을을 만들고 싶은게 내 꿈인데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최효○ : 일과 관계되어서... 원주가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폐쇄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명○ : 별로 없는데?내가 참 그래. 지역에 살면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사니까 잘 모르겠어.	
	해결방법	최정○ : 우리 도시 바로 알기 같은거요. 그런걸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해 보면 알 수도 있겠네요. 정미○ : 핵심 열성조직원에게 미션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한사람을 키워라...1년에 두사람 정도 못하겠냐..그렇게 해서..하는 거야.	
민우회에 바라는 점		김계○ : 너무 약자 앞에서만 대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정말 쓸 수 있는 사람, 후원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조화롭게 해야 민우회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투쟁적인 것은 상처를 많이 입을 수도 있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투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몇 가지 다양하게 본다고 하면, 다 여성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 또 여성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써의 면을 보고. 우리가 남자의 피해자가 아닌, 남성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화합할 수 있는 존재로써 어떤 역할이 있는지도 발견해 보고 최정○ : 민우회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원주여성민우회 뿐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어떤지 제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주여성민우회가 여성의 그런 문제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솔직히 여성권리신장인가 그런 쪽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더 불리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너무 여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진짜 민우회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남성평등 여성평등 그런 건 이제 진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안그래도 여성의 파워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집을 봐서도 저는 좀 그래요.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의 입김보다는 제	앞에서와는 달리 민우회의 바라는 점은 달라짐 - (우리생활과 근접하게 접근을 못해서 인듯) 예로 4대강의 중요성을 알지만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내 삶과 생활과의 연결의 고리를 못찾음. 민우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비판받지 않고 민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 발견, 사회 첫발의 계기 넓은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수 있는 민우회가 되자. (자기개발로 영어강사나 선생님이로 되신분도 있음) 민우회는 사회비판 의식이 강하고 분위기가 경직되고 이런 밖의 이미지가 강함.-> 민우회 홍보필요 소모임에서 거치지 말고 민우회의 깊이 있게 바로알기 소모임 - 너무 여성주의로 치우침, 많은 분을 포용하며, 소모임 외에 정치적·사회적 사안도 접근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장을 만들어줌. (일상적이지 않는 (정치) 이야기외에는 거부감을 보이심) 민우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한

	입김이 더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회,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눈길을 좀 많이 돌려서 진짜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전개한다면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우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회원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지금은 이제 여성 위주인데 남성분들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서연○ : 민우회가 지역사회에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물이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난 물이 되고, 그냥 물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성이 가서 그 그릇이 되면 민우회가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뽀족한 여자가 가면 뽀족한 물이 되어서...다시 그걸 담아주고. 어딜가도 다 거기에 어울리는... 정미○ : 민우회의 사회참여... 목소리를 내는, 그러면 우리조직이 감당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 건드리면서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올 해는 예를 들어서 4대강이다 하면 그것만 쭉~ 최효○ : 크게 보자면 회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연령별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청년, 장년 등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60대 회원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60대들은 갈데가 없어요. 55세 이상부터 65세 이하까지는 갈데가 없어요. 주명○ : 특별히 뭐 바라는게 있나. 내가 열심히 안 나가면서. 그래도 무슨 일 있을 땐 연락오면 도와줄려고는 하는데..	다(소모임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모임에 전달) 기존회원들도 연락을 취해서 민우회의 하는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내 삶과 연결되고 고민과 직결된다면 -대상층의 욕구 및 관심사에 주력한다면 -남의 이야기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함.
--	---	---

- 2차 정리 및 논의 결과

회원유형

30대 기혼·육아휴직중(서연○)

40대 기혼·취업(김계○, 최정○)미취업(주명○)

50대 기혼·취업(정미○, 최효○)

질문내용	응답내용(간단정리)	활동방향 및 정책 시사점
------	------------	---------------

민우회 활동	기대	a. 기대 보다는 민우회 후원 b. 여성 권리 신장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대 c. 여성의 자기권리 찾기 d. 정치, 경제, 사회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 e. 기대 없음 f. 기대는 없었으며,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오심	- 활동영역구분 및 방법 : 교육, 홍보, 환경, 지역자치, 소모임 조직 등 - 활동의 장 파악 :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 활동목표 및 이슈 파악 - 활동 우선순위 결정 : 단·중·장기 계획 구분
	달라진 점	a. 민우회에 관심이 없었으나 회원이 된후 민우회의 활동에 관심이 생김. b. 민우회를 통해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됨.(교육문제나, 자기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됨) c. 여성으로서 삶의 지혜와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됨 d. 달라진것 없음 e. 당연하던 느끼던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됨. 의식의 변화가 달라짐. f.	
	참여정도 및 만족도	a. 영어 소모임으로 시작하였으나 소모임이 없어지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됨. b. 민우회원들과의 친목 도모 c. 여성학모임으로 여자로서의 고민에서 여자로서 행복함을 느끼고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함. d.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정책에 대한 고민을 민우회가 함께 참여해주길 바람. f. 소모임으로 통해서 들어왔다가 운영위도 하게 되고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걸 찾게 됨.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a. 지금 하는 일(커피숍) b. 나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음 c. 재취업을 위한 교육 d.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조합원의 참여 e. 노인들의 건강과 치매연구 f. 전통무용	
	사회활동 욕구	a. 사회 활동 중	

		b. 사회 활동 중 c. 시사잡지와 신문을 보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짐 d. 사회 활동 중 e. 사회 활동 중 f. 사회 활동 중	
	과거의 활동 경험	a. 20대 때부터 그림 시작 b. 자영업 c. 원주투데이 신문기자 d. 의료생협협동조합 e. 춘천여성유권자연맹 총무, 은행원, 사회복지 관련업 f. 우체국 근무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a. 여자로서의 장점도 많다고 생 각 하며, 결혼제도 안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 생김 b. 취업시 정당한 임금을 받기 어려움 c. 친절에 일이 있을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남편과 시댁의 눈 치를 봐야 할때 d. 우리 사회의 선입견 (예: 간호사는 의사의 조수) e. 지금은 없지만, 은행다닐때 결혼하면 그만뒀야 하고 여직원 은 승진이 안되고 6~7년 근무해 도 남자 신입사원 보다 월급이 적을때. f. 전통무용을 하는데 남편이 이 해를 못해 줄때	
	고민 해소 통로	a. 혼자 해결 b. 민우회에서 만난 회원들 c. 큰언니, 신앙의 힘 d. 이은숙 회원님 e. 잠자기, 시간이 해결해 주기 도 함 f. 윤숙영 회원님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a. 변화보다는 있는 걸 잘 알고 개발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발견했으면 함. b. 공원도 많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c. 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기관과 보육 시설이 잘 되었어서 아이를 맡기 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d. 공동체 마을 조성, 자연에 가까운 마을을 만들었으면 함 e. 도시와 가깝지만 폐쇄적인 부분이 많음. 개방의 필요성 f. 관심이 없음.	
	해결방법	b. 우리 도시 바로 알기	
민우회에 바라는 점		a. 민우회를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인을 찾고 투쟁적이지 않고 조금 뒤에서 다양하게 보는 시각과 여성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면을 보고 남성과 화합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함. b. 민우회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으며, 여성권리신장 보다는 사회적임 문제에 눈길을 돌렸으면 함 c. 민우회가 지역사회의 그릇이 되어주길 바람. d. 해마다 하나씩 큰 계획을 잡고 실행해주길 바람. e. 55~65세를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하심. f. 특별히 없으며, 연락이오면 도와줄려고는 생각함.	

원주여성민우회 분석 토의 결과

민우회 회원의 특징	민우회의 회원은 사실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민우회에 처음 오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교육이나 소모임 활동을 위해서 민우회를 찾는다. 처음부터 민우회가 뭘하는 곳인지 알고 오기 보다는 와서 보니 민우회가 여성운동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가입의 자발성여부와 회원의 특성에 따라 민우회의 정체성을 정책중심의 사회참여를 요구하는 그룹과 사회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두 부류로 나뉨. 주로 소모임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은 회원일수록 사회참여보다는 소통중심의 민우회가 되길 바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회원이 거의 없음.(취업여성이 많음) 오히려 지역의 관계망과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민우회에 참여. 그러다보니 지역속의 여성운동은 고민하고 있지 않음. 작장여성의 경우는 민우회의 모든활동에 매우 소극적임. 이것이 시간의 부족 때문인지 관심의 문제인지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양성평등에 대해서 낙관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음.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다보니 사회속에서 여성의 차별을 잘 인식하지 못함.(전업주부나 자영업일수록) 20~30대 여성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20대는 오히려 사회적인 것(시민단체)에 관심이 없고 개인의 취업이나 욕구에만 관심이 많음. 전체 여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집중적 대상 연령을 찾아야함. 20~30대 여성들은 486세대와 문화가 다름. 다른 방식의 접근필요. 민우회는 무언가 정치적인집단, 깐깐하고 드센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선입견이 아직도 존재함.
주요 관심사 및 시사점	30대는 자녀교육과 육아 문제에 관심이 많음. 40대는 가족간의 소통과 자녀교육, 재취업에 관심이 많음. 50대는 자신의 건강과 봉사활동 노후활동에 관심이 많음. 모든 연령대가 취업에 관심 이 있음. 취업을 한 여성의 경우에도 좀더 자신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함. *“여성생활 불편도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역욕구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생활적이고 말랑말랑한 민우회에 대한 요구 → 지역사회공동체사업 고민(옥상텃밭, 학교텃밭등), 길거리 청소년 만나기, 아파트 빈공간 이용사업등 * 다문화가족, 성교육, 직업교육등과 같은 공적영역에 대한 사업확대 필요. → 전업주부들에겐 사회와의 끈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장이 되어야 함. * 민우회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여성들의 욕구를 담아내는 사업의 모색필요. → 성교육 : 20대 비혼을 위한 성교육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교실 → 봉사활동 소모임 :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봉사모임 → 취업여성을 위한 야간 강좌나 소모임 개설 필요. → 30대 여성을 위한 태교모임등 고민.
과제	민우회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 많이 뭉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 회원이 많이 모일수 있는 자리를 더많이 만들필요 있음.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인천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이화용, 최리주, 장희정, 신소영, 최정임, 문미경
분석토의 참가	이화용, 최리주, 장희정, 신소영, 최정임, 문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분석토의 결과

민우회 회원의 특성과 욕구	-여성민우회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성평등이든 한부모의 삶에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든 여성으로 살면서 겪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민우회 활동을 통해 생활에서 겪는 자신의 문제 해결 가능했으나 사회전반적으로 차별정도가 나아지지 않았음.
기대? 기대에 대한 만족 정도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지만 활동욕구는 있다. -소외여성들을 위해 민우회가 활동하기를 바란다.
활동에 만족하 거나 불만족하 는 것?	-지역적인 거리의 문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민우회 활동이 어려워짐. -사람이 좋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소모임 형태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회원이 늘고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들간의 시간 문제로 활동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임 -지역활동(정책제안등의 이성적 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비조직적인, 감성적이어도 되는 소모임 활동들에 민우회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꼭 민우회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아도 그들의 욕구를 지원해 줄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여성학교, 회원의 날 활동등으로 회원들의 소통을 늘리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자. -주활동가들의 활동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활동거리를 만들어야(재능기부, 강사 모임)하지 않을까. -보조금 사업 외에 회원간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우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우리의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기도 하고, 현재 민우회의 활동이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활동 내용이 없을 수 있기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중되어야 함.
지역에 대한 관 심, 고민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지역의 특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재한 현실. 활동가들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 -거주 지역 위주의 마을단위 운동이 필요한데 방법을 모르겠다. -마을 둘레길 걷기, 마을 영화모임을 조직하는 방법을 갖자. -10대 청소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대를 찾아가자. -중장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운동도 좋겠다. -지역적인 문제(구도시에는 신세력에 대한 반발이 거세서 운동이 어려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이런 곳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어떤 운동이슈를 발굴할수 있나?	-회원들의 재능을 살려 복지관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자.
-------------------	--

회원인터뷰 결과

인터뷰회원	연령대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경로	활동참여도	결혼여부	자녀	기타참고사항
김정○	40	유	8년	권유	비활동	유	유	
변혜○	40	유	8년	권유	회비납부	유	유	
주혜○	40	유	8년	권유	회비납부	유	유	
김미○	40	무	1년	권유	소모임활동	유	유	
고민○	40	무	10년차	권유	비활동	유	유	
신소○	40	무	10년차	권유	회비납부	유	유	
주현○	50	유	10년차	권유	비활동	유	유	
윤명○	50	유	7년	권유	소모임활동	무	유	
김정○	50	유	1년	권유	소모임활동	무	유	

<회원유형 50대 미취업 한부모 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간단정리)
민우회 활동	기대	김정○:2010년 2월 친구따라 외로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싶었다.
	달라진 점	김정○:나보다 젊은 배나회원(한부모)들이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넘 좋았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김정○:난타를 배우며 즐거움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사회활동 욕구	김정○: 현재 휴직중이다.경제적 이유로 의류사업, 백화점 코너관리, 랜제리 사업을 했었다. 커피숍을 운영해 볼 욕구가 있다.
	과거의 활동 경험	김정○:백화점 코너 관리를 했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일본으로 이직. 남편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김정○:힘든일은 전문적인(남성적인일) 일을 못할 때. 민우회 회원들과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고민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
	고민 해소 통로	김정○: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로 풀고 등산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김정○: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천에서 살게 되었는데 23년 되었다. 별로 관심이 없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해결방법	
민우회에 바라는 점		김정○: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 본인은 민우회 회원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회원유형 50대 취업 한부모 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간단정리)
민우회 활동	기대	윤명○:2006년 한부모프로젝트(단독비행) 한부모 자조모임이 있어서 여성들로부터 힘을 주고 지지를 받고 싶었다.
	달라진 점	윤명○: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공이 쌓이고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건강하길 바랬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윤명○:취업으로 활동 못하고 있다. 춤체라피, 미술치료 프로그램(나를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진행내용들이 유익하고 신선했다) 현재는 배나(한부모 자조모임) 모임도 참석이 어려움. 현재는 생업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부의 환경이 열악하여 본부의 지원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윤명○:올해 새로 시작한 생소한 직업(희망리본 일자리 청소)의 적응과 인간관계. 토율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사 업글 프로그램
	사회활동 욕구	윤명○:올해부터 시작한 사회적 기업에서의 청소업무가 안정적이고 정규직이라 안심. 단순 노무로 노동의 신선함을 맛보고 있다(청소업무라 새벽출근과 힘든 노동) 웃음치료 시간강사로써 강사 스킬을 배우고 업글 하고 싶은데, 보험과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이고 처우가 나빠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의 활동 경험	윤명○:이혼후 웃음 치료 강사 자격증을 따고 강사 업무에 대한 스킬을 꾸준히 연마했음. 계속 직업이 업글 되었고 자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윤명○:남자직원의 성적놀림(회사내) 직장 편의상, 보복이 두려워서 피하면 안될 것 같아서. 상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짐.나이 있는 남자 직원의 히히덕 거림과 성적발언등으로 수치심 느낌. 프레젠테이션 작업등 강의 내용을 업글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고, 레크레이션강사로도 완벽하고 싶고, 학력을 앞지를 수 있는 아이템도 찾고 싶고, 경력과 프로필도 향상시키고 싶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고만 싶어지고 혼자사는게 편하다고 느껴서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가슴 뛰는 사랑은 하고 싶다.
	고민 해소 통로	윤명○:형제, 친구들과 수다로 풀기도 하고 등산을 한다. 상담모임에서 좋은 의견은 내것으로 취하기도 함.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윤명○:2009년부터 2년, 인천시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영구임대를 임대해 주어 살고 있다. 지역소식에는 관심이 없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의 입장을 봤을 때, 아이들을 봐주는 공간과 인원을 지원받고 싶었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해결방법	윤명○:한부모사업으로 방과후 공부방과 같은 아이들 체험과 교육을 기대한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배려받고 형제애도 느끼며 인간관계를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한다. 민우회같은 단체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윤명○:시에서 하는 형식적인 도움 말고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받기를 바라고 밝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과 부모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후원회비로 단체를 유지하기에는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 아직은 활동에 대한 금전과 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아 자유로운 활동은 어려운 것 같다. 거주지별 모임을 만들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성모임을 꾸렸으면 한다. 지역적으로 모여 사회관심 내용을 운동으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공동구매.

<회원유형 50대 자영업 기혼 남성-주현○>

질문내용		응답내용(간단정리)
민우회 활동	기대	부인 고민○의 민우회 활동을 보면서 색다른 면이 많았다. 넓게 생각하는 것 같은, 넓은 방향에서, 민우회를 난 몰랐으니까. 다만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찾아간다고 할까, 그런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도 관심이 있었고 우연히 알게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통해 저는 어떤, 활동을 한 것은 아닌데 다만, 회원의 날이나 가끔씩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한 두번 참석하게 된 계기였다
	달라진 점	엄청 변했다. 변했기 때문에 폭 넓게 본다는 거죠. 여성성, 남성성에 대해서. 저에게는 여성에 대한 어떤 계기, 여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봉사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솔직히 아 그런분들이 참 많구나.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구나.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음지쪽을 많이 살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거죠. 좋다 안좋다는 아니고 집사람의 변화, 진일보한 면들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그 단체를 보는 시각도 좋게 느껴졌었고 그렇다보니까 참석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처음에 함성(여성모임)에서 부부모임형태로 가면서 서로 많이 변한 것 같다. 처음에 했던 ‘함성’이라는 사람들의 거기서 아마 제 자신이 내가 너무 못나게 느껴졌다. 내 자신이 뭔가 열등감이겠지.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야. 저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다구, 그런데 그분들의 성향은 갑과 을이 아니야. 부부도 그렇고 갑이면 갑 을이면 을로 보여졌다. 그 부분에서 참 괜찮다.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때 아마 내가 가장 느낀 게 그 부분일거예요.같이 동등함 그래서 대화를 같이 하고 또 하나는 진취적이었으니까 뭔가 다 배울라고 했으니까 그 모임에선 다 뭔가 배울라고 했다. 그래서 또 놀랐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작용을 많이 했을 것이다. 민우회라는 단체를 조금 이렇게 기웃거렸고 아,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손을 더 뻗어야하는 데 꼭 이런 사람들만이 해야하나. 그런데 항상 재정적으로 빈약하잖아요. 왜 여기 참 좋은 데 이런 사회에 이런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재정이 궁핍해지고 이렇게만 되나 그게 아쉬웠다구요. 안좋은 거라면 그냥 별거야 하면 그래 너희들끼리 좋아서 노는 거다 할건데 그게 아니니까 항상 안타까웠고 뭔가 이렇게 잘되고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회원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
개인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데 피곤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구나 놀이가 아니라 사람속에서 파생되는 된게 거기서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렇게 지금은 즐거울 수가 없다. 시각을 다양한 시각이있는데 그중에서 같은 어떤 시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흥미롭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명상이라고 하고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은 굉장히 즐겁다 사람사는것은 얹기기도 풀어내기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사람들과의 같은 시각,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낸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재미있다. 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조직도 각 개인들이 모여서 조직이 형성되

		는 데 개인을 인정해주고 싶은 것이다. 행동, 말, 생각들을 나타냈을 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 그럴때마다 웃음이 많이 나. 왜 웃음이 나냐면 가벼워서가 아니라 아, 이렇게 맞구나, 아, 왜 저 사람은 행동할까? 그 전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다는 거야. 그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게 이유가 있다는 거야. 결과를 봤을 때 나도 웃는거야. 아마 그럴거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각 개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나하고 틀리하고 해서 그냥 커튼을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인정해줄 때 이럴 때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럴때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있을 때 어떤 시각을 같은 초점을 맞출 때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
	사회활동 욕구	
	과거의 활동 경험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고민 해소 통로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전체적으로 사회가 일단 사회 큰 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면 좁게 들어가면 지역사회 또한 어렵다고 알고 있다. 다들 어려워하고 있고 나 역시도.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만 어려워진것은 아니고 사회가. 우리 어떻게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랄까 큰 타이틀이 없다는 거 희망의 메시지랄까요. 희망의 메세지도 여러개인데 그게 없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없구응이다.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집에 카센터 사장님한테 뭐 어떻습니까 하면 인상부터 첫마디가 인상이니까 그러면 소통이 안된다. 왜 지금 안될까요? 글썄요, 하고 접근해야 하는 데 인상을 쓰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되고 있다. 소통이 뭔가? 지역사회 소통은 뭔가? 뭘 유치하고 운하를 뚫고 강둑을 막고 예를 들자면 그렇지요 이게 소통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서 그 소리를 내주면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소통의 문제라고 본다
	해결방법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딱 막혀 돌파구가 없지 않은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서로의 소통이 없다는 거겠지요. 민우회가 하는 것도 소통아니겠어요. 소통을 대형화로 보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서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지역사회에서 뭐 장사가 잘 됩니까 이거 소통, 그것은 아니겠지요
민우회에 바라는 점		

<회원유형 30-40대 미취업 기혼 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간단정리)
민우회 활동	기대	고민○: 창립때가 언제지? 2001년인가? 창립 때. 창립 총회를 했는데 같이. 김미경 언니하고 최경옥 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 최경옥 언니가

		가자고 해서 와본 게 민우회였지. 아파트 활동은 나중에 한 거고 그냥 송림동 아파트 이전에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가 어려운 동네고 나눔의 집 있던 동네고 그래. 그러니까 둘은(김미경, 최경옥) 활동하던 사람이고 나는 아무 활동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온 거지. 여성운동 하는 거 알고 있었구 그러구 그때가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어.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민우회에 오게 되었어. 김미○: 5월쯤인가요? 지인의 소개로 가입 했는데 기대한건 특별히 없었어요
	달라진 점	고민○: 달라진 점이 바깥 활동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점이 좋았고 그래서 아, 그, 내가 뭔가 그 이렇게 그 남들은 인식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인식하고 있구나 해서 자만해지기도 했지.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도 많이 되고 좋았지. 남편과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이런식으로 세상을 볼수도 있다 라는. 김미○:개인적인 관계에선 달라진건 모르겠고... 생각은..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까...좀더 나아가서.. 어떤 운동. 인권, 뭐 그런것들에 대한 의식
	참여정도 및 만족도	고민○: 합성 모임이 이어지면 좋았을텐데. 그대신 다른 모임이 또 생겼으니. 같이 모임했던 합성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뭐랄까 웃음 같이 모임하면서 같이 희열을 느꼈고 그러나 서로 뭔가 조금만 거 하나에도 감동하고 큰 기쁨이었던 걸아. 모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합성모임을 처음에 회원들끼리 하다가 남편들도 동참하자고 해서 확대되서 자주 모였어. 꼭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대로 좋은 점이 많더라구. 남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많고 그들 내면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좋았거든. 그 뒤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명상 모임 만들고 나서 합성이 없어진거 같애 김미○:만족하는 부분은 여러가지 체험, 경험. 강의 듣는것도 경험에 일부라고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운건 언제나 조금 아쉽다는거죠. 더 깊이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은데 시간이나 여건이 좀 안되는것 같다고나 할까
개 인 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고민○: 시골로 이사가서 살고 싶다는 게 완전히 꽂혀있는데 상황이 안되니까 주말 농장하는 것도 성에 안차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즐기자 해서 수영 요가 열심히 하고 시골가면 못하니까 김미○:소외된 분들, 장애인이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권리 찾기에 관심이 있고 이유는 그런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것 같아요
	사회활동 욕구	고민○: 활동은 별로 안하는 거 같애 .돈 벌 자신도 없고 그리고 뭐. 요즘도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을 벌이면 여기를 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돈도 돈을 버는 거 보다 아껴쓰고 안 쓰는 게 버는 거다. 벌어서 얼마나 그 돈을 모으겠어? 김미○:(내가 생각한 소수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행동할때 재미있기는 한데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급실망이거나 해답을 못찾고 헤매이는것이 어렵죠. 장애인 단체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편할때 돕는 정도라서 보수는 없어요. 사회복지쪽으로 관심

		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가려고 하는 중이라서 그 분야의 모든것들을 접하고 싶고. 조건은 특별히 없지만 일 해보니 약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받았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군요
	과거의 활동 경험	고민○: 지금은 안하고 그냥 이렇게 ‘반지하’는 개인적 친분으로 자주 놀러가고. 미디어센터활동은 안하지 그것은 내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반지하’는 애정은 아직도 있어 통하는 것도 있구 김미○: 직장생활하다가 결혼 때문에 그만두었고 최근엔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했다가 일거리가 없어져서 그만 두었음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고민○: 딸을 키우면서 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해. 개가 나하고는 다르게 자식의 의사도 분명하고 거침없이 잘 사는 데 만족해. 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끔 그 전에 활동했던 것을 본 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 같애. 가끔은 대학교에서나 다른데서 성차별적인거라든지 그런걸 보면 그러면 안되는 거야 하는 말을 들을때마다 그런 걸 모른척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구나 하고 생각해. 어떤 남자가 성과별적 이야기를 했을 때 애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는 거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 못하는 게 문제인거라서 개는 의심을 하고 있더라구. 책에서 방법을 찾지는 않는 거 같애. 내가 여성차별적인 생활을 하고 산 것은 아닌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차별에 저항하는 것 보다는 내 생활에서, 운동의 그런것 보다는 내 여성으로서의 삶은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 같애. 예를들어 집안에서 엄마, 여자의 기분이나 감정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아들이나 남편한테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면서 공감받잖아. 그때 만족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싸우고 하지 않아도 툭 하고 한마디 던져도 공감 이해하니까 대화로 푸는 편이지. 우리 윗세대는 많이 다르잖아. 그럴때 확 느껴지는 거야. 옛날 같으면 생각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들은 고집불통이고 못됐어 하는 거야. 김미○: 늘 앉아서 소변을 봐야하는 현실에 부딪히죠. 불편하니까. 서서 소변보면 완전 편할거 같음. 여성이라서 고민? 그런 어려움은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적이 없었음
	고민 해소 통로	김미○: 잘 들어주고 조언을 객관적으로 잘 해주는 선배나 친구들을 만나 말을 하면서 털어버리는것도 도움이 되고 조언을 들으면서 느끼는거나, 나를 돌아보게 되는것들을 조합해서 스스로 해결하는거겠죠
지역 이해	지역 삶의 질 욕구	김미○: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특별히 다른곳으로 갈 기회가 없어서 인천에서 40년 살고 있는데 지역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기사 검색이나 여러가지 소식지등등을 통해 지역 소식을 접함.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정보를 얻는 편. 특별히 여성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자(?)도 공평하게 나와서 함께 떳떳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결방법	김미○: 생각을 바꾸는게 필요할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쪽으로 가진자가 조금은 양보해야 할것도 같고. 부족하다고 움츠리지 말고 떳떳하게 권리를 찾아가는것도 필요할거고. 민우회가 어쨌든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일

		테고 그게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우회에 바라는 점		고민○: 본부에서 인천지부는 어려우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 본부회비만도 부담일때가 있었거든. 빚을 잔뜩지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내듯 내야하는. 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내가 활동할 때가 감성적이었던 것 같애. 우리들끼리의 감성적 활동 같아. 지금은 확장되는 시기여서 그런지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막 열심히 안하니까. 몇 년 세월이 흘러서 한번 발 들여놔던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거지. 잘하고 잘 났으면 좋겠지 고생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김미○: 뭐든지 그럴테지만 지구력이 필요할것 같아요 인권운동에선 특히. 계획뿐이 아닌 성과가 있을때까지 끈질기게 밀어붙이기 ㅋㅋ

<회원유형>30-40대 취업 기혼 여성

질문내용		응답내용
민 우 회 활동	기대	1. 김정○: 2003년도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아서 가입.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했다. 2. 주혜○: 2003년에 가입, 근무하고 있는 학교(인천 인성여고)에서 동아리를 만들면서 인천 여성 민우회와 연계하여 <여성학반>을 만들었음. 당시 대표이셨던 김미경 선생님의 권유로 회원가입 3. 변혜○: 2003년 임신을 하면서 모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민우회를 통해 바람직한 모성상을 그려나가고자 했다.
	달라진 점	김정○: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 졌어요. 남편도 처음엔 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여성민우회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있구요.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회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더 관심있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지금의 여성운동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이 있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되면서 나를 보는 생각들이 변화되었어요. 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에 대한 정체성은 확실하게 만들어 졌지요. 회원이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찾아낸 것이지요. 전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혜○: 삼대독자 집에 시집와서 대를 이을 아들 낳으려고 딸만 일곱을 낳으신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평소에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았음. 결혼 후 남편과의 갈등과 딸아이의 사춘기로 우울증까지 겪을 만큼 힘이 들었을 때 민우회 회원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음.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회원들의 마음에서 위안을 받았고, 내 아픔이 많은 부분 대한민국 여성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변혜○: 나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참여정도 및 만족도	김정○: 참여하는 모임이 없다. 일하면서 시간적으로 힘들어서, 언젠가부터 관계라는 문제에 힘들어지면서 더 못나가게 되었다. 어디서든 사람들 관계가 어려

		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 어렵다. 일본대사관에서 정신대할머니들이랑 같이 합성을 지르고 사물놀이로 한풀이 할 때, 성교육 인형극을 배워서 어린이들에게 공연하러 다닐 때가 인상적이었다. 주혜○:<여성학반> 초창기에는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학생들과 보람을 느꼈음. 민우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성부 후원으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동아리카페운영과 연극공연도 하였음.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 아쉬움이 큼. 어쨌든 우리나라 고등학교 최초의 여성학 동아리였는데.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을 통한 민우회 참가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함. 민우회 소식은 주로 <함께가는 여성>을 통해서 듣고 있다. 변혜○: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지고, 민우회에 다양한 모임이 없이 항상 보던 사람만 보게 되니 재미가 없어졌다. 민우회 소모임을 통해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 나누던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개 인 의 삶 이해	주요 관심사	김정○:전 요즘 몸이 아파서 휴가 중인데요. 지금 하던 공부를 마무리 하는 것이구요. 난타공연을 봤는데 난타공연에서 본 북을 치고 싶어요, 북을 치면 뭐든지 풀릴 것만 같아서.... 그냥 정신없이 두드리고 싶어요. 주혜○: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살아서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음.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꼽으라면 엉뚱하게도 ‘춤’을 배우고 싶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음. 심각한 몸치라 배울 엄두도 안생기고, 고3담임이라 당최 시간이 없음. 변혜○:지금 내가 하는 일에 쫓긴 이유는 ‘가슴을 움직여서’ 이고, 아이를 기르면서 고민되는 부분은 계속 신경쓰는 부분이다.
	사회활동 욕구	김정○:참여는 힘들지만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지요. 민우회는 나의 에너지이거든요. 회사일은 힘들지요, 출퇴근이 전 왕복 4시간이라서 항상 피곤하고, 여자들이 많은 곳이지요, 그러다보니 말들이 많아서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동안 내면의 자아를 많이 키워 놓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지요. 항상 느끼지만 민우회에서 나에 대한 공부를 안했다더라면 직장에서의 힘듦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지요. 민우회가... 주혜○:인문계 고등학교 역사교사 + 고3담임 (7시 20분까지 출근 ~ 대부분 8시, 9시 퇴근, 집에서는 잠만 잠) 어려움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학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졸립다는 것과 학생들 입시 스트레스. 하지만 내 직장이 소중하고 좋은 동료들과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음.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역시 남편과 아이인데, 최근에는 드디어! 남편과 아이가 나를 조금씩 인정하는 것 같아 신기함.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민우회 활동은 비록 참여는 못하지만 원래부터 지지하는 단체임. 변혜○:상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육아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의 활동 경험	김정○:일을 하다가 남편이 아이가 많이 어려서 반대하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이가 너무 아프고, 나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병이 나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다. 그 땐 아쉬웠지만, 지금 당당히 잘 다니고 있다. 주혜○: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오기 전에 인천 모여고에 교사로 뽑혀서 신입교사 연수받다가 그만 둔 적이 있음. 그 학교는 지금도 재단에 대한 악명이 높는데,(그래서 전교조 교사가 많음) 연수 마지막 날 교장선생님

		이 신입교사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들을 하나씩 호명해서 나오게 해서 술 따르게 하고 또 자신이 주는 술을 마시라고 함. 교사 회식 때마다 늘 그런다고 하기에 그만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호기가 부럽기도 하고 지금이라면 그만 두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함.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김정○:직장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너무 할 일이 많다. 1인 다역을 소화해 내야하니 힘이 든다. 남편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자가 해야 할 일 너무 많다. 시댁에서도 제사가 있으면 회사를 다녀도 평일에도 갔다와야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일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제사가 없었으면 좋겠고, 남자들도 같이 도와서 했으면 싶다. 주혜○:지금은... 별로 없음.아들 없는 집에서 자랄 때, 결혼직후 시집에 내려갈 때,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항상 남편을 앞세우면서, 그 많은 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합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워낙 건조하게 살아서리..... 변혜○:어떤 모임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습관처럼 커피를 타거나 주방일을 챙겨야 하는 의무감이 생길 때
	고민 해소 통로	김정○:이럴 땐 전모임 사람들이랑 얘기한다. 민우회 전 모임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로 풀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지혜도 모아서 알려준다, 난 이모임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힘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긴다. 다른 모임에서 얻을 수 없는 무한한 긍정과 사랑과 좋은 에너지와 편안함이 있어서 좋다. 주혜○:제가 워낙 민우회활동을 못해서 단체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민우회든, 여성회든, 직장동료이든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고민들을 나눔. 민우회가 여성 개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함. 그러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척하고 극복해나가려는 의지와 실천은 별개의 문제임. 변혜○:민우회에서 전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학교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고민을 해소하는 통로이다. 민우회에는 나이든 후의 여성공동체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서로를 함께 돌보는 ‘대안 노인정’ 같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삶의 질 욕구	김정○:사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더라구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참고 있어요. 정말이지 화가 나더라구요. 남성들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서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혜○:오랫동안 인천에서 살다가 3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 왔음.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 없음. 부천생협에서 운영하는 수족침 강좌를 6개월 정도 들은 것이 지역모임의 전부인데, 그마저 직장일이 바빠서 이어가지 못했음. 사실 대부분의 모임들이 일과 중에 이루어지므로 지역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움. 학부모 모임에서조차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거의 왕따 수준임. 변혜○:여성공동체(대안 여성 노인정) 같은 시설을 꿈꾼다. 또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결방법	김정○:좋은 아이디어/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식을 갖추어야 자라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민우회가 작은 것부터 거창한 것 말고, 사소한 것부터....

		변혜○:지역과의 연대 + 민우회의 목소리 민우회의 목소리를 가진 지역과의 연대공동체. 무조건 모여 있고 집약하고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만장일치로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닌, 자발적인 개인들 간의 연대를 인정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공동체.
민우회에 바라는 점		김정○:민우회는 나에겐 친정집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냥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운 곳이다. 여성들에게 안식처 같고. 편안한 친정집 같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의 민우회는 거만하다, 잘난 척 한다, 유식하다, 간판이 두껍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니 모든 여성들이 꺼려하는 것이다. 소심하고 여린 사람들은 감히 생각을 못한다. 지식은 있지만 편안하고 지혜로우면서 따뜻함으로 감싸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변혜○:특별히 없다. 내가 필요로 했을 때 민우회를 찾았고, 민우회는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게 다다. 그래서 더 머물 이유가 없었고 활동가가 아닌 후원회원으로만 남고자 했다. 활동가는 새롭게 민우회를 필요로 하는 회원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아쉬운 점은 나는 아줌마인데, 민우회는 자꾸 젊은 세대로만 지향하며 가고 있지 않은지. 민우회 스스로가 나이들을 두려워하는 듯 하다. 그래서 요즘의 민우회는 아줌마인 내게 현실적이지 않다.

진주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회원 인터뷰 진행	강은주, 이경미, 이종숙, 정윤정, 이광지, 정인례, 강문순, 배순직, 박혜숙, 김연우,
분석토의 참가	손미옥, 강은주, 이경미, 서은애, 정연미, 이종숙, 김연우, 이광지, 정인례, 진선명, 정윤정

인터뷰 회원	연령 대	직업유무	가입연차	가입 경로	활동 참여도	결혼 여부	자녀	기타
김미○	30	주부	2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하미○	30	주부	3년	권유	소모임 위원회활동	결혼	유	
김남○	30	주부	2년	교육	소모임 위원회활동	결혼	유	
이경○	30	주부	2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진선○	30	사무직	7년	권유	소모임 위원회활동	결혼	유	
이혜○	30	주부	2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이광○	40	사무직	4년	상근	소모임 위원회활동	결혼	유	
정찬○	40	주부	6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김민○	40	주부	1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하영○	40	주부	9년	교육	소모임	결혼	유	
이선○	40	주부	4년	교육	소모임	결혼	유	
박우○	40	사무직	2년	교육	회비납부	결혼	유	
정연○	40	사무직	10년	교육	위원회활동	결혼	유	
김형○	40	주부	1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김시○	40	주부	8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전미○	40	주부	2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하순○	50	주부	1년	권유	소모임	결혼	유	
천명○	50	주부	3년	교육	소모임	결혼	유	

질문유형	응답 및 응답에 따른 정책시사점
가입동기 및 만족도	-친구의 권유로 여성단체 활동에 관심 가지고 가입 -민우회교육(민우학교, 양성평등, 미디어, 부모교육, 성교육, 먹거리강좌)을 통한 가입 - 소모임활동(성교육스터디, 육아소모임, 영어, 식생활)으로 정보공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 -사람들과의 소통의 공간 상담교육을 접하고 활동하시는 분과 교육이 좋아 여러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점점 활동영역을 넓히는 회원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무관심했던 자신에 대해 자기에 생김

	-성교육스터디로 성에 대한 사고가 폭 넓어졌다. -민우회를 통해 여성운동에 대해 알게 됨 -가족중심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는 시선으로 바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계기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여서인지 민우회를 통한 만족도는 긍정적 반응이며 교육 참여시 만족도는 높고 개인사정(육아)으로 참여 못할 때 아쉬워 함. :
개인의 삶 이해 주요관심사	-청소년들의 생활과 고민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상담에 관심 -대상관계부모교육과 명상으로 자신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라보게됨-양성평등강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보람 -여성의 몸, 정서를 돌보는 명상작업 -주말여행, 기도, 복지공부 -가족관계개선으로 성공보다는 행복이 우선 -제2외국어 공부 먼저 상담을 접하신 분들은 청소년 상담공부와 복지, 명상강사활동을 30, 40대의 회원들은 주말여행, 일어영어공부, 먹거리, 육아기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다고함, 50대회원은 갱년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며 봉사활동과 종교활동으로 즐거움을 찾고 싶다고 함
사회활동욕구	-복지와 상담공부를 꾸준히 해나가 노인복지, 노인 성상담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음 -안정된 직업과 주5일 근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느낌 - 30대 회원들은 아이가 어려 직장을 나갈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포기 -학교 도서도우미, 책 읽어주는 어머니 등의 자원봉사활동 -돈을 버는 목적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함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 -주부로서 현재 모습 만족함
과거활동경험	-결혼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그만 두었음 -결혼 후 직장생활은 아이의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양육에 매달림. -약간의 후회,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어야 한다는 생각 -40~50세 직장생활을 하고자 하나 마땅한 곳이 없음
지역이해하기(지역육구)	-결혼으로 진주에서 살게 된 분들이 많음 -지역소식에 관심은 많지만 적극 참여하지는 않음 -아이들의 문화행사,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게시판에서 지역소식 접함 -진주의 특성상 보수적인 도시라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학연과 지연을 벗어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이 되었으면 -직장 내 육아방과 강의가 있을 때 아이를 무료를 맡길 수 있는 무료 육아돌봄(4-5시간) -생애주기별 여성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자치센터활성화로 여성의 능력개발을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운동공간, 소통의 시간

	소통 의견나눔 그속에서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봄 민우회가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짐
진주민우회에 바라는 점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소모임 기획. -생애주기별 여성주의교육 - 중년,노년여성의 터를 만드는 중심역할 프로그램 개발 -이슈도 좋지만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민우회를 알려라 -부모교육,자녀교육 프로그램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가져 활동가들을 많이 키우라 -활동가로서의 이미지가 많다.

진주여성민우회 분석토의 결과

토론회 : 2011. 10. 12(수) 10:30 민우회

토론단위 : 운영위원회, 손미옥(대표), 강은주(부대표), 이경미(운영위원장), 서은애(조직위원장), 정연미(홍보편집위원장), 이종숙(교육위원장), 김연우(지역자치위원장), 이광지 정인례 진선명 정윤정(실무자)

▶ 가입동기 및 만족도 : 자매애를 바탕으로한 신뢰관계 속에서 권유, 권유 또한 소모임 또는 교육등 권유할 만한 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 공간이 필요성에 의한 소모임 활성화와 관심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민우회 교육이 년중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 개인의 삶 이해, 주요관심사 : 자녀 등 건강한 가족관계와 자기성장을 중심에 놓은 관심사가 많았음. 대부분의 여성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본인의 성장 또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여 민우회 교육 내용을 잡을 필요가 있다.

▶ 사회활동욕구 : ngo활동도 사회활동이고 봉사활동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민우회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연결은 어렵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 과거활동경험 : 육아로 인한 직장포기가 많았고, 40~50대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을 미루어 볼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결국 중장년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 진다. 생활속의 여성운동에 육아의 공공성이 중심에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지역이해하기(지역욕구) : 지역에 관심은 많으나 마땅한 활동공간이나 관심 표출 창구를 못찾고 있음. 진주여성민우회 활동이 우리지역 문제와 맞닿을 수 있어야 함.

▶ 진주민우회에 바라는 점 : 생애주기별 활동공간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중장년, 노년 여성의 교육개발이 필요하며 완경모임도 지금 필요한 시기로 보여짐.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인터뷰 결과 및 분석토의 결과

“참여하는 여성운동, 생활 속의 여성운동, 함께 하는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 생활 속의 여성운동, 함께 하는 여성운동. 이 세 가지 미션은 87년 창립 이후부터 민우회가 지켜나가고 있는 큰 활동 방향입니다. 민우회는 회원단체로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들의 삶 속에서 여성이슈를 발굴하며 함께 나아가는 운동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언제나 회원들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1 이번 회원조사를 통해서도 회원들과 얼굴 맞대며 그들의 삶과 회원으로서 여성운동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마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조사의 본 목적은 ①민우회원을 통한 여성의 일상 및 현실고민 탐구 ②회원 간 소통강화 및 역동적 조직 활동 방안 마련 ③여성운동 방향 모색 및 이슈 발굴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회원들은 애정 어린 의견과 자신의 일상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목적으로 굳이 두지 않았지만 크게 얻은 또 다른 성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민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따뜻하고 고마운 신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조사라는 말이 아닌 다른 따뜻한 표현이 없을까요. 잊을 수 없는 여름, 가을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⁵⁾. 그래서인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과정 또한 즐거웠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회원조사에 응해주신 22명⁶⁾의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녹취를 풀어준 회원(파도, 수풀, 헤민)님, 통계추출에 도움주신 회원(팽)님 덕분에 가능한 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회원층을 가진 본부의 특성 상 단답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우회 및 회원활동(12개), 응답하신 회원님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질문(13개) 총 25개의 문항으로 전체 회원 대상 이메일 설문을 1달 간(7월 25일~8월 28일) 진행했습니다.⁷⁾ 단답식 설문에 응답하신 총 160명의 회원님의 귀한 의견들 또한 토론 및 분석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본부는 인터뷰, 단답식 회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두 번에 걸쳐 분석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차에는 회원들의 일상과 관심을 세세히 공유하며 분석의 큰 줄기를 세우고 2차에서는 민우회

5) 회원조사를 위해 회원들을 인터뷰하고 녹취 푸는 기간은 8월 초~9월 중순까지였음. 인터뷰어는 대표 김인숙, 박봉정숙, 사무처장 주현정, 회원팀 활동가 신기루(선백미록), 폴(강선미), 하이디(김희정), 모후아(지은정)가 진행하였음.

6) 2011년 현재(11월) 약 2,000명에 가까운 회원이 함께 하고 있는 본부는 다양한 회원층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세대별(20, 30, 40대 이상), 활동여부별(비활동, 활동중단, 활동)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함. 그 외 기타분류로 활동여부에 따라 남성회원 3명 포함.

7) 별첨자료 단답식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표 참고

의 활동방향을 크게 그려보았습니다. 열띤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활동을 지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성주의를 통한 일상적 힘 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민우회와 인연을 맺었고 후원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민우회원이 되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소수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의식이 고양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기획단이나 자원 활동이 돈이 되진 않지만 활동 자체에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민우회와 함께 한다는 회원들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활동참여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다른 회원들을 만나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많지 않은 회원 같은 경우 일상 속에서 겪는 선택을 좌우할 주요한 지표를 민우회에서 얻기도 한답니다. 이에 기존의 소모임, 기획단을 비롯한 회원 활동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기획하는 단계부터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참여 회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도 이 같은 경험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음과 달리 환경이나 조건상 참여를 못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필요와 방법 등에 대해서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여성 및 사회 이슈 중 자신의 일임에도 자원이 없거나 고립되어 갈급한 욕구를 소통하지 못하는 회원 그리고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짬(시간)을 낼 수 없는 회원층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상 커뮤니티를 단단히 한다거나 동네단위로 모일 수 있게 한다거나 모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소모임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통로 마련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통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목표와 주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자신의 욕구나 활동여부 및 정도를 감안하여 참여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덧붙여서 공통의 관심과 맞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논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원들과의 편안하고 재미있는 연결망을 원활하게 지속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일상적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여성운동의 기본 틀일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듯합니다. 참여의 지속적인 연결 또한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로서 자원 활동 및 기획단으로 함께 하는 경우(인터뷰나 과제로 민우회를 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하는 동시에 관계맺음 및 소통을 보다 면밀히 하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우리 활동을 보다 생생하도록 만드는 회원참여를 다각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힘과 성과를 회원들과 잘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본 회원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민우회라는 공통의 화제로 머쓱할 새 없이 이야기를 풀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나이, 성별, 직업, 활동여부 정도 모두 제각각이었고 민우회원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각자의 사연과 일상은 정말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본부 회원들은 과연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 언제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실감하는지, 어떤 모습의 일상을 꿈꾸는지 회원들의 **생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본부 회원들에게 요즘 꽃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정말 다양한 관심거리가 나왔습니다. 일본 만화를 본다가나 악기나 운동을 하고 싶다는 등 취미활동부터 종교 활동, 웰빙에서 더 나아가 웰다잉에 대한 관심까지.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의지, 공부에 대한 욕망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상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부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기성장이나 관계맺음 등에 대한 욕구와 연결 지어 이러한 교육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관계 핸들링'과 같은 교육은 자신보다 가족이나 타인 간의 관계 속에 주도성을 배려하며 다소 수동적인 이들 특히 여성의 삶에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냥 조절(control)하는 게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서 관계를 조종(handling)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기본역량강화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보자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 및 방향성을 가진 활동은 민우회가 그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유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이야기로 모아졌습니다.

언제 여성이라는 점이 상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상에서 겪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압박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겪는 차별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듯 이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운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답식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공통적으로 드러난 회원들의 관심 이슈 중 하나는 반성폭력 활동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언제 여성이라고 느껴지냐는 질문에 왜 그렇게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주요하게 답하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이 더욱 움츠러들게 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겠고 어려운 일이긴 하나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포에 맞서서 두려움을 타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서 올 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몰래카메라를 추포하라'와 같은 사업처럼 두려움을 치고 나가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성인권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먼저 두려움 이겨내기, 적극적으로 '상대해주겠다'는 식으로 여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따른 차이는 위계를 부르고 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이 속에서 누군가는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소외받는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

는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안전의 반대로서 폭력의 문제는 어느 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여러 문제들이 엮여진 문제라는 것. 한편으론 대상에 따라 위급할 때나 필요로 할 때에는 동네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주변에 관계망이나 안전망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관이 주도하지 않는 반사회 등 이웃 관계맺음 활성화가 방법 중 한 예로 거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들은 어떤 삶터(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회원들은 삶터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이슈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에 치이고 바쁘다보니 삶터나 집이란 '잠만 자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이웃보다는 다른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만 보다보면 정작 숲을 이루는 나무를 보기 어렵듯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삶터에서도 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무에 주목함으로써 나무들이 이를 큰 숲을 상상하고 그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는 생활 속의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이나 공동체 관련하여 대안적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안적 삶을 보여주려면 가까운 주변을 둘러 볼 시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다양한 관계맺음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가 사는 삶터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적었지만 어떤 사회상을 꿈꾸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경쟁 없는 사회'나 '안전한 사회'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등 원하는 바를 답해주었습니다. 바라는 사회상의 키워드를 '변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회원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분석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민우회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러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 지금까지 민우회가 여성/운동단체로서 펼치고 있는 활동이나 역할성을 잘 견지해나가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회원들은 민우회가 '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힘주고 받는 관계들 속에서 특히 민우회가 '언니'같은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는 것. 민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바람들을 통해 여성주의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게 되듯 우선적으로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민우회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회원들이 잘 알아주길 바라면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몇 회원들은 우리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의 홍보 및 전달에 대해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의 문제인가 둘째, 홍보의 문제인가입니다. 내용의 문제 즉, 활동 이슈가 정말 덜 대중적이거나 일상과 동떨어진 것인가. '회원들의 니즈(needs) 잘 파악하여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어느 회원의 평가가 있었던 점이나 민우회의 올해 사업들⁸⁾을 봤을 때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활동이 기획·진행된 만큼 내용의 문제보다는 다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다른 측면이란 홍보의 문제입니다. 회원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 민우회 활동을 접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활동이 언론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자, 그 빈도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여성 및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민우회가 어떤 입장인지를 궁금해 하는 회원들의 욕구를 반영, 시의 적절하게 입장표명을 빠르게 할 필요도 있겠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선명하게 하자는 의견도 덧붙여졌습니다. 논평을 쓰되 세 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은 어떠한 이유로 민우회는 이렇게 본다."는 방식입니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꼭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것(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짧은 설문조사하는 방식 등)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어서 어떤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되었습니다. 보다 외롭고 소외된 자원이 없는 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 경험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 어려울 때 편안하게 접근 가능한 자기 해결 방법, 정보, 단위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함께 가자고 손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성 사안의 생동감을 찾고 문제의 실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활동의 동력을 사람에게서 회원에게서 찾는 것이 운동의 시작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분석을 마쳤습니다.

8) 식당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노동권 활동, 여성의 낙태 및 성형 관련 건강 이슈, 신가족주의 담론 및 가족 이슈, 20대를 비롯한 여성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성 평등한 미디어 교육 및 대응, 성폭력 상담 및 대응 등

단단한 호박 넝쿨 같은 회원인터뷰_ 본부

회원 인터뷰 진행	김인숙, 박봉정숙, 주현정, 선백미록, 강선미, 김희정, 지은정
분석토의 참가	김인숙, 박봉정숙, 주현정, 이임혜경, 최진협, 김희영, 선백미록, 강선미, 지은정

1. 인터뷰 대상회원의 일반적 특징

	이름	연령	가입연도	가입계기	활동여부	활동내용	자녀유무	결혼여부	직업	비고
1	L	83년	2009	자발	비	비	없음	비혼	연구원	
2	J	87년	2007	방문면접	비	비	없음	비혼	활동가	
3	W	83년	2006	자발	중단	소모임	없음	비혼	공부 중	
4	P	90년	2010	자원활동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대학생	'물길'참여
5	G	87년	2010	자발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대학생	
6	M	84년	2005	강연	활동	비	없음	비혼	대학원생	
7	Y	77년	2004	캠페인	비	비	1	기혼	회사원	
8	A	71년	2007	자발	중단	소모임	3	이혼	계산원	
9	R	76년	2004	권유	중단	소모임	없음	비혼	단체활동가	
10	B	81년	2009	강연	중단	자원활동	없음	비혼	학습지도교사	결혼예정
11	S	74년	2002	권유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회사원	
12	D1	80년	2010	상담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회사원	
13	T	76년	2008	강연	활동	소모임	2	이혼	교사	9,8세
14	K	60년	2010	권유	비	비	없음	비혼		
15	V	63년	1987	자발	중단	비	없음	비혼		발기인
16	Z	59년	2007	권유	활동	성교육강사	2	기혼		
17	U	63년	1995	권유	중단	신입모임	없음	비혼	회사원	
18	D2	71년	2002	권유	활동	소모임	1	기혼	자영업	
19	H	67년	2003	권유	활동	미디어강사	3	기혼	미디어활동	
20	MO	81년	2008	권유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사회복지사	남성
21	MN	78년	2009	권유	활동	소모임	없음	비혼	대학원생	남성
22	MG	72년	2009	캠페인	비	비		기혼	회사원	남성

2. 인터뷰 내용 정리

목차

I. 민우회 활동

- i) 기대 -----
- ii) 달라진 점 -----
- iii) 참여정도 및 만족도 -----

II. 개인의 삶 이해

- i) 주요 관심사 -----
- ii) 사회활동 욕구 -----
- iii) 과거의 활동 경험 -----

III.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 i)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
- ii) 고민 해소 통로 -----

IV. 지역 이해

- i) 지역 삶의 질 욕구 -----
- ii) 해결 방법 -----

V. 민우회에 바라는 점 -----

I. 민우회 활동

i) 기대

□그 때 좀 내가 힘든시기여서 그런지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때 제가 뭔가 힘든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나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게 민우회가 나를 더 확 잡아끄는 무언가 있었던거 같아요. (G)

□응 직장생활하면서, 그때는 이제 여성문제가 이런거를 고민하고 하는데, 내가 단체를 가입하고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지. 직장생활이 전부 였고. 그리고 그때는 결혼도 계획되어 있었고. 혼란스러웠지. 민우회 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구나. 만날 수 있었구나.(D2)

□그때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노동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정신 치료라기보다도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곳이 있다고 노동청에서 이 쪽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노동 문제 상담 및 성희롱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했었죠. 기대를 갖고 가입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후원을 해서 이런(노동, 성희롱 상담 등)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 기대는 없

었어요.(D1)

□기대하는 바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잘 안돼서, <열독>처럼 뭔가가 있어서 쫓아가서 뭔가를 읽게 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냥 그때도 그러한 모임이 있고 소모임 활동을 하고 싶기도 해서 가 입을 했었다.(R)

□나를 비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주류에 엘리트라는 걸 몰랐다. 부모님도 다 있는 가정에서, 그닥 가난하지 않은 집안끼리 결혼을 하고, 둘 다 직장도 평탄하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예전처럼 내가 봐왔던 시각으로 살 수가 없었다. 뭔가 내 삶이 이상하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들음을 풀어낼 수 있는 언어가 내 안에 없었다. 힘들어 하던 그 시기에 교사아카데미에서 정희진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 예전에 어느정도 여성학 책도 읽었고, 여대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여성주의 마인드가 많을거라 생각했었다. 근데 막상 그 강의를 들으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희진에게 추천도서를 물었고, 그 책을 다 읽으면서 언젠가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나보다 먼저 삶을 살아온 선배들과 또 같은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더 많은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해 못하는 말도 많고, 무엇보다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친 건 아닌지 들어보고 싶었다. 내 삶에서 너무나 절실해서 찾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거야. (T)

□여성단체 중에서는 민우회가 제일 역사도 있고 뭐랄까 신속하달까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단체. 가장 신뢰가 가는 단체가 민우회였어요. 여성단체는 꼭 하고 싶었는데 민우회가 들어온거죠. / 옛날에 뭐지 성폭력상담원 교육 과정 들었다가 가입했어요. 성소수자 얘기도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과 신선한 감동. 굉장히 저한테 좋았어요. 통쾌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체만으로 좋았어요. 단체가 참 고맙다. (B)

□기대했던 것은 일단 재밌지 않을까. 회사생활이랑 다른. 다른 조직? 여성 관련 조직에서 만나는 것이니까 재밌을 것이라는 기대.(S)

□되게 좋은 곳이 있다.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 활동을 하게 됐고. 자원 활동을 하면서 민우회라는 조직이 되게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모르고 있던 여성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의미에서 함께하고 싶은 의미에서 민우회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어요.(P)

□실천적인 것들. 행동하는 것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W)

□여자들을 만나고 싶었다. 여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도 하고 싶었고. 이혼한 얘기도 하고 그 쪽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활동도 하고 싶었다. (A)

□ 언니가 학생시절에 운동권을 해서 민우회를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아 그러면 너 민우회 쪽 가면은 아마 좋은 얘기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2006년도 새내기일 때 처음 여성학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다 잘 몰랐었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몰랐었던,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을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뭔가 공통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구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잘 정돈 하고, 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민우회는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기댈 수 있고 그리고 음 앞으로 고민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약간 언니 같은? 그런 역할을 민우회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대? (J)

□사실 민우회 가입한 게 아니고요. 평우회 가입한 건데 민우회라고 해서. 그 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노동운동하기에는 너무 배포도 작고 무섭고 그렇게 해서노동자 한명을 늘리느니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문제로 하고 싶었어요. 남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제 운동의 동력을 느낄 수 있는. 여성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았으니까. 대학 다닐 때도 여학생 씨클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씨클을 했던 친구들이 평우회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고민할 때 같이 하자고.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거죠. 여성으로서. (V)

□난 사실 그때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웃음) 그냥 회원활동하고. 그 정도? 그리고 우리 공부했자나. 신입모임도 하고. 여성학 관련 공부를 좀 했을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거지. 학교 다닌 이후에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 여성 쪽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워낙에 80년대에 학교를 다녔잖아. 여성문제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U)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 때는 활동도 다이나믹하게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재미있게 하면서 그 때 어린 생각에 여성주의를 실천하고 있구나 했는데. 대학원에서는 공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활동도 하고 싶고 그런 통로가 대학원에는 별로 없으니깐요. 그럼 후원을 시작하면서 뭔가 소모임 만들 어지면 가보자. (L)

□학교에서 여성학 관련된 것들 하다가, 수업도 있었고, 과내 소모임을 했었어요. 공부를 했었어요 새여성학 강의 그런 것들. 그런 걸 하다가 그해 단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자원활동 할 수 있고 다양한 여성들을 다루는 데를 찾다가 민우회가 있어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W)

□기대라기보다도 뭔가 기대한 건 별로 없었던 거 같애. 회원가입하고 나서 신입모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활동가들 만나고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좋았던 거 같아요. 음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회원들한테 편안하게 대하기도 하겠지만. 뿐만 아니고 다른 회원들 만나도 그렇고. 당시에 내 표현으로는 놀이터 같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만나던 시기가 있었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남는 사람은 극소수고. 편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이상하게 민우회에서는 편안함에 가까운 게 있는 것 같애. (MN)

□ 민우회가 지금까지 한국여성사에서 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입)하겠다고. (웃음)했고요. 가입하고 나서 책자 보내주고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 연락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꽤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좀. (K)

□ 내가 활동 못하니까 NGO라는 게 그 어떤 시민활동이잖아요. 시민활동이 성숙해야. 사회에 뿌리가 내려야 사회가 튼튼해진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미약하지만 내가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잘되면 좋겠다. 우리나라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환경이. 십시일반이라는 말도 있고. 후원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했던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기부하는 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 전반적인 우리 사회는 남성이 생각하는 평등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이 생각하는 평등이 다른데. 그런 것도 있어요. 민우회 활동하는 자체가 반감이 많아요.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평등이 뭘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 사회가 평등, 평등 많이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맞벌이부부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벌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남자들은 어쩌다 한 번씩 빨래 한 번 하고 청소 한 번 하고 설거지 한 번하면. 도와주는거라고 생각해. 이게 도와주는게 아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는거라고 생각해. 서로의 일인데. 그런게 아직까지도. 저도 마찬가지로 남자지만. 유전자속에 각인이 되어있는거죠. 그런걸 보면 나도 바뀌어야겠다. 저도 딸을 키우지만. 똑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평등이 뭔지 알아야될 것 같아요. 여자가 생각하는 평등. 남자가 생각하는 평등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중요하죠. (MG)

ii) 달라진 점

□민우회 회원이 되고? 많이 바뀌었죠.(웃음) 우선 여성문제라든가. 여성노동, 여성건강. 성폭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유리천장이라던가. 이런 얘기만 알고 있었지 세부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선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게 됐고. 강의 많이 듣고 얘기 많이 하면서 막연했던 게 구체화되는 느낌?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던 것들이 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한테 공감 필요했던 것 같고 그 때 처음으로 상상을 하고. 민우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말을 하

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D1)

□가입 전에도 여성주의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여성주의가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좀 더 민감성이 생긴 건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다듬어진 것 같은. 나도 모르게 선배로서 권위를 세운다거나. 나는 나이가 어리든 많은 평등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내가 당장 다른 관계도 다 무시하고 그럴 순 없었는데 민우회 안에서는 그런 관계,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거지. (MN)

□민우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일상하고 접목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애. 실천하려고 하는 거지. 평등양육계약서나 돌잔치를 기부이벤트로 하는 거 그런 걸 엮어서 할 생각은 못 하지. 그래도 민우회 회원으로써 좀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자. 그게 맞으니까. 옳으니까.

□일단 민우회를 하면서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나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근자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거라 생각했다. 또래이거나. 근데 지나고 보니 20대도 많고 나와 나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똑똑한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희망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애낳고 나서야 여성주의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았는데 알고도 방향하는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철들었는데, 어찌나 똑똑한 여성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되면서 힘이 많이 되었고 세상이 희망적이었고, 그 힘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우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안해본 경험들을 하고, 연대의 즐거움을 많이 느꼈다. 민우회 오면서 부터는 경쟁이나 그런 것 없이 순수한 연대를 오랫동안 지속 할 수 있다는걸 경험했다.(T)

□아무래도 인식변화겠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성에 관련된 일이면 한 번 눈길이 가고, 구체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방향을 제시한 게 민우회죠. 예를 들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던져준다던지.(B)

□삶에 활력이 되는 거 같아. 직업적인 거 외에도 그 때는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재미있고, 사실은 나도 시민단체 활동가도 해볼까 생각을 처음에 했었다가 그 길을 접고 사회복지관에 들어온거라 회원활동을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학생신분에서 여성주의 공부를 하면서 좋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딱히 뭐 뭔가 활동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여성주의적으로 고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민우회라는 단체 회원이 되면서 소모임 활동을 하고, 하면서 학생 때 했던 고민들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MO)

□일단 처음에는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제가 민우회 가입할 때만 해도 운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해본적도 없었고 물론. 그랬는데 일단 여성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운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 혹은 내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여성운동이 잘 맞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업적 활동가를 미래의 꿈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건 돌려 말하면 그 정도로 여성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고, 또 그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나에게 여성주의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P)

□많이 달라졌조. 아예 여성주의이란 게 자체가 없었는데. 여자들이 살면서 여자들이 사는 게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그게 여자의 운명이다. 여성이 태어나서 살면서 이게 최악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바로서야.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이런 걸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나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여성학 교육을 받으면서 내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던 게. 여성학 교육받았던 거. 공부했던 거. 책 대 여섯 권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됐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알게 됐고,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달라졌어. 그렇죠.(H)

□민우회를 하게 되면서 쯤 그런 게 생기잖아요. 확실하게 이런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왜 그런 것 하느냐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인간관계도 원래 넓은 쪽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관계가 변했어요. 꼭 이런 활동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만 유지하게 되고 그래야 이런 것을 얘기해도 나 민우회 회원이다 라던지 그런

소모임 가고 싶다 이런 것을 얘기해도 아 그런 것이 있냐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말하기 편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인간관계 형성이 되버렸어요.(W)

□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들 관계가 달라졌어요. 집에서 학교 다닐 때도 운동을 했으니까 집에서 걱정을 했죠. 제가 이제 민우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했죠. 민우회라는 데는 출처가 분명하고 민우회는 대중운동을 표방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막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몸은 담고 있었지만 그 문화에 대해서는 싫어했었어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민우회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제기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감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가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죠. (V)

□ 소식지를 보면서 그달의 이슈를 보면서, 나도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나 여자로서 한번쯤 겪을 수 있는 낙태라든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소소하게나마 관심을 더 갖게 됐지. 식당여성노동자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나도 낙태경험이 있는데. 결혼 전에도 있었고 결혼 후 다 있었는데 그때는 더 지금보다 도 더 쉬웠을 때라서 오히려 지금이 더 못하게 하잖아, 그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지. (A)

□ 민우회 소식지,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그리고 참여 매달 보내주시는 거 받으면서 뭐 이럴 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J)

□ 회원이 된 후에요? 딱히.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 그냥. 그래도 매달 책자 오고 뭐 활동하는지 보고 그래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거는 그냥 잊지 말아야겠다.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Y)

□ 위안. 위안을 주는. 언니나,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나 엄마한테 뭐.. 받는 위안이랑, 가족 안에서 받는 위안이랑 그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사회, 외보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위안이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처음 위안을 준 게 민우회였고, 또 굉장한 경험인 것 같아요. <J>

□ 아, 여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이번에 낙태 문제도 있고. 희망버스 얘기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보다 보면 접하면서 바뀌는 거고. 성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생각하는 성폭력, 성희롱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성폭력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해졌다고는 할 수 있죠.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아니면 뉴스에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라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식지가 나오면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MG)

iii) 참여정도 및 만족도

□ 그래, 한 달에 한 번 했었나?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 재밌었던 것 같아. 초기에 누구 불러서 강의도 듣고 그랬어. 책 저자, 그리고 서울대 조교사건 있을 때 불러서 했었던 거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 우리 모임은 모임의 일보다는 애들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게 더(웃음) / 우리가 상담한다고 노동법도 했었잖아. TV 모니터는 쫓을 내고 노동법은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났던 거 같아. 모모 날이 한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재밌었어. 그리고 나는 민우회를 처음 온 날이 모모날이었어. (U)

□ 소모임 활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 그게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는데 아이들이 요일을 수시로 바꿔요 정말. 일주일에 네 번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는데 부담이 된다. 자주 못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아예 안 나가게 되었어요. 갔다 안갔다 하는 게 미안해서. 민우회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았고 민우회 활동가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시민단체 가보면 민우회 같이 참 다정하고 친근감 있는 단체가 없는 거 같아요. 마음 편하고 사람들도 참 좋고. 따뜻하더라. (G)

□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뭐랄까 프로젝트? 작업을 같이 할 때 좋은 건 내가 다 편집을 한다거나 그 전

까지 편집 안해 봤거든. 웹자보를 만들어본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완성도 있게. 내게 큰 경험이었어. 완성도도 그렇고 기회가 온 것도 그렇고.(MN)

□뭐 소소하게 재밌는 거는 깨알같은 재미. 가슴뛰고 이런거 붙이면 부담스러운데. 많지 하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거는 평등양육. 그런 거 할때 되게 쪽팔렸거든? 하하 그리고 예전에 그거 재밌었던 거. 감자캐기 체험. 자기방어 모임을 하는데 3개월을 한다는 거야. 내가 할 까 생각을 했지. 근데 알고 보니 단기모임이 아닌 걸세. 그렇게 해서 쪽.(D2)

□민우회가 굉장히 민주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 가부장적인 그런. 것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각이 잡혀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각이 잡히지 않고 너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 음 친구들이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또 30대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에.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우회 소모임을 하면서 단지 활동가와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회원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활동가하고 활동가가 아닌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니까 좀 다른 시각? 다양해지는 느낌?(D1)

□아무래도 초반에는 소모임 활동하는게 재미있고 해서 일단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거 같다. 열심히 하고, 여성주의 학교 간다나 그런 것도 하고. 그래도 3~4년은 열심히 한것 같다. 민우회가 평등에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했다. 민우회 이사간다고 하고, 콘서트를 할 때쯤부터는 저도 활동을 잘 안하고, 이사 가는 구나 정도의 관심이 떨어진것 같아. 그런거(노동교육-다이빙) 할 때 적절하게 지금의 쟁점들을 꼬집어내줄 때 어쨌든 사실 어느 순간 여성운동이 담론화가 약간 정체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아~이거 너무 필요했었는데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R)

□가장 가슴 뛰었던 것은 소모임보다는 기획단 활동이다. 특히 명랑성생활 기획단은 열정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그때 구성원들과 호흡이 잘 맞았다. 내안에 있는 창의력을 꼬집어 낼 수 있었고, 내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이 만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기획단 활동이 즐거웠다.(T)

□좋은여자는 천국에 가고 나쁜여자는 어디든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나쁜 여자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편한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더 친절한 페미니스트들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나도 좀 비슷한 거 같다. 언니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드세고 잘난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성주의 활동을 많이 쉬다가. 이제는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자체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편하게 다가온 단체가 민우회였을까? 그 쯤에 민우회 활동가를 알게 되었고. 일단은 사람이 참,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급진적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해야되자나? 회원들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고. 난 누가 봐도 여성주의자야 라고 보이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M)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게 존재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냥 여성주의에 호의적인 그런 남자 정도의 벽 이런 거? 내가 여성민우회 회원으로써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까? 나는 나 스스로 여성주의자로 얘기 할 수 있는가? 00이 전화로 나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 '민우회 활동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이었고, 그때 대답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실험해 보는 공간인거 같아.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민우회에서 보는 점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야 활동가들이 회원들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MO)

□딸이 둘인데. 엄마가 민우회 안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로 살았을 거 같다. 지금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지만 민우회를 안 나갔으면 그냥 나의 존재는 별로 없이 누구 엄마로 그냥 살았을 거 같애. 남편한테 기대고 물론 지금도 기대고 의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다르고. 민우회에서 배운 거 같아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민우회 활동하면서 괜찮은 여자구나. 지지를 받은 거. 그게 큰 거 같아

요.(Z)

□일단 세미나는 100%만족하고 있고요. 되게 필요로 했던 어. 책과 이론 그리고, 되게 듣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험이야기들도 되게 좋고. 음.그리고 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렵게 하지 않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도 쉬운 언어로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책은 되게 어려운데 참석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만족하고 항상 세미나를 하러 올 때면 기분이 좋아요.(P)

□민우회는 그게 매력인 거 같아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여놓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소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민우회는. 그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 생활 전반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힘들고 정신없고 그래요. 그것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쓰기 어려운 것도 있고. / 다방면으로 그 독특하게 재미있게 잘 하고 계셔서. 니즈(needs)를 잘 파악하는 거 같아요. 필요. 욕구. (B)

□해본 것은 소모임 밖에 없는데 그게 그거 할 때는 와서 같이 얘기하면 비슷한 생각가지고 하던 사람들이고 밖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공감 안해주고 비난도 하고. 근데 그런거 와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W)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식당노동자만큼이나 계산원도 힘들 거야. 한때는 백화점에 의자를 놓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안 놓이고 있고. <서서해요?> 응. 하루 종일 서 있지. 점심시간도 30분밖에 안 주고. (A)

□거기까지 하기는(잠시 생각하다가 주저하면서) 약간 겁도 나고. 아니면 내가 좀 바빴기도 했었고. 내가 그 때는 와이프가 자취하면서 내가 애를 케어했어야 했기도 했었고. 여유가 없었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나 시간적으로. (MG)

□민우회라는 조직이라는 특성이 회원들을 잘 챙기고 그러고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회원들의 의견이랑 이런걸 충분히 반영하고자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세미나라던가 소모임 같은것도 진행이 되면서 민우회 안에 회원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영향을 받았다가 영향을 주었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있게 보였고. (P)

□한 번도 못갔어요. 모든 후원하는 데에 여성환경연대는 기름 유출때문에 시위한 번 했었고. 거의 대부분 못가서 민우회만 못간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해요. 과외하고 학원아르바이트 하고. 성격도 원래 그렇고 막연히 불안한 것도 있고. 독립도 해보고 싶은데 집도 전세자금도 모아야 하고. 그러니까 정작 시간이. 8시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11시거든요. 6일 정도 그렇게 생활하니까. 일요일은 학원 알바하고. 5시에 칼퇴근 하고 집에 가는 게 한 달에 1번 있을까.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L)

□인상적이고 좋았던 게 주기적으로 신입회원들 모임들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 하시고 그 분들이랑 그런 것 했었거든요. 그 창조성 기르는 모임. 애니어그램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게 머니까. 아 이거 꼭 해야지 안하면 절대 안돼. 가게 되는데 아 하고 싶긴 한데 꼭 안해도 되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제가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비슷한 생각 하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조언도 얻게 되고 비슷하거나 유사한 고민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W)

□참여할 수 없는 거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바쁜 것도 있고. 너무 바쁘니까 민우회 사람들하고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 섭섭하지는 않고, 못하니까 미안하죠. 미안하다기 보다 못하고 있다. 아쉽다. / 민우창립 몇 주년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모이기 힘들어요. (V)

□그래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그거(재정사업)라도 갔었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도 직접 활동을 못하는건 먹고 사느라 바빠서. (Y)

□여성주의 학교, 소모임도 재미있었고, 총회는 좀 딱딱한 게 있었지만. 올해는 안가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민우회는 친목을 중요시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가면은 재미는 있는 거 같다. 그런데 내가 친목도가 떨어지니까 가기 힘든거 같아.(R)

표. 개인의 삶 이해

i) 주요 관심사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가는 분야는. 나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해. 내가 올해로 성당을 간지 딱 10년, 내년에 세례를 받은 지가 10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건 일주일에 한번 미사한거 말고는 없어서. 조금씩 뭔가 하긴 했지만.. (U)

□없어요. 아 1달에 1번하는 독서모임. 환경관련 책 읽는 모임이에요.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뭘 더 하고 싶냐면 자기계발을 더 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거. 악기. 기타라도. (L)

□그건 아이. 아이한테 거의 대부분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우고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낼까. 애가 지금 일곱 살이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저녁을 저희 식구가 다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나 해볼까 해서 운동도 좋아하지만 악기도 하나 배워볼까 하는데. 그런 쪽?(MG)

□성폭력, 성매매문제에도 요즘에 관심이 생겼다. 요즘은 트윗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친구는 반성매매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성 노동하니까 상충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요. 그니까. 그렇죠. / 아, 요즘엔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2009년에 집을 나와서 혼자 살거든요. 부모님이 계시기는 해도 돈을 막 받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다 벌어서 써요. 월세도 아무래도 비싸고 하는데 근데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그게 신경 쓰이고. 이번달 안에도 또 이사를 가야하거든요. 혼자 밥먹고 혼자 잘 사는데 가장 큰 관심사. 안정된 주거환경. 아유, 취직은 언제하나.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거든요. 서비스업, 빵집, 레스토랑, 편의점 정말 다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서비스 업종은 정말 힘들기도 하고. 제 나이가 정말 취직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요.(G)

□사람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럴 때 민우회 활동도 해보고 이쪽 방향으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니까 내가 내 안에 많이 갇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빨리 캐치해서 내 의도를 효과적으로 내서 좋은 결론에 이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D1)

□일본만화 매니아가 생겨서 그 사람이 만화책을 공수해주고 있어서 요즘 일본만화를 많이 보고 있다. 장르 상관없이 많이 보고 있다. 저는 원래 만화책을 즐겨 봤었어서 많이 보고 이싸. 지금 막 하고 싶은 거는 미술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배우고 싶다.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에서 미술탐을 꾸린다고 해서 호시탐탐 그것을 노리고 있다. 같이 해볼려고 하고 있다. 치유 쪽인가? 치유 쪽은 작년에 관심이 있어서 독서치유 2급과정을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건 여전히 하고 싶기는 한데 공부해야 할 게 많아서 잠깐 쉬고 있고.(R)

□글쎄 요즘에 주로 하는거는 어떤 발랄한 상상력들을 궁금해 하는 것 같다. 드라마, 책. 웹툰도 상상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본다. 요즘에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서 인지 뭔가 발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뭔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일을 할 때 그런것들을 자원삼아서 하고 싶기도 해.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필요하기도 하다. 엄청 창의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을 해야한다. 창의적인 것을 봤을 때에 영감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을 받기도 한다. 드라마, 책 등을 통해 다른 인생들을 볼 때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그런식으로 에너지를 채우게 된다. 관계도 서로 창의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T)

□지금은 좀 비관적인 상태인데 너무나 이슈들이 많고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뭘할 수 있을까랑 뭐가 그리고 왜 뭐라 그래야하지? 되게 정작 좀 감수성을 가지고 신경써야 할 사람들은 그런 거

에 인식이 전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슈들을 다 끌어 안고 괴로워하면서 그니까 뉴스를 봐도 너무 우울 하고 신문이나 주위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해야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그 몇가지 많은 일들을 몇사람 만이 다 정말. 지금은 그게 극복이 안되고 사실 요즘 좀 우울해.(M)

□꽃혀있는 일? 일단은 지금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결혼. 결혼을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B)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 쪽인데 그쪽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요. 주민조직화 이런 쪽? 지역복지 뭐 이런쪽 얘기하면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MO)

□남편과 잘 지내기. 예전에는 남편이 그냥 흥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돈 벌어주는 사람,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애들도 크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살아가려면 남편하고 잘 지내야지 내 생활이 편안하겠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남편하고 잘 지내기가 나의 목표예요. 성교육하면서 주로 엄마들, 부모교육도 하는데 어른들끼리 만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재미있고. <성교육 강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 직업은 아니고 그냥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이라 말하기엔 싫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이 주는 이미지가 조금 착한 이미지인거 같아서 봉사활동으로 섣뚱 말하기 그런거죠. 짜투리 시간에 한다든지 시간 보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어요.(Z)

□개강하고 나서 2학기 때부터 집중을 하고 싶은 활동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학모임 활동이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사진관 활동이라던가 민우회 자원활동들에 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었는데.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학모임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학생들이 모인 활동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차별금지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P)

□지금 내가 작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강의교육 강사를 했어요. 그 과정을 하고 지금 올해 양성평등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양성평등이 미디어와 중요하기도 하고, 같이,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매매, 성희롱, 아동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모두다 관심이 있고.(H)

□애들이지 뭐. 이혼하고 자주 못 보니까 관심이 가지. 딱 지금 중3, 중1,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그럼, 주말마다 봐요?> 아니, 이렇게 쉬는 날 보고, 집에 가서 보지.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그 또래 애들이 온다. 그러면 관심이 가고 티비에서 무슨 성폭행을 당했느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친족 간 성폭력 그런 뉴스를 보면 설마 우리 애들 아빠는 그러지 않겠지,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A)

□인제 이주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저의 최대 관심사는 그 분들과의 소통? 소통하는 거? 그런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분들 이야기를 좀 잘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분들과 계속 같이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례적인 행사만 뭐 그런 거 한번 하면 빨리빨리 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랑은 다른 어떤 사업도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분들의 가족모임 같은 거에도 그런 어떻게든 어떤 역할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 그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제 최대 관심사 (J)

□저의 최근 관심사는, 웰다잉 사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어떻게 잘 죽을지를 걱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관심사는 웰다잉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잘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잘 즐기고 경험하면서 살아야겠다. 요즘 정토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다고 해야 하나?(V)

□관심이라기 보다는 학업이지 뭐. 지금 말하자면 사회복지, 아동상담 이런 쪽 공부를 하고 있지. /왜 그러냐면.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모르는게 많았더라고.(U)

□늦된 아이 엄마로서 요즘 교육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지 않잖아. 그리고 아이도 그렇고. 또 맞는 애들이 또 맨날 맞잖아. 한 번 찍히면 잘못된 것도 없는 데 맨날 맞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녀석이 될

거라고 예상되니까 겁나고 불안한거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하하하.(D2)

□지금 찾고 있어요. 드는 생각이 뭐랄까.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가 막 돌아가니까 활동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누구 만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나면 책 읽고 딱히 없는 거 같아요. (L)

□옛날에도 좀 그랬는데 좀 떨어져 있다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거기서 일하신다고 하는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서 항상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몇 개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 하고 있죠. 일년에 한번씩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 이런거. / 거기는 늘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시간 있을 때, 회사가 옮겨 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해요. 특별한 날 가서 하는 거?크리스마스나 그런 때 가서 하는거? 그리고 이제 일년에 한번씩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에 가고. (V)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전 문학전공자거든요. 문학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런 단체 활동하다 보면 희석되는 부분. 요새는 고민을 하긴 해요. 앞으로 방향이나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저는 싱글이니까. 현재 뭐 부대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이 정리가 된 셈 이죠. (K)

□우리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작년에 자기 학교 안다녔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를 안가면 어떻게 해 나는 기성세대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졸업을 해야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학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는 꼭 가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애는 학교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게 하나도 없대. 차라리 학원에 가서 배울거 다 배우고. 학교에서 무슨 인성교육을 해. 이런식의 이런게 무슨 인성교육이야. 불편한 교복입고 가서 앉아서. 머리 규제있고, 애네학교는 그게 되게 심해서. 치마도 무릎 아래로 내려오게 입으라 하니까 불만이고. 머리로 단발머리여야 한다 그것도 화가나고, 귀 밑 몇센치 그런것도 불만인데. 제 시간에 가가지고 끝날때까지 그리고 앉아있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우리 아이 한 아이만의 불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나는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애 의견을 동의해요. 아이들에 학교가 벌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맘에 안드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초중고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난 학교별로 불만도 많고. 가슴앓이를 해야하는거야. 이런 문제들을 풀데가 없어. 너무 답답한 것 같아. (H)

ii) 사회활동 욕구

□배우고 싶은 거는 없고. 민우회에 연극하는 거가 생겼다면서? 연극부가? /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안 맞잖아.(A)

□해외여행정도?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으니까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보고 싶다. 나는 여행을 자주 가지 않아도 충전을 이제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거 같다. 굳이 여행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갔던 곳을 오랫동안 잘 활용 할 수 있다.(T)

□저는 여성학 대학원을 진짜 가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사회학이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 경제적인 것도 있고 이게 약간 나이 때문에 시작하기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뭔가 요즘에는 활동을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학원 들어가는 거는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영어를 배우는 거는 꼭 하고 싶어서 뭘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R)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랄까. 저는 남들처럼 전문직에 대한 생각이 옛날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회사 가서. 흔히 말하는 커리어우먼에 대한 환상. 그래서 그 길로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직

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는 있는데. 대신에 이직할 때가 어려운거죠.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고 싶은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 요즘 여행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전에도 대학원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어떤 걸 전공하고 공부해야 될지 막막했거든요.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한번 해볼까.(D1)

□ <다른 직업에 대한 욕구는?>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남편이 돈을 벌면 열심히 쓰자. (웃음)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남편 퇴직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거 써야되지 않나. 쓰려고 해요. <결혼 하면서 경제활동 안하고 포기? 꿈이 있었을텐데 뭐가 포기되었나?> 남편에 의해 많이 좌우된 거 같아요.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해서 집에 안계신 거에 대한 게 컸어.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의예요. 그냥 남편에게 순응했달까. <나름 사회활동은 활발히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없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했던 거 같은데? 낮 시간 동안에, 어쨌든 남자들은 일을 하니까. 제가 일 하는 것에도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거나. 그런 여건들이 그런거지.(Z)

□ 어디 애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애들을 즐겁게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그때 진보넷을 쳤는데 성공회에서 하는 나눔의 집이 뜬거야. 다문화 공부방이 났는데. 관리해주고 프로그램 기획도 해주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거야. 대부분 그런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요구를 안하는거야. 나는 사실 나이도 많고 자격도 없고 한데. 무심결에 봤는데 거기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은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하고 가까운거야. / 내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일을 시작한거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는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거야. 내가 너무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민우회에서 했던 일이 사회복지 쪽 일을 한거긴 해. 상담도 여성상담하고 취업알선 이런거를 했지만. 큰 틀에서는 같지만 분야가 다르잖아. 거기서는 여성 쪽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리고 자활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사회복지를 광범위하게 하는 조직이었던거지. / 생각해봐.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야.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영업 이외에는 없어. 아니면 설거지해야 된다? (U)

□ 애기 낳기 전만해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 취미나 아니면 관심가는거를 못하는거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런거 같아요. 뭐 그냥 애기 낳기 전 제 시간있을 때는 영화 좋아해서 영화제 가고 자주 가서 영화 보고 그런거 하고. 신랑이랑 여행가던지. 그런거 다 없고. 아니면 하다못해 친구들이 뭐가 있다고 할 때 민우회에서 뭐가 있다고 할 때. 좀 한가할 때는 보기 편했겠죠. 친구랑 연락해서 가서 봤죠. (Y)

□ 공부를 더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게 큰 거 같아요. <일하는 이유는 돈?> 돈도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에서 버는 거 하고 여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세금때면 비슷해요. 돈은 여기서는 벌겠어요. 그런데 좀. 회의를 해도 한 마디도 못해요. 아 저 일을 해야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지. 무슨 얘기를 해도 소통이 되는 기분은 안들어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다보니까 영어는 늘겠지만 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회의가 일이 전달되는 거지. 내 의견을 묻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엔지오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어디에 정을 붙이고 내가 배울걸 활용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 끝나고 뭘할지는 모르겠어요. (L)

□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갔던 대학원에 실망을 많이 해서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대안을 찾고 있는데 대안으로 생각한게 일본어를 전공이 역사라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했는데 영어랑은 다르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게 그러랑 여성학 대학원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학쪽 보다는 번역쪽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게 해봐야 겠다..생각을 했는데 그쪽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W)

□ 다른 일이라. 어쨌든 다른 일은 누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창업. 뜻맞는 사람들 한다거나. 혼자서 한다거나. 모르겠다. 한번은 해보고 싶기 해. 지금은 매출 5년

을 잡는 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니까. 쪽 놀 수는 없잖아. 와플가게? 하하하. 사실 오늘도 너랑 비 안오면 와플가게 가려고 했는데. 터가 되게작아. 장사가 대박이거든. 그걸 보고 아 나도 와플인가? 하하하 (S)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은 제가 어디 고용된적은 딱 한번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봤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수업을 한 11시쯤에 잡아 놓고,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일을 한 4~5시간 하고 바로 학교가서 수업을 듣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매우 금방 지쳤고, 그리고 힘든만큼 너무 돈을 벌수가 없었고 그래서 금방 그만뒀고요. 그 외에서는 재밌는데 운동단체들에서 저를 조금씩 먹여살려주고 있어요(웃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가끔씩 예전에 여성회의도 그렇고 언니네트워크 행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사진 알바를 하는거죠. 그게 주어진다면 그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돈을 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민우회에서도 감사하게도 녹취를 풀고 나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용돈을 삼아서.(P)

□ 시민단체 쪽일 수도 있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이나, 평생학습쪽에서 나하고 같이 일해보자는 사람도 있어서 평생학습쪽 공부해볼까? (MO)

iii) 과거의 활동 경험

□그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민우회가입을 할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그때 활동을 막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들어간 단체는 여성이슈나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변호사 모임이다 보니까 다르게 접근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슈에 관점이 가기보다 다 하는 단체였다.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맡는 위원들이 있기는 했는데 여성인권위원회를 맡고는 있었지만 법률적 접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는 법률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랐던거 같고 인권적 접근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검색해서 혼자 찾아갔던거 같다. 신입회원 모임을 했을 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R)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일일일 비위 맞추기가 힘들어. 하루에 600, 500정도 오고 돈도 3,400가량 관리를 해야하니까. 정산해서 돈 마이너스 나면 그 돈을 월급에서 제하거든. <여러가지 일을 했잖아. 과거의 일을 한 것 중에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예요?> 파출부도 다녀봤고, 룸메이드도 하고 야쿠르트아줌마도 해봤는데 <뭐가 제일 안 좋았어요?> 다 최저의 노동인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적다는 거. 호텔일도 그렇고 야쿠르트 아줌마도 그렇고 눈 비오면 다 맞으면서 배달하고 서 있어야 하고. 파출부 일도 식당으로 다니니까 초보니까 설거지만 하게 되니까 힘들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계산원은 처음에는 일이 서투르니까 일방적인 해고를 많이 당했어. 3-4개월 있다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 구했다고 한다거나. 일이 느리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마트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 (A)

□처음에는 상근을 했나? 상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때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 1년정도. 선배언니들이 워낙 학생운동하다가. 언니들이 간부들을 하고 저는 그냥 간사를 했죠. 잠깐 자원활동식으로 하면서. (V)

□다른지역에서 생활해 본적이 없다가 남편과 헤어진 후로 공간을 분리해야했다. 같은 전교조고, 항상 같이 있어서 분리될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시내에서 살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가 성미산마을 근처에 살았다. 사실 성미산마을에 관심이 있어서 이사오게 되었다.(T)

□나는 전도당했어. 쌤이 여기서 신입모임을 먼저 했고, 그 신입모임하면 나보다 한 기수 선배고 쌤이 나랑 여학생 운동 같이 했었거든 학교때. 그래서 개가 먼저 회원가입하고 신입모임 하고 재밌다. 야 너도 해라 민우회에서 같이 만나자. / 근데 나는 되게 민우회가 중장년층 이미지가 있어서. 그리고 신입모임도 해야 한다. 그때는 진입장벽도 높았어. 원래 소모임활동을 하려면 신입모임을 반드시 했어야 했잖

아. 그때는 그래서 신입모임을 하니까. 말이 약간 좀 거시기 한거야. 내가 왜 신입이야? 나 여학생운동도 하고 경력자인데. 하하하. 신입모임 삼개월 길었지. 12주코스. 구로시민센터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회원가입도 하고 그랬어. 가입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민우회랑 다르더라고. 인력도 많지 않아서 그런부분도 있는데, 회원을 잘 못챙기고 회원 관련한. 사업 나뉘서 하고 그런게 없는 거 같애. 그래서 내가 소식지나 이메일 소식지 달라 그랬더니 이메일 보내도 답이 없는거야. (D2)

Ⅲ. 여성으로서의 삶 이해

i) 여성으로서의 어려움

□친척들 만날 때 불편하다. 명절 때 아버지쪽 친척집에 가야하는 상황이 너무 싫다. 친척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싫다. 내가 혼자 살다보니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를 할 때 너무 싫다.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팔려가는 기분이다. 단식하는 사람에게 나더러 죽을 전달하라 그랬을 때에도 마치 내가 전시되는 기분이었어서 싫었던거다. 근데 남자들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절대로 이해를 못하더라. / 다 남자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특히 최근에 또 생각을 하게 되게, 제가 혼자 살잖아요. 인터넷에서 언니들이 혼자산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변에 혼자산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자들한테만 얘기 하는데. 그 막 여자가 혼자 산다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심지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고.(G)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는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밤에 돌아다니는게 위축되거나 어두운 밤길에 남자가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택시를 밤늦게 타게되면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느낄 때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거는 내가 여자라서 불편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회사가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회사다보니까 눈치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커피 타는 문제나 그런 것도 지금은 안하고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 순간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의식적으로 안하려고 하지만 안한다고 내가 맘이 편한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아직은 좀 힘든 거 같아요.(D1)

□여자라서 혼자 사니까 늘 그런 공포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포랑 뭔가 수리를 할 게 생기면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수리를 해주는 기술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왜 기사에서 왜 우편물을 봐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하거나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무서운거예요. 모든 우편물을 사무실로 오게 하거나 이런 것도 생기는거 있거든요. 받거나 이런거 웬만하면 사무실로 오게하고 여자라서 많이 느끼는 불편은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은 그런 일상의 공포인 것 같고(R)

□여자라는 질문은 사실 너무 식상한거 같고. 내가 여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받는 어떤 억울함 분노 보다는 내가 여자면서 레즈비언, 여자면서 돈을 못 번다거나, 여자면서 어리다거나 이렇게 다른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거 같아. 사실 뭐 회사에서도 여자, 남자 이게 아니라 거기서 사실 고졸, 대졸이 대결이 더 컸고. 나는 여자면서 대졸인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면서 고졸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었고 남자면서 고졸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긴 한데. 뭐 또 마찬가지로 여자여서 그렇다기 보다는 요새 자꾸 내가 좀 비주류, 주류 이렇게 나뉘서 보는게 있어서 그런데 주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얻는 비혼이라는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도 주류의 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숨겨야 하고, 차별받아야 하고, '네가 선택한거니까 그런 불이익은 감당해야해'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는데 결혼을 일찍하면 임대주택을 더 빨리 준다는(웃음)그런걸 볼 때 마다 내가 진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M)

□일단 택시타기 무섭고, 사회 환경적인. 범죄 노출될 수 있다. / 뭐 직장에서도 특히나 결혼 안했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맘마미아 뮤지컬 보러 간대. 근데 배우자 동반 가능하다는 거야.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하라는 거야. 나는 그럼 아무 기회도 없잖아. 기왕이면 기회를 줄

거면 특히 이거는 소외되는 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가족 일인 아니라도 동반 일인 가능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 챙겨주거든. 지금은 안하는데 예전에 했었어. 그럼 안한 사람은 좀 그렇잖아. 좀 서운 했는데, 회사가 그냥 이런 차원까지 배려하는 구나 했는데. 이것 까지 이러니까 성질 나더라고. 비난은 안하고 참았어.(S)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거. 사람으로서. 제일 그런 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한다는 거. 그게 조금 내가 여자기때문에 그런 거 같고. 내가 경제활동을 안해서 부딪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좀 좁아진다고 해야 하나. 싫은 사람 안만나고. 여자기 때문에 즐기는 것도 많으니까.(Z)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들에 여자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있을때도 변호사를 하면 보통 남자를 떠올리고, '여자변호사','여자가수','여자기자'항상 여자라는 타이틀이 붙는데. 그 타이틀이 붙는다는건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는거 같아요. 그래서 음..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게 신경 쓰일 때가 있는거 같고 음..만약에 일반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끝도 없이 신경을 쓸거 같아요.(P)

□특히 그 억울함을 느낄때가 언젠가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가족안에서 나는 애들 셋을 다 애기 다 들어줘야하고. 애들 사춘기이기 때문에 애들 눈치도 봐야하고. 그리고 그걸 보듬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지 기분대로 하는거야. 나는 지네집 대소사 생신이나다 챙기는데, 지는 우리집 하나도 모를때. 거기다 내가 자기네 조상이랑 더 가깝다고 느껴질 때. 나는 자기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돈번다는 이유로. / 운전을 하고 나가면 이게 딱 다. 여자가 운전하면 배려가 없어 인간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뭐, 이런 표정이라. 차안에서 이 개자식아. 안됐다. 너도 평생 그러고나 살아라. 그렇게 나 혼자 하는 공허한 메아리를.(H)

□아 그런거 제가 29이잖아요. 내년이 서른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주더라구요.. 여자나이 29 힘들다고. 근데 남자나이 29이 힘들다고는 안하잖아요. 옆에 있는 친한 남자친구들이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올해 잘 보내야 한다고. 그럴 때나 집에서 빨리 시집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W)

□우리집 부엌은 각종집에서 온 여자들이 빠글빠글. 막 음식 차릴 때는 많이 모여들지. 준비는 어머니랑 나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파업을 할 수가 없어. 하면 어머니가 다 짊어 지어야 하고. 그리고 말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나는 완전 애기. 말단이고. 시다바리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나를 조롱하지. 야 너는 거기서 안한다더니 그러냐. 엄마도 나름 딸만 있고, 아들내미 하나 있고. 그런 건 좀 잘 안되지. / 요즘 좀만 부잡스러우면 에이디에이치 진단 내려주고 약 딱 먹인다. 이걸 내가 좀 무식한 애기일지 모르겠는데. 정보나 그런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산업이고 하니까. 그니까 정말 내 친구가 그래. 조금 산만해 보이기는 해. 그리고 툭툭하고 그냥 에너지가 좀 많은 애. 근데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야. 본인이 케어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갔더니 바로 약먹이자. 그래. 평평 울고 그랬데. 사회가 안 봐주는 거지. 안 기다려 주는 거지. (D2)

□계약직이지. 1년 계약직. 요즘 다 그렇게 하나봐. 계약직이지만 찢려본 적은 한번도 없다. 말이 그렇지, 자기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는거지. / 고용불안? 삶이 늘 불안하지. 고용도 늘 불안한데. 안정적인건 없어. 안정적인건 없는데. 어떻게 또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여지껏 안 놀고 살았잖아. 내가 더 젊을 때는 그런 불안이 없었어. 뭐든지 하면 되지. 정말 안되면 학습지 교사라도 한대라고 생각하면. 굶어야 죽겠어? 그럼 뭐가 불안해. 애도 없는데. 아프지 않은 이상에는 할 일이 없다는건 말이 안돼. (U)

□차별은 없는 세대에서 살아왔으니까 저는 오히려 남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공고가겠다고 해서 공가고 우리는 제 언니도 그렇고 대학가고 싶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없는 살림에 대학을 가게 하고 이런 정도는 되는 시대에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크게 못느꼈고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거든요 딱히 비교 대상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직장 들어오니까 그게 드러나게 될 때? 많이 느끼고 오늘 아침에는 여자라서라기 보다는 싱글이라서 열받았을때 임대주택. 결혼 일찍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기사가 딱 난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나(웃음) 지금은 어쨌든 활동하고 나서는 분명히 어떻게든 남성 여성 이런 문제는(잠시 생각하다가)아, 집에 가면 느끼는구나 이제는 어쨌든 결혼 적령기를 지난 여자인거자나요. 집안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끝없는 연민과 동정으로 보신다고나 할까? 너 늙어서 어떡할거니. (R)

□남자들의 연대들 속에서 뚫고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안쥬. 명목상으로는 운영위원으로 넣지만 중요한

건 남자들끼리.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편한 방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뒤풀이 가더라도 술마시는 것도 남성들 중심이고. 여자들끼리 차 마시니까 너무 어색해하더라고요. (K)

□ 다쇼.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 누가 정말 일년에 며칠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편이거든요. 살림은 요리만 못해서 저보고 하다 그러고. 요리는 전혀 못해서 저보고 하라 그러는데, 청소, 정리, 빨래 뭐 힘드는 거는 다 자기가 하고 애도 같이 많이 봐주려고 하고. 근데 본인도 워낙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니까 늘 지쳐서 쉴어 있으니까 쓰러져 자니까 시키면서도 미안하고. 좋아서는 하는데 그래도 힘든거 같아요. 엄마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는 모유 수유하거나. 애 우유 먹이거나 안고 있거나 엄마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출산을 대신할 수도 없는거고. 아무래도 여자가 그런 면에서 힘든 거 같아요. (Y)

□ 여기는 하나같이 남자가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되고. 이 사람들의 의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남자는 원래 그런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이런거나.. 늦게 들어오지마라.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구. 학교다니면 늦게 다닐 수도 있는건데. 지지배가 늦게 다닌다 이런 말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구.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구. 남편이란 인간이 아빠보다 더 하네. 흐흐흐. 어디간다 그러면 자기가 같이 가야하는거야. 숨막히게 하네. 그런거. 그런거랑. 암튼 살면서 참 불공평하더라고 느껴지는건 너무나 많아요. 그 운전할땐. 실제로 남자들이 여성 운전자 되게 많이 무시하고. 일찍 결혼한 친구들끼리 결혼 초반에 전화통화를 하면 서로 울기 바빴다.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그런거더라고 하고 결혼 안한 친구들은 모르고. 결혼을 하면서 다 바뀐다. 스스로가 합리화 시키는 친구들이 생긴다.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점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진다.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하는 관계들과 얘기하고. 예전친구는 예전친구같지 않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거 같다. 그 분들이 능력자 들이 많다. 애놓고 키우고 그러는게 쉬운게 아니다. 못하는게 없다. 두려운게 없어. 일에 대해서. 그 만큼 일을 해야 가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당백을 하는거지. (T)

ii) 고민 해소 통로

□와이프랑 제일 많이 얘기하고. 애들 친구 아빠들하고 가끔 만나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와이프랑 가장 많이 얘기를 하쇼.(MG)

□친구나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긴적은 없다. 당사자에게 말을 한적은 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별로였다. / 민우회 사람들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 할 수 있을지 물어봤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조언을 받아도 내 상황에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도 좋은 조언을 받아서 좋았다. 그래도 생각이 굳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G)

□저는 주로 친구들하고 나눈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좀 다른 데 혼자 잘 살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도움을 많이 얻어서 한 7,8년 전 상황부터는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몇 친구들하고 많은 걸 공유하면서 지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주 소규모인데.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들. 거의 많은 도움이 되었죠. 동생이나 언니가 있긴 한데 지금은 좀 더 관계가 좋긴 한데 진짜로 완전히 공유하는 건 안되더라고. 각자 삶이 있으니까. 이 쪽에 일하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고.(K)

□보통 고민이 생기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잘 안하니까 그래도 엄마랑은 좀 화해를 해서 가끔 얘기를 하구요 그런데 빈도수는 진짜 낮아요. 맨날 만나는 남자친구랑 많이 하구요. 회사에서는 00씨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 내부 일은 동료00씨가 많이 아니까 공감도 할 수 있고(D1)

□일상사의 고민은 동생이랑?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불교회관 언니들. 불교회관에서 뭐 방과후 학교

를 같이 한다거나 우리끼리 좋은 책을 사서 읽어본다거나.(B)

□가정문제는 남편하고 얘기하려고 하고요. 예전 같으면 나가서 흥을 본다든지.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 푸는 수다 같은 거는 뭐 모임 정도 있죠. 친한 친구들? 민우회 친구들? 아이들 유치원 동창 엄마들.(Z)

□ <모임 나가시는건 있으세요?> 지금은 없죠 뭐. <그 여고동창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편이세요?> 자주 모이죠. 아무리 바빠도 오래는 못봐도 저녁에 잠깐 모여서 서너명이든 몇 명이든 모여서 간단히 밥먹고 차마시면서 다들 술을 못마셔서 밥먹고 차마시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거 힘든거 있다고 얘기하고. (Y)

□ 비슷한 또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생각이 약간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민우회 회원이에요 그냥. 나 믿고 들어온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가끔씩 만나서 이런저런 개탄만 하고, 정답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잠시 풀고.(H)

IV. 지역 이해

i) 지역 삶의 질 욕구

□뭐 한 달에 한 번 날아와요. 우장산, 강서 소식.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썩 많지는 않아요. 바빠서. /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 그런거 같아요. 좀.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편협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게 아니라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면 되는데. 빨리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정직한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MG)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은 없다. 소식에도 관심 없고.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사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경쟁하고 있지 않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G)

□꿈꾸는 건 경쟁없는 사회. 경쟁없이 사는 사회. 경쟁 안해도 사는 사회.(MN)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제가 지역 기반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체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웃음) 혼자 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그 지역에서 약간. 제3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D1)

□ 두레생협 이용하고, 되살림가게 이용하는 정도다. 성미산 마을 소식에 관심은 있다. 대부분 모임들이 낮에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아직은 낮설다.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민우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덜하다. 두레생협 앞에 붙어 있는 홍보지를 통해서 소식을 접한다.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오는 문자로도 알 수 있다.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은 성미산마을극장에서 하는 행사이다.(T)

□지역신문 이런거 오면은 열심히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포구 주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신문에 난 걸로는 거의 다 육아공동체나 가족기반에서 하는 사람들인거 같아. 나랑은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외에 뭐 마레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하고 있지)(M)

□여자 혼자 살기에. 이거는 좀 바뀌기 힘든데, 집세가 너무 비싸요.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어서 그리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곳만 싸잖아요. 여자가 살기에 치안도 그렇고, (고려할 것도 많은 데) 집 자체에 뭔가 공기나 채광이나 안좋고 이웃도 신뢰하기 힘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는 싼데 그렇지 않은데는 다 비싸잖아요.(W)

□집 앞에 있던 문화정보센터가 불이 나서 공사 중인데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 5층짜리 건물인데 그냥 타버렸다. 이메일도 확인하고 책도 빌렸는데 그게 빨리 복구가 돼서 다시 이용했으면 좋겠어. 꽤 컸는데. (A)

□<이 근처에서도 모임이 있어요?> 분당에 없어요. 이사온지 3년뿐이 안되가지고. 안하려고 하죠. 왜냐 하면 노원에 있을 때 상담일을 오래 했어요. 힘들었어요. 사람들 만나게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는 게 힘들었던 거 같애. 성당에서 무슨 일을 하면 보여지는 게 많잖아요. 여기와서 자유로워졌어요. <주거지역이 일터랑 분리되는거?> 응 분리됐지.(Z)

□관심이 있고 가질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당사자성이라는걸 느끼기가 저는 만약 주인 아주머니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올리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당사자성이 안 생기는거예요. 지역에 대게 큰 이슈고 막 찾아가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보면 재개발지역이 확정이 되면서 플랭카드가 아침에 붙은 건설회사랑 내가 집에 갈 때 붙은 건설회사랑 달랐고 너무나 쉽게 철거가 됐고 뭔가 이렇게 격변들이 있어야 눈여겨보고 만약 언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떠나겠지? 이런 마음을 살짝 갖는 정도?(R)

□나는 여기 국회의원이 아주 기분나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별로 관심없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더 밥맛이 떨어져서. 관심없어. 그냥 내가 사는 곳이야 그냥. 내가 여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H)

□부암동은 아니고 하하하 그 위에 있는데. 진짜 네 산골, 공기는 정말 좋아요. 살기에는 공기는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밤길.. 버스 내리면 많이 어둡거든요. 어둡고 불도 많이 안들어와 있어서 내리자마자 뛰어 올라 간다거나 종종 그래요. 겁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 예전에 뭐지 여성 안심 귀가 해서 그 정류장을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내리게했나 그랬거든요. 저는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내리는 곳 하고는 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면은 주변에 전등이나 가로등을 잘 해놔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거 하나도 없고 정류장만 딱 하니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J)

□고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아, 우리 동네에 있는 지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용도 안하는 지하도인데 지하도 공사를 한거야. 대리석에 그림있는 타일도 붙였어. 내가 볼때는 그 지하도 없애야 돼. 그런데 그 지하도를 9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거야. 어느 날 보니까. 그쪽 버스 정류장에 가로수는 다 뽑혀있는거야. 내가 인터넷으로 구청에 문의를 했지. 그러고는 올린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거야. 그러다 생각이 나서 들어갔더니 중앙차로제를 한다는거야. 인도를 좁히고 도로를 넓혀야 되니까 가로수를 뽑아야 된다는거야. 그럼 중앙차로제를 하면 건널목이 생기잖아. 그럼 그 지하도를 왜 공사하냐고. 필요가 없잖아. (U)

□난 살다 보니 정도 들고 재래시장도 있고 정불이고 살 다보니까 자기 동네가 되는 거지. 조선족이나 그런 사람들 아침 저녁 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친근한 느낌. 내가 마이너라서 그런가봐. 그런 감성이 있어서 그런가. 나는 실제로 정불이고 살고 정도 들었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속상한거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자기네 스스로도 자존감도 낮은 것 같고.(D2)

□지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적이 사실은 없고. 없는데 가끔씩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되게 가까운데 한강에 갔는데 공사중이다. 죄다 파헤쳐놨다라고 했을 때 그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무상급식 때문에 투표한다고 시끄럽잖아요. 그런플랭카드가 여기저기 걸려져 있는 걸 볼 때 그런걸 보면 그런 큼지막한 걸 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그거 외에 지역과 관련된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는 곳이 굉장히 변화가 인거 같아요. 제가 살고있는 곳으로부터 대단히 넓은 반경안이 전부다 아파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역이슈가 생긴다거나 그게 주민들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슈나 이야기 거리가 생기는거 같지는 않고 그냥 거의다 아파트이고. 그냥 뭐 학원 전단지 같은거나 여기저기 붙어져 있는 동네인거 같아요. (P)

ii) 해결 방법

□여성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수다가 아니고 지역문제 같은 것들. 민우회 아니었으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만 했을텐데 민우회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센터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민우회에서 했던 운동들 많잖아요. 쓰레기 말리기.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는 하고 있지만. 부녀회 이런 데서 조금 체계적으로 교육이 있다던가 이런 거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같아요. 부녀회도 많은데 의식이 그래서 그렇지. 아파트 값 담합 이런 건 잘하는데 실생활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잘하면 좋은데. 시민교육이 없으니까 내 애만 생각하고. 시민교육이 널리 보급되면.(Z)

□슬프고 외롭고 나이 많고 자원 없는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뭔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과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는 할 수 있도록 엮어 주는 일들을 기획하고 싶다.(T)

□정말 상상인데 많이 섞여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 어떤 동은 그게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은 강남 뭐. 너무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생각. 내가 도시를 계획하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도시 한 가운데 두고. 이게 문제구나 라고 보게 만들거야. 안보이니까. 좀 가시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K)

□주민들의 소통을 좀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옛날에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시골에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저 사람이 잘 알아, 그거는 저 사람을 찾아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그만큼 동네주민들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가 잘 알고. 그런 주민들 간의 어떤 연대? 일상의 연대? 그런 것들을 꿈꿔요.(MO)

□여자들끼리 살면서 네트워크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사는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해서 음식도 같이 해먹고. 동네에서 네트워크 생기면 좋지 않나. 아무래도 나이를 더 먹으면, 결혼하는 친구도 생기고, 동네에 친한 여자들끼리 살면 갑자기 누구랑 만나고 싶을 대라던지 술한잔 마시기 그렇잖아요. 갑자기 하고 싶을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W)

□구로 민중의 집 칠월 달에 개소한대나? 유월달쯤에 강연 가고 그랬었는데, 구로에 민중의 집이 생겨서 좀 지역에서 육아나 내지는 정치하고 일상하고 생활하고 접목해서 다양한 그런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홍세화씨 강연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강연 중에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애. 단체가 교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하하하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든지 교회를 본 받으라고 말하고 싶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예쁜 멋진 옷을 입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이유가 단지 예수를 믿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큰 가치랑 맞아 떨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지.(D2)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모여서 힘이 되고, 그런데 어딜가나 항상 소수자가 생기는 것 같다. 시민단체 운동권에서도 페미니즘이 소수자이지 않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신경 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건 위험한 것 같다.(G)

□여자들이 가진 자원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공유해서 서로 더 풍성해지는 결국에 여성들의 힘이 강해지는걸 원한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돈도 벌면서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 참 기쁠거 같다. 하루하루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뭔가를 한다는게, 나는 내가 요리를 좀 좋아하잖아. 그런 팀에 들어가면 나는 재미있을 거 같다. 오늘은 오뎅을 만들었는데 내일은 뭘 만들까 하며 레시피를 만드는 게 재미있을 거 같다.(T)

□우리 사회는 빨리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 생각도 좀 의식도 좀 바뀌고.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하지 않나. 정말 너무 답답해. 뉴스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전에 학교 수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질문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다는거야. 왜 남자가 많을까 여자는 없을까. 한 애가 뭐라그러냐면 싸워야 되거든요. 난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거야. 아이들 눈에 국회의원은 싸우는 사람이구나.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야.(H)

□이런(은평구) 식으로 지역민들과 연계가 많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이런저런 조직을 통해서 서명을 다 하셨더라고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동네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게 좋아서 그러니까 저런 동네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 성미산학교는 너무 좀 있는 동네인 것 같은 느낌(웃음) 갑자기 민우회가 성미산학교 근처에 있어서 은평구처럼 그렇게 좀 지역 안에서 소화하고 소통하고 그런게 좀 있어서 누가 사는지 같이 얘기하고 문제들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지역 안에서 좀 해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 요즘은 정말 참 예전에는 사람 인식을 바꾸는 일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희망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저는요, 그래서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당장은 아니어도 뭔가 같이 하고 옆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지 다른 소위 말해서 인식의 전환이라는게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R)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밖에서 주입하잖아. 다른 것은 못 챙기고, 돈벌고 체제에 수긍하는 그런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 것지. 미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안한 것은 있지. 근데 개네들이 던져주는 고질적으로 고민하려는 것을 불안해 하려 하지 말아야 겠다 생각해. (D2)

□요즘 자식이 돌보는 사람이 어딴냐. 자식을 돌보느니 돈을 돌보는게 나아. 그러니까 나는 국가에 책임을 맡길려고 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노년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복지사회로 빨리 나가야된단니까.(웃음) / 혼자 살아서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없는게 문제인 것 같애. /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이념적인 바탕이 되지 않겠어? 그런 철학이나 그런게 없이. 어떻게 자기가. 사회복지라는 것도. 뭐, 모든 분야에서 그런 철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뭘 할 수 있겠니?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를 공부하는게 아니라 목민심서를 한 번 더 보고. (U)

□가능한 한 일찍부터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찍이라 하면 아가 때부터?>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때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들이나 최소한 성인이 된 이후에? 대학교 같은 데 점점 그런 것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나마 5년 전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총여학생회 없어지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상 달라진 것은 없는 데 의식적인 것들이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W)

□ 내가 다른 싱글들을 볼 때 연금이라도 들었냐고 묻거나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결혼했어도. 자식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30년 40년 별로 생각안하고요 뭐 어떻게든 살겠지 해요. 텔레비에 나오는 독거노인처럼 살아도 그게 내 삶의 마지막에 부딪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낙관적인 것 같은데?> 연금 많이 받는 건 또 아닌데 싱글로 살아왔다는 건 10-20년 살아오면서 에너지가 있다는 것.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면서도 아픈 것도 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을. 지금 생활이나 삶을 좀 많이 바꿔야 한다. 사실 제가 미래를 예측을 못하기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에 견주어 할 수밖에 없고. (K)

□ 이런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생겨야죠. 이러려면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밑거름이 되는거잖아요. 나무 위가 바뀌려면 뿌리가 바뀌어야 되듯이 그러려면 NGO 활동, 이런 성숙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되겠죠. 뉴라이트운동 이런 거 빼고. 그래서 든든하게 사회 곳곳에 정착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 되지 않을까요? (MG)

□나는 솔직히.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자들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성 교육이 너무 절실하다고 느껴져요. 전에 있던 회사에 실장님이 있었는데. 그 실장님은 아들이 셋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남자들만 단속하면 세상이 문제가 없다면서 남자 세 명을 다 통금을 12시로 만들어 놓은거예요. 남자들만 조심하면 세상에 문제가 없다.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웃음) 남자를 단속하면 돼. 남성들이 이런 교육을 잘 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1)

V. 민우회에 바라는 점

□여성노동 관련해서 좀 그런게 좀 뭐랄까 막연한 생각들 같은거 회사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럴 때 민우회 와서 가끔 물어보면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림이 그려질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남자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는 너무 남성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결론은 결국 똑같은데도 그림이 안그려지거든요? 그런데 민우회에다 물어보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명확하게 그려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D1)

□우선 안심하게 아이 맡길 수 있는거 하고. 먹거리하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료 진료권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애가 있어요. 아니면 편모. 엄마만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민우회에서 어떤. 은행에 가서 30만원치 카드 하듯이. 분기당 아니면 1년 당.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던가. 바우처. 동네마다 기준이 된다면 카드에 쿠폰을 넣어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카드 포인트? 이런거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MG)

□저는 소모임도 좋은데,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서 -저번 고 장자연사건관련 시민법정처럼- 그 사건에 대해 관심있는 회원들끼리 모여서 회원들이 할 수 있는건 뭔지 얘기나누고 같이 하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건 매주 나가야 하는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하고, 예를 들어서 회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원은 바자회를 기획할 수 도 있고, 누군가 음악을 잘하면 음악으로 기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회원들끼리 임시로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소모임들이 회원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좋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여성주의 현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회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을거 같아요. / 민우회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서 조직문화가 평등하고 참 좋고,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변화의 동력이 될 것 같다. 민우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관련 문제제기들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것을 어필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연하게 지나가는 부분들을 유쾌하고 밝게 풀어 나가주었으면 한다. / 민우회가 여성주의자들에게 많은 힘을 줬으면 좋겠다.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외롭고 힘들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우리학교도 거의 활동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자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만나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G)

□민우회가 계속 했으면 하는 것. 진짜 교육. 지나친 성억압. 너무 괴물들이 많다. 차별이 너무 심해서 경제적 차별, 이제는 귀족들이 있구나 싶고. 다 섞이고 열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체를 예로 들면 단체장이 가벼워야 되요. 권위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고. 단체가 권위적일 때 바로 죽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조직들 안에서도 그런 위계를 깨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 민우회보면서 놀라는 건 회원이 매달 늘어나는 것. 그 힘이 어디있지?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외연이 넓어지고 여성운동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들. 소식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조금하게 운동하는 걸 전체 사회에 임팩트 주는 걸로 영향력있게. 신뢰가 가는. 민우회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던가. 아 이거는 중요하다. 라고 하게끔. 지금 하는 운동들을 모아서. 좀 개인적인 차원의 운동? 이런 느낌을 받아요. 민우회가 올 해에 하는 일은 뭐다. 집중. 그런 부분들을 더. 흩어진 느낌. 생활 차원의 운동. 전체 사회 운동하고 연관되기는 한데. 목소리가 작은 거 같은 느낌. (K)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물길이야. 20대라서 중요한 건 아니고. 힘도 있을 수 있고 당장 결과가 보이진 않아도 다져놓는 거잖아. 어떤 사람들을 키워놓는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도 가능성이 중요한 거 같거든. 남의 독에 물붓는 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같아.(MN)

□꼭 뭐 한 가지를 집중하기 보다는. 집중할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걸 장기 프로젝트와 단기 프로젝트가 동시에 존재를 하면 윤곽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연 단위로 프로젝트가 계속 바뀌고. 장기로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장기로 하는 것도 계속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선하고 어떨 때는 이게 작년에 했던 그건가? 그런 생각도 많고. /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는 이걸 문제대라고 생각할 때 문제긴 문제인데 문제인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저는 좀 좋은 쪽으로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성이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걸 포커스를 두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이런 것도 되게 즐겁고

포커스 자체를 하는게 좋고 물론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장기로 가다보면 어느 순간 힘든게 오더라구요. 물론 이렇게 가도 힘든 건 있어요.(D1)

□저는 대개 궁금했던 게 왜 식당노동자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웃음) 사실 저는 그 순간에 못마땅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식당여성자들에게 하는 열가지 실천이 나왔는데 식당노동자들에게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저는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는 그냥 하면 좋은 인사인거지 그 분들 노동 인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인사하고 도와주면 친절하고 서로 좋은 거지만 이거 이 분들에게 필요한 걸까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과도한 친밀감을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불만이라면 불만이었다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나 좀 이렇게 이주여성지원단체와는 다른 목소리를 민우회가 낼 수 있을거 같아요. 이주여성지원단체는 당연히 그 이들이 들어와 있는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민우회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그냥 여성단체들에서 단순히 국제결혼은 안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R)

□물론 회원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거 보다는 더 어떤 이슈, 활동에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더 늘리는거? 좀 더 사람들을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여성주의자로 만든달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거?(M)

□회원들에게 기획단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했으면 좋겠어. 나도 기획단 활동을 처음에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는데 확실히 받는 감동이 더 있는거 같아. 그렇죠. 활동할 때 회원들이랑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해줬으면 좋을거 같고 모람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할 때 회원단체잖아. 회원들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슈나 거리들을 만들면 좋을 거 같아. 기회들을, 기획단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고민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MO)

□지금 문제는 이삼십대들이 공감할 이슈가 부재하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여성학회 타이틀이 복지 여성 미래 이랬던 거 같은데 내용은 돌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션에는 거의 안들어가죠. 중요하지만. 대부분 복지, 돌봄. 여성주의 지식의 재생산만 가득 찼고. 여기가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여성학회도 딱 드러나는 게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왔단 말이에요. 주제들은 재미가 없어요. 복지, 돌봄 중요하긴 하죠. 결혼이주. 중요한데 이삼십대가 느끼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돌봄노동도 중요하고 알겠어. 그런데 딱 관심이 가는 주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세션 하나만 들고 나왔거든요. 세대별로 세션별로 다양해야 한데. 없는 거죠.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돌봄 노동을 새롭게 전망하거나 아나키즘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러니 재미가 없죠. 돌봄도 다양한 돌봄이 있을텐데.(L)

□상업적이라고도 하는데 예전보다 콘서트나 이런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게 좋은거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시민단체 시민하고 함께해야지, 20명의 목소리보다 200명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유연하게 얼마든지 하면서 많이 회원들을 유치하고 행사도 크게하고, 상업적이든 어떤거든 나쁜 의도가 아닌고, 방법적으로 나쁘지 않고 결과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도 많이 얻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Y)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잘하면 좋겠는데 낙태나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전화처럼 무슨 고민 있을 때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 모임할 때 보면 자식 데리고 딸 하고 같이 오는 사람이 많던데 뭐 그런 십대 애들에게도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1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모녀의 날을 만들어서 행사 한번 하든가. (A)

□여성 단체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부터 전 민우회가 되게 한국에서는 가장 뭔가 늘 차별받는 이들을 도와주고 되게 어우 막 그게 뭐였지 그런 생각이 들게 어쨌든 늘 뭔가 이거는 이거다 라고 뭔가 찾아볼 걸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단체 중에서는 가장 뭔가 독보적인 그런 하하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우회라고 하면은 일단 민우회가 뭔가 사업을 했다 뭔가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 속 으로 지

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민우회라는 자체만으로 전 되게 신뢰감을 깊숙이 갖고 있어서 (J)

□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접하기에는 소모임 아니면 강좌같은 것을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나. 시위나 액션 같은 것은 행동하거나 실천해야 할 것 같은데 강좌나 같은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바뀌었다 해도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10년 차이 난다고 하면 그 분들이 그 분야에 뛰어 들었을 때, 여자로서 여성주의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딪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20대에서 거기 나가도 약간 달라졌어도 비슷한 지점에서 부딪힐 테니까 도움을 받는다면지 같이 얘기를 해 본다던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이제 30대가 되면, 20대를 만나게 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W)

□ 아쉬운 부분은 없고 그냥 상근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서 그 일에 만족하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단체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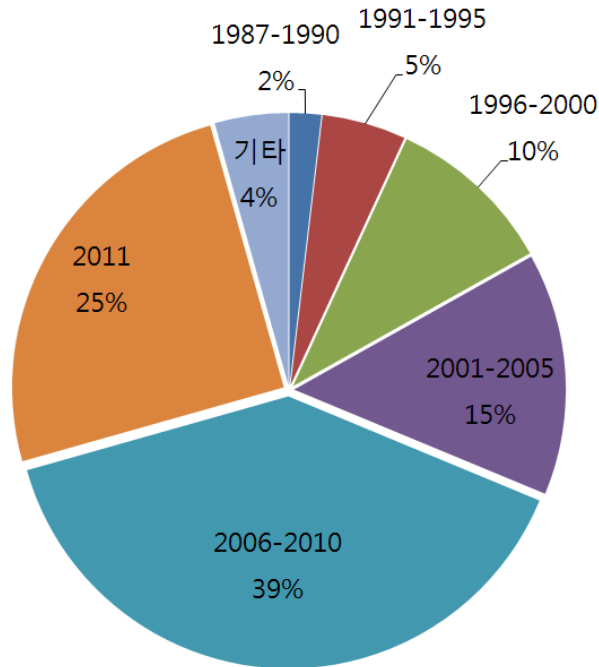
□ 회사에서 복지나 선택적 복지 이런 것들 있는데, 기업에서 이성의 가족중심의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서 하려는 대안을 민우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것을 민우회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이잖아? (S)

□ 민우회에 기대하는거는 지금 잘 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어. 자기 욕구를 알고 자기의 경험을 인지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걸 하나의 액션이나 운동으로 펼쳐내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이 점점 더 확고해져서 그게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우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 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가지고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의 이슈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활동을 실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우회가 가장 대중적이지만 여성운동 자체가 대중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성운동이나 여성주의를 많이 확산할 수 있는 주체중에 가장 큰힘을 가지고 있는 민우회인 거 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활동가들이 되게 엄청나게 회원확대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게 항상 늘 감동인데 근데 그 회원이 먼저 다가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캠페인을 할 때도 먼저 다가와서 뭔가를 본다거나 어떤 교육이나 행사에 먼저 와서 참여를 한다거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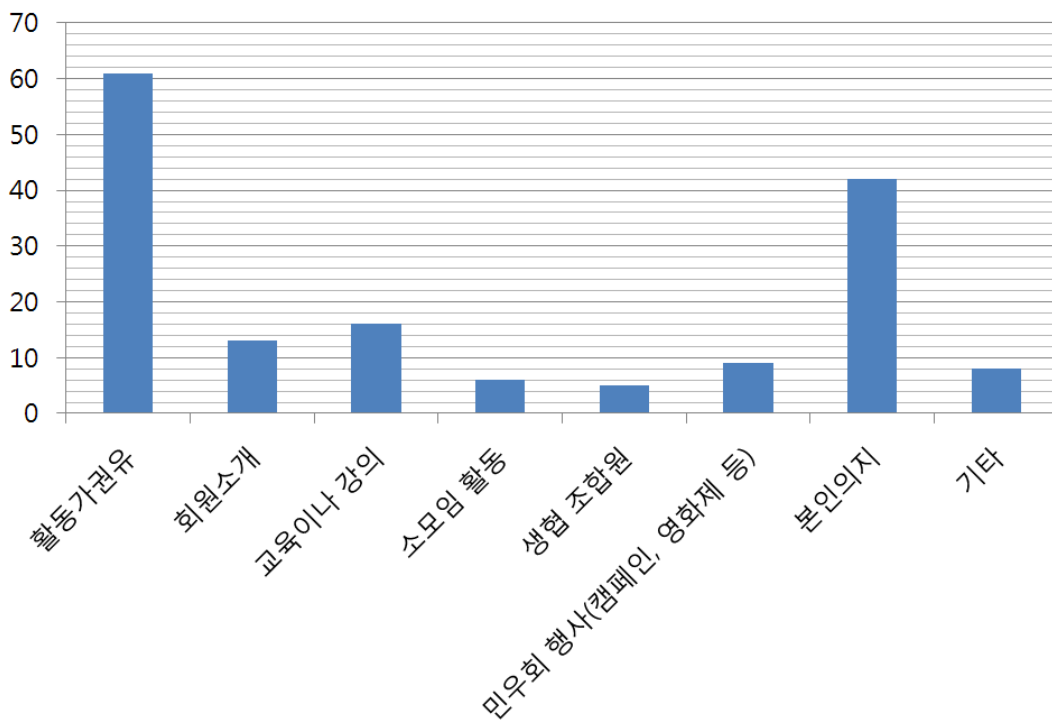
□ 민우회가 빨리 커져야 돼. 사람들도 많아져야 하고, 단체가 커져서 그런 부분에까지 상근자들이 영역이 나눠어질 수 있을만큼. 단체가 커져야 한다는 거. 지금 현재는 그럼 민우회가 너무 작아서 규모가 작아서. 규모도 작고 사람도 너무 없고 그리고 사무실도 너무 좁고. 그래서 사무실에 어쩌다 한 번 가면은 어디 앉아야 할 때 앉아야기도 너무 미안해 내가 이사람들 전체를 다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미안하지.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플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제발 아프지 말라그래. 상근자들 아프지 말라그래. 상근자들 아프지 말고. 그래 빨리 단체가 커져서. 학교에서 성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하는 뻘한 상담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문제, 성문제, 성적문제, 그 다음에 친구문제, 선생님과 의 문제.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민우회. 학교에 아이를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야. 거기에 찾아가면 이런 문제들을 내가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민우회가 운동을 하는 대상이 확대가 되서. 확대가 되면 좋겠다. 청소년한테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H)

※ 별첨자료 : 단답식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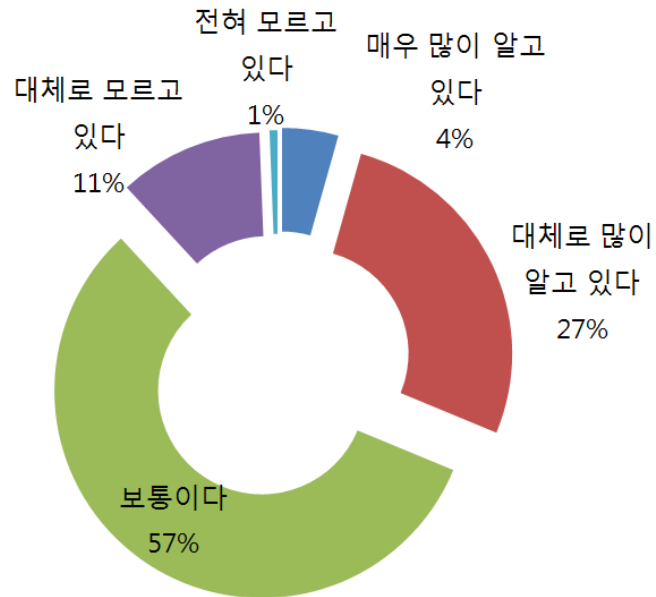
1-1. 회원님께서 민우회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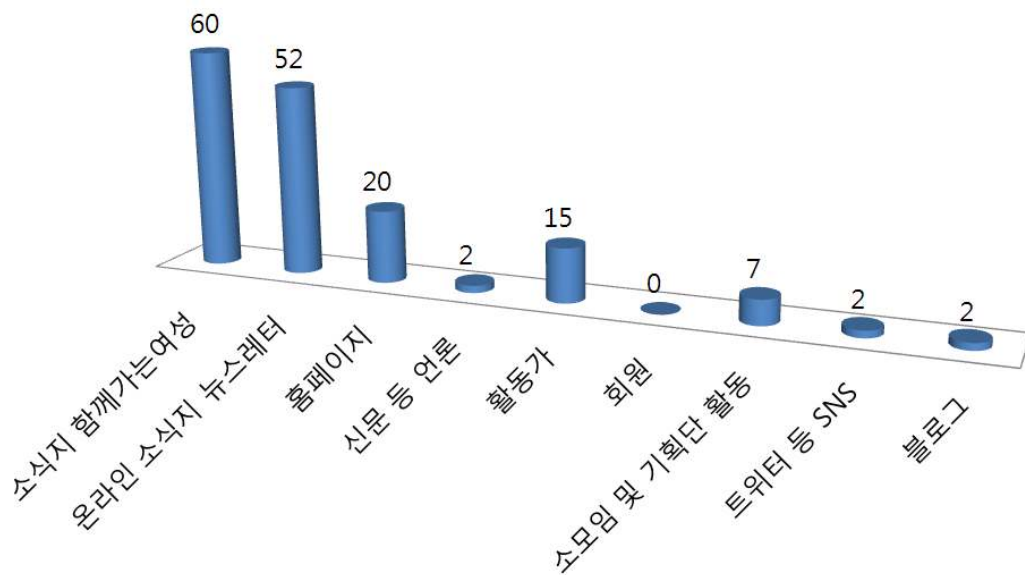
1-2.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민우회에 가입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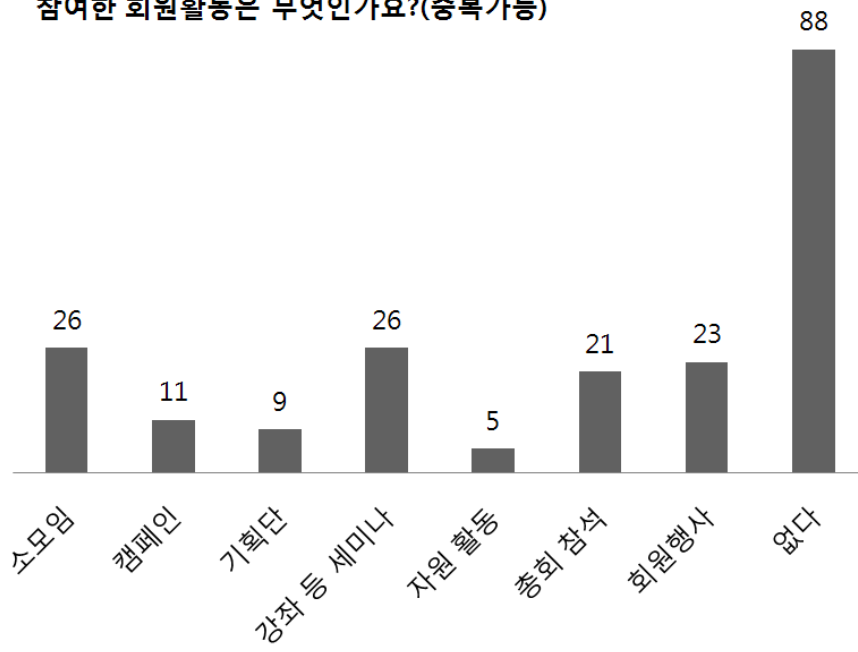
1-3. 회원님은 민우회 활동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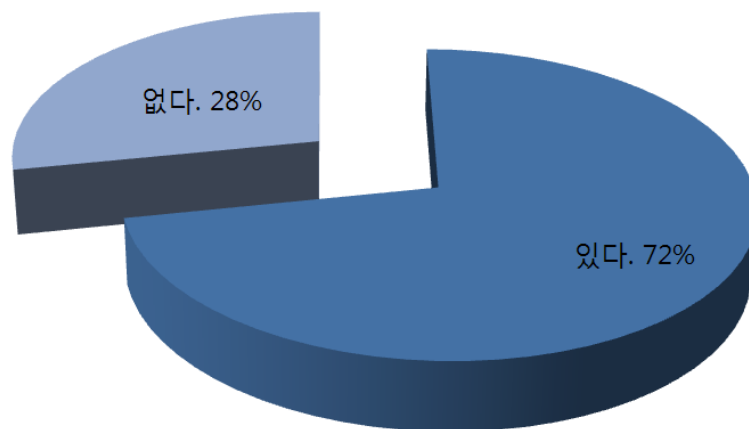
1-4. 회원님께서 민우회 활동 및 소식을 주로 접하는 통로를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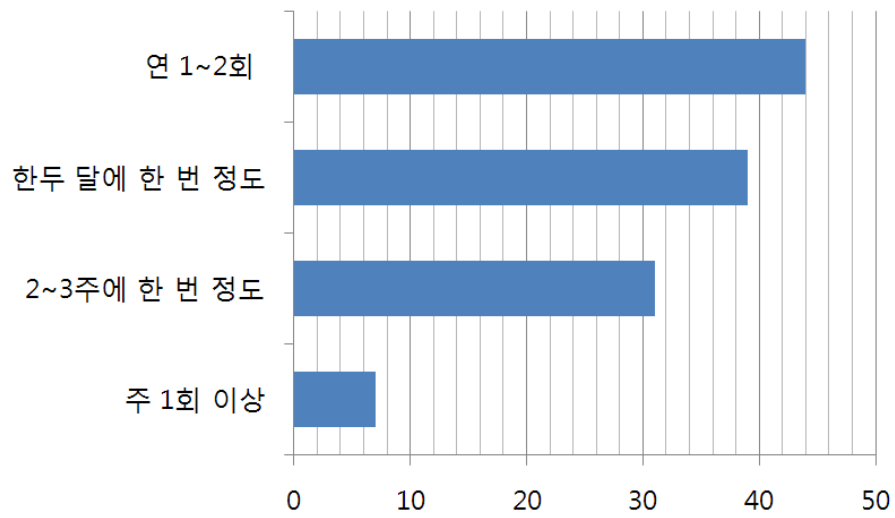
1-5. 최근 1년 간 회원님께서
참여한 회원활동은 무엇인가요?(중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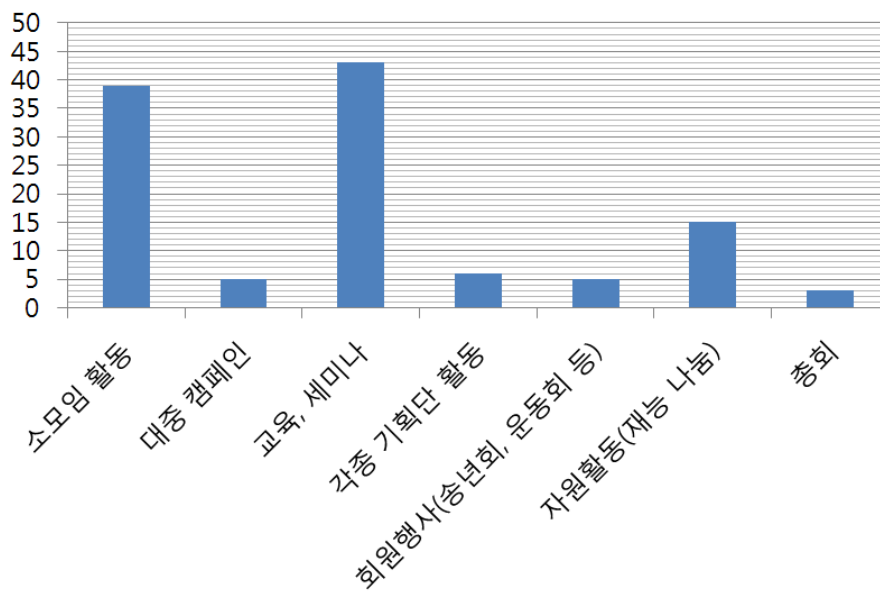
1-6. 회원님께서 회원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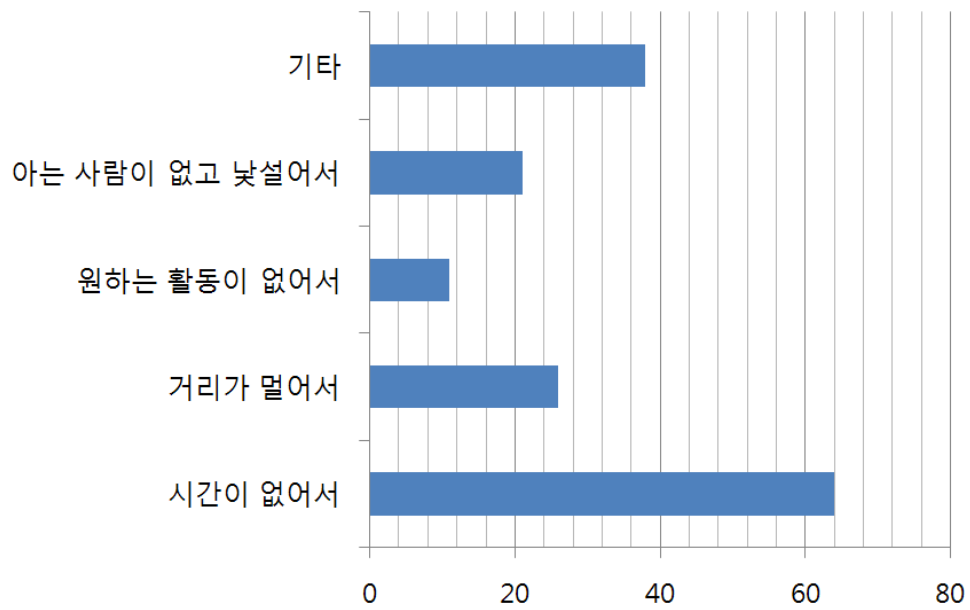
1-7. 회원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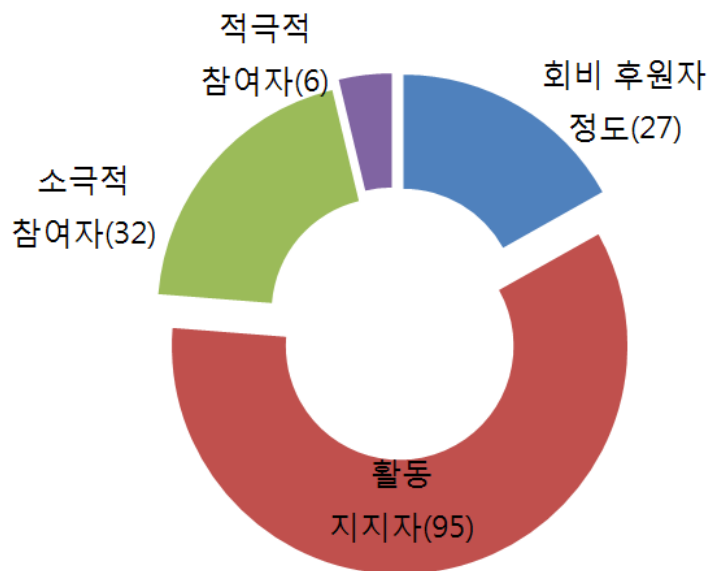
1-8. 회원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나요?



1-9. 회원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0. 회원님은 현재 민우회원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1-11. 여성주의 이슈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 두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노동	복지	건강	반성폭력	환경	교육	성소수자	빈곤	가족	정치	평화	생협	미디어	이주	기타
60	33	18	49	24	24	33	25	27	15	13	30	6	4	2

1-12. 가장 관심 있는 여성주의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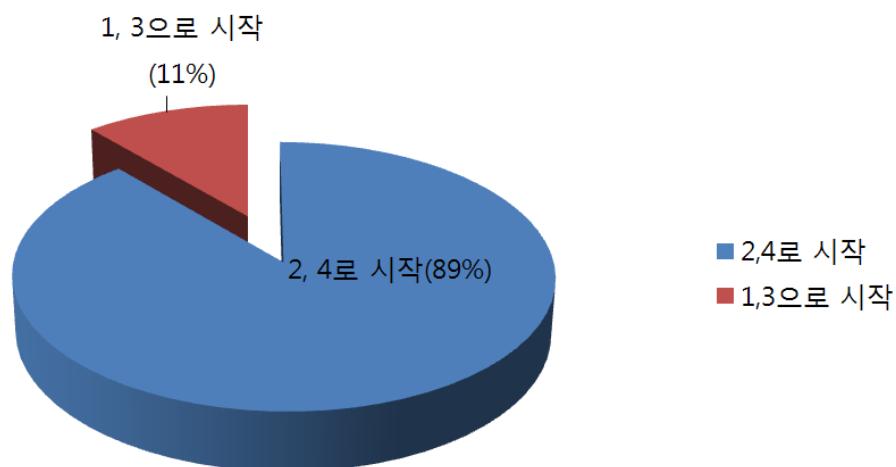
이슈	내용
노동	- 어떤 노동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노후까지 비혼으로 주거 걱정 안하고 살 수 있을까 - 행복한 여성 노동자 되기 -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 워킹맘의 삶 - 일하면서 아이 잘 키우기 - 노동시장의 성차별 - 차별없는 일자리 - 노동시간 제도 & 문화 - 여성의 사회 참여시 육아와 가사, 노동의 질 -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일하기, 남성중심적 직장 문화 등 - 여성의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 서비스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노동자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여성민우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면 - 일하면서 아이 그냥 키우기 - 나이 많은 저임금 노동자 - 직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 왜 여성은 고위 직급에는 없을까. 결혼은 여자의 무덤인가. - 일가정양립환경 - 여성으로서 직장내에서 차별안받기 - 직장에서 여성의 리더 육성,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환경 개선 가정 친화기업.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차별

		- 결혼한 순간 비품 취급되는 직장문화 (왜 결혼여성은 직장을 곧 떠날 사람처럼 취급될까요? : 심지어 남직원 결혼은 일에 안정감을 주고/ 여직원 결혼은 일에 열정을 뺏고) - 출산 등으로 민폐라는 윗분들의 망언들) - 여성 비정규직 문제 -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비정규직, 낮은 임금, 직장내 성희롱 등) 회사에서 할말하고 손해 안보기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맘 놓고 육아휴직
성	폭력	- 성폭력 근절 - 불안에서 자유로운 삶. 어떤 일을 어떤 형태로 하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 온갖 폭력-성폭력, 가정폭력-에서 나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 - 미디어가 전달하는 성별고정관념의 문제점 미디어가 전달하는 성폭력적인 장면/맥락 등의 문제점 - 열린 섹슈얼리티 사고 반 성폭력운동 -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이중잣대 - 성폭력 가해 의사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제정운동 형법 개정운동(공소시효연장, 비친고죄, 음주감경폐지)
	기타	- 성소수자 인권 - 여성 성소수자로 잘 살아가기 - 성소수자로 차별받지 않고 살기 - 퀴어 운동 - 반차별, 성소수자 인권이슈
교육	청소년/양육	-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문제, 가정에서 교육을 대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들의 건강 성적 대상화와 외모지상주의에 자기를 위치 지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으로 자라게 하는 방법. 건의-청소년들이 자신을 조절, 발산할 수 있는 캠프 또는 강좌 등이 방학 때 있었으면. - 일터 아이들 교육 문제 - 워킹맘의 자녀교육 해결법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대안학교 같은 교육시설
	기타	- 망할 마초들에게서 자유로워지기. 미디어의 폭력 깨부숴주기. 적은 돈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살기. 이상화된 몸과 얼굴로부터 내 자신 지키기. 값지게 별어서 값지게 소비하기. - 가부장적 여/남성들이 변화되는 방법, 젠더교육과 소수자 인권. - 초중등 의무교육에 여성학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좀 바뀔 수 있을까? - 직업훈련 여성교육문제
가족	비혼	- 비혼으로 잘 살기 - 대안 가족 롤 모델 만들기 - 싱글여성 주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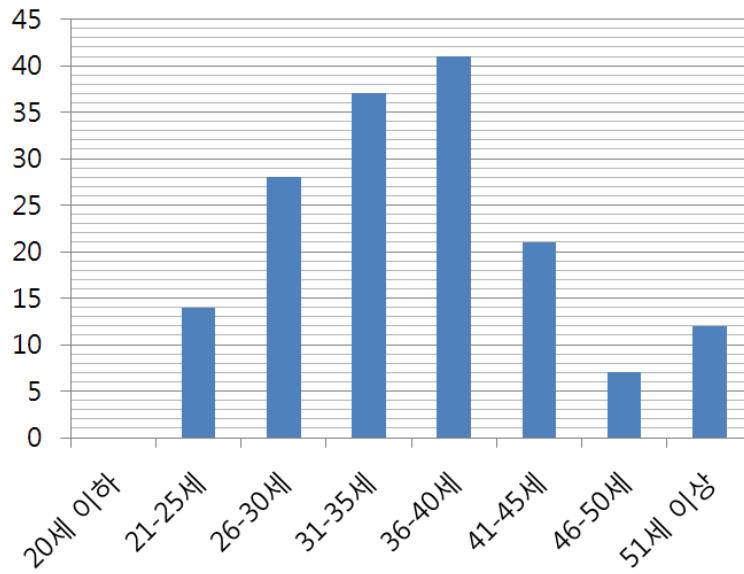
		- 일하면서 비혼으로 잘 살기 - 재미있고 외롭지않게 비혼하기 - 비혼여성으로 혼자 살아남기가 최대 고민 - 여성 독거가구 복지 향상
	결혼, 관계	- 성평등한 결혼 하기. - 가부장적 가족문화 바꾸기 -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가족중심주의 해체 - 모성신화깨기: 결혼한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가족이 아닌 '자신'에 집중해서 자신이 소모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 자식도 배우자도 여성의 희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게. - 대화법, 부부간의 의사소통 잘하기 - 이혼 후 새로운 삶 -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로서의 삶의 균형 - 제도로서의 결혼과 타협하면서 잘 살기 - 가부장 사회에서 결혼하여 살며 '나'를 알고 지키며 살기. -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깨기 -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편견해소 -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돌리지말고 직장내 탄아를 필수로 하여 여성들도 육아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 계속 일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빈곤	- 여성 빈곤. 100만원 근처 월급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왜 전문직종이 적고, 경리는 죄다 여자일까. - 여성의 경제 자립, 여성리더십 교육 - 미친 소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혹은 가난하게) 하면서도 멋지고 유쾌하고 살것인가? -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 공유 혹은 나눔을 통해 어려움 극복하기와 노년에 대한 대책 만들기 - 여성노인 빈곤 문제,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탈빈곤 가능성 탐색, 지역건강예방사업 - 가족 내 돌봄의 문제를 공유하기
	정치, 정책	-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 여성주의 정치 만들기 - 차별금지법 지지 - 젊은 여성들에게 성공한 여성의 롤 모델 제시, 여성주의(환경, 평화,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소수자 문제와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및 정치집단 지원/양성/후원 -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대표성 - 여성의 정치참여
	건강	- 낙태(권) - 후천적인 경계성 장애로 자신의 자리 찾아가기 -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와 생산하는 삶 -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먹을거리 - 여성주의 공동체 지역 여성 운동 여성주의적 건강 확산 - 좋지 않은 먹거리들과 최근 터진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오염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여성의 건강한 생활방식. 다양하게. 정보제공 중심 - 여성생협 - 외모가꾸기 압박에서 벗어나기
기타	- 여성주의 공동체 - 일상적 인권 향상 -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배적인 양식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삶에 관해서라면 두루두루. 대안 공동체, 대안 음악, 대안 영화, 대안 학교, 대안 은행 등등. 우리 농촌 살리기 생협 - 평화-남북한 여성의 문화적통일 - 사회적 약자... 없게 하기 -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 요즘엔 남성적 구조의 조직에서 지내는게 점점더 어려워 지고있어서 그런지 평등이나 소통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 나이듦의 성별성. - 모성, 여성과 이주, 여성과 공동체(마을, 생협 등) - 수평적인 연인 관계 - 더불어살아가기 - 미래 세대에게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환경과 평화로운 세상을 남겨주고픈 바람 - 공동체 운동을 통한 임파워먼트 - 여성주의적 (조직/가족/직장 등)공동체문화-대안적인 삶 - 텃밭가꾸기 확대가족만들기 - 간통죄위헌 -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 여성 주체성, 자기 결정권 함양 등 - 젊고 힘없고 가난한데 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연결하고 연대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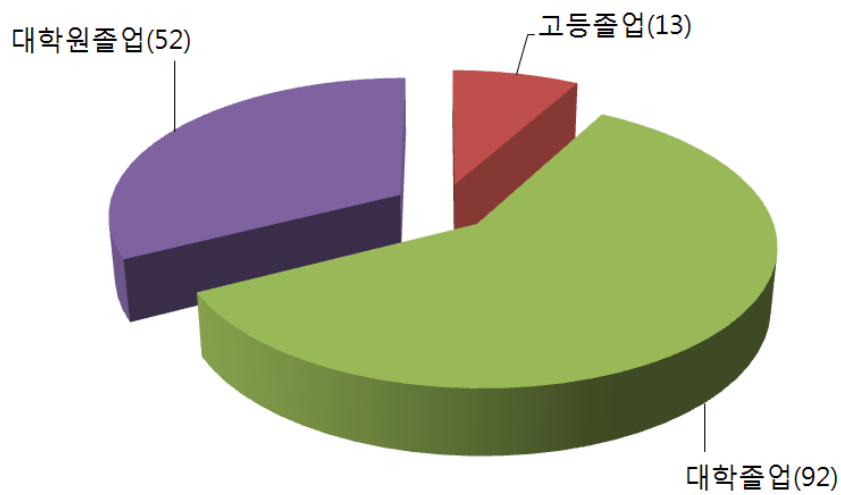
2-1. 회원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2, 4로 시작하는지 1,3으로 시작하는지요?



2-2. 회원님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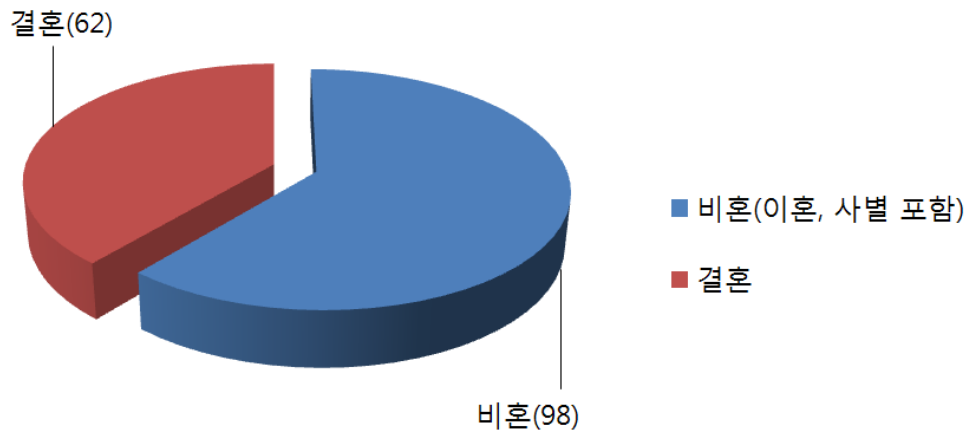
2-3. 회원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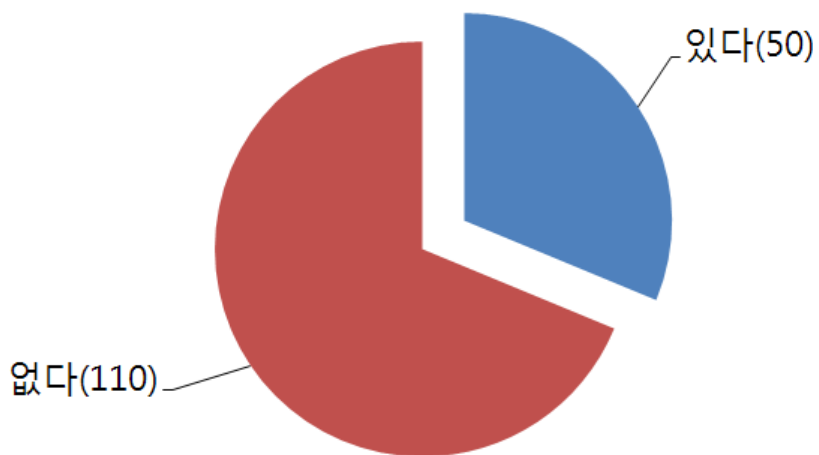
2-4. 회원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무직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체활동가	전문직	기타
7	3	10	20	37	5	0	23	3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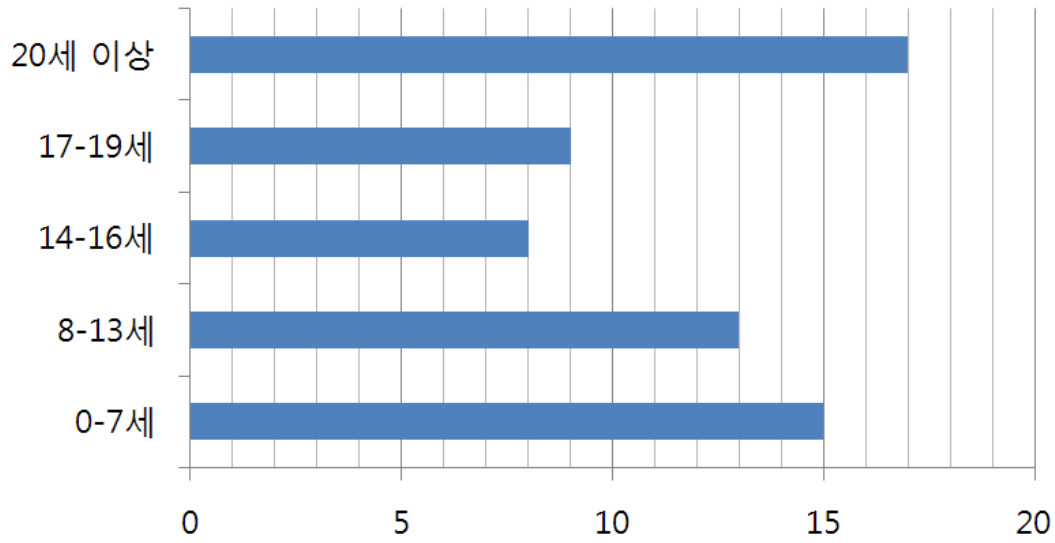
2-5. 회원님의 혼인 상황은 어떠한가요?



2-6. 회원님은 자녀가 있나요?



2-7.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중복가능)



2-8. 회원님께서 현재 누구와 살고 있나요? (중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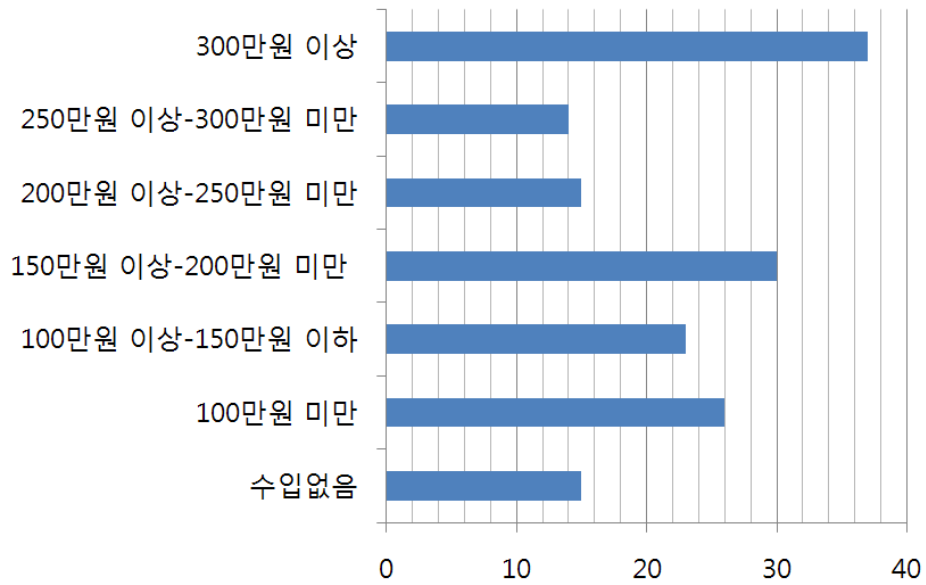
비혼

	빈도	퍼센트
배우자	1	0.7
모	31	20.4
부	22	14.5
자녀	6	3.9
형제자매	25	16.4
애인	10	6.6
친구	11	7.2
단독	40	26.3
기타	6	3.9

결혼

	빈도	퍼센트
배우자	61	58.7
모	2	1.9
부	2	1.9
시모	3	2.9
시부	1	1.0
자녀	35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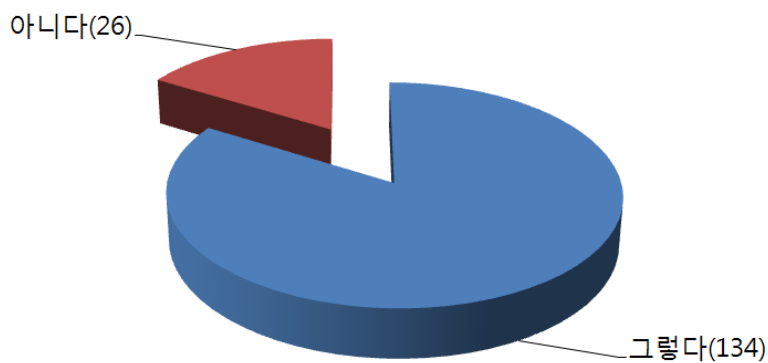
2-9. 회원님의 평균 월 소득액은 얼마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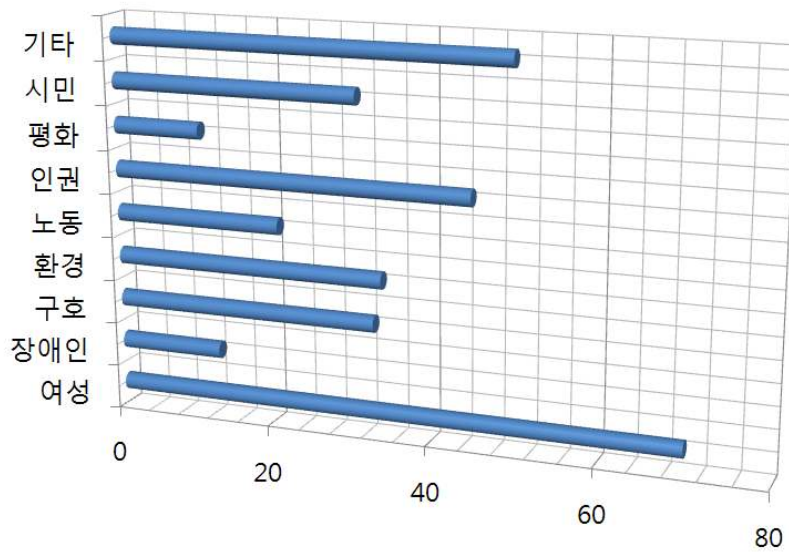
2-10. 회원님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국민 참여당	민주 노동당	민주당	사회당	자유 선진당	진보 신당	한나라당	지지당 없음	기타
5	20	5	0	0	57	2	6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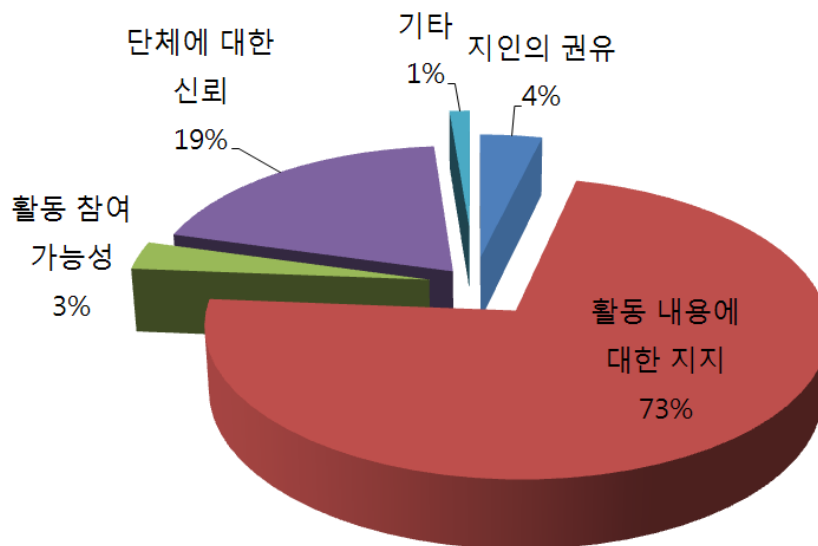
2-11. 회원님께서 타 단체(NGO기관)에도 후원하고 계신가요?



2-12. 타 단체(NGO기관)에도 후원하고 있다면 어떤 단체인가요?
(중복가능)



2-13. 후원단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11 한국여성민우회 지부간담회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본부는 2011년 지부들의 현황을 직접 듣고 지부 활동가들의 고민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9개 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역여성운동 활동가들의 고민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어 이 자리에 소개합니다.

지부간담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간단한 요약표와 함께 속기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

이름(별칭+ 별칭유래) / 나는 민우회 몇년째~ / 지금 민우회에서 하고 있는 일

나는 요즘 _____에 쏠려 있다~!

2.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부 관련 사업 소개

3.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이야기 시작하기 : 내 생각에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지명적 약점)은 _____다!

자유롭게 서로 묻고 답하기

이야기 마무리하기 : 활동가인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_____다!

지부간담회 결과 간단 요약표

	1. 쏠려 있는 것	2. 아킬레스건	3. 본부에 바라는 점
고양 파주	개인의 수행을 통한 사회 변화 파주 지역 개인 공부 협동조합운동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명탐정 코난 돈 만드는 일 여성주의로 마음 읽기 회계 정산 쉼터의 사건사고 재미있는 일 기획하기 상담원교육	재정 30대 여성의 실종,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심사의 다변화, 그로 인한 과거 운동방식의 정체 분명하지 않은 정체성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활동가의 소진 선명한 자기 관점으로 인해 개방적이지 못하고 배타적 단체 성격의 애매함과 사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음	한국여성민우회의 잦은 언론 노출 전국 차원의 여성 이슈, 정치 이슈를 본부만 대응하지 말고 지부들에게 제안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활동가 단합대회를 통한 활동가의 소속감 고양 조직재편, 단체명칭 변경 등의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여성운동 전략 논의를 이끌어 달라 내실 있는 활동가교육 전국적으로 한국여성민우회라는 자부심,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획
광주	성희롱예방교육할 때 민우회의 이미지에 대한 고민	민우회가 너무 강한 색깔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여성주의가 배타적이라는 주변의 평가) 박봉(저임금)	사회복지시스템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 쉼터에 대한 배려

	108배 다이어트 페이스북 동네 공동 급식.	민우회 내부 조직력, 통합력의 부재 상근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짐 재미 없는 활동. 활동이 매력적이지 않음.	사회운동, 여성운동 지형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책 소개
군포	군포민우회의 미래 비 전 준비 재정마련과 사회적기 업의 가능성 위탄 먹는 것, 식생활 회계 정산 한부모사업과 청소년 상담센터 필요성, 노 후 고민으로 인한 노 인공동체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 민우회 10년 비전 세 우는 작업	민우회라는 명칭 자체의 정치적 이미지 회원이나 활동가의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점 운영위원 사이의 갈등, 잦은 교체 내지는 분산성 중간활동가 층의 부재 재미있고 단란한 분위기 부족, 사무국과 상담소 사이 소통의 부족 회원들이 얻을 수 있는 킬러 아이템 부재 상근자들은 매우 바쁜 가운데 자원활동하러 온 회원들이 느끼는 소외감 재정 부족 상담소 사업(성교육 등)에는 회원들이 관심을 보 이지만 사무국 사업(지역자치 등)에는 회원들이 관심 갖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	본부 홈페이지 회원 되는 방식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본부 성교육 프로그램/자료 가 있었으면 작년 지역자치네트워크가 체대로 돌아가지 않아 답 답함 한부모 사업을 접으면서 가족 이슈에 대해 놓치고 있음
서울 남서	활동가로서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 자아통합 교육을 받으 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되기 멋진 엄마 되기 민우회 활동 회복 지역아동센터에서 만 나는 아이들 대응 위 한 상담공부 사회적 기업	편안한 모임이라기보다 지적인 모임, 일 중심의 모임이라는 인상 운동단체라는 명분과 아줌마들이 중심이 된 모임 의 괴리 사람냄새보다 일 중심적인 관계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음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설득력을 좀더 갖추었으면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 면 활동가 실무교육 - 글쓰기, 사진 찍기, 웹자보 같은 생협과의 관계 정리
서울 동북	교육 - 민우여성학교, 성폭력지원체계 모니 터 등 준비하는 등산 많이 배우기보다 비우 기 노는 것과 위빠사나 명상 문화팀 활동 마음편하게 지내기 민우회 활동	자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책임과 역할의 애매함 민우회의 정체성. 운동단체인지 사람들을 편하게 모을 수 있는 공동체인지. 활동가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것. 민우회의 정체성. 전문성이나 대중성이나 균형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민우회에 관심 갖기 어려움 민우회의 여성주의적 관점, 활동 내용의 점검 우리의 활동과 철학에 여성주의적 관점이 녹아있 지 못한 듯 사람이 늘지 않음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기	연말에 1년 사업계획을 구 상하면 본부와 함께 검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본부의 여성운동에 대한 구상, 고민을 알려주었으면 지부는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할테니 본부는 큰 방 향이나 이슈 설정 역할을 했으면 새로운 이슈나 방식이 있 으면 신속하게 지부에 공 유해 주었으면 활동가 교육(실무 말고 토 론)
원주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 능 학부모로서의 역할	민우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사람이 발굴되지 못함. 활동가 육성. 사람들을 끌어당길 원주민우회의 내용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잘되 게 하는 팁을 알려 달라

	경제 강의 생태, 환경, 일본 원전 사고 민우회 활동	정체성	
인천	방사능 식품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내적 모순 한부모 프로젝트 지역연대활동 일이 많아서 켜여 있 다.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보다 내적 치유에 치우 친 사업에 집중하는 현실 여성들이 갈 곳이 많아서 그런지 민우회 같은 여 성단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회원 수가 적다 한부모끼리는 잘 통하는데 너무 끼리끼리가 아닌 지 여성운동에 대해서 뭔가 단정지어지는 분위기가 있다 다양성. 통합되면 좋은데 너무 달라서 조직 내 다툼이 생길 우려. 후배 활동가들에게 조언해 줄 선배 그룹이 없음 신입회원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으 면, 고립된 느낌을 없애고 싶음 한부모 사업에 대한 고민 을 듣고 싶음 미디어 운동에 대해 알고 싶고 편집/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려 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주	일상의 리모델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후 삶을 어떻 게 준비해야 하나 귀농마을 10주년 기 념음악회와 마을 개방 행사 등산 자식들과 관계 자기 삶의 충만감 나이 마흔 기타 연주와 기타 소 모임 세살박이 아이 나의 비전과 민우회의 비전	회원 확충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 는다 전달하는 형식을 새로운 취향에 맞게 가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우회 안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고민하기보 다 막 달려온 느낌 회원들과 함께 하는 내부 안정화가 되었지만 상 대적으로 사회 이슈 대응이 밀리고 있는 상황, 정치적 선명성을 더 드러낼 필요 자원활동가들이 경제적 욕구로 인해 활동에서 쏠 려가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출 필요 지역이동센터의 비전이 없어 보인다 조직은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사람 관계가 부족 한 것 같다 공감, 소통의 부족 일상적인 회원 관리	10대, 20대부터 성평등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개 입하는 프로그램 마련 고 민 부설기구와 관계 정립에 대한 점검 동영상 편집같은 실무교육 지부 본부 사이 만나는 기 회가 확대되면 좋겠다
춘천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고 뭔가 평가 받는다느 느낌 상근자가 자주 바뀌고 젊은 활동가가 없다 대표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 두루두루 아우르는 게 필요한 데 잘 안 되는 느낌 재정 부담 뉴페이스의 부재 지역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여성 주의를 자신있게 드러내지 못함 본부가 여러 가지 이슈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 가 는 것에 비해 지부는 느리고 답답한 느낌	신임 대표나 상근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 었으면 다른 지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우수 활동 사례 공유

고양파주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고양파주민우회 사무실

참가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박봉(대표) 나은(지역 담당)

고양파주 : 김문정(대표) 이여로(전임 대표/쉼터 '하담' 소장) 안인숙(생협이사장) 이정아(사무국장) 이숙희(비상근 이사) 김진희(비상근 이사) 박주경(비상근 이사) 주정희(사무국 상근) 김지현(상담소 상근) 안선희(파주상담소장) 최문선(상담소 상근) 왕희애(지역아동센터장)

김인숙 : 서로 인사도 나누고 고민 공유하기도 하다가. 재작년에 지부 운영위원들을 다 만나는 자리를 가졌었다. 올해는 2주 정도에 걸쳐 전 지역을 돌아보려고 한다. 대표진이 새로 꾸며졌고, 운영위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올해는 이 간담회 자리는 간단히 말하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상황을, 지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분들이 어떤 기대와 전망,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것이다. 지역의 상황을 잘 듣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지역조사가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늘은 저희 얘기를 많이 줄이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들으려고 한다. 많은 말씀 바란다. 저는 김인숙입니다.

1. 자기소개 시간 (별칭, 하는 일, 활동 연수, 요즘 나는 무엇에 꽂혀 있는가?)

박봉 : 저는 박봉정숙입니다. 별칭은 박봉. 별칭이 활동과 연관이 깊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부모성함께쓰기다. 16년정도 민우회에 있었다. 하는 일은 대표다. 나는 요즘 김인숙에 꽂혀 있다. 김인숙 샘이 나날이 멋져지고 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주정희 : 주정희. 별칭은 참나로 할게요. 이시간에만. 2년차 상근활동가다. 사무국활동가이다.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 저는 요즘에 개인의 수행을 통한 사회변화에 꽂혀 있다. 작년부터 개인 수행과 관련된 것에 쏠려 있다. 개인 수행.

안선희 : 안선희. 민우회 8년째. 파주 상담소장이다. 요즘 파주에 꽂혀 있다. 파주덕이고, 아직도 파주에 적응하는 중이다. 파주로 이사갔고. 이상입니다.

이숙희 : 이숙희. 우리 애가 일학년 때였는데 민우회에서는 11년쯤 된 것 같다. 갑자기 이사를 맡게 되었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활동에서 좀 떨어져 있다 회원으로 지켜보다가 다시 이사한 달에 한 두 번 회의에 참여하면서 몇 년 전과 뭐가 다른지를 보고 있는 중이다. 어떤 것은 예전과 같고 어떤 것은 많이 달라졌고 상근자가 많아졌고. 꽂혀 있는 것은 민우회가 뭘 하라고 기대하는 있다. 뭔가 요구하는 눈빛. 그것에. 개인적으로 공부에 꽂혀 있다.

안인숙 : 안인숙. 별칭은 시애틀. 시카고 추장이다. 2천년 5월에 풍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생협에 가입했다. 생협 이사장 하고 있고. 꽂혀 있는 것은 생협 교육이 있다. 우리 안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논의 중.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 십 년 했는데 사람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젠 그걸 듣고 공감해야 되는 상황이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왕희애 : 왕희애. 별칭 도토리다. 아이들이 지어준 별칭이다. 전에 있었던 보육 현장에서 풍물 치다가 생협 조합원 됐다가 꿈틀이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하고 09년에 좀 떠나 있다가 다시 꿈틀이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꽃혀 있는 것은 명탐정 코난이다. 요즘 티비에 나온다. 아이들과 명탐정 코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정아 : 이정아. 별칭은 보석상이다. 수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시절엔 개인적 욕심으로 만들었다. 버마산 루비를 주렁주렁 달고 들어와서 파는게 꿈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이름이 좋더라. 요즘 내가 꽃힌 것은 돈 만드는 일. 하는 일은 주정희 샘과 똑같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 능력을 넘어서는 때도 있다. 그래서 뺑치고 일할 때도 있다.

박주경 : 박주경. 별칭은 소풍이다. 소풍가는 것처럼 재밌게 설레게 살고 싶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후원금만 내는 회원으로 15년 넘었고, 고양민우회는 7년 됐다. 중간에 여러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사. 성교육강사로 활동중이다. 꽃힌 것은 여성주의로 마음읽기.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진희 : 김진희. 미소. 제가 꽃혀 있는 사람 몇몇 있는데 밝히지 않겠다. 싸울까봐. 여러가지 활동들 하고 있는데. (이사) 내가 중간쯤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과정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재밌게 활동중이다. 민우회에서 언니들하고 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고민없이 가입했다가 된통...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본부 대표님이 오시니까 해야 될 것 같네.

김지현 : 김지현. 상담소다. 별칭은 모니카. 요즘엔 그냥 리아라고... 요즘 꽃힌 것은 '정산'이다. 회계 담당이라.

이여로 : 이여로. 별칭은 랄라. 흠피 아뒤는 달아이다. 하담에서 일한다. 주말만 되면 사건사고가 많이 터져서, 사건 사고에 꽃혀 있다. 미스터리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걸 고민하느라고.

김문정 : 김민문정. 별칭은 여유. 상근활동 하면서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었다. 작년에 한 때 항아로 바꿨다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다시 여유로. 십년은 된 것 같다 활동한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떡하면 재밌는 일을 하나 더 만들어낼까 매일 궁리하는 것에 꽃혀 있다. (대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우회 안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 모으면 이런 일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뒷감당이 안 되기도 한다.

김인숙 : 저는 동북 활동가 출신이다. 90년대 초반에 여성학 소모임 하다가 동화읽기 소모임으로 바뀌어서 동화를 더 많이 봤다. 95년에 상담소 만든다고 해서 상담원 교육받고 상담소 만드는 작업하다 잠시 자리 비워서 2천년에 다시 동북과 결합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활동가로 컸고, 학생운동 같은 배경은 없어서... 본부로 와 있어 정련된 언어로 여성주의 얘기를 할 줄은 모른다. 어쨌든 본부활동가들 덕에 무사히 본부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때 정말 행복했다.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수다 떠는 것 같지만 생산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성장하고 바뀌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즐거웠다. 이런 것들이 민우회에 더 확산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요즘 꽃힌 것은 로열 패밀리다. 거기 김인숙이 나오는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싶다. 악마의, 혹은 천사의 모습... 진짜는 세월이란 것의 의미를 자꾸 보게 된다. 내가 민우회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키더라.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다. 핵심활동가들이, 본부도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지치지 말고 오래오래 머물게 되면 그게 힘이 될 것 같다. 시간의 의미를 많이 보고 싶다 요즘.

최문선 : 최문선. 별칭은 미오리. 미운오리새끼다. 민우회 들어온지 1년이 아직 안 됐다. 7개월정도. 상담원교육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꽃혀 있다.

2. 본부 2011년 지역사업 설명

(녹취 생략)

김인숙 : 지역민우네트워크라고 지부 대표들이 모이는데. 의사결정은 중앙위에서 한다. 지역민우네트워크는 지부 대표들이 활동하면서 고민되는 문제, 성장시키고 싶은 것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거기서 의견 정리하고 그 후 보통 중앙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민우넷 하다 보니 지역에서 고민하는 것이 압축하면 두 가지였다. 중간활동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과 지역의 문제들을 이슈화 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지역 여성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문제들을 핵심으로 삼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그걸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지부운영위원교육을 했고 당시의 대표들이 심화 프로그램도 짰었다. 또 공동으로 이슈를 치기위한 사업을 잡고 해 보기 위해 함께짓는 맛있는 노동을 시도했다. 여성노동은 민우회 태생부터 있었는데, 이걸 지부들과 함께 하면서 사업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노동팀이 지부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료집에 지부의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있다. 성폭력정책도 그렇고. 지부들과 공동사업으로 잡아내는 변화들이 있다. 그래도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거다. 여기 있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할 거다. 본부로서는 인력 투여도 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박봉 대표가 민우회 산 증인인데, 지난 연말에 정책위원과 여성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많이 했다. 우리가 지역에 밀착된 운동을 하자, 풀뿌리 운동을 하자고 해 왔는데 그래서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것이 정말 여성주의적인 내용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학자들이 컨설팅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또 지역에서 활력을 만드려면 주 공략 대상층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30대라고 생각한다면 그 층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 또 그것을 위한 사업이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 있었다. 또 부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분리, 독립, 성장으로 상정하고 나가는 추세였는데 지역이나 전체 시민운동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이를 어떡할지 등의 얘기가 나왔다. 이를 본부만 얘기할게 아니고, 지역과 함께 얘기하고 지역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 지역조사를 하는 거다. 고양이 잘 할 거라고 본다. 오늘은 어려움을 주로 얘기해 보는 시간이다.

이야기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 생각에 고양파주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다 이걸 한 번 적어 보자.

3. 고양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은?

왕희애 : 저는 안 썼다. 없다고 하고 싶은 거다. 사실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은데. 아킬레스건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굉장히 많은 아킬레스건들을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 회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느끼면 대책이 안 서고. 그냥 대표라고 쓸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쓰려면 모자랄 것 같고 일단 없는 걸로.

안선희 : 민우회는 돈. 돈이라고 썼다. 늘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마련해서 자립할까 이런 생각.

박봉 : 한국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아까 샘플로 이름 이런 얘긴 했는데, 아킬레스건은 대중성 같다. 대중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것이 기본인데 이게 뭔가 잘 안 되면서 늘 욕망하면서도 늘 대중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데 우리가. 대중적이란 건 뭐지 대중은 뭐지 늘 이런 생각을 한다. 민우회는 대중적인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단체여서 그게 우리 발목을 잡기도 하고 미래의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다.

김인숙 : 아킬레스건이 치명적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달리기 때처럼 필요할 때 확 힘을 내야 되는 지점이다. 약점이지만 힘이 나는 곳인 것 같기도 하다. 우리에겐 어디일까 생각해보자.

안인숙 : 비슷한 것 같은데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 또는 인식이라고 썼다. 이건 아킬레스건이라기 보다 아킬레스건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것 같다. 30대 여성의 실종. 우리가 다 30대 때 민우회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세대들이 안 들어온다. 왜 안들어올까 이걸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구린(?) 이름 때문일수도 있지만 이 조직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30대 때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주던 것과는 달라졌는데 지금 30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감 못잡고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운동하면서 자기 확신이 생겨서

점점 그 운동을 원칙적으로 하려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김문정 : 그 부분에서는 활동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 등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30대에는 육아,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쪽이었는데 그 연령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자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욕구가 나온다. 환경, 활동가층이 변하면서 우리가 주 활동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짚다기 보다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사업이 변화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박봉 : 그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는가?

김문정 : 논의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김인숙 : 우리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제가 지역에 있을 때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사실 좀 억울했다. 그런 선입견들이 있지 않나. 이게 걸림돌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들도 그런가?

안인숙 : 똑똑한 여자들은 민우회 생협에 가고, 살림 잘하는 여자들은 한살림에 간다고 지역주민들이 농담처럼 이야기들을 한다.

이정아 : 우리가 30대에 했던 운동이 현재 30대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30대에 아이 엄마였는데. 지금 40대와 과거 30대가 같은 환경인 것 같다. 지금 40대가 하는 운동은 과거 30대가 했던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다. 늦어지는 결혼,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활동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아직 30대가 비혼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20대때 살았던 방식을 지금 30대들이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애들 키우고 나니까 애 4학년 되니까 내 나이가 42정도 됐는데 지금은 안 그런거다. 애들 좀 키워놓고 상근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40대 중반이 넘는거다. 그것도 영향을 준 거라고 본다. 대상을 어쩔 건가 했을 때 2-30대를 끌어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4,5,60대를 어떻게 끌어안고 갈 건가를 고민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안인숙 :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생협만 보니까. 그런데 다른데 생협 조합원들은... 젊던데. 그래도 우리는 애들 유치원때부터 움직였는데.

이여로 : 저도 사람이라고 적었다. 사람이 예전에는 관심분야가 세분화되거나 각자 삶이 아주 다르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좀 보편적인 삶이 있었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삶. 지금은 너무나 다양해졌다. 삶의 방식과 관심사가. 그래서 과거의 운동방식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싶다. 이 안에 있으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만들어 내야 가능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워서 소수가 들어오지만 이루어내는 것이 또 많으니까. 지금은 더이상 획일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방식도 개인이 나와서 촛불집회 하는 방식으로 된 것 아닐까.

김인숙 : 우리는 그동안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한 방식이었는데,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숙희 : 저는 한국여성민우회가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 민우회를 좀 세게 보지만, 실제 민우회 사람들 보면 전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민우회 나오려면 대부분은 어느정도 애들이 크고 육아에서 좀 자유로워야 민우회에 나오고 나를 찾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답답해도 내가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었다. 저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민우회에 발을 들였고, 활동들 자체가 내가 답답한 거 중심으로 간다. 여성주의 활동, 상담원 활동, 지역 사안 뭐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담당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계급은 중산층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민우회에 찾아올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민우회가 억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슈파이팅을 하고 있진 않다. 극단적으로 여성을 억누르는 문제, 제도적인 문제, 민중적인 문제, 권력이 저지르

는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민우회가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우회가 뭘 해야 하는데 안 하더라.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다. 민우회 자체에서 보는 민우회 상과 일반 대중들이 민우회를 봤을 때 전위적인 부분이나 똑똑한 여성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사이의 괴리감이 있고, 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기분? 그래서 중견활동가 지반이 연약한 것 같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저기 펼쳐는 놔는데 그걸 딱 모아서 할 수 있는 정체성을 못 가지지 않았나. ... 상근자들도 늘고 회원도 늘고 기반도 늘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은 늘 똑같다. 돈은 곧 사람 문제고. 회원들이 모든 물적기반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민우회 하면서 얼마를 돈을 쓸 수 있는가, 이것도 지표라고 생각한다. 내 활동비를 얼마나 쓸 수 있지 하는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회원 확대도 좋지만 내가 물심양면으로 잘 하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중견활동가는 왜 떠났지 하는 생각도 해 봐야 하고. 크게 두 가지로는 아직 우리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것 아닌가, 그리고 왜 활동가들이 축적되지 않는가. 인 것 같다.

김인숙 :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각 지부마다 또 다를 거고.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김진희 : 고민이 별로 없었는데... 아길레슨? 문어발식 사업확장?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착각 때문에 시작한 걸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크로스가 안 되서 그런 걸까.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부족해도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펼치지 못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리는 잘 안 되긴 한다. 잘 모르겠다.

박주경 :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 이루어낸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다. 활동가들에게 여러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사람을 소진시키는 것 같다. 활동가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좋긴 한데. 제가 몇 년 전 소진되던 당시에 그걸 처음에 못 느꼈었다. 활동가들의 소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그게 아마 중견활동가들이 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올해는 어떻게 다시 나왔는데. 활동가들의 성장을 고민하는 태도는 매우 좋아 보인다. 성장을 끌어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 과거 하담 개소때 일을 했는데 3명이 365일 일을 했다. 그때 힘들게 했다. 그렇게 2년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활동할 맛이 안 났다. 조직이 나를 고려해 주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현 : 얼마 전에 타로교육 받았는데. 성격점 보니까 보수성이 나왔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생각 패턴의 보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 그와 비슷하게 민우회도 그런 보수성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못한 것 아닐까. 열려있지 않으면 그것이 보수아닌가? 각자들 관점이 투철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남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성이 되는 것 같다. 자기와 다른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 걸까.

주정희 : 여성민우회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성노동자회 하면 이름 자체가 명확하지 않나. 여성민우회는 여성 백성의 벗?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모인 곳으로 인식하는데, 저도 사업하면서 답답한게 주대상층이 없으니 어디에 맞춰서 짜야 하는지가 답답하더라. 지금은 상근활동가들의 고민 수준에서 사업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그걸 어떡하면 바뀌어 할지 한 사람의 고민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처음 상근활동 제의를 받았을 때 20대에 상근활동 경험이 있긴 한데 어디가서 뭘 할 거란 생각을 못했다. 젊은 사람들이 활동해줘야 하는데. 처음엔 지역에 대학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고양지역 특성인 것 같다. 고양지역 사회단체 보면 다 나이가 많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지현, 박주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에 많이 공감이다. 더 개인적인 얘길 하자면, 능력있는 사람 쓰려면 돈이 없고. 활동가들 업무능력이 다들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혼자 고민하다가 중단하거나. 그래서 다시 오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체계화 되면 현재 활동가들도 그렇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김문정 샘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힘도 실어주고 있으니까.

이정아 : 왕희애 선생님 얘기랑 같다.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런데 성평등, 민주화 실현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들

게 한다는 얘길 한다. 결국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걸 해 보겠다고 간판을 건 단체들이 놓을 수 없는 숙제. 중간활동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교육과 성장. 그 전에는 그냥 정관상의 9가지 일을 어찌하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정희 샘 얘기대로 상근활동가 눈높이에 맞게 일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 현실이다. 당연한 거다. ...

주정희 : 고민이 있는데. 너무나 대중적인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고양올레. 조직화로 추진한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가볍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 커졌다. 50명 정도 참가하는데. 저는 그냥 민우회 알리는 계기로 좋은데 또 활동가들이다 보니 어떻게 조직할까 고민은 드는데 딱히 방안은 없고. 어떻게 마무리지을지 참 고민이다. 매번.

4. 본부에 바란다.

이정아 : 한국여성민우회 이름을 팔 수 있게 해줬음 한다. 지역에서 뭔가 같이 한다는 게 쉽진 않다. 공통의 일을 동시에 팡 터뜨리는 건 쉽지 않다. 봤지 민우회. 이런 뒷배경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줬음. 지금 하는 일들 많이 드러내고. 우리가 한국여성민우회를 팔고 다닐 수 있게. 우리도 지역에서 그거 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게. tv에도 자주쯤 나오시고. 그게 은연중에 힘이 된다.

이여로 : 저는 대표하면서 중앙위나 민우넷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지역은 지역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이슈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다. 장자연도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중앙에서 할 때 지역에도 같이 독려해서 간담회하든 집회하든 뭘 할 때 연락해서 참여하게 하거나 기획해서 같이 하거나 이 구조가 계속 안 되더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본부만 앞서서 지역 챙겨서 끌고 가는게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지역에 얘기해서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해 왔다. 여주 4대강 반대 고공농성 할 때도. 농성자 중에 고양 사람이 있어서 고양에선 별도로 갔다. 그런데 본부는 또 따로 가지 않았나. 지역에는 알리지 않고 가신 거다. 그런 경우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쉽다. 회의 가면 이해는 된다. 긴박하게 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소외감이 느껴진다. 여성이슈인데 본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안선희 : 특별히 요구하는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저는 이미 많이 팔고 있다. 우리가 늘 전국적인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한 조직의 일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자료도 본부 것을 많이 받아써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저는 예전부터 활동을 해서 총회 같은 회의 말고 가볍게 활동가들 단합대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소속감을 더 많이 느낀다. 얼굴 안다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런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뜸하더라. 지금 신입활동가들에게 연대감을 느끼게 해 줄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봉 : 어느 해 한 번 참가자가 굉장히 적었고, 그러면서 욕구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해서 총회 때 1박2일로 해 보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해 보려다가 최명숙 샘 장례 때문에 안 됐다.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안인숙 : 생협 20주년 때 얘기한 말인데 민우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회주부라는 개념과 전략이 있었는데, 그 때는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희미해졌다. 생협도 이미 여성운동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 안에서도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여성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다양화된 거라면 우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 성실하게 다양한 요구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 얼마전 민우회 운동사를 위크숍에서 정리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우리 안에서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고 있는 가 이 혼란이 많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정의, 조직재편이랄지, 이런 가운데 이름 변경도 나올 수 있고 그 역할을 본부가 주창하고 갔으면 좋겠다.

박봉 : 지역조사가 그런 고민의 연장선 아닐까 싶다. 본부도 회원조사도 하고. 그럴 때가 됐다. 과거엔 사회주부와 사무직여성으로 설정하고 왔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샘 지적이 맞다. 계속 뭉개가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 같다.

김지현 : 본부가 지부보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걸 계속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주정희 : 말도 안되는 얘길 하자면 미디어에 소식지 원고청탁을 했는데 안 해 주셨다. 저희의 목마름은 거기에 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안 되니까 요청하는 거니까 제발.

이숙희 : 함께가는 여성에 잘 나오는데 딱딱 뽀아서 잘 해주면 지부에 큰 도움 된다.

김진희 : 본부와 함께 했던 기억이..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하는 연결지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활동가 워크숍을 하거나, 지부운영위원교육 작년에 갔었는데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런 시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자리들 중요하다. 그때는 이사로서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는데 운영위원교육이 그러진 못했다.

박주경 : 나는 본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잘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같이 생각하는 회원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민우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문정 : 저는 15년차가 되어 가니, 제가 요번에 중앙위 가서 본부 신입활동가 오티프로그램 보면서 놀랐다. 이렇게 강도있게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싶더라. 우리 자체 역량으로 그게 가능하면 좋는데 그나마 고양은 될 수 있어도 그렇지 못한 지부들이 많을 거다. 활동가 교육 많이 강조하는데 올해 사업계획도 좀 약하게 잡힌 것 같아서 아쉬웠다. 연차별로 그 때그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지부에서는 그걸 연차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걸 체계화해서 역량들을 키워주는 교육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회의시간에 하면 좋는데 안건처리하다 보면 못한다. 개인이 연마하는 구조로 가 버린다. 지역에서는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심화프로그램 짜기 참 어렵다. 이런 건 전체 차원에서 모든 활동가들을 고려하면서 해주면 좋겠다. 활동가교육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근이든 자원이든. 지역은 상근활동가만 하면 풀이 너무 좁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스터디 모임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활동가 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정희 : 작년에 본부에서 진행한 웹자보 제작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활용 잘 하고 있다. 홈페이지 본부 정보 담당에게 큰 도움 받고 있다. 이걸 개인 차원에서 얻는 게 아니라 활동가 교육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최문선 : 제가 뭘 하려면 고양민우회 안에서 물어보는데, 다들 전문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좀 더 수준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본부에서 해 줄 수 있다면 좋고. 능력이 있어도 다들 바빠서 가르쳐 주기가 힘들다.

이숙희 : 중앙에서 소식지 기본 포맷을 잡아두면 지부에서 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본부에서 바쁘겠지만 우리도 본부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니까 분기별이라도 계속 지부를 돌아가면서 만나고 얘기하는게 당장 성과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다.

박봉 : (정리 발언) 간담회 끝나면 자료로 모으도록 하겠다. 본부의 고민과 비슷한 것 같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대중들이 다 지역에 기반해 있으니까 고양에서도 이런 내용이 많이 생산되었으면 한다. 민우회가 지역여성운동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 11개 지부에서 9개로 줄어들고, 큰 지부 동북이 흔들리고 이러면서 고민이 커졌던 것 같다. 지금은 고양의 상황이 잘 되고 있는데 큰 조직이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고양의 노하우를 지부에 확산시킬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주셨으면.

김인숙 : 진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지부 재건에 본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광주민우회 사무실

참가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나우(노동팀장) 나은(지역 담당)

광주 : 조영임(대표) 김항심(운영위원) 하루(사무국 상근) 여유(쉼터 다솜누리 소장) 아무(쉼터 상근)

1. 자기소개와 자신이 요즘 꽃혀 있는 것

김항심 : 항상 항 마음 심.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낙천적인 성격이다. 광주에 결혼하면서 왔다. 아이 가졌을 때 무턱대고 전화해서 민우회에 왔다. 12년 되었다. 상근을 하거나 하진 않았다. 운영위원 등으로 결합했다. 지금은 운영위원과 함께 성교육 강사 활동 한다. 강사모임 하고 있고. 아이가 6학년인데, 사교육없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골몰해 있다. 여성학을 전공했다. 처음 광주에 왔지만 여성단체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전화에 전화할까 민우회에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진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민우회에 전화했다. 당시 전진숙 사무국장.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다가 여성학 책을 보고 여성학 강사 선생님을 찾아다녀서 공부했다. 예전엔 여성주의 관련 강의할 때 세계 말했는데 요즘은 좀 여성주의적 색채, 힘을 빼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반응이 싸해져서 그런지. 최근에 적십자 직원 대상 강의를 했는데, 민우회에서 왔냐고 묻더라. 그 사람이 민우회 사람들은 전투적이고 씩씩하고 이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경험도 있다. 강사 후보가 되었는데, 위에서 프로필보고 민우회라고 짚았다.

아무 : 상근한 지 1년 조금 되었다. 다솜누리 쉼터에서 근무. 백팔배에 꽃혀 있다. 독실한 불교신자다. 6일동안 절에서 자원봉사하다 왔다. 108일동안 108배 하는 모임이 있다. 절에 다니면서 108배를 열심히 하고 있다. 1년 동안 다솜누리 일 하는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6일 휴가를 꼭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한거다. 청소년들과 지내는 게 일이지만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딱 지금 지겹다. 지금까지 보람있었는데. 오늘 출근한 지라 아직 아이들을 안 만났는데 휴식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다. 12월부터 3월까지 다솜누리 많이 바빴고, 4월부터 좀 한가해졌다.

하루 :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는 뜻. 처음엔 다솜누리에 7개월 정도 있다가 사무국으로 와서 1년 정도 되었다. 회원 관리, 교육센터 담당이다. 아무와 같이 다이어트에 꽃혀 있다. 아이가 6학년인데, 집에 가면 참 피곤하다. 애가 집에 오면 뭐 해주기 너무 싫다. 피곤해서. 아이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 해 주기 싫어서 요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나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상근자 3명이 다이어트 내기를 하고 있다.

여유 : 민우회 온 건 1년 정도 되었다. 03년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컴퓨터 강사로 활동하다가 장애인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쉬고 싶을 때 흥사단으로 가서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있었다. 1년 반 정도. 그 이후 6개월 정도 쉬다가 다솜누리로 오게 되었다. 다솜누리 일한다. 요즘 페이스북에 꽃혀 있다. 쉼터 안에 있다 보면 자기 나름의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다운될 수밖에 없다. 자기만의 스킬이 필요한데, 내 안의 힘을 갖는게 필요하다. 페이스북 안에서 그걸 많이 찾는다. 정보도 많이 찾고. 조금 있으면 나이 50인데, 여고 동창들도 페이스북에서 만나고. 네트워크가 너무 재미있다.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솜누리와 연결할 수 있을지도 고민 중이다. 페이스북에 해피빈도 올려볼 생각.

바다(조영임) : 광주전남여성회가 88년부터 활동해 왔다.. 일사랑자주여성회가 92년도부터 있었다. 그 안에 주부반 있었다. 원래 여성노동자 조직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녁에 활동하는데 주부들은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새누리 주부회로 분화했다. 분리 시켜준 셈이다. 굳이 광주에서 여성회가 두 개 있을 필요 있나 싶어서 당시 광전여성회도 주부 중심이어서 통합했다. 그래서 광주여성회로 통합. 95년에 통합했다. (이후 자주여성회는 2005년도에 통일과 참여를 위한 노동자회로 통합되었다), 저는 여성운동, 여성통일운동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97년도에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를 세웠다. 당시에 가족과 성 상담소라고 이름 지어도 되냐고 민우회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로 이름을 지었다. 민우회가 거리를 두는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99년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 상담소는 나름 조직체계를 갖추어 가고. 당시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관에서 법인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임의단체에 대한 차별과 편차가 심했다. 자존심도 상하고.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괘시 당하고. 그래서 법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문을 닫냐 마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99년경, 법인화가 필요했는데. 지역법인을 할 지 전국법인의 지부 형태로 갈까 고민했고. 그런데 지역법인 하면 재정적인 고민이 있어서. 저는 본부 법인으로 가자고 판단했다. 정책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지역에 고립된 형태로 있는 것보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자기 이슈를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데 광주에서 생산하는 정책만으론 한계를 느껴서 고민을 하면서 전국네트워크조직을 보았는데 민우회가 가장 맞다고 여겼다. 여성의 전화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래서 민우회를 하게 됐다. 2000년엔 적극적인 활동을 못했다. 경제활동하느라고. 그전에 활동하면서부터 돈은 계속 벌어야 했고. 하지만 활동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001년부터 민우회 상근 시작했다. 상담소장 하다가 04년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아이 문제도 있고 해서 상근을 그만두고 동네에 남았다. 현재도 상근은 아니고 08년부터 대표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은 대표하면서 아파트 임차인 대표도 하고 있다. 원래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고 06년도에 선거에 나갈까 생각도 했는데 좀 어렵더라. 나는 시민단체가 나에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치는 타협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거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꽃힌 것은, 동네에서 밥 주는 곳. 직장여성의 아이들이 공동으로 밥을 해결하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저녁에. 여성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추진하면 어떨까. 작년 여성 불편 실태조사에서도 나온 거고. 방학 때는 점심도 주면 좋고. 첨단동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생각중. 23명 정도의 난타모임에서 출발. 반드시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2. 지역사업 소개

(녹취 생략)

3. 자신이 생각하는 광주의 아킬레스건과 본부에 대한 요구사항

아무 : 작년에 민우회를 그만두려 한 때가 있었다. 12월에. '박봉'(낮은 월급)이 너무 어렵다. 남편도 없고, 독립하고 싶은데 그 별이가 되지 않아서. 독립하려면 시집을 가야 하니. 시집 안 가고 독립하기는 글렀나. 이걸 저의 문제고. 다들 일을 하고 싶은데 살림 때문에 가야 하는 상황들이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아킬레스건인 것 같다. 사복시 대책위 같은 것이. 사복시 상담소도 사용하고 쉼터도 사용하는데. 쉼터는 턱 밑에 찬 당면 문제였다. 그런데 쉼터도 중요한데 잘 공유가 안 됐다. 민우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고 답답한 점이 있었다. 쉼터는 나름대로 시청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는데, 민우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잘 공유가 안 됐다. 사복시는 광주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본부가 사복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른다. 이걸 진짜 답답했다.

여유 : 수급자 비수급자 관계가 지금 문제다. 정원 열 명인데. 현재는 5명 있다. 생계비가 1인당 13만원 나오면 5-60만원 가지고 한 달 지내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비수급자는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인데,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장관 바뀔 때마다 계속 정책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성폭력시설협의회가 발족했다. 거기서도 제안하려고 논의 중이다. 가폭 시설하고도 뭉쳐볼 생각인데, 민우회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쉼터는 그 부분이 가

장 시급하다. 추경에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소급해서 주는 건 확신 못하겠다고 하고.

하루 : 아킬레스건, 특별히 생각하는 건 없는데 아무가 얘기한 박봉. 매 해 나오는 문제다. 그 문제 때문에 활동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항심이 얘기한 씬닭 이미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내부에서 점검할 문제이고, 강하면 부러진다고, 부드러우면서도 갈대처럼 꺾이지 않는.

여유 : 저는 조직력이 늘 보였다. 여기저기 활동해 보니, 민우회 장점은 여러 의견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대화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모아지질 않는다. 열려만 있다. 일에 착수했을 때 목표가 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가 내부에서는 열심히 소통하더라도 대표가 밖에 나갔을 때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좀 중구난방 밖으로 얘기 나가는 경우가 있고, 콩가루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다. 밖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전해주면 좋는데, 주관적인 내용이 삽입되어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해서 소통이 안되서 나중에 터진다든지.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질서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펍크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여성장애인 연대에서 활동해 보았는데 거긴 자유롭게 토론하진 않지만 가자 하면 확 뭉치는 건 있다. 그것도 장점이라고 본다. 흥사단은 토론은 많이 하는데 모을 때는 모아진다. 그러니까 싸움이 덜 되는 거다. 우리가 씬닭이라고 표현했을 때 목표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 이걸 항상 고민한다. 목표를 두고 가면서 본인 입장이랑 안 맞을 때 너무 강하게 나오면 모야지지 않는다. 결국 소수의견인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다. 몇 번 놀리고 나면 나중엔 말 안하게 되고, 끝까지 주장해 버렸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다수가 말한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다수가 밀어부쳐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씬닭 이미지가 생긴 것 아닌지. 조직력에 있어서 점검해 보고 아닌 것은 버려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 : 현재 광주여성민우회의 문제점이다. 우리 모두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김인숙 : 토론은 자유롭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다수의견으로 그냥 가 버릴때 소수가 다치는 문제.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여유 : 여성주의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정리된 무언가가 있는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포괄적인 여성주의는 같은 관점으로 가는데 저도 여성이지만, 이걸 좀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주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항심 : 여성주의적 입장이라기보단 자기 입장이 중심이 된것 같은 얘기?

바다 :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주의보다, 방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가 여성주의적인 실천으로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다양함을 인정하고 끝나버린다는 문제의식인 것 같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꼭 모아가야 하는데 다양함이 있다보니 그것을 그대로 견지하고 가버리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김인숙 : 여성주의가 개인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작업에서 시작하는데 내 개인의 경험만 중요한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내 개인 경험을 잘 성찰해서 여성문제를 보는 것과 이것을 조직적으로 공익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를 한 단계 성숙시켜서 사회적 문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건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란 것을 다시 공부해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 공통으로 선정한 책 같이 읽고 이야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각이 조율되는 경험도 있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아무 : 본부는 회의 시간에 목소리 높아지는 때 없나?

김인숙 : 왜 없겠나. 다들 똑같이 의견내고 치열한데 결정하면 함께 잘 간다.

여유 : 신뢰가 있으면 잘 갈텐데. 그게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다.

김인숙 : 회의란 것 자체가 단지 결정만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 진짜 회의는 결론 내는 것보다 과정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조영임 : 우리는 주로 상근자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많이 내린다. 운영위는 한 달에 한 번이라서. 우리가 좀 상근자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항심 : 민우회 아킬레스건은 "재미가 없다"라고 썼다. 애들보고 왜 공부안하냐고 물으면 재미없다고 답한다. 니가 열심히 안 하니까 재미없지라고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열심히 안하지라고 답한다. 나도 운영위원으로 참석은 하는데 말았으니 가는거지 재미가 없다 좀. 나도 얼마나 재미를 느낄까. 일반 회원들이 참석하는데서 얼마나 큰 재미를 느낄까에서 회의가 생긴다. 여기서 놀지 않아서 재미없는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나 변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다.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이 안에서 일도 더 크게 벌이고. 누가 재미있게 만들것이나 생각해 보면 참 운영위원으로서 책임있는 말이니 원. 상근자들도 모두 성장의 기쁨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예전엔 사회변화를 위해 조직에 개인이 많이 희생하지 않았다. 지금은 바뀌었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 조직도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우회에 있었으며 한다.

김인숙 : 성장이라고 할 때. 지역을 보니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런 의미의 성장을 얘기하신 것인지?

항심 : 그건 아니다. 그런 의미라면 다른 데 가서 찾아야 한다.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것.

아무 : 여성들이 돈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자원봉사를 해도 집에 가서 나 이런 거 하는 데 돈도 얼마씩 벌어야 이래야 권위도 생기니까. 돈 못 벌면 기껏 하는 거 자원봉사냐 이런 취급이나 받고. 돈이 내 능력을 말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바다 : 항심은 여성학을 전공한 지라 우리 내에서 여성주의적인 이론적이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실천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항심이 역할을 하나 꺾치고 뭘 하나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한다. 항심이 갖는 성장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심이 여성주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욕구가 있을 수 있다. 민우회는 여성주의적 실천이 행해지는 현장이니까. 내가 그 장에 속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인숙 : 항심 선생님 얘기가. 본인 얘기라기보다 지역 여성들 얘기인 것 같다.

항심 : 맞다. 다른 여성들이 재미있게 참석할 수 있는 무언가.

항심 :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회 운동이나 여성운동의 지형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 바뀐 것들을 발랄하게 적은 책 없는지? 있으면 추천 바란다.

바다 : 아킬레스건. 조직력, 질서, 집행력. 이런 부분에 좀 공감 되고. 성장의 가능성. 비전. 여성단체에 오래 있었던

데 20년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여성운동의 요구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다. 최근에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강했는데 요즘은 시기가 좀 변하는 것 같다. 이미 제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성을 주체화시키는 문제들에. 참여를 높이고 그들

을 준비시키는 일들. 그들의 장에서 주체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활동가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공간에 적응하는 것이 바쁘다 보니 서로 얘기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문제가 있다. 시기는 민우회 10년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위치가 있었던 만큼 대중적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데 활동가들이 그걸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민과 실행의 영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상담쪽 인력들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분리되어 있다. 여성운동 전체를 보는 관점의 부족. 그래서 답답하고 급한거다. 민우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교육 같은 것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조직가훈련이나. 활동가들이 그런 고민을 더 갖추면 좋을 것 같다.

군포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사무실

참가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나온(지역 담당)

군포 : 김인자(대표) 송순자(운영위원/한부모위원장) 박지희(운영위원/지역자치위원) 김혜정(사무국장) 이현정(사무국) 심용선(성폭력상담소장) 박선인(상담원) 이명숙(상담원) 권명애(한부모팀장) 운영위원 김형숙, 정영자, 박은영 미참석.

1. 자기소개 시간 (별칭, 하는 일, 활동 연수, 요즘 나는 무엇에 꽃혀 있는가?)

심용선 : 심박. 심박용선이라. 심장박동의 준말이라고 할 때도 있다. 민우회는 08년 11월부터 활동했다. 현재 성폭력 상담소장이다. 요즘 군포민우회가 미래비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산행준비, 몸만들기 등을 하고 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김인자 : 하늘. 하늘처럼 마음이 넓어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2005년 1월에 들어왔다. 상담소로 들어왔다. 1년쯤 놓고 상담활동가 하다가 작년에 대표가 되었다. 사회적기업, 돈 이런 것에 꽃혀 있다. 어떡하면 민우회가 돈 생각 안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 워크숍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자 했는데 어떡해서 회원 많이 모으고 활동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여성들이 권력을 잡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꽃혀 있다.

김인숙 : 소장님, 대표님부터 시키니까 조직에 대한 고민만 하시네.

이현정 : 동기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당시 인터넷 막 나올 시절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쌤장에 있었다. 그때 쌤장이 유행이었는데. 그러다가 쌤닭이 되었다. 이름따라 가는 것 같다. 많이 싸웠다 정말. 민우회 온 지는 2009년 2월부터 오기 시작했다. 하는 일은 개인의 인사, 총무, 회계, 노가다 내지는 잔소리 온갖 참견 오지람. 요즘 꽃혀 있는 것은 위대한탄생이다. 노지윤 팬카페에 가입하고 싶다. 가수 말고 텔런트 하지. 민우회에 꽃혀 있다면 올해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역사의 맨끝을 붙잡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송순자 : 처연사. 천사를 느리게 발음해서. 그런 마음 갖고 싶어서. 민우회 처음 태동할 때 시작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한참 폭 쉬고 06년부터 5년째. 생협쪽 일을 했고 올해는 한부모위원장을 하고 있다. 지금 꽃혀 있는 것은 저는 먹는 것에 꽃혀 있다. 심박 샘 따라 다시 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명숙 : 요즘 꽃힌 일은, 08년부터 상담원 교육받으면서 민우회 왔는데 작년에 반상근으로 시작해서 올해도 반상근이다. 작년에는 일 배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좀 즐기면서 하려고 한다. 군포여성민우회가 현재 역사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기에 나도 같이 하고 있어서 뿌듯하다. 며칠 전에 워크숍 갔다와서 지금 사기가 충천하다.

박선인 : 별칭은 감자요정인데. 감자의 은은한 향과 요정의 깜찍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누가 얘기해 준거다. 그런데 애들이 요정은 빠라고 난리다. 그 이름으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받은 사람이 스팸메일인 줄 알고 삭제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감자라고 그냥 쓰지만 원래는 감자요정이다. 현재 상담소의 회계 총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꽃힌 것은 1/4분기 시청 정산 보고 였다. 상근은 두 달하고 17일 됐다. 내가 좀 징징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무실 식구들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 직전엔 사복시에 꽃혔었는데.

권명애 : 별칭은 창조. 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면서 살고싶다는 생각. 군포민우회 개설할 때 같이 했다. 그때 음식을 했는데 자원봉사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06년도에 대표 그만두면서 자유스럽게 하다가 다시 한부모들을 만나면서 한부모 사업이 군포의 자량이었는데 사라질것 같은 위기 속에서 다시 제가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주로 한부모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단위의 한부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꽃힌 것은 그룹홈 하다 보니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전엔 엄마 위주로만 사업을 했는데 한부모 자녀들이 많은 고통받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어떡하면 자녀들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중. 청소년상담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중이어서 노인공동체에 관심이 있다. 저와 한부모들이 환경은 힘들어도 우리끼리 즐겁게 잘사는 것을 찾아가면 좋겠다. 사회부조리를 깨는 건 너무 힘드니까 주어진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사는 것을 고민. 자발적 가난도 선택할 수 있게.

박지희 : 미프. 90년대에 지은 거다. 처음 인터넷 할 때 고르고 골라 지은 별칭이다. 09년에 민우회 처음 왔다. 지역 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다. 운영위원과 지역자치만 하고 있다. 다른 건 끊고 너무 힘들어서. 꽃힌 것은 최근에 끝낸 책이 있다. 상징의 비밀이란 책이 있다. 그림으로 요즘 기운을 받고 있다. 여동생이랑 타로카드 얘기하다 이 책을 보게 됐다. 전반적으로는 만남과 소통에 꽃혀 있다. 많은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걸 요즘 좋아한다.

김혜정 : 석공. 돌 깨듯이 도닥으며 살자. 그런데 돌 깨는거 너무 지겨워서 다이너마이트로 한 방에 깨버리고 싶다. 그 자세 유지하기 너무 어렵다. 3년차 들어가고 있다. 민우회 회원하기보다 다른 단체 있다가 바로 일을 시작했다. 지금 사무국 전반적인 일 하고 있다. 꽃힌 것은 민우회에서 내년 10년의 비전을 세우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 여행계를 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가야겠다. 휴가를 혼자 갈 자신이 없어서 남편을 열심히 꼬시는 중. 안가면 다른 남자하고라도 간다. 이러면서. 남미 쪽으로 가 보고 싶다.

박지희 : 홈페이지 회원 되는 방식이 궁금하다. 인트라넷 내부 게시판에 군포민우 아이디로 들어가니 좀 그렇더라.

2. 본부 2011년 지역사업 설명

(녹취 생략)

3. 군포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은?

김인숙 : 아킬레스건 얘기해 보자.

(군포는 사흘 전에 자체 워크숍을 진행함)

김인자 : 민우회하면 참 정치적이다.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런 인상이 좀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사람들인데 못 끌고 온다. 좌파적인 여성정치그룹이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다. 교회에서도 시민단체를 도와주는데 민우회는 정치적이다 둬기 그렇다는 얘기도 한다. 나한테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 시의회나 이런 데 나가는 정치그룹의 하나라고 본다. 민우회 이름 자체가.

권명애 :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 않나. 그런 거 하는 여성 그룹들이라고 해서 역세고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다. 똑똑한 척 하고.

권명애 : 여성들 경력단절 오듯이 민우회 안에서도 단절이 없이 계속 연결되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항상 한 시대 가면 그 시대 사람만 있고 그것이 아킬레스가 아닌가.

김인자 : 참 안 바뀌더라. 새 사람이 오면 전에 온 사람이 발길이 뜸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가, 전대표들을 모아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묶으면 어떨까 싶었다.

심용선 : 08년 11월에 오면서, 예전 사람들하고 바뀌게 된 시점에서 왔고, 그 때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2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현재 연결이 있는 사람이. 고비고비마다 감정적인 것 때문에 (경제문제도 큰 비중이 겠지만) 그런 골이 있다. 15년 정도 활동하다 보니 감정적인 골이 사람들을 분산시키더라. 그러면서 회원들도 산산이 흩어지게 하는 효과를 내고, 지금 운영위원회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시기, 힘을 내야 할 때에 안 모아질 수 있으니까.

김인자 : 지금은 위기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다.

김인숙 : 어디는 오래된 회원들이 오래 머물러서 새로운 매력적인 사업이 만나오기도 한다. 아래세대의 관심을 잘 포착해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김인자 : 가치관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뀐거지 세대가 바뀐 건 아니다.

심용선 : 갈등이 생기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 같다.

김인자 : 전대표와 운영위원간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분산된 거 아닐까 싶다.

박지희 : 중간활동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송순자 : 전 운영위원회여서 나도 갈등을 같이 겪었던 사람인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빠치기도 잘하고 감정의 쓸림 등이 있긴 한데. 세대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활동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면 여기 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말로 이념화하는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다.

박지희 : 며칠째 계속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서.(웁삽을 했었기 때문에 지친 듯) 나는 회원들끼리 재미있는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단란한 분위기가 부족한 것 같다. 사무국과 상담소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내가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저는 본부 지역자치넷 가서 지부들 하는 얘기 들으면 참 신기했는데, 전체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아킬레스 건인 것 같다.

김인숙 : 과거 동북에서도 작은 사무실에 3명 있는데 서로 뭐하고 있는지 몰랐던 경우 있다.

박지희 : 서로 회의 한다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았다.

김인자 : 상담소에도 한 발 있고, 지역자치도 한 발 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매주 상근자 회의를 하는데도 이게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 두 군데 다 결합하는 사람은 헛갈리고 갑갑하기도.

박선인 :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놀란게 처음 총회 참석했을 때도 뭐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대단한 철의 여인들이라는 느낌 받았다. 저도 상담소 들어와서 치명적 약점이라기 보단 민우회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회원들이 느끼기에 내가 거기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지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는 딱 한가지가 없으면 회원들은 안 온다. 그게 딱 한가지 뭐라고 단순하게 내세울 게 없다는 거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일은 하는데. 회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나 경로도 다양한데. 09년에 상담원교육 받았는데 기수별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 사람들이 목적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오는 거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처음에 그냥 동기니까 모이자고 하니까 목적이 없다고 안 오는 거다. 흐지부지되고.

심용선 : 민우회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드센 줄 알았더니 의외로 평범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인자 : 내가 교회사람들을 몇 명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가 많은 거다.

박선인 : 상담원교육 끝났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안 보인다. 그 때 적극적으로 오라고 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다. 개인 시간을 많이 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상근활동가들 보니 엄청 바쁘더라. 나 혼자 나와서 있다가 뭐하지 하고 있다가 갈까 하고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박지희 : 우리같은 회원들은 사무실 오면 너무 바빠서 그냥 가는데, 상근자들은 회원들이 왜 안 와 이려고 있더라. 방해하는 것 같고. 한편 상담원 전화 받으러 사무실에 온 건데 다른 일 좀 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별로였다.

이현정 : 아킬레스건, 너무 가난하다. 본부도 가난하고 지부도 가난하고. 처음 여기 왔을 때 회계를 처음 맡고 중앙회비를 왜 내야 하나 굉장히 의문이었다. 죄송해요. 요즘 회원이 조금 늘어서 중앙회비 많이 나가는 달이 있는데. 그런 달은 중앙회비도 많이 나가서.

김인숙 : 우리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내가 지부대표일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그러니까 니가 해 보라고 불렀겠지) 사실 모자라긴 하다.

김인자 : 이현정씨가 있어서 축적은 안 되어도 마이너스가 안 된다. 아마 우리지부 상근비가 적어서 그런 것 같다. 타 지부에 비해서.

이명숙 :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해서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 불만이 없으니. 나는 상담소에서 강사 선생님들과 회의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성교육 강사 선생님들은 교육자료에 불만이 좀 있다. 본부에는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없나. 주로 '아하'나 '탁틴내일'에서 받은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본부에는 없을까 의문. 군포여성민우회에서 나가서 하는데 다른 단체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불편.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면 하고. 군포민우회는 문턱이 높은 것 같다. 편안하게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뭘하면 그럴까. 소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다. 생겼다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김혜정 : 작년엔 본부가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부 영역이 되지 않을 때는 본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갈증이 좀 있었다. 올해는 본부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민우회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했다. 조화롭게 사는게 쉽지가 않구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민우회의 정체성을 딱 내놓을 수 있는것도 좀 없다. 저는 사무국 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대부분이 상담소를 통해 모인다. 그래서 사무국 일로 애길 하면 모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회원들은 이쪽으로 끌려오지 않는다. 일 하다 보면 우리도 재미가 없다.

김인자 : 인센티브가 없다.

김혜정 : 회원들이 사무국 쪽 일에는 불지 않는 것. 이게 치명적이다. 민우회 하면 드러낼 수 있는 그게 없다. 상담소 얘기 안하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늘 안타깝고 답답하다.

4. 본부에 바란다.

김혜정 : 본부에 건의하자면, 작년에 지역자치네트워크가 좀 제각각이어서 답답했다. 본부가 잘 독려해서 잘 가져갔으면 성과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서 좀 답답했다.

권명애 : 한국여성민우회가 가족 이슈를 가지고 많이 했고 한부모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한부모 사업을 탁 놔다. 민우회가 더 큰 걸 놓치지 않았나 싶다. 원래 가족과 성 상담소였는데 거기서 가족을 포기한 거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문화니 뭐니 가족 이슈가 많이 커지지 않았나. 가족이란 문제를 사회단체가 잡아야 하는데 민우회가 놔지, 여전이 가정폭력을 다루긴 하지만 조금 핀트가 다르고. 그래서 큰 꼭지인 가족을, 어느 여성단체도 다루지 않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우리도 낙동강 오리알로 혼자 붙잡고 있다. 군포 안에서도 많이 관심이 없고. 한국한부모연합에 여러 단체들이 모이고 있는데, 내가 대표긴 해도 역량이 없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역량이 없어서 이끌어 나가기 너무 벅차다. 인천여성민우회의 경우 한부모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지부는 본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상담소의 경우 본부도 상담소를 하니까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것 같은데 한부모는 그렇지 않다. 어디가서 의논할 곳도 없다. 그게 고민이다.

송순자 : 한부모 사업은 왜 접었나 본부에서?

김인숙 : 내가 없었을 때라 잘 모르겠지만 이후 필요하면 지역민우네트워크 하부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면. 본부의 상담소 변화에 따라 본부 사업이 폐기되면 지금과 같은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되나, 그당시엔 그 구조를 생각지 못한 듯.

송순자 : 한부모나 생협 다 본부에서 밀려나는 활동들이라 진이 좀 빠진다. 약간 소외감도 느낀다.

김인자 : 비전워크숍 목적은 민우회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사무실 말고, 사람들이 자주 오고 와서 자기 역량도 키울 수 있고 취미반처럼. 반찬을 만들어서 팔고 그 기금을 나눠가진단든지. 자기가 하다가 나가서 하겠다면 그렇게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활동을 하고.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를 고민했다. 그러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재정 문제와.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다. 도움닫기 해서 400여만원. 그 주 목적이 운영위원과 활동가의 역량강화다. 1박2일 정도로 워크숍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다. 그 때 세부적으로 잡을 거다. 이 사무실은 내년 4월까지 유지 가능할 것 같다.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여윌돈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북카페가 자꾸 나왔다. 한쪽은 상담소, 한쪽은 북카페 형태로.

김혜정 : 공간 자체가 타겟은 아니다. 2월 마지막 주에 박00 샘과 한 번 워크숍 했고, 민우회에서 내가 꿈꾸는 것으로. 후속작업 하자고 기약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에 워크숍 다시 했다. 사실 MT성격이 더 강했지만. 짙막하게 논의하다 말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공간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의견. 공간의 변화를 주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운영위원과 상근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걸 염두에 두어서 여성재단에 도움닫기를 신청해서 그게 됐다. 개인적으로 기초조사할 때 군포에 시급한 내용들을 추가로 담을 생각이다. 지역 탐방도 좀 다니고. 지난 주에는 춘천여성회에 다녀왔다. 카페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많이 알아보러 다닐 생각.

김인자 : 대전여민회도 가 보려고 생각 중이다. 12명이 첫 워크숍 참가했는데 8명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집중해서 가고 있다. 프로젝트는 5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생협 사무실

참석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나우(노동팀장) 나은(지역 담당)

남서 : 조성화(대표) 이경란(대표/생협이사장) 주영(운영위원) 양정순(지역아동센터장) 고나경(사무국)

1. 자기소개 시간 (별칭, 하는 일, 활동 연수, 요즘 나는 무엇에 꽃혀 있는가?)

고나경 : 근무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다. 4월 1일부로 남서민우회에서 상근하고 있다. 별칭은 아직 만들지 않았다. 지금 꽃혀 있는 것은 '말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개인이 아니라 민우회 얼굴이기도 하니까. 조리있게 말하기. 이번 주에 지리산 가는데 레크리에이션강사도 해봤으면 참 도움이 되었을 텐데 싶다. (이번에 조합원 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행)

주영 : 민우회 회원이 된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 활동은 안 하고 발만 담그고 있다가. 민우회에 든 계기는 동네 장수산 지키기 운동을 할 때 나무가 베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서, 이경란 선생님과 옆동네에 살아서 그러면서 민우회에 가입했다. 쪽 회원 하다가 몇 번 운영위원 제안을 받았었는데 상근활동가 없는 동안 두 번의 소식지 편집을 했고 올해 운영위원이 되었다. 작년에 민우회가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어서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요즘은 자아통합 관련 강좌를 듣고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조성화 : 민우회에서 나를 소개할 때, 민우여성학교 94년도에 제발로 찾아갔던 기억. 그 당시 내 안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민우여성학교에서 내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길 알게 되어서 민우회에 오게 됐다. 쪽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관여안했지만 2000년도 넘어서 7,8년경에 많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격과는 전혀 다르게 대표직도 맡게 되고. 지금 꽃혀 있는 것은 우리 딸이 연애하고 있는 걸 듣는게 참 재미있다. 나는 직접 연애를 해 보지 않아서 열 번 만나고 결혼한 지라.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딸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재미있고 좋은 얘기 해 줘서 맛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꽃혀 있고. 남서민우회는 좀 어깨가 무겁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살짝 막막하다. 이경란 선생님이 사람들 많이 끌어 오시긴 했는데,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여자라서 이런 게 요즘 힘들구나 싶은 것은?)

나우 : 여자라서 이런 걸 겪는구나 생각하면 화가 날 때가 있다. 글썄... 애 키우는 건 나도 힘든데 배우자도 힘들어 하니까.

조성화 : 요즘 중학교 동창 모임을 2주에 한 번 한다. 거기 멤버들이 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강남 사는 애, 의사 부인, CEO등.. 뭐 나도 CEO긴 하다^^ 강남아줌마들은 애들 키우는 걸 막 자신있게 한다. 근데 나는 이도 아닌 것이 저도 아닌 것이 CEO한다는 그 친구는 뭔가 자신있게 얘기한다. 상대가 상처받든 안 받든. 개는 독신인데. 광고회사니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내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들까 싶다. 강남주부들처럼 애들 잘 키운다 자신있게 얘기도 못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거다.

양정순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다. 작년 5월부터 일했다. 저는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다 보니 힘든 아이 한 명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 생각 안하려고 해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상담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싶다.

이경란 : 남서생협이사장, 민우회 공동대표. 95년부터 활동했다. 그때 한살림 조합원으로 있다가 민우회로 오라는 고심에 오게 됐다. 요즘 나는 확실히 일 중심인 것 같다. 인간관계보다 자꾸 일로 잡는 것 같고. 매장을 최근에 새로 내어서. 요즘은 사회적기업이 꽃힌다. 또 알아보고 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도 든다. 어제와 오늘. 일이 안 겹치면 괜찮은데 동시에 여러가지가 겹치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일이 좋기는 하다. 일을 자꾸 하니까 사람도 모이고 힘은 들어도. 주말농장도 14명이 하고 있는데 하니 재미있고.

2. 본부 2011년 지역사업 설명

(녹취 생략)

3. 남서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은?

양정순 : 민우회는 지적인 모임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지적인 모임으로 끝나면 접근금지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아줌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모임이라면 약간 느슨한 것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밥 싸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하면서 지적인 것과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적인 걸로만 고수를 하면 지적인 것은 어디서든 내가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지역에 맞는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느슨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그 안에 편안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다. 여유로움과 느슨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김인숙 : 잘난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너무 일 중심의 사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듯하다.

조성화 : 내가 가진 생각도, 민우회라면 이 정도의 일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앞에서 끌고가는 선도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상근활동가의 요건 같은 경우도 준비된 사람들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아줌마적인 느슨함도 같이 갖기를 원하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근활동가가 발을 못 붙인다. 작년이 그런 케이스였던 듯. 활동가로서 스스로 준비된 부분은 있었다. 그 부분의 역할은 잘 수행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 회원들과의 융화라든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엄청 괴리가 있었다. 따로 돌았던 것 같다. 그런데 활동가로서의 그런 능력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주영 : 과거 상근자들 보면 왜 이렇게 아줌마 중심으로만 가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적인 아줌마들끼리의 연대의식이라도 있으면 색깔대로 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은 없다. 십몇년을 봐도 여성들은 관계 중심적인 부분이 있다. 약간 일 중심적이니까 힘 넘치는 이경란 선생님 빼곤 다들 많이 지쳐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조성화 : 지적인 아줌마들이 얼마 정도 하고 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의 좌충우돌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지침과 의무감, 사명감만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안 오려고 한다. 사회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이경란 : 남서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았다. 지역 자체는 보수적이긴 하나, 민우회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성격 분란이 있었던 거다. 우리도 너무 오래 머물렀다. 경험으로만 바라보게 된다. 거쳐가신 운영위원들 대부분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괜찮은데 모여 있으면 안 괜찮다. 동북은 부드럽

게 융화되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안 그렇다.

주영 : 양천구에서 민우회 활동 하셨던 분들은 강남좌파 성향 정도쯤인 것 같다. 신월동 지역 쪽은 지역간 격차가 너무 크고.

이경란 : 지부 운영위원 했던 사람들이 생협 일은 참 재미있게 한다. 성격이 잘 안 드러난다. 참 희한하다. 나도 심리학 공부를 해야 하나. 민우회 하다 보면 심리 교육도 하고 상담교육도 좀 해야 리더 성향이 될 것 같다. 같은 사람이 생협 와서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왜 이럴까.

조성화 : 생협에선 회비 내란 소릴 안 하지 않나.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다. 내가 낸 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거다. 내가 낸 돈으로 이거 밖에 못하냐 이런 태도. 만 원이라는 돈도 사심없이 투척이 안 되는 거다. 지부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운영위원이면 재정 같은 것도 자기들이 해야 하고.

이경란 : 남서는 다른 영역으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낸 것 같다. 인큐베이팅 같은 역할은 많이 했는데. 민우회의 역할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은 든다.

주영 : 작년에 했던 본부 활동 중에 식당노동은 참 좋았다. 작년에 낙태 이슈가 되지 않았나. 나하고 생각의 유리(괴리)가 일어나서 약간 고민했다. 힘들어진 여성들을 대변하려 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민우회는 생명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말리는 건 괜찮은데 정당하다든가 표현에서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아도 약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본부에 있는 사람 일부가 과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용은 알겠는데 표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설득력도 좀더 갖추었으면 좋겠고.

고나경 : 아킬레스건. 저는 민우회와 동떨어져 있다가 민우회로 들어온 입장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단체로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들어왔을 땐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내가 직장 갖고 싶었는데 텃세나 이런 거 없고 많이 배려해주시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첫 사건이 터진 게 운영위원회였다. 참석했는데 다들 너무 온화하신 분들이 회의를 딱 시작했는데 운동권 단체라고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저는 주부가 그냥 회의에 들어간 격인데 웬지 충격이 컸다. 사무실 소품비가 4500원짜리 영수증이 없었던가.. 제가 얼른 가서 영수증 찾고. 누가 한 명만 괜찮아요 하면 되는데 다들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내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다. 서로 일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네요 이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더 크게 터진게 지역기초조사 건인데. 취지는 취지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파고드는게 싫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100명을 다 뽑아서 화요일까지 준비하라는 그런 얘긴 줄 알았다. 이걸 어떡하나 고민이 많았다. 일주일 지나고 그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조금 더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경란 : 아킬레스건?, 사람이라고 적었다. 최근 영화모임을 통해 사람을 모아보려고 하는데. 걷기도 하고 있는데 거의 혼자 돌거나. 아침7시에 공원을 걷고 있는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중. 그런데 생협하다 보니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 거다.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탈이더라. 그런데 대표가 너무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면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지역은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게 있으니. 사람이 빨리 좀 와야 되고, 있는 사람은 좀 나가야 하고.

조성화 : 소모임을 하면 그 안에만 머무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나는 좀 비관적이다. 여성학 모임조차 그렇게 흘렀으니.

이경란 : 내가 소모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참여시키면서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주영 :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업무분장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예전의 독서모임 같은 것이 민우회 소모임이 안되고 다 민우회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김인숙 : 나도 그걸 회의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소모임이 있으면 유대감이 있어, 필요한 시점에 확 활동력으로 붙는 경우들이 있다. 주부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에서 많은 소외감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소모임 활용하면 좋을 것. 진주는 각종 소모임이 있는데 그 소모임들이 지역아동센터 엠티에서 한 타임씩 맡아서 역할을 한다. 그게 소모임의 작은 과제가 되는 거다. 그런걸 참고하는 수도 있다.

양정순 : 작년 사람들을 보면 얘기하는 것 이면의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도 처음 들어왔을 때 지부 폐쇄한다고 했을 때 책임의식은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민우회가 해 온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유지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다른 어려운 것들은 감수가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스스로 도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작년엔 시각들이 너무 부정적이었다.

김인숙 : 올해 계획은?

이경란 : 올해는 운영위원 두 분이 새로 와 주셨고 가입 후 1년보다 6개월만 되어도 운영위원 되는 걸로 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일단 올해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반기 하반기에 지리산 걷기를 하고.

조성화 :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다. 독서모임을 하자고 얘기했더니 1~2분 정도가 희망하는데. 식당노동사업에는 참여를 잘 안 하더라. 사업을 통해 하는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상근활동가 들어왔으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

4. 본부에 바란다.

이경란 : 언론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지역신문도 잘 안 내주니 갑갑하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취약하고.

조성화 : 생협과의 관계 문제는 아직 우리도 얘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

주영 : 생협이 하는 것과 민우회가 하는 게 소모임이니 강좌니 사실 겹치는 것들이 많다. 좀 비능률적인 면도 있고 그게 지역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참석자 :

본부 : 김인숙, 박봉(대표) 나은(지역 담당)

동북 : 오경훈(대표), 옥은희, 이중희, 임현희, 홍문정, 황선아(운영위원), 권주희, 이윤경(사무국)

1. 자기소개

권주희 : 카페에서 해갈이란 별칭 쓰고 있다. 누가 지어주었다. 가뭄이 해갈되다 이런 뜻이다. 나에겐 해갈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고. 2007년 2월에 민우회 들어왔다. 민우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있다. 뭐라고 짝어서 말하기 어렵고 요즘 집중해서 하는 일은 교육이다. 4월 말에 민우여성학교가 있어서. 5월에는 성폭력지원체계 모니터가 있어서.

임현희 : 별칭은 무지개라고 지었다. 다양한 색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에 융통성 있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저도 민우회 5년째다. 지금은 십시일반 활동 하고 있고 요즘은 시간이 남으면 산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중희 : 난나다. 저도 임현희 쌤과 영상을 했는데 그때 별칭을 부르기로 했는데.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난나다. 99년에 민우회 생협으로 들어왔는데 2,3년 뒤에 회원이 되었다. 작년, 올해 운영위원 맡고 있고. 전에는 뭔가 배우는 것에 몰두했는데 요즘은 비우기. 많이 덜어내려고 하고 있다.

홍문정 : 별칭은 호수다. 지역에서 단체활동 할 때 호수 살리기 운동을 했었다. 경포호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태클을 많이 건다. 넌 호수가 아니다. 잔잔하지도 않고, 고여서 썩은 것 아니냐. 최근에 동북민우회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의 닉네임은 룰루랄라다. 8년간의 육아를 마치고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온 심경을 담아 룰루랄라. 아직 흥분이 안 가라앉았다. 신도림역에 가서 꽃 꽃고 뛰고픈 심정이다. 민우회도 터질듯한 심정에 갑자기 찾아와서 4년 됐나 6년 됐나. 지금 민우회에서는 올해부터 교육기획팀 결합해서 민우여성학교 같이 진행하고 운영위원으로 첫 해다. 당근 노는 거에 빠져있고 위빠사나 명상을 해 보고 있다.

옥은희 : 닳근. 옥씨인데 별칭이 닳근이다. 옥은희를 읽으면 오근희가 되고 오근을 닳근이라고. 작년에 민우회 가입했다. 처음 왔는데 다른 회원들이 한 십 년 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좀 급했으니까. 여기 살다가 지방 내려가서 15년 살다가 다시 오니까,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가족공동체로 들어가긴 너무 뻑뻑하고. 그래서 눈에 띄게 민우회였다. 아무래도 여성으로 고난에 찬 삶을 살다 보니 가장. 여성민우회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가. 친정 같은 존재기도 하고. 그걸 작년에는 많이 누리다가 올해 되니까 공짜는 없다고 운영위원을 하라고 그러더라. 사실 제가 글을 쓰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할 시점인데 뭐 좀 해보려니까 더 해 보라고. 살다 보니 공짜는 진짜 없더라. 그래서 미리 갚아버리자 싶어서 문화팀을 맡고 운영위원을 하고 있다. 문화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온갖 잡일이었다. 집안이 잘돼야 소리가 밖으로 퍼지듯이. 동북민우회의 친목 담당인 것 같다. 평소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민우회에 감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황선아 : 별칭은 없다. 제 이름이 좋아서. 4년째 됐다. 애 1학년 입학할 때였으니. 하는 일은 성평등교육팀 오야. 그 모임 때문에 작년부터 운영위원 하고 있다. 꽃혀 있는 것은. 나는 요즘 마음 편하게 쉬고 있다. 운영위원 일을 잘하

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미친 듯이 꽃혀 있다가 보다는 무던히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 이번 호 소식지를 보니까 딸이 민우회원인 엄마한테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엄마가 여성운동가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자주 나에게 뭐 될거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그 고민도 든다. 40대 중반인데 수명도 길어졌으니.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둘째가 조금만 더 크면 자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준비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이윤경 : 별칭은 카페를 만들면서 상근이가 되었다. 민우회는 작년에 생협 가입하고 거의 활동 안하고 있다가 생협 강좌 들으러 왔다가 상근자리 제안 받고 민우회 활동 하게 됐다. 민우회에 대해 잘 몰랐다. 십 년 정도 노래모임 하고 있다. 05년에 춘천민우회 공연 한 번 가면서 그 때 민우회 이름 처음 들어본 듯. 그동안 직장생활 계속 했다. 학교 다닐 때 풍물패, 노래패, 학생회 활동하다가 집안 반대에 부딪치면서 휴학을 하고 돌아선게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던 광고동아리. 그래서 카피라이터 공부 하고 계속 홍보 쪽 일을 했다. 책만들기, 사보 만들기 등. 그러면서도 마음만은 건강하게 가져가려고 노래모임을 한 거다. 살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게 지금 이 자리로 연결된 것 같다. 지금 꽃힌 건 민우회다. 원래 서울 전체를 누비면서 놀았는데 한강을 건너가 본게 언제인지. 사람들이 다 여기가 집일 것 같다고.

오경훈 : 예전에 집에서 새를 키웠는데 애들이 하는 일이 없어서 빈둥이라고 부르던게 별칭이 됐다. 그러다가 몇년 전 여성학 공부하다가 내가 먼저 이해하자는 뜻으로 이해. 민우회는 한 십 년 된 듯. 지금 하는 일은 사람 만나면 "너 민우회 할래?"하는 일. 사무실에서는 청소하는 일. 두 가지다. 지금 꽃힌 것은 빔프로젝터를 사야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꽃을 것인가.

2. 본부 사업 소개

3. 동북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임현희 : 저는 민우회가 몇 년 안 되었지만 원래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에 관심이 없어서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공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적이고 그 중간 같다. 내 직장 생활도 아닌데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단체 일이고. 그렇다고 월급받는 직장도 아니고. 그러다가 개인 사정으로 한 회원이 나가면 구멍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나빠질게 눈에 보이니까 못 빠지겠고. 민우회가 공적인 것도 아니고 사적인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

김인숙 : 자원활동이다보니 책임과 역할이 좀 모호한 것.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책임하고.

임현희 : 저도 깜짝 놀랐다. 누가 못 나온다 그러면 있는 사람 두세명에서 기획하는데. 덤탕이 쓴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은 그러려니 하는데.

옥은희 : 저도 사무실에서 일 돌아가는 거 보고 놀랐다. 사무실 상근자들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더라. 붙는 회원들은 얼마 없고 상근자들이 많이 하는 거다. 박봉에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좀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맨날 오는 사람만 오고. 상근자들 보면 이 양반들이라고 별다른 조건이 아닌데 사무실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

옥은희 : 뭐라할 수 없다는 건. 저도 고민 좀 해봤다. 이놈의 민우회가 뭔가. 어쩔 수 없이 그 고민 하게 된다. 그런데 참 애매하다. 예전처럼 우리 20대때처럼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과 결합되어 그런 운동단체의 개념도 아니고. 주변에 얘기하면 아직도 있냐고 반문한다. 이 모계사회에서 무슨 여성운동이 필요하냐고. 이러면 참 할 말이 없어진다. 저 자신도 정체성을 뭐라고 정립 못하겠고. 여성문제가 제가 봐도 결국은 민우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성으로 사는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자립의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더라. 저만 해도 갈등 자주 하는게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거 막 해야 되는데 지금 한편으론 공동체 안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살짝 충돌한다. 그렇다고 저녁에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크더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나 민우회가. 그게 많이 곤란할 것 같더라.

이중희 : 저는 현희 쌤이랑 같이 한 지 4년이고 달맞이만 한 지는 5년이다. 그런데 기획팀을 꾸렸을 때 이전 활동가들이 와르르 이탈한 적 있었다.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읽었을 때 이걸 바탕으로 후속팀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얘길 안 해 줘서 계속 이탈이 많았다.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팀으로 가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오래되고 노련한 활동가들이 있는 팀에 많이 끌렸는데 어느새 후루룩 나가더라

이중희 : 제가 잡을 수가 없더라. 배운 사람들이 이런 독이 있다. 너 왜 나가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있어달라고 잡지도 않는 애매한. 그래서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많은 활동가들이 이탈하는 걸 잡아주지 못하고 피드백이 약하다. 자발적인 회원이 1년에 한 명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십년동안 동북이 자발적 회원이 열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재정이 자동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죽기살기로 모든 사람들이 호프에 매달리고 호프를 하고 나면 운영위원들이 바뀌는 거다.

홍문정 : 저의 첫번째 민우회 영상은 김인숙 선생님이 고별전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3.4년 된 것 같다. 그때 젓먹이 얘기를 업고 민우회 나왔었고. 제가 온 이유는 처절함 때문이었다. 소통할 사람이 없고. 웅알이로밖에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애랑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저도 처음에는 반 다리만 걸친. 애를 데리고 할 수 있는 달착지근하고 쉬운 것만 했다. 누가 애 보내자마자 너무 빠른 속도로 거기 빠져드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내가 수혜받은 게 많아서 몸으로 떼워야 하는게 많다고 답했다. 여전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육아에 놓이면서 소통에 부재한, 장벽에 둘러싸인다. 그런 소통의 손을 내미는 게 민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활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좀더 말랑말랑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민우회 소개하는게 참 어렵더라. 민우회와 민우회 생협은 말랑말랑한 소모임으로 사람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긴 한데. 그게 우리 문제일 수 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서, 힘든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여기와서 함께 해보자고 얘기하기 힘든 것. 저도 민우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 저도 완전히 허우적거리질 않아서 아직 나도 경계적인 시선이다. 가령 조금 딱딱할 수 있는 강의는 제안을 못하고 생일잔치 정도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민우회는 가기 꺼려진다는 얘길 듣고 그러면 자괴감을 느낀다. 언제까지 이 엄마들과 가벼운 수다만 떨다가 이리 해야 하나. 저도 사실 민우회가 어떤 거대한 정치적 담론을 가지고 너의 정체성까지 바뀌라 이런 얘길 할 건 아닌데. 민우회 회원 확대와도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기획하는 강좌를 할 때도, 교육기획팀인데, 늘 한정된 인원이 오는 것. 이런 강의들 사람 많이 오면 정말 좋은데. 이런 강의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다. 대중성과 이 안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고 약발은 가지려는 그 중간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황선아 : 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아 이 여성단체는 아이의 문제 있죠. 일 하시는 분들은 저녁 이후에 잘 못오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나 저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있어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에서 다시 쪼개민 아이오는 시간 따월 제외하면 시제로 하루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은 두 세 시간 정도. 애가 중고생이 조금 더. 또 이런저런 시간 떼면 하루를 보면 민우회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 이 문제를 저도 겪고 있는 거다. 12시에 애가 오면 늦으면 애가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는 거고 신경이 쓰이는 거다. 말길데도 마땅치 않고. 저는 어리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다른 사람들 들여다 보면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다들 신경들이 아이에 많이 가고 있다. 에너지 80%를 애들에게 쏟고 있다. 나라 전체 볼 것 없이 민우회만 봐도 그렇다. 계속 이 짓을 해야 한다니. 7살 애가 졸업하면 내가 환갑이 다 될 판이다. 이게 약점이다. 특정 시간 되면 다 집으로 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보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신경쓰는게 싫은 거다. 에너지가 이쪽으로 50에서 80은 아이에 있다보니 여기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책읽고 신경쓰고 시간 내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것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한 두 시간 가서 좋은 관계 맺고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의 문제이기도 한데, 민우회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든다.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 여성주의적 관점 있지 않나 저도 민우회 들어와서 그런 책을 읽은 게 여기 와서다. 그런 걸 공부하면

서 내가 있는 위치. 여성으로서의 관계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 거다. 현재 여성민우회 얘기하는데 민우회 안에서의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역사 속에 내용을 잘 담아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 성장할 시기에는 그렇게 있었지만 제가 본 4년 동안은 그런 내용이 충분히 없다고 생각한다. 내용과 형식이란 건 다양하게 고민해야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넣고 확대하고. 이런거는 회원 내부에서조차도 없다. 이 문제들이 강화되면 다른 문제들이 회원들이 힘도 얻고 대중화도 될 것 같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가나. 내가 대중이 되어 버렸는데.

여성이란 명칭을 딱 붙였을 때, 성, 성폭력, 성적 차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여성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의 주제를 다양하게, 모든 게 여성의 일이고. 성과 같은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나도 옛날엔 맨날 그 얘기 한다 싶어서 꺼려하기도 했다. 얼마전 거리를 걷다 보니 친환경 무상급식 글자가 쓰인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 명의로는 한나라당이였다. 처음 4대강 살리기도 저 쪽에서 살리기를 가져가 버리고. 한 번 딱 봤을 때 채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누구든 알아챌 수 있게 우리 스타일의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홍문정 :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더 꺼내기 힘들어 하는 상황. 제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어느 여성이 나는 동성연애 별로다 이런 얘길 하니 오히려 그 남편이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을 보았다. 그걸 보며 여성은 소수자가 가진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왜 계속 거기에서 논위가 되고 싶어하는 걸까 궁금했다. 자기가 애를 키우고 하면서도. 이번 민우여성학교 주제가 아이 잘키우고 있냐와 페미니스트 육아를 묻다인데. 일단 페미니스트 표자 때문에 안 온다. 육아가 궁금하긴 한데 여성학자에게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소수긴 하지만, 너희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 다 밥벌어먹고 살만해서 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 이런 한계가 있다면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저도 결혼 십년차 인데 이혼을 생각해 보다가 딱 하나 남더라. 애도 아니고 나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못하겠더라. 자립이 안 되어서. 이게 민우회 구성원들이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게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 내 안에서 뭔가 확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판단할 텐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 운영위원 된 이후로 항상 회원가입서를 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못 꺼내고 있다. 그럴 때면 본인 스스로 좀 치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남편도 여성주의자들 무섭다는 식으로 빈정대질 않나.

오경훈 : 우리 남편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도대체 상의를 안 한다. 잘남(잘난척)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우회 회원들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아닌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어디 발도 못들이고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것 아닐까. 민우회가 철학이 있는가 싶기도 하다. 본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페미니스트란 칭호 안 붙이더라도 그 생각이 녹아나는 사업이면 되지 않나. 많은 고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철학에 여성주의 관점이 녹아 있나.

이준희 : 2009년에 속으로 민우회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우여성학교를 덕성여대와 조인해서 열심히 준비했었다. 기대에 부풀어서 갔는데, 우리 민우회 회원들도 많이 안 왔고. 학생들도 한 명도 안 왔고. 한 명 왔던가. 이거는 안 되겠다, 피드백이 진짜 안되는구나 접어야되는구나 싶었다.

홍문정 : 최근에 사람이 꽤 많이 모이는 모임 두 군데에 갔는데. 올해 공동육아 4년차다. 신입조합원교육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모이는데 추세인지 좁은 공간을 마련했는데 사람들은 100명 넘게 많이 왔더라.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 많은 것 때문에 벅찼다. 또 학생인권 관련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아침 열 시에 200명은 모였더라. 대체 우리 강좌의 문제점은 뭘까를 생각했다. 다들 운동하기 힘든 시점인데 기획하면서 많이 오길 바라지 않는다, 꼭 들어야 할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고는 하지만 우연히 보고 왔더니 새로운 세상이 있네 이런 사람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이까 참 고민.

이준희 : 앞으로 강의 할때는 여성민우회 플러스 어디어디 이렇게 해야 할까 싶다.

황선아 : 유명강사 이런 것들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부른다. 이범도 여기 두 번 왔다갔는데. 강좌가 목마르던 시대에는 참 듣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옥은희 : 교육 대상들이 똑똑해진 것 아닐까?

김인숙 : 교육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오래되었는데. 군포에서 강호순 사건 때 80명 넘게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재접근을 하려고 민우여성학교 공동기획을 하고 있는 거다.

이준희 : 애들, 교육, 육아. 이렇게 지역여성들의 주요관심인 것 같다.

옥은희 : 모임이 중요한게 '지지'가 필요하다. 내가 여성으로 살아남기위해서 선택들을 하는데 기존 관습적인 것과는 상충되는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편이 없다. 가족들은 싫어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그렇진 않지만, 민우회의 시선이 여성의 선택에 대해서 폭이 많이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지지가 필요할 때 저에겐 민우회가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코가 꿰었는데. 사실 교육은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진짜 민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민해서 이혼 후 뭐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던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잡아서 그 모임 중심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여기 있으면 참 위안이 되고.

이윤경 : 사실 저도 민우회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 오래 살았지만 민우회가 뭘 하는지 잘 몰랐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 보면 항상 불 꺼져 있고, 생협매장도 내가 들를 수 있는 시간엔 안 열고. 정말 민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우회 참여할 통로 자체가 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너무 제한적인 대상의 행사나 모임들로만 가고 있지 않나 계속 고민이 든다. 나라도 평일 밤에 한 번 남아 있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동영상 찍어서 메일로 싸줄까 생각도 해보고. 그들만의 리그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게 과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도 여건이 되는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데. 직장다니면서 저녁에 뭘 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전 그게 고민이다.

권주희 : 저는 아킬레스건 사람이라고 썼다. 민우회의 위기라는 걸 전 겪었으니까. 제일 필요하고 소중하고 아킬레스건도 사람이더라. 조직이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를 겪어 보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더라. 왜 그랬을까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다. 개개인은 다 민우회에 애정도 많고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모두.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민우회에서 지지받는단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런 분위기가. 저도 활동하다 보니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알겠더라. 내가 나를 열어야지 그게 되더라. 나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열어놔야지 그게 오는데. 오경훈 샘 말처럼 너무 잘나서 이런 얘기도 맞물린다. 민우회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나 보다. 작년, 올해 금세 회복하는 것 보면서 사람들의 힘이 느껴진다. 그런데 좀 불안하기도 하다. 금방 바뀔지 몰라서. 회원들의 마음도 많이 바뀐 게 느껴진다. 좀더 친밀하게 지내야겠다 싶다.

4. 본부에 바란다.

오경훈 : 우리가 1년 계획 잡아서 사업할 때 고민이, 이게 민우회랑 맞는 건가 고민이 든다. 우리는 진행시키기 바쁜 외종인 경우가 많아서. 컨설턴트처럼 본부가 맥을 꿰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사업계획이 나오면 검토 좀 해주고. 그만큼 이 사업에 에너지 쏟아도 되는건가 싶을 때가 있어서. 그런 조언.

옥은희 : 궁금한게. 본부는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철학적인 고민을 전반적으로 해야만.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 정체성의 문제 아닌가. 우리도 책 보고 고민은 하지만 본부에서 고민을 깊게 하고 방향을 정해서 하면 어떨지. 아직도 그런 단체가 있나 그런 소리나 듣고.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다. 본부는 그런 고민하는지 물어보고 싶더라.

이준희 : 방법을 생각은 해 봤다. 개인적 경험에서 찾았는데. 고등학교 때 괜찮은 선생님이 여성학 공부하러 일본에 유학갔다. 제 남편도 대학 때 여성학 강의 들었다고 들었다.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 좀 들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게 된다고 본다. 다 커서 들은 사람은 오히려 힘들다. 리더나 학자 몇 명이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신문 보니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교육을 한다고 한다. imf들어오면서 여성학 자체가 많이 죽지 않았나. 대학에서. 문학이 죽은 것처럼. 대학의 여성학과가 많이 없어져서. 대학생들은 오히려 힘들 수 있다. 중고생으로 내려가는 게 오히려 일 이십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젖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황선아 : 언제부턴가는 생협과 민우회 관계가 정리가 됐고. 작년 운영위원 워크숍 가면서 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밀접한 것 같은데 밀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고민. 재정도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나. 어떤 관계가 되어야 생각해 보니. 쉽지 않은 일이겠더라. 지부마다 상황도 다 다르고. 중앙은 그야말로 한국여성민우회니까 거기에 걸맞는 활동들 해야 하지 않나. 그게 가장 큰 임무인 것 같다. 지부와의 관계도 필요한데, 한국여성민우회가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의 위치, 여성의 문제들을 총괄해서 가져가야 하는 의무인 것 같다. 그게 본부의 역할이고. 지부는 지역을 범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해야 하고. 방향이나 이슈 설정에 있어서 본부가 역할을 해 주었으면. 그런 활동들을 크게 펼쳐나갔으면 한다. 그렇게 할 때 9개 지부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바라는 건 그거고. 작년에 워크숍 참가했을 땐 너무 뻘뻘했고. 너무 늦게 끝나서. 다른 지부 만나서 얘기하는게 늦어져서 아쉬웠다. 모둠 짤 때 꼭 다른 지부와 섞어야겠다는 강박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부끼리 해도 상관 없는 것 같다. 여튼 이슈파이팅이든 뭐든 큰 맥에서 끌고 가주었으면. 혹은 새로운 어떤 게 있으면 빨리 알려준다거나. 활동가 대상의 무언가.

홍문정 : 본부 사업계획 중에 상담소 신자유주의 교육을 봤는데. 그걸 보니 내가 한동안 신자유주의 문제 잊고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런 것을 활동가들 중심으로 먼저 공부할 수 있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알아야지.

원주여성민우회 - 본부 간담회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사무실

참석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나우(노동팀장) 나은(지역담당)

원주 : 정유선(대표) 김정민, 김옥경, 김용희(운영위원) 안윤희(사무국)

1. 자기소개

김정민 : 여성학 모임에서 새로 별칭을 만들었다. '뭇꾼'. 나뭇꾼에서 나를 빼고, 열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으니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민우회는 5년 이상 된 것 같다. 현 운영위원(전 대표) 지난 주까지는 방사능에 많이 꽃혀 있었다. 최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때문에 강원여성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질의를 보냈다.

김옥경 : 운영위원 올해 첫 해다. 지금 꽃힌 것은 학부모다. 애가 초등1학년이라. 매번 학교를 데려다 주고 자괴감을 느끼며.

김용희 : 딸부자다. 딸이 셋. 별칭은 피부미인이다. 피부가 확 띄니까^^ 3년째 운영위원이다. 요즘 경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막상 들어보니 참 재미있는 것 같다.

안윤희 : 별칭은 냇물. 일한 지 두 달 되었다. 회원가입한 지는 3~4년 정도 되었다. 상근활동 한다. 예전에는 민우회가 뭘 하는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여기 직접 와 있으니까, 걸음마 단계다. 매일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다. 요즘 꽃혀 있는 것은, 생태나 환경에 관심이 많다. 일본 원전 문제도 민감하게 다가왔다.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민우회도 그렇고, 올해 텃밭 농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중.

정유선 : 보통 별칭은 봄날은간다로 쓴다. 생태해설가이기도 해서. 꽃을 좋아해서 꽃 보러 가길 즐거한다. 꽃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원주여성민우회 처음 만들어질 때 원주로 이사 왔고, 그 즈음에 민우회는 가입했다. 잠깐 운영위원도 하고, 원주생협(민우회 생협 아님) 상근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대표가 됐다. 요즘은 당연히 민우회에 꽃혀 있다.

2. 본인이 생각하는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김용희 : 전입신고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간다. 거기에 우리 안내책자를 놓으면 어떨까. 힘드신 분은 언제든 민우회 두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본 적 있다. 우리를 알리는 작업들이 시급하지 않을까?

김인숙 : 나도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니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서 주민 사귀기가 참 어렵더라.

김정민 : 재정을 고민하다 보니 원주가 춘천보다 인구가 더 많다. 인구 대비로 치면 원주가 춘천보다 회원이 더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출발한 시기도 비슷한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다. 춘천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람이 계속 발굴되는데 우리 좀 정체된 것 같다. 그래서 활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잘 마련되지 못했고, 발굴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의 폭이 별로 넓지 않은 것 같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활동이 원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마련되어야 하는 거고. 지역에 대학도 있고 한데 어떻게 세대를 이어서 나갈까 고민. 원주민우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결혼 안 한 사람, 이제 막 아기 낳은 사람들이 주축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는 채로 계속 같이 가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사업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페미니즘 교실 같은 건 지역에서 잘 안 된다. 현재의 경제학 강의도 관심도가 대도시하고 차이가 있다. 여성주의 강좌를 내걸었을 때도 파급력이나 관심도가 서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고민이다. 아킬레스건은 활동가육성.

안윤희 : 사람 육성이 핵심이라는 것 공감한다. 사실 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데. 저는 아킬레스 건을 내용, 이상과 현실이라고 적었다. 홍보나 알리는 것 중요하긴 한데 내용이 빠지면 감동을 일으키지 못한다. 실천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저의 역할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재정은 어찌보면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본질을 잃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고민하는 중이다. 원주민우회가 여성들의 상담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 그러면서 원주여성민우회의 정체성이 무얼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내용'이다.

김인숙 : 주로 대표들이 재정 고민을 많이 한다. 사무국장이나. 인건비 문제도 크고.

정유선 :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정체성이다. 재정 문제 해결은 회원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민우회 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일이다. 문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곳이다, 우리 뭘 하고 있으니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정말 막연한 경우가 많다. 주변 식당가서 민우회라고 소개하면서 명함 드리면 무슨 전통문화 뭐 하는데나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사실 저도 설명할 때 양성평등이란 얘길 먼저 하는데, 그러니까 까칠하게 본다는 소릴 먼저 듣는다. 아직도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저 아줌마가 얼마나 까칠해 보이겠나. 제가 민우회를 십 몇 년 했지만 올해처럼 깊이 고민하는 건 사실 처음이다. 일반 회원이나 운영위원 하는 것과 달리 대표 하는 건 진짜 다르다. 녹색연합 공동대표 할 땐 이정도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우리 단체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본부와 다르게 원주민우회가 원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경제학 강좌는 사실 우리 정체성에 맞나 고민해 보았다. 부설기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재정 고민만은 아니다. 민우회를 쉽게 알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열려 있는 건 (프로젝트 형태로) 이주 여성인데, 민우회까지 이주 여성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원주에 이주 여성들도 확실히 많다. 다른 이주 여성단체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타 단체에서 일하면서도 고민했던건, 여성들의 고민은 늘 육아 이후의 재취업에 있었다. 아무래도 직장여성들은 후원 정도의 성격이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양한 이유로 집에 있다가 여길 찾게 되고. 자원활동이나 강좌를 통해서 자기 자신감을 찾게 되고 강사가 되기도 하고 하니 재취업 욕구가 있는 거다. 2천년대 초반을 보면 그 때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다 다른 단체로 갔다. 저도 생협으로 갔던게 거긴 자원활동하다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여성운동의 방향성, 여성민우회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취약계층인지 비정규직인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회원들 보면 대다수는 사무직과 주부들이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가 정체성이라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사람만 키워놓고 다른데로 사람들은 가버리는가 고민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냥 그게 우리 역할이었구나 싶기도 하다. 또 지역에 강좌가 굉장히 많다.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있어서. 초기에 민우회가 그걸로 사람을 조직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다. 사람 모으기에. 그런데 돌아보니 그런 강좌를 통해 배출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걸로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북아트니 하는 것들. 민우회는 열린 장이고 그런 분들이 우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하고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끝마무리하는 건 더이상 어렵다고 본다. 경제학 강좌 하다 보니 8강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4회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열 명밖에 안 모여도 계속 해야겠다. 지역에서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사회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장이 되면 어떨까 고민 중이다.

김인숙 : 원주에서 가장 많이 회원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무엇인지?

김정민 : 그래도 교육이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렇다.

정유선 :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각종 소모임. 원주올레, 도전 백권 읽기 등등. 그런데 대중강좌들이 곳곳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취미교육은 안 되는 것 같고 민우회만의 무엇이 필요한 것 같다. 여성민우학교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인데, 일반 대중교육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민우회에 대한 의문들을 이후에 계속 설명을 해야 한다. 자칫 잘못 얘기하면 또 거부감이 생겨서 나갈 수도 있고. 활동을 하려면 여성학 공부가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색깔을 부담없이 받아들이도록 할까가 큰 숙제다. 소모임이 대여섯개 굴러가고 다 제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다.

정유선 :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다들 회원가입 권유를 잘 하시는지?

김인숙 : 그건 참 힘든 일이다.

정유선 : 우리가 회원가입 해달라고 말하는게 왜 힘들까가 궁금하다. 저는 대표를 맡았고 책임이 있으니 말을 하는데.

김인숙 : 난 거절당할까봐 힘들다. 거절의 경험은 참 힘들다. 사실 민우회는 나한테 든든한 뺨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다른 여자들에게도 주고 싶다. 만 원 내고 더 많은 걸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못하게 된다.

김옥경 : 민우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재정이 풍족한 단체를 보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항상 나갈 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나가는 경우를 별로 못 봤다. 서로 욕하면서 끝나고.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았다. 그런 가운데 누가 상처를 받고.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된다. 사람들끼리 빼그덕거리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서. 상근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권유하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

김인숙 : 사실 사회단체는 돈을 안 받아도 책임감으로 하는 건데. 지역은 상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그런 상처를 겪거나 할 수 있는 것 같다.

김정민 : 소모임 안에서 회원들 간 충돌이 일기도 한다. 그러면 모임이 깨지기도 하고 소모임 대표로 운영위 참가했는데 그것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한데, 리더쉽이 필요하지만 그게 참 힘들다. 활동가들이 감정노동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바깥에서는 집안 욕을 못 하니깐. 그게 쌓이는 거다. 전 대표 모임 가 보니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건 대표들 뿐 아니라 운영위원도 그렇고 소모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채워주고 쉬게 해 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정유선 : 일이 많아지고 바쁘면 그 안에서 겪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을 하나 마치고 나면 갖게 되는 성취감으로 해소가 되는데. 원주민우회는 돌아보면 사업이 별로 없으면서 이야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들,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좋고 싫고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뒤에서 이야기 하게 되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려 이곳에 오는 거긴 한데, 사회적 활동을 또 해보질 않아서 주부들이 일하는 방식이 사적인 얘기로 많이 채워지기는 한다. 그래서 친해지는 단계를 지나서 일정한 사업이 있지 않으면 문제도 심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소모임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일을 만들것인가를 사무국에서도 계속 해 주어야 한다.

김인숙 : 그게 정체성 만드는 작업과 연결될 것 같다.

정유선 : 우리가 여기 와서 돈과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 왜 여기 와서 상처가 생기고 할까. 저도 혼자 끌어갈 수 없으니 운영위원들에게 제안을 많이 하는데, 이게 즐겁고 재밌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다. 다들 나름 민우회에서 받는 게 많으니까 지금 다들 운영위원 하고 계실 거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을까가 고민이다.

김인숙 : 올해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사람을 더 모으고, 내년에는 정체성 찾는 작업을 해 보고. 이런 고민도 좋은 것 같다.

3. 본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정민 : 포털에서 잘 검색되게 하는 방법을, 교육 잡아서 오라고 하면 일정이 안 되니까. 몇 가지 매뉴얼을 차라리 몇 가지 만들어서 띄워주면 좋겠다.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유선 : 본부 회의 몇 번 갔더니 좀 의문이 풀려서 그냥 요즘은 자력갱생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우 : 본부 사업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정유선 : 식당사업이나 이런 것들 운영위원들에게는 잘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회원들에게는 참 얘기하기가 힘들다. 거부감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늘 우리의 색깔을 얘기하는 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다. 우선 친밀감을 쌓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인숙 : 그런데 본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지부에서 가져가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많았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건도 지부에서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교육 등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학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만들어서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본부가 제안한 이슈를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본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운동과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지부의 운동이 접목되어 온 게 민우회의 강점이었다. 힘든 시기라도 민우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두 개의 사업들을 가져가는 것도 방안이다.

정유선 : 어쨌든 본부 지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얻는 것도 많고.

인천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사무실

참가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나온(지역 담당)

인천 : 신소영(대표) 최정임(부대표) 정인채(부대표) 채현자(운영위원) 장희정(운영위원) 남혜연(운영위원) 문미경(사무국장)

1. 자기소개 시간 (별칭, 하는 일, 활동 연수, 요즘 나는 무엇에 꽃혀 있는가?)

정인채 : 별칭은 대통령.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 한다는 의미로 완숙이라고 하기도. 민우회가 7~8년쯤 되었다. 지금 하는 일은 한부모 자조모임 대표를 하다가(소모임 배나의 짱) 올해 민우회 부대표 결의했다. 아직 여성운동이나 한 부모 이외의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주 초보자다. 올해 민우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채현자 : 사과향. 민우회는 5년쯤 되었다. 열심히 나온지는 몇 년 안 됐지만 햇수는 많이 된 것 같다. 소식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런거 보면, 민우회 카페지기인데 문만 열었다. 솔직히 컴맹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문은 열었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지금 민우회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 운영위원. 지금은 방사능 식품에 좀 꽃혀 있고, 개인적으로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고민 중.

문미경 : 08년에 실습하러 왔다. 4년 됐다. 니키타에서 이든으로 별칭 바꾸었다. 선한, 어진 이라는 우리말이다. 동아프라임국어사전에만 나온다. 솔직히 고민인데 민우회에 왔을 때 여성운동 관심은 없었다. 평생교육에 관심있었지. 그때 민우회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여자들끼리 우정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그걸 느꼈다. 그냥 팔 걷어부치고 모이는데 감동을 받았다. 열정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좀 무모한 열정이었나 싶기도 하고. 좀 모순에 빠져 있다. 내가 여성운동을 하려고 했던 의미가 사라져서 내 개인의 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중.

장희정 : 별칭은 치우. 치우천황. 치우에 대한 동경으로. 한부모를 통해서 민우회를 알게 되었다. 힘들 때 민우회에 와서 새로운 걸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있으면서 나를 많이 알게 되었고. 현재는 한부모센터장이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꽃혀있다.

최정임 : 무향가인. 향은 없지만 뛰어난 사람. 딸이 지어준 이름이다. 민우회 6년 정도 되었다. 친구가 없어서 본부에 회원가입했는데 본부에서 인천에 연결시켜 주었다. 충격적인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민우회 오면 사람이 좋았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게 되고. 지금 부대표다. 예전에 2년 하고 이번에 다시 연임.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싶기도 하다. 조직을 위한 활동에서 내 역할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 기분. 그런데 올해부터 민우회 일에 에너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다. 연대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인천시민연대 운영위도 가고. 지역연대활동이 내게는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 그게 삶의 활력이다.

신소영 : 보리. 다양한 의미가 있다. 대표다. 86년에 본부 여성평우회로 들어왔고. 그러다 87년에 민우회(본부)가 생겼고. 인천은 창립멤버다. 요즘은 일에 꽃혀 있다기보다 일에 쫓겨 있다. 민우회도 해님방도(해님방이란 지역아동센터장 겸임 민우회부설은 아님). 어쨌든 지역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사

람과 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펴보고 있다. 체력은 많이 딸린다. 시간이 참 모자란다. 내가 어디 꽃혀 있기 보다 꽃힘을 당한 상황이다.

2. 본부 2011년 지역사업 설명

(녹취 생략)

3. 인천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은?

채현자 : 사회적 이슈를 잡고 가는 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부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들 보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에 치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호 주제 폐지 같은 이슈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러면 변화가 빨리 올 텐데. 내안의 혁명부터 시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게 있어야 할텐데 그게 계속 빠진 느낌이 있다.

정인채 : 비슷한 의견 같아서 덧붙이자면 저는 한부모 모임 때문에 민우회 오게 됐다. 친정같은 끈끈함. 우리끼리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함. 그 안에서 지지자가 된다. 그렇게 오랫동안 민우회와 함께 했는데 한국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나에게 느낌이 아주 좋지는 않다. 그 이유는 언젠가 여성학 공부모임 한 적 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 시대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선 여권신장이 되어서 여자들이 너무 시끄럽기도 하다,, 내가 회원가입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지만 누구에게 선뜻 내놓지를 못했다. 남자들은 일단 거부하는 느낌이고. 왜 회원들이 늘지 않느냐 민우회가 갈 방향이 무엇이나 여성단체가 꼭 필요하냐. 인천여성민우회는 23년 전 월세도 못내는 어려운 지경에서 나는 문을 닫자는 쪽이었다. 6,7년 민우회에 있으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최정임 샘과는 달리 난 아직은 아니다. 이 설문조사지를 보니까. 본부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작년의 함박 사업이나 성폭력정책 이런 것들이 더 이슈화되고 더 파워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다. 근데 사실 작년에 저도 그거 하는거 반대하긴 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가 의문이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일정부분 어느 지점에서는 좀 사양길인 것 같다. 여자들이 귀를 안 기울이니. 여자들이 지금은 갈 곳이 참 많지 않나. 민우회 안 와도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 보니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김인숙 : 지역여성들이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뜻일까.

정인채 : 이 설문한다고 미리 예고하고 회원들을 찾아가기는 좀 어렵다. 제가 설문지 자세히 본 이유는 준비하고 가야 하니까 잘 알고 해야한다는 마음에서다. 설문자 교육을 글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질문 던지기 보다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려는데 선택해 보아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객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장희정 :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크거나 어려울 수 있다. 그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글썄...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좋을 것 같다. 설문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다.

아킬레스건에서 처음 떠올랐던 건. 첫째 인원이 적다는 것. 회원이 적다는 거고. 옛말에 닭이 많으면 봉황 한 마리는 있다고 했는데. 회원 많으면 활동가도 좀 나올텐데. 지금 회원 100명에 운영위원 열명이면 무지 많은 것 아닌가. 둘째는 우리가 너무 끼리끼리인 것 아닐까. 우리끼리 좋아서 하지만 저도 한부모라, 한부모끼리 너무 잘 통하긴 하는데. 다른 팀에서 가진 고민들 잘 모를 수 있고. 같은 운영위지만, 그런 이해들은 항상 부족한 것 같다. 가끔 이런 생각 한다. 민우회가 이름에서 '여성'을 떼어 버리면 어떨까. 일단 남자들은 접근이 안 되고. 니네끼리 해라라는 애기(비아냥)가 우선 생각나더라. 그냥 니가 하니까 후원은 하는데, 너는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을 받았다.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건 더이상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성인지적인 관점이란 애길 처음 들었을 때 좀 더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다. 활동이 여성중심으로 가다보니까 한계에 부딪친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게 장점이기도 했

지만 그게 지금은 단점이 된 것 아닐까 싶다.

김인숙 :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 본부도 '여성'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즘 소비자운동 환경운동은 잘 되는데. 여성의 현실은 달라진게 별로 없는데 엄청 뭘 획득한 것 처럼 공격해 오는 것도 있고. 여성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엄청 공부한 잘난 여자들이 모인 걸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뭔가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 각인시키는 작업이 오히려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고.

최정임 : 지역활동 연대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여성운동한다고 하면 뭔가 단정지어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더라. 페미니즘은 편협하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성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사회인가 지금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성인지분석을 비롯해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참여예산제도 이런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주변에서 그런 활동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이나 복지 같은 거 건드리고.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등에서 동별로 예산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문미경 :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이 통합되면 폭발적인 힘이다. 직업도 다양하고 활동가들이 거의 모여 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이런데 우리 각자 전문분야가 있고 시간대가 다르고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조직을 끌고 나가다 보면 다툼이 생긴다. 우리가 성숙하다면 잘 될 텐데 말이다.

문미경 : 다양성을 통합하는 성숙. 이걸 어떻게 이룰까가 고민이다. 우선, 선배들이 없다. 구조가 없다. 즉 후배 활동가들의 멘토가 없다. 새로운 활동가는 다양성 속에서 힘들어 하거나 결국 사라지거나 하는 거다. 내가 민우회 들어 오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10년의 역사면 누군가가 후배를 끌어줘야 하는데 여기는 십년의 역사가 무색하게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인천지역 여성단체 중 우리를 빅3라고 하더라. 신생단체가 너무 많은데 여성민우회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인 것처럼 먹고 들어가는게 있다. 하지만 인천여성민우회로 돌아오는 순간 뭔가 감추고 싶은게 있는 거다. 누가 회원수 같은 거 물어보면 입을 다문다. 아킬레스건은 이거다. 리더쉽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걸 해결하거나 해야 할텐데.

김인숙 : 내가 다른 지부에서 인천 얘기 꼭한다. 사실 다른 지부들은 전업주부들이 주로 활동 한다. 시간이 없는 건 똑같긴 하나, 너무 아이들에게 얽매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직업에 대한 욕구들이 많고 맞벌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 버리기도 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점점 늘고 전업주부 베이스의 지역운동은 좀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하는 거다. 다 직장 나가니까 사람이 없는거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인천 얘기를 한다. 다 일 있으면서 저녁에 모여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활력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인천은 좋은 전형이 되길 기대하고 있고 이런 얘길 다른 지부에 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히 문미경 샘이 말씀하신 선배가 없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함께 성숙한 논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장희정 : 문샘이 사무국장으로 들어오면서 전임 국장이 멘토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다. 일을 쉽게 배우면 다른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을 텐데.

최정임 : 시민연대회의 가면 거기 가서 사람들 에너지를 받는다. 다시 여기 와서 에너지를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연대회의에 가봐야겠구나. 본부 회의도 가 보니까 놀라웠다. 이런 에너지를 받았다. 그래서 멘토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게 없는거다. 그런 연결고리들이 없다.

신소영 : 아킬레스건은 적은 회원수. 또 일하는 여성이어서 시간 내기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고. 운영위원 중심으로 다져지면서 결속력은 강한데. 내가 두 가지만 일하면 잘 하겠다. 그런데 하도 일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되기 보다 우리가 흠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젝트 하지 말자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회

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원들이 역할 좀 나눠가지고. 우리 전체가 이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가 아니라 역분하고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김인숙 : 프로젝트 하면 새 얼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조직하는 게 관건인 듯 하다.

장희정 :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신입회원이 뭘해야 할지 설명해 주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본부는 신입회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린 그것도 잘 모르고. 뭘갈 해내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전부 각자 다른 일들 하다 보니. 각자 맡은 프로젝트가 돌아가다 보니. 일이 과중하기도 하고. 회원의날 챙기기도 바쁘고 신입회원까지 갈 여력이 없다. 새 회원 올 때마다 잘 끌어가야지 머릿속으로 고민은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

신소영 : 신입회원만남의 날 회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명상모임 같은 것도 후속모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정임 : MBTI 하고 나서 저는 그게 좀 됐던 것 같다. 당시 대표가 모임 만들어서 만나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문미경 : 그런걸 선배를 만나서 들어야 하는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혜연 : 좀 늦게 참석했다. 별칭은 빨강머리앤. 요즘 나는 청소년교육에 꽂혀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약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중물 연극모임 하고 있다. 문미경이 얘기한 거에 공감한다. 갈급했던 거라. 너무 멘토가 없다. 작년에 인형극 할 때도 새로오신 분들 불만사항이 왜 인천민우회는 마중물식구밖에 없냐. 다른 사람들 나타나서 인사좀 해줬음 좋겠다는 얘기였다. 그분이 여성의전화도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비교하시는 거였다. 이러면 신입회원모이겠냐고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 그때 솔직히 많이 창피했다. 후속모임 하자고 전화했을 때 냉철하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 배운 것으로 만족하고 말겠다. 많이 답답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모임 안에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우회 전체에서의 교육이 너무 없다. 단체에서 목적의식에 대해 끊임없이 계속 애길 해주야 하는데 목적의식이 좀 희미해진 것 같다. 종종 민우회 목적이 뭘까 늘 생각한다. 새로운 분들에게 방향제시를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 든다. 소모임 별로 모이더라도 그 모임들이 회원의 날에 더 넓게 모일 수 있었으면 한다. 회원이 1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을 본 기억이 없다. 늘 오시는 분만 오고. 정말 활동가 키우려면 기존 회원들을 끌어내야 한다. 생뚱맞게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회원에 가입했으면 여성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일 거다.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

정인채 : 인천이 생기고 초창기부터 한부모 사업 했다는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배나 회원들이 민우회를 접했는데. 그 후속 모임으로 배나가 생겼다. 다른 소모임들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임이 형성되고 주도하는 분들이 모임의 짱이 되었다. 초창기부터 어쩌다 배나짱을 했는데 기수마다 명단이 내게 있다. 매주 모임때마다 문자를 보낸다.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아쉬웠던 건 3명 정도 회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분들이 왜 계속 안 올까. 신입회원 관리 틀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시킬 수가 없었다. 내가 바쁘기도 했고 어떡해야 할지 난감했고. 희정샘도 한계가 있고 열명이 새로 왔으면 한 명이 남아도 성공인데. 나도 신입회원 관리가 아쉬웠는데 그분들의 욕망을 채워줄게 별로 없었다. 신입회원 관리 체계적으로 하는 거 고민해 봐야 한다. 배나 입장에서 보면 공감이 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프로젝트 하다보니 엄청 힘들었다. 어쨌든 그렇게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다. 아직 비판적이진 않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명만 회원으로 확보해도 그건 성공이라고 본다.

4. 본부에 바란다.

문미경 : 본부가 좀 자주 와 주었으면. 가고픈 마음은 있는데.

장희정 : 만날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문미경 : 우리끼리 풀어내기 좀 어려운데 외부 힘이 들어오면 잘 풀어낼 수도 있지 않나. 본부는 큰집같은 느낌이다. 큰집에서 큰 사람와서 작은집 얘기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날 거고. 능력있는 강사들 모여서 우리 리더십 교육도 좀 시켜주고, 작년 지리산MT같은 대화 자리. 인천지부만의 고립된 느낌도 좀 없애고 싶다.

신소영 :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도 우리가 결합 잘 못했는데 그 팀이 한 번 같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다.

장희정 : 한부모사업을 하니까. 민우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부모사업하는 지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역민우넷 같은 것처럼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한부모연합에도 들어갔는데. 민우회 안의 한부모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지금 군포 권명애 선생님과 계속 연락하고는 있는데. 민우회끼리 한부모사업에 관한 교육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전에 인형극 할 때 미디어에서 오신 분이 짚어주신 적이 있다. 새로운 걸 보는 느낌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회원들에게 그런 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지. 다른 데서 한부모사업 하면 민우회로 알고는 있다. 그걸 잡고 명맥은 유지해야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미디어운동본부 하는 활동을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민우회가 한부모사업만 가져가긴 너무 열악하니까 새로운 사업 할 수 있게 잡아주어도 좋겠다. 본부가 한부모사업을 그만둔 이유도 궁금하다.

신소영 :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사업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한부모사업위원회가 구성되면 프로젝트에 그치지 말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정임 : 지역자치네트워크에 가서 많이 배웠다.

채현자 : 간담회가 처음이라 그동안 본부와 지부가 별개처럼 활동했다는 느낌 받았는데. 본부는 편집 어떻게 하고 있는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 언론이 핵심이다. 미디어운동본부에 가서 배워야 하나? 3.8청계광장 갔을 때 인상 깊었고 본부 홈페이지는 내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가 않더라. 본부 홈페이지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한 번 알아보기) 정보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진주여성민우회 - 본부 간담회

장소 : 진주여성민우회 사무실

참석자

본부 : 김인숙, 박봉정숙(대표) 나은 (지역담당)

진주 : 손미옥(대표) 강은주(부대표) 이경미, 정연미, 김연우, 이종숙, 서은애(운영위원) 정윤정, 이광지(사무국) 정인레, 김점숙(지역아동센터)

1. 자기소개

이경미 : 운영위원장.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오래되었다. 2000년쯤? 환경반에서 시작해서. 요즘 꽃혀 있는 건 연하의 남자(?) 일상이 민우회와 집을 왔다갔다 한다. 애들 봐 주거나.

정연미 : 별칭은 특별히 없다. 햇수로 13년쯤 된 듯 하다. 98년에 민우여성학교 들었다. 일주일에 두 번 뽀세게 했는데, 주춤하다가 회비 회원 01년부터 하다가 올해 편집위원회 활동하고 있다. 일상의 리모델링에 꽃혀 있다.

김연우 : 별칭은 엽기요정이다. 한때 요정에 꽃혀서리.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민우회 온 지 94년부터 동북민우회 활동을 했다. 환경반 통해서. 요즘 제일 한가하게 있는 것 같다. 거의 매일 민우회를 쫓아다녀서. 지금은 지역자치위원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데 꽃혀 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도 들고.

이종숙 : 민우회 10년 정도 된 듯하다. 결혼 전부터 한국여성민우회를 알았다. 원래 산청 고향인데 그 쪽으로 귀농을 했다. 지금 민우회 생협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와 보니 진주 민우회가 있더라. 그래서 언저리에 있었는데. 환경반 하고 공부방 자원봉사 하고. 여러 소모임에 들락날락하고. 지금은 교육위원장이다. 저는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귀농했다. 18가구 정도인데. 마을이 십주년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다. 작년부터 오카리나를 열심히 연습 중이다. 또 하루 마을 개방행사를 할 거다. 올해 처음으로 그 일들을 요즘 준비하느라 바쁘다.

정인레 : 지역아동센터 맡고 있다. 민우회는 공부방 상근자를 구하면서 알게 됐다. 원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동생이 먼저 민우회에 대해 이리저리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언니더러 민우회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다. 그 쪽 사람들이 썰대면서. 지금은 동생이 나보고 언니가 많이 변했다고 한다. 벌써 6년차다. 공부방에서 열심히 했다 나는. 요즘 꽃힌 것은 산이다. 운동 삼아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모습에 반했다. 김연우 샘을 노년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요즘 생협에서 일본어 배우기 모임도 한다.

서은애 : 다시마녀. 재정사업 때 다시마를 열심히 팔아서. 조직위원장을 하고 있다. 남편 일도 돕고 있다. 올해는 좀 운영위원회에서 존재가 빠지고 있다. 오전엔 민우회 나오고 오후엔 일하고. 뒤에 꽃혀 있냐면 그동안 참 민우회만 보고 살았다. 그래서 대표 끝나고 나니 집안문제 등이 밀려오더라. 주위 사람들도 애들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집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왔는데. 그래서 요즘은 자식에 꽃혔다. 사실 그동안은 기본적인 관계만 하고 살았고 부모로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돌봤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지금은 애들이 멀리 가 있는데, 정말 그립다. 작은 아이도 대안학교 가면서 떨어져 있는데 그 애들 생활이 지금 너무 궁금하다. 이제서야 애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그게 너무 좋다.

손미옥 : 별칭은 모나리자. 남편만 보면 웃고 좋아하고 한다고 모나리자라는 이름이 붙었다. 창립멤버고, 지금 대표다. 살면서 항상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다. 화개로 이사가고 나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다. 진주를 떠나서. 펜션 사장이 되니 너무 멋있다는 소릴 많이 들었다. 그 동네 여성들이 경계가 없다, 언니 같다, 얘기 많이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 경쟁 펜션 여사장조차.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동안 자아감이 좀 작았는데. 1년 지나니 펜션도 잘 되고. 민우회가 내게 준 영향도 컸지만,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요즘 충만감이 밀려 온다. 지금 화개에서 삶이 꽃피는 듯하다. 나에게 꽃혀 있다.

김점숙 : 주로 땡이라는 별칭을 쓴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라. 민우회 3년 정도 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 요즘은 나이 마흔에 꽃혀 있다. 마흔이면 이제 과거 정리도 잘 하고 남은 인생 준비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내 스스로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막상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피곤하면 병이 되기도 하고. 나이 드는게 쉬운게 아니구나 싶다.

이광지 : 민우회 4년째다. 회원관리, 회계. 상근. 기타에 꽃혀 있다. 기타 소모임을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을 땐 이거 일이 또 늘었구나 싶었다. 솔직히 피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따라가기 시작했다. 1인자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어느새 일인자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기타가 꽃혀 있으면서도 도피처인 것 같다. 지금 41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볼 때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타를 배우면서 뭔가 배울 수 있구나 싶었고.

강은주 : 학원에서 사용하는 별칭은 팜콘이다. 은주를 서양 사람들은 안주라고 발음해서. 그러다 보니 팜콘이 되었다. 애가 생기면서 누구 엄마로 불리는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민우회 창립멤버다. 20대 중반에 여성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벌써 40이다. 현재 부대표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세살박이 아이에 꽃혀 있다. 길게 혼자 살다가 애가 생기니까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기분이고.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참 대단하구나 싶다.

정윤정 : 별칭은 아마존이다. 베티 도슨의 책을 읽으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아마존이라고 생각했다. 02년에 상담소에서 성교육강사 과정 들으면서 왔다. 04년에 우연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했다가 05년부터 상근을 시작했다. 7년째 상근, 사무국장 5년째다. 요즘은 비전에 꽃혀 있다. 사무국장 4년 정도 하니 정말 힘들었다. 이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지부도 활동가가 없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도 그렇고. 민우회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또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전엔 소모임 활동 할 때 내 욕구를 너무 투사하는 것 같아 자제하기도 했다. 민우회 10주년 책을 발간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비전을 생각해 보았다. 나의 비전과 민우회의 비전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다. 또 아이 낳고 나니 3년전부터 육아모임 하고 있고. 문화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작년부터 펜션에서 치유워크숍 해 보면 어떻게 생각도 하고. 생태적인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고. 진주민우회의 중장기 계획도 나와야 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는 먼저 고민하게 된다.

2. 지역사업 소개

3. 자신이 생각하는 진주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김연우 :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는 회원 확충 안 되는거. 젊은 사람들 안 나오는거. 자기가 가져갈 것이 없다 보니 안 오는 거랑. 노화되는 부분. 타겟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끌어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이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직장있는 사람은 시간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만약 시간 있는 사람들이 50대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어낼 필요도 있고. 틈새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강은주 : 사실 전 살짝 다른 생각이다. 요즘 삶 패턴이 30대와 많이 지내면서. 애기 엄마들과 주로 만나니까. 우리

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로 포장할 필요도 있다. 나이 40되어 보니까 애 키우고 나서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겠다. 차라리 뭔가 막 해보고 싶어하는 30대를 공략하는게 어떨까 싶다. 그 때 민우회 색깔을 입혀놔야. 사람이 바쁠 때 뭘 더 많이 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이 먹기 편한 형태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떡을 좋아하면 떡 형태로 주고 진밥 좋아하면 그렇게 주면 좋을텐데. 전달하는 형식을 새로운 흐름, 취향에 맞게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김연우 : 민우회하면 문턱 높고 잘나고 드센 여자들이 한다고들 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 다른 여자들이 더 똑똑하다.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정윤정 : 언론이 여성단체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밖에 있는 여성들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좀 못마땅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시선인 것 같다. 내 생각에도 아킬레스건은 회원이다. 조직을 쥐고 흔드는 회원이 있지만, 그가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한다. 회원 평가 한 마디에 많이 신경쓰게 된다. 나는 요즘 당사자운동에 많은 관심 갖고 있다. 회원들이 얘기하는게 항상 민우회와 나를 대상화한다. 민우회는 왜 그거 안 하나. 그거 한 적 있나. 민우회가 당사자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자면, 고령화라면 나이 든 여성들 모임을 만들어야 할 거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있는데, 방과후에 대한 고민. 상담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같이 모여서 상담 공부 많이하고 공감 나누는데, 거기서 내려앉는 기분을 가졌다면 이걸 여성들에게 어떻게 운동으로 펼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내 감정 들여다보기, 더 깊은 공부로 한정되니까 문제인 것 같고. 회원확보는 재정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재정사업 고민할 때 회원확보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확대는 늘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성 일자리와 재정이 함께 해결되는 사회적 기업을 고민한다든지. 그래서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는게 필요한 것 같다.

손미옥 : 민우회 안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우린 막 열심히 달려왔다. 누가 나에게 왜 화장하냐고 물었다. 또 왜 여성운동하냐는 질문들 받으면서. 내 삶이, 민우회 활동이 이 사회에 빛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활동가 교육을 본부에서 한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우리가 그런 교육 기회가 참 없었다. 스스로 해내지는 못하고 활동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정리되어야 사업 계획 등도 풀릴 것 같다.

서은애 : 민우회가 사실 어려웠다. 어려운 시절 겪고 오면서. 그 바쁜 와중에 사회 이슈 대응도 하면서 왔다. 내가 대표 끝나면서 민우회 내부를 조금 챙기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정신없이 달려오는 속에 진주는 회원들을 챙기는 활동을 많이 해 온 것 같다. 외부 대응보다. 저도 대표 그만두면서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지금은 회원 중심으로 회원 챙기면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소모임도 그렇고. 조직이 안정되지 않으면 회원들 챙길 틈이 없는데. 안정되어서 이렇게 변했구나 싶다. 밖에서는 민우회가 많이 조용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엔 안정화된 것 같아서 좋다. 갈등보다 내면이 커져간다는 생각도 들고. 아쉬운 건, 민우회에 사회적 책임들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들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약해진 것 같다. 정권 바뀌면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진주 지역에서 우리가 먼저 생긴 단체로서,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을 아우르면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역량이 있으니까. 우리의 정치적 선명성이 부족한 것이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다. 지역이 좁고 보수적이다 보니 몸을 자꾸 웅크리게 되는데 정치적인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다. 거창하게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경미 : 민우회 활동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민우회에 자주는 오는데 내가 뭘 찾아오는지 헛갈릴 때가 있다. 상담소 얘기 나오면서, 소장님 마인드라든지. 전문성이 길러지면 돈과 관련한 욕심이 오는구나, 그냥 활동하는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강사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돈을 쫓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불안감이 있다. 민우회 안에 강사뱅크도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자기가 조금씩 커지면 민우회를 벗어나게 되는게 맞는 건가. 상담소장도 회원들을 이끌어나가는 위치인데 마인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나오면 서도 민우회에 왜 나오지? 이런 질문들. 굳이 기타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이 요즘 드는데. 시간은 10년이 흘렀는데 이 안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뚜렷한게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주

위의 젊은 엄마들 보면 4,50대 보면 저도 경제적 압박 받은 적은 없는데 활동만 할 게 아니라 직장을 구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양성평등강사교육이 잘 되고 있다. 전문성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저도 그렇고 민우회도 그렇고 전문성을 많이 갖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대표들이 대표 자리 났을 때 안에서 회원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밖에 가서 멋진 모습 보이고 이러면 회원들이 힘을 많이 얻겠구나 싶다.

서은애 : 개인적 비전을 보면 민우회 활동하기가 어렵다. 사실 나는 개인적 비전을 만들 생각을 거의 안 했다. 가치를 많이 보는 거다. 이 운동을 해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활동으로 인해 어쨌든 세상이 좀 바뀐다는 가치를 위해 움직이는 거라서. 그건 전 큰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내오면서 의심이 가거나 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했을 거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30대)보면 생활과 밀접한 사고들을 많이 했다. 우리 옛날에 생활에 좀 동떨어져 있었는데. 여튼 갈망이 분명히 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잘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 이해력도 빠르고, 이거다 싶으면 실천하는 힘도 있는 것 같다. 강은주 샘 얘기에 많이 동의한다.

정인래 : 지역아동센터 소속이어서 내 중심의 고민이다.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된 게 6년쯤 된 것 같다. 05년부터. 제가 왔을 때는 센터가 되어 있었다. 급식 시작하고. 그때는 그냥 맛벌이, 한부모 아이들 돌봐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점점 개념이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곳처럼 변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데 교육부에서도 이것저것 생기면서 위기감이 드는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의 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거점센터가 생겨서 걸러내기를 한다고도 하고, 피부로 느끼는게 고민이 그런거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동센터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학교와 우리가 경쟁하게도 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고민이 든다.

정윤정 : 여성주의 교육이 뭐 얹혀놓고 두 시간 한다고 되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주의 확산하자고 회원만남의 날 이런거 만드는데 참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걸 어쩌란 말인가.

이광지 : 민우회 아킬레스건 적어봤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바라보다 보니. 아킬레스건이 공감이라고 생각했다. 사업이나 캠페인 있을 때, 본부 회의에 갖다와서 얘기하면 그 중요성을 같이 공감을 못한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 정말 몇 분만 나온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싶기도 했고. 이게 잘 되면 힘이 더 날텐데. 상담소 문제도 공감이 못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이종숙 : 회원 관리가 문제인 것 같다.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민우회가 보여주고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어야지 민우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다.

4. 본부에 바라는 점?

정윤정 : 아이들이 10대, 20대 되면서 고민들이 많은데 그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환경단체 보면 청소년 동아리나 모임도 많고 여기서 활동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워낙 결혼, 육아 하면서 여성의 삶이 다가와서인지 그런 식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박봉처럼 다르기도 하지 않나. 10대, 20대가 성평등하게 자라지 않는다. 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고민이 있었으면 같이 했으면 한다. 가장 갑갑한 것은, 부설로 생협이 생겨서 뭔가 잘 얘기하지 않으면 상담소처럼 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부설로 빼지 못하는 이유로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부설은 스스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우회 부설이라는 게 고민이다. 생협도 매출, 판매, 소비에 신경쓰다 보면 원래 생협을 시작한 취지가 있는데. 정보공유만 하는 정도지 같이 운동을 끌고 간다든지 그런 게 없다. 본부도 그럴 것 같은데. 진주도 생협이 개별 법인이다. 그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는데.

손미옥 : 상담소 얘기 나오면서 사무처를 만들어서 상담소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다. 상담소와 결합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 결합(확대 운영위)하니까.

김인숙 : 고양이가 부설이 많아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고양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본부가 같이 고민해 주었다면 좋겠다는 것 확인했다.

서은애 : 사실 초창기에 본부와 지부 관계가 따로 갔던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도와줬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지역민우넷도 생기고 해서. 이것저것 지역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라서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간담회 진행도 참 좋고. 그 때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지부 총회 참석도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오니까 훨씬 좋더라.

춘천여성민우회-본부 간담회

자기소개는 밥먹으면서 진행하고 바로 본론으로 진행.

장소 : 춘천여성민우회 사무실

참석자 :

본부 : 김인숙(대표) 박봉정숙(대표) 나은 (지역 담당)

춘천 : 신현암(대표) 김영준(운영위원) 정윤경(운영위원) 이윤재옥(운영위원) 김호연(운영위원) 김진희(사무국)

2. 춘천여성민우회의 아킬레스건-치명적약점-은?

김호연 : 제가 제일 헛수가 안 되었으니까(가입2년차) 먼저 하겠다. 제 생각에 민우회의 아킬레스건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웬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진다. 뭔가 늘 평가받는다느 느낌. 난 안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단 생각은 든다. 나는 민우회에서는 새내기지만 보육운동을 10년 가까이 해 왔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이해도 있다. 한편으론 지역색깔 때문일까?도 싶다. 춘천은 참 익명성이 보장 안되는 지역 분위기여서. 조금 더 드러내고, 내가 망가진 대로 혹은 좋으면 좋은대로 보여지는대로 받아들여지는 조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난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잘 못했다는 평가 있으면 그냥 담에 더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것 그게 아킬레스건이다.

김호연 : 내가 얘기하는 건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 어렵게 지역에서 민우회라는 조직을 끌고 오신 건데 하다 보니 지쳐 있는 부분도 보이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애정이 많아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원치 않은 사람이 들고 날 텐데 이 조직에 들어온 상근자라들은? 제가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상근자가 금방 바뀌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희 샘(상근간사)이 좋은데 젊은 친구들이 이 조직 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란 생각도 한다. 왜 그런 애길 하나면 선배들이 푸쉬하는 마지막 세대가 나다. 사실 위대한 언니들이 있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니 언니들은 이제 어디갔지? 싶다. 왜 내 뒤에는 후배가 없을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민우회에 있으면서 왜 내 또래는 없는지, 왜 상근자는 자주 바뀌는지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09년 10월에 춘천에 이사와서 12월에 제발로 와서 가입했다. 사실 총회 보고 충격이었다. 예전 본부 총회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왜 지부에서는 그 분위기가 안 날까 싶어서 아쉬웠다. 발랄하고 가볍게 가면 안 될까 싶었고. 과거의 운동권적 방식으로 무겁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지 방법은 잘 모른다.

신현암 : 요즘 대표라는 직함이 아킬레스건 같다. 제가 그냥 회원, 운영위원일 때는 느낀 거 자유롭게 얘기하고 나랑 코드 맞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만나고 했는데, 이젠 다 아울러야 한다. 그게 성격상 약간 부딪히긴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2년차에서 11,12년차까지 다양하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 배워야 하는 것도 있고. 대표로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전에 있으신 분들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아우르는 일을 신경쓰다보면 또 그것이 중심을 잃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도 살짝 든다.

이윤재옥 : 사실 헛수는 오래 됐는데. 교차로 신문보고 민우회 들어왔다. 11명의 대표와 15명의 상근자를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뭇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만큼 같이 가는 거다. 회원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울림이란 통기타 소모임 진행 중) 일단 운동단체니까 다들 어렵게 접근해서. 사람들이 저쳐

럼 쉽게 접근해서 같이 가면서 건강한 단체가 되었음 좋겠고 사실 나도 민우회 활동하면서 직장을 참 많이 바꿨다. 일하면서 부닥치는 문제로 버거워서 아직 민우회에 백프로 올인은 못해봤다. 지금은 독거노인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26명이 670명을 돌보고 있다. 쪽방들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니 생활이 완전 바닥이다. 그런 여성들의 삶이 지금 나에게 많이 다가온다.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를 고민 중인데, 이런 것도 사업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민만 하다가 끝난다.

김영준 : 민우회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 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좀더 빨리 추진하고 싶는데 그 템포가 느릴 때. 그게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함부로 저지르지 못한다. 사무실 이전 문제에 봉착했다 치자. 재정이 충분하면 어떤 형태든 결정을 쉽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 회의할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경제적인 부담이 우리의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자발적인 평생회원 하면 좋겠는데 나도 그러질 못 하고. 민우회의 재정적인 기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목돈으로 기부하는 사람을 볼 때 솔직히 좀 소심해졌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도 돈을 뚝 떼어서 후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보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 지금은 나 자신이 그걸 극복하긴 했지만.

정윤경 : 김호연샘이 왜 내 뒤에는 없을까 고민한다고 했는데 김호연 샘 들어오기 전까진 제가 그랬다. 뉴페이스의 부재. 이게 춘천의 아킬레스건이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찌르는 얘기도 해 주고 팍팍 얘기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당시에는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생각하게 되고 발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 특히 춘천은 잘 안모이고 이런데. 이제 나도 40대가 되었는데 이제 30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행사 때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참 많이 오시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참 활기가 넘친다.

김진희 : 일부러 말 아끼고 그런 건 없다. 뭘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딱 짚기가 애매해서. 사실 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시민연대에서 일 해 왔다. 민우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던 점이 있다. 민우회를 잘 몰랐는데도 좋았던 건, 살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민우회는 그게 선명해 보였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2천년대 들어 회원수 정체, 대안 부재 이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저는 민우회를 알게 되었던 계기가 전 상근자 때문이었다. 삶의 대안처럼 이곳에 발을 디게 되었다. 힘든 것도 있다. 앞에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작은 거긴 한데, 아킬레스건이라고 딱 말하긴 뭐하지만 우선 지역이 아킬레스건 아닌가 싶었다.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기 한데 작년에 문화제 하면서 리플렛 만드는데 페미니스트란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레드걸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지역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벽을 만들 수 있다, 거부감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이 문제인 건지 여성이 문제인 건지. 여성예술가가 스스로 칭하는 표현도 우리가 검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데 지역에 중심을 둔 사업은 늘 보면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 거기서 오는 혼란. 처음엔 아킬레스건을 본부라고 할까 생각도 해 봤다. 본부가 생산하고 달려나가는 것에 비해. 그걸 보니까 마음은 빨리가는데 지부의 현실은 느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건지 방향을 어찌해야 할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다 같은 한계가 있고 여성단체들도.

신현암 : 춘천민우회는 좀 유식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단체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있는 것 같다.

김진희 : 사실 민우회는 똑똑한 여자들이 끌어 가는 단체라는 게 고정관념이긴 한데 그런게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외부의 시선 중에 민우회가 내부 활동에 치중한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 그건 맞지는 않다고 본다.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들 지금 지역에 없는데 말이다.

4. 본부에 바라는 것은?

신현암 :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되고 나서 하기보다 사전에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혹은 활동가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 장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신현암 : 신입 상근자도 신입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본부에서 분기 별로 있다든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제가 04년에 가입했는데 신입회원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새내기 여성학은 있긴 했지만. 그게 신입회원교육이 되진 못하는 것 같다. 그 때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서 새내기 여성학을 안 들었다. 진보적 여성단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심정적 지지를 가지고 가입했었다. 사실 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김영준 : 새내기 교육이란 게. 행동강령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교육되고 훈련된 것 같다.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정해 둔 교육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활동하면서 바뀌지 않을까.

이윤재옥 : 민우회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면 좋겠다. 그걸 보고 잘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 사례건 조직 사례건.

김진희 : 상근활동가 교육을 하면 좋은데 2시간 정도 교육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지는 좀 소모적이다. 식당회의 같은데서 다른 지부 상황을 들으니까. 또 상근하고 있어서 공유하는 지점이 꽤 있다고 본다. 대표님이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상근자가 매뉴얼이 있다고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름다운재단에 가서 기부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후원을 잘 조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량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다.

신현암 : 소통의 기술 같은게 필요할 것 같다.

김영준 : 춘천민우회가 요즘 교육사업이 많이 줄었다. 제가 들어올 때에 비해서. 저도 대중강좌 통해서 회원이 되었고. 여러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그런데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교육 대상자가 신입회원 중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회원릴레이 통해서 회원 가입은 하지만 후원회원 수준인 거다. 한편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한 이유도 있긴 하다. 회원들을 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들이.